

於斯買 (제17호)

# 어사매



도유형문화재 제60호 신대리 3층석탑

## 황성문화원

## 橫城郡民憲章

우리 橫城은 우람한 泰岐山의 氣象과 悠悠히 흐르는 蟾江의 精氣를 받은 고장으로 豐饒을 謳歌하며 人情을 나누면서 子孫萬代가 살아갈 永遠한 삶의 터전이다.

이땅에 사는 우리는 先烈의 드높은 抗日 救國精神과 愛鄉心을 이어 받은 자랑스러운 郡民으로서 創意와 叡智를 한데 모아 살기좋은 새 橫城 建設의 主人으로 身命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첫 째 : 우리 郡民은 항상 反省하고 부지런히 배워 참되고 바른 사람이 된다.

둘 째 : 우리 郡民은 서로 믿고 사랑하며 英才를 키우는 복된 家庭을 이룬다.

셋 째 : 우리 郡民은 어른을 尊敬하고 이웃을 아끼며 웃음이 넘치는 마을을 이룬다.

넷 째 : 우리 郡民은 地域特性을 살리고 科學的 研究와 實踐으로 豐饒로운 내고장을 만든다.

다섯째 : 우리 郡民은 正直, 秩序, 創造, 協同의 生活化로 맑고 밝은 社會를 이룬다.

여섯째 : 우리 郡民은 崇高한 3·1精神을 이어받아 나라에 忠誠하는 國民이 된다.

## 황성의 상징



### 군기

21세기를 향한 황성군민의 무한한  
도약과 인간 중심의 밝고 희망찬  
삶을 뜻한다.



### 군의새 / 백로

은백의 눈부신 자태는 군민의  
순결함을 뜻하며 서원면 압곡리  
일대에 무리지어 여름을 난다.



### 군의꽃 / 함박꽃

녹색의 넓은 잎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말하며 탐스럽고  
화려한 꽃은 군민의 높은 기상과  
밝은 미래를 뜻한다.



### 군의나무 / 느티나무

군목의 느티나무는 나무의 수명이  
길뿐만 아니라 우람하며 무한히  
성장하는 황성군을 뜻한다.



## 제 10대 횡성문화원장 취임

지난 7월10일, 향토문화창달을 위해 헌신한 제9대 심진항 전 문화원장에 이어 현 이일영원장이 제10대 문화원장에 취임했다.



◀ 제9, 10대 문화원장 이.취임식



강원도 지회장 및  
횡성문화원 이사진 ▶

- 발 간 사 ..... 횡성문화원장 이일영 · 9
- 축 사 ..... 횡성군수 조태진 · 10
- 축 사 ..... 횡성군의회 의장 박명서 · 11
- 축 사 ..... 횡성교육청 교육장 김광기 · 12

**I. 향토문화 창달**

- 횡성문화예술의 발전구상 ..... 이일영 · 15

**II. 강원문화 인물 선양**

- 조선시대 횡성인물 고흥산의 현대적 재조명 ..... 강대덕 · 21

**III. 향토문화 연구문 · 향토사료**

- 태종이 각림사에서 “召慰古老”한 것에 대하여 ..... 이영식 · 41
- 복술의 송경 ..... 박관수 · 52
- 사회 변동에 따른 소의 역할과 우시장의 변모 ..... 윤재성 · 63
- 지방자치 1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 고석용 · 94



IV. 학술세미나 연구논문

- 황성의 명칭과 역사의 재조명 ..... 원영환 · 101
- 황성의 민속과 관광화 방안 ..... 김의숙 · 117
- 황성동족마을의 구조와 운영 ..... 오영교 · 145
- 황성지역의 항일민족운동 ..... 강대덕 · 176

V. 어사매 문화마당 (산문, 시, 한시, 기행문)

- 추억이야기 ..... 조규영 · 209
- 간판내린 알고파 서점 ..... 이효자 · 213
- 민들레 ..... 박현숙 · 215
- 어떤영혼의 동행 취재기 ..... 정금자 · 216
- 섬강추경 ..... 정병류 · 218
- 초설 ..... 송인석 · 219
- 유적답사 기행문 ..... 안석훈 외 · 220
- 전통문화체험 답사기 ..... 오광섭 · 225

VI. 문화원 소식 및 회원명부

- 문화원소식 ..... 228
- 임원및 회원명부 ..... 232



## 發 刊 辭



이 일 영

횡성문화원장

임오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는 세월에 2002년 한 해 동안의 향토문화전반을 수집·정리·발굴·보존하는 「어사매17호」의 발간을 군민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며 어려운 여건속에도 지역문화창달과 문화사업을 위해 성원을 보내 주신 문화가족, 그리고 선후배 제위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문화와 예술이라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의 슬기로운 심성과 기질을 고양하고 조명하며 건전하게 이끌어 주는 정신의 정화 수단으로써 국민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문화원에서는 문화라고 하는 측면이 감당해야 할 우리군민의 심성과 정서함양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향토문화예술진흥에 역점을 두고 지역문화창달을 선도하는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위해 가일층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사매17호」의 발간과 더불어 우리고장의 향토문화가 한 차원 높게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군민여러분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일조가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귀중한 옥고를 보내주신 문화인 그리고 내외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祝 辭



조 태 진

황성군수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새로운 지역문화창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 제17호 어사매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첨단산업사회를 달려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황성문화원을 기축으로 하여 황성군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는 책자발간에 앞장서 노력하고 계신 이일영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토애향지인 『어사매』 속에는 황성군의 과거와 미래가 담겨있는 소중한 자료로 우리고장 선조들의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후손에게 우리고장을 바로 알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고장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하여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주시옵고 현대문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황성군민의 문화수준향상과 정서함양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 관광의 시대를 맞이하여 인심 좋고 후덕하며, 이웃과 같이 포근함이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황성군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 탄생하는 제17호 어사매의 발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祝 辭

박 명 서  
횡성군의회의장



지역의 향토문화와 예술의 맥을 잇는 어사매 17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마음의 등불이자 생명을 이끄는 문화의 계승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이일영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높아지는 빌딩과 아파트 숲속에서도 문화는 인간의 본질을 일깨우고 있으며 사람의 가치는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결국 문화의 가치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문화는 사람다운 생활의 모든 것이라 하겠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문화의 영역과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문화에 대한 참여와 향유는 현대인이면 누구나 갈망하는 삶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모두의 마음속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전통적인 안목과 솜씨가 있으면 그어떤 문화가 밀려와도 독특한 문화예술을 새로이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사매가 군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향토문화의 소중한 사료로 교육현장에서도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횡성의 역사와 소중한 작품을 수록한 어사매의 발간에 열정을 다바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횡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祝 辭



김 광 기  
황성교육청 교육장

우리 향토 문화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향토문화지 『어사매』 제17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과 정보에 바탕을 둔 문화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은 운명공동체로서 오랜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그렇고 보니 어디를 가더라도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유산을 발굴해 내고 소중하게 가꾸어 갈 때 비로소 생명을 잃지 않고 온전히 제 빛을 발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노력이야말로 오늘의 새로운 문화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황성문화원이 일구어낸 업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황성의 고을고을마다 숨어있던 이야기나 노래들을 찾아내어, <황성의 구비문학>이라는 방대한 저술을 남긴 것은 황성문화원이 이루어 낸 크나큰 업적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직접 답사하면서 조상님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노래들을 채록하고 집필하신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와 이러한 소중한 자료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황성문화원의 끊임없는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옛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오늘날의 풍조에 반성의 기회와 함께,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교훈을 심어 준 본보기가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갈 때 미래의 발전도 이룩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고장의 전통과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을 통하여 향토애를 바르게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 향토지 『어사매』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통의 진정한 가치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깨닫도록 하는데 언제나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어사매 (제17호)

1. 향토문화창달  
횡성문화예술의 발전구상



## 橫城文化藝術의 發展構想



이 일 영/문화원장

### I. 文化의 意味

元來 文化라는 用語는 다소 高級스럽고 회소가치가 있어 일반사람과는 거리감이 있는 듯 하나, 근자에는 우리 日常生活 가운데 文化라는 말이까지 않는 경우라고는 거의 없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그 自體가 文化라는 증거일 것이다.

文化는 바로 우리 人間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韓國文化는 韓國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흔적에 바탕을 두되, 앞으로 保存하여야 할 것과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슬기롭게 가려 넘으로서, 그것을 하나의 傳統文化로 계승 發展시키는 지혜로운 政策과 目標과 文化意識이 必要하다.

世界化라는 美명이나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우리文化와 역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될 일이다.

文化는 大別하여 精神文化와 物質文化, 傳統文化와 現代文化, 民俗文化와 生活文化로 분류할 수 있다.

現代先進社會에서는 文化, 藝術, 體育이 한데 어우러져 發展할때, 地域社會와 나라가 發展하고 질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지금은 우리의 삶과 의식의 총체인 文化의 전략이 요청되는 때이다. 무엇이 人間답게 살 수 있는 길인가, 무엇이 先進國으로 가는 길인가, 무엇이 선진國으로 가는 잣대인가, 그 기준이 바로 文化, 藝術, 體育이 아닌가,

II. 文化, 藝術, 體育이 地域社會와 國家發展 삶의 質 向上에 갖는 비중 그 비중이 너무 크다. 과거는 무력전쟁이었고 오늘날은 무력전쟁이 전개되고 앞으로는 國家와 國家間 民族과 民族間에 보이지 않는 文化戰爭이 예상된다.

요즈음 日本을 비롯한 先進國일각에서는 自己나라의 固有文化를 世界の 젊은층이나 知識층에 전파하기 위하여 막대한 投資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文化를 商品化하여 보급시킴으로서 일차적으로 自國에 對한 이미지와 선호도를 높이고 이차적으로 우리나라 文化의 世界化라는 틀속에서 文化예속을 피하는 것이다. 20세기에는 공업과 산업이 이끌어 왔으나 21세기는 지식정보문화가 이끌어간다. 즉 21세기는 文化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반만년의 오랜 歷史를 가진 우리 民族은 우리나라 歷史가 始作된 이래 우수하고 찬란한 文化를 계승 發展시켜왔다. 이제 새로운 時代에 부응하는 國家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文化藝術을 綜合整理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여 진정한 意味의 先進國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 Ⅲ. 그러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나 國家가 各種 計劃과 政策을 수립할 때에 文化藝術에 基礎를 두어야 한다고 生覺하며 全國民의 文化藝術에 對한 意識, 觀心 제고와 教育이 必要하다. 따라서 文化藝術을 발굴하고 창안 활동에 必要한 예산확보와 지원이 必要하다. 또한 文化藝術 基盤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 하므로 이에따른 관심과 투자가 요구된다. 先進國은 이미 50~100년 전부터 문화기반을 갖추었다고 한다. 文化藝術을 담을 그릇이 절대 必要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관, 공연장, 문화회관 등 문화 예술 기반의 확충과 구축에 보다 많은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통문화 발굴 보존 전수에 힘쓰고 우리나라 역사교육에도 더욱 힘써야 하며 우리나라 文化藝術이 外來 文化藝術에 위축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한다.

### Ⅳ. 문화예술이 갖는 힘

- 文化藝術은 제5의 生産要素이다. 물량적 經濟發展 다음 단계에서는 고품질의 재화와 서비스만이 치열한 국제경쟁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고도화와 첨단화 그리고 독창적이고 세계적인 文化藝術의 힘 즉 오랜세월에 걸친 文化的 藝術的 창조력에 依해서만 可能하다.
- 高級文化와 藝術은 國力신장의 바로 미터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문화와 문화재, 예술은 세계 속에서 크게 떨쳐 우리나라 위상을 높였다.
- 文化藝術은 觀光의 主體이다.

V. 이상과 같은 근거와 必要에 따라 횡성문화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켜 향토문화장달을 구현하고자한다

1. 地域文化藝術의 계발 발굴 보존 전승 선양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자료수 집 보존에 박차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지역에 산재해 있는 향토사료를 조사 정리하여 사료집을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2. 地域鄕土 文化藝術의 國內外 교류에 힘쓰겠습니다.
3. 문화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文化院 會員倍加運動을 전개하겠습니다.
4. 횡성군민이 질 좋은 各種文化藝術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창출하겠습니다.
5. 향토사 전문가와 문화예술 전문요원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6. 우리지역의 문화유물과 예술품을 전시 보관하고 군민의 文化藝術活動(공연창작등) 공간을 확보하고 각종 문화예술도서를 장서할 수 있는 문화원 단독 院畝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문화유적지와 고적을 발굴 보존하는데 힘쓰고 문화체험의 장으로 삼는데 힘쓰겠습니다.(예, 태기산성 운무산성을 역사적으로 재조명 관리 등)
8. 문화학교와 문화사랑방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9.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장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형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힘을 모아 관심을 쏟겠습니다.
10.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예술활동에 적극 지원 육성하도록 최선의 힘을 경주하여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21세기 선진문화예술의 고장이 되도록 모든 문화원의 역량을 결집해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橫城郡民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文化藝術發展은 물론 地域社會와 國家가 發展 復興하는데 본 문화원이 선도적 역할을 앞장서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사매 (제17호)

II. 강원문화인물선양  
조선시대 횡성인물  
고형산의 현대적 재조명



조선시대 橫城인물

## 高荊山の 현대적 재조명

姜 大 德(獨立紀念館 教育開發部長)

高荊山은 橫城이 낳은 대표적 인물로서 1453(端宗 1)에 태어나 1528(中宗 23)까지 살았던 朝鮮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橫城이고, 자는 靜叔, 시호는 위열(威烈)이며, 啓功郎(從7品官) 典獄署 丞<sup>1)</sup> 思信(贈 崇政大夫 議政府 左贊成)의 아들이다.

1480년(成宗 11, 庚子) 小科(式年 生員試)를 거쳐 1483년(성종 14, 癸卯) 春塘臺試 文科에 兵科로 급제한 이후, 1494년(성종 25) 砥平縣監을 역임할 때 백성들의 숨은 고동을 부지런히 돌보며 그 폐단을 제거하는 데 힘썼다고 하여 宣務郎(종6품관)에서 承訓郎(정6품관)으로 가자되었으며, 1499년(연산군 5)에는 종사관으로 1500년에는 司憲府 掌令으로 있다가 잠시 함경도 敬差官을 역임했으며, 1501년에는 司諫院 諫院이 되었다.

그 해에 영의정 한치영(韓致亨)·성준(成俊)·이극균(李克均)이 등이 나랏일에 갑절로 일하니 고흥산에게 포상할 것을 청하니 두 품계를 올려 주었다. 그리고 1502년(연산군 8)에는 사헌부 집의를 겸직하게 하고, 다음해인 1503년에는 고흥산에게 해주목사로 발탁하여 큰 임무를 맡기게 되니, 특별히 두 품계를 올려 제수하였다. 1504년에는 함경북도 節度使로 재직하면서 嘉善大夫로 特加받았다.

1507년(중종 2)에는 함경도 관찰사에 제수되어 그는 함경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慶興府와 撫夷堡, 安邊府 高山驛, 北靑府 濟人館, 吉城縣 嶺東驛 등이 본 읍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창고에 곡식을 거둬들이고 훔을 때나 田稅 받아들이 때가 되면 밤을 새며 왕래하게 되니, 도적맞을 것이 염려됩니다. 각처에 창고를 설치하여 백성들을 편리하게 하여 주도록 하여 추진하였다.

한편 1510년(중종 5)에는 고흥산이 왜적을 방지하는 계책을 올려 따르게 하였고, 社倉法을 써서 救荒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호조에서 우리나라 민속이 중국과 같지 않아서 시행함에 불편이 있다 하여 일이 결국 행하여지지 않았다.

같은 해 함경도 관찰사직을 마치고 同知中樞府事를 제수 받았으며, 그 해 10월에는



형조참판이 되었다가 바로 보름만에 형조판서가 되었다. 1511년 고흥산의 계모가 나이 79세가 되어 衰疾한 사실과 자신의 신병을 칭하며 사직하고 고향 횡성으로 갈 것을 결심하려 했으나, 같은 해 11월 중종은 고흥산을 강원도관찰사로 발령을 내면서 고향에서 모친을 봉양하면서 목민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특히 돋보이는 것은 강원도관찰사로 재직할 당시, 江陵津·三陟津·同浦·蔚珍浦·大浦 등 다섯 鎮浦의 성을 쌓아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등 왜적을 방비하는 계책을 중앙에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쌓여있는 행정상의 불만을 정리하여 상소<sup>2)</sup>를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모든 고을의 옛 縣吏들이 進奉에 참여하는 생기는 폐단을 아뢰어 이를 중지시키기도 하였다.

1512년에는 轉運使로 재직하다가 고흥산이 계모의 상사를 이유로 사직하였다.

이후 횡성으로 내려가 있다가 병을 얻었는데 중종이 친히 약물을 내리고 開素<sup>3)</sup>하도록 하였다.

1514년(중종 9) 9월에는 漢城府 判尹을 제수 받았으나, 곧이어 10월 1일에는 고흥산(高荊山)을 戶曹判書로 제수하였다. 그 해 11월에는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으나, 시간원의 논핵으로 체직되었다.<sup>4)</sup> 그 해 12월에는 공조판서로 제수하였으나, 곧바로 호조판서로 관직을 제수하였다. 그 후 병조판서 및 호조판서를 오랫동안 역임하면서 중종의 신임을 얻어 중임하게 하였다. 병조판서 고흥산이 눈이 어둡고 귀가 멀었으면서도 그 직임에 오래 있었다 하여 두세 차례 사직하였으나 중종은 윤허하지 않았다.<sup>5)</sup>

그는 1516년(중종 11) 1월 兵曹判書에 제수되자, 5월 18일에는 高荊山이 와서 죽궁(竹弓)을 바치고 아뢰기를, “이 활의 세기가 목궁(木弓)보다 갑절이 되어, 살을 쏘면 80여 보(步)를 지날 수 있으니, 우선 써 보아서 쓸 만하면, 모든 군사가 지니는 활 및 군기시(軍器寺)의 활은 이것을 본떠서 만드는 것이 어떠합니까? 신이 변방에 오래 있으면서 보니, 각궁(角弓) 같으면 흠비[雨] 때에 쉽게 파손되나, 대[竹]는 흠비를 당할지라도 파손되지 않습니다. 신이 이미 시험하였으므로 와서 바칩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이 활을 보니 과연 좋다. 이제 각궁도 희귀하니, 군기시에 내려서 이것을 본떠 정밀하게 만들어 써 보게 하여, 쓸 만하거든 많이 만들어서 무고(武庫)에 저장하고, 또한 군사로 하여금 널리 쓰게 하라.” 하였다.

1518년 조광조(趙光祖) 일파의 정치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한 사람으로 현량과(賢

良科: 賢良方正科)의 실시 등을 극력 반대하였으며, 1519년 남곤(南袞) 일파와 함께 기묘사화(己卯士禍)를 일으켜 신진세력을 축출하였다. 곧고 근검한 성품으로 수리(數理)에 밝아 행정능력이 뛰어났다. 그 후 耆老所에 들어가 활동했다.<sup>9)</sup>

또한 고형산이 함경도 도사·경차관, 해주목사, 함경북도 절도사 및 함경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면서 누구보다 북방의 군사적인 일에 능통한 고형산은 평소 성질이 질박하고 정직하여 매우 부지런하고 검소하였다.

오랫동안 군의 병사와 금전, 양곡을 관리하는 병조·호조를 관리하는 직임을 맡아 처리가 매우 정밀하였으며, 일을 정비한 것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이 시기에 주목받은 것은 대관령 길을 개통한 일이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도로를 개설해 백성들의 편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선생의 사망 후 병자호란으로 주문진에 상륙한 적군이 선생이 개설한 도로를 따라오는 바람에 한양이 함락 당했다는 이유로 인조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그러므로 고형산은 무거운 죄를 뒤집어쓰게 되었다.

반면 후일 경강로(京江路)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선생의 무고함이 입증되어 밝혀지고 그에 대한 업적이 재평가되어 위열공(威烈公)이라는 시호와 함께 횡성군 정암리 망백마을 주변의 사방 십리 땅을 하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당시 현실을 무시하고 급진정책을 시행하는 등 지나친 이상주의를 펼치는 조광조 일파의 정치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한사람으로 賢良科의 실시를 반대하며, 급기야 1519년 남곤 일파와 함께 己卯士禍를 일으켜 신진세력을 축출하는데 공헌했다.

고형산은 종종 때 강원도관찰사와 형조·호조·병조판서 등 요직을 차례로 역임하고 우찬성에 이르렀다. 특히 1507년(중종 2) 江原道觀察使로 있을 때 富國強兵을 위한 제도개혁을 상소한 바 있으나, 정치성향은 대체로 보수적이었다.

조선시대 성종조에 文科시험에 급제한 고형산의 문과방목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고형산(高荊山) 文科榜目

성종(成宗)14년(1483년), 춘당대시(春塘臺試) 병과(丙科) 21人 及第

□ 인적사항

생년(生年) 1453(癸酉)

자(字) 정숙(靜叔)

시호(諡號) 위열(威烈)  
 본관(本貫) 횡성(橫城)  
 거주지(居住地) 미상(未詳)<sup>7)</sup>  
 諡號, 封號 익평(翼平)

□ 가족사항

부(父) 고사신(高思信)  
 생부(生父)  
 조부(祖父) 고습(高襲)<sup>8)</sup>  
 증조부(曾祖父)  
 외조부(外祖父)  
 처부(妻父)

□ 이력 및 기타

소과(小科)  
 특별시(特別試)<sup>9)</sup>  
 전력(前歷) 생원(生員)  
 품계(品階)  
 관직(官職) 우찬성(右贊成)

문과급제자 명부인 『국조방목(國朝榜目)』은 조선 太祖 초기부터 1877년(高宗 14)까지 文科 及第者를 기록한 책으로 방목에 기록된 본관별 高氏 문과 급제자를 정리해 보면, 제주(濟州) 34명(43.04%), 장흥(長興) 16명(20.25%), 장택(長澤) 11명(13.92%), 개성(開城) 10명(12.66%), 안동(安東) 2명(2.53%), 횡성(橫城) 2명(2.53%), 강화(江華) 1명(1.27%), 연안(延安) 1명(1.27%), 미상(未詳) 2명(2.53%)으로 총 79명 이른다. 장택(長澤)은 장흥(長興)의 옛 지명으로 장흥과 본관이 같다. 실제 장흥고씨 합격자 수는 27명이다.

▶ 안동고씨(安東高氏) 문과급제 명부

姓名(성명)	字(자)	號(호)	試驗(시험)	등위(等位)
고응척(高應陟)	숙명(叔明)	취병(翠屏)	명종16(신유, 1561) 식년시(式年試)	丙科5

고한운(高翰雲) 자룡(子龍) 靑陽(청양) 선조18(을유, 1585) 식년시(式年試) 甲科1

▶ 횡성고씨(橫城高氏) 문과급제 명부

姓名(성명) 字(자) 號(호) 試驗(시험) 等위(등위)

고형산(高荊山) 정숙(靜叔) 위열(威烈) 성종14(계묘, 1483) 춘당대시(春塘臺試) 丙科21

고경오(高敬吾) 여일(汝一) 선조38(을사, 1605) 증광시(增廣試) 丙科11

▶ 강화고씨(江華高氏) 문과급제 명부

姓名(성명) 字(자) 號(호) 試驗(시험) 等위(등위)

고위규(高緯奎) 문백(文伯) 숙종6(경신, 1680) 별시(別試) 丙科(?)

▶ 연안고씨(延安高氏) 문과급제 명부

姓名(성명) 字(자) 號(호) 試驗(시험) 等위(등위)

고대혁(高大赫) 광안(光顏) 명종4(기유, 1549) 식년시(式年試) 丙科24

▶ 본관미상(本貫未詳) 문과급제 명부

姓名(성명) 字(자) 號(호) 試驗(시험) 等위(등위)

고득중(高得宗) 세종9(정미, 1427) 중시(重試) 乙科2

고신교(高愼驪) 상경(商卿) 澹齋(담재) 세종26(갑자, 1444) 식년시(式年試) 丁科18

□ 高荊山선생(1453~1528)의 현대적 의미

高荊山은 대관령 길을 개통했다는 이유로 한때 왕의 분노를 사면서 묘주위 문관석의 목이 베어지는 수난을 겪기도 했으나 무고함이 밝혀지면서 원상태로 복원됐다.

대관령에는 고갯길을 내고 두 번씩이나 죽음을 당한 사람의 얘기가 전해진다. 본래 대관령 고갯길은 오솔길이었으나 이 길은 조선 중종 때 고형산이라는 사람이 우마차가 다닐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사재를 털어 수개월간에 걸쳐 완성했다는 것. 하지만 그 후 세월이 흘러 병자호란이 일어나 청나라 군대가 주문진에 상륙, 이 대관령 고갯길을 이용해 쉽게 한양을 함락당했다는 이유로 인조는 고형산의 묘주위 문관석을 훼손하고

묘를 파헤치는 등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高荊山の 공적을 높이샤 왕은 횡성군 정암리 망백마을 주위의 사방 십리땅을 하사했다. 강원도 관찰사와 우찬성의 벼슬까지 행정력을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해 백성들에게 추앙 받은 인물이다.

성품이 정직하며 부지런하고 검소했던 선생은 오랫동안 병사와 금전과 양곡을 관리하는 직임을 맡아오면서 종종 11년에는 곡식을 저축해 두고 흉작에 대비하는 사창법(社倉法)을 실시해 백성을 구휼할 것을 주장하는 등 백성의 입장에 서서 모든 행정력을 발휘했다.

이처럼 高荊山은 단종 1년(1453년)에 태어나 중종 23년(1528년)까지 평생동안을 백성의 입장에서 불만을 듣고 직접 상소하는 등 백성들의 존경과 칭찬이 자자했다.

하지만 아직 선생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선생의 본관이 어디인지, 출생지는 과연 횡성이 맞는지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橫城高氏 종중과 학계에서는 『文科榜目』·『司馬榜目』 등의 문헌의 기록에 따라 선생의 본관을 橫城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비해, 濟州高氏 종중에서는 고려말기의 무신인 화전군(花田君) 인비(仁庇)의 8세손으로 족보에 기록돼 있다는 것.

더욱이 화전은 옛 횡성의 이름으로 濟州高氏의 시조 耽羅王에서 갈라진 화전군파의 후손으로 종중에서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 시제를 올리고 있고, 매년 묘소를 맡아 관리하면서 선생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고있다.

출생지 역시 제주교씨 종중에서는 횡성 마산리로 주장하는 반면 지역학계에서는 지금까지 기록에는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문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고흥산의 업적을 새롭게 조명하고 향토인물로의 선양을 위해 그 동안 규명되지 못했던 선생의 출생지를 비롯하여 본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고 고흥산이 강원도관찰사로 부임하면서 쌓았던 공적 등을 연구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돼 향후 '강원(江原) 열' 횡성(橫城)의 인물 고흥산의 선양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기묘사화를 주도한 조광조를 축출한 조선시대 횡성의 대표적 인물인 高荊山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서 병사와 호조에 관한 업무에도 능한 행정관료였다.

고형산은 성종14년(1483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함경북도 절도사, 함경도 관찰사, 형조판서, 강원도관찰사, 사헌부대사헌, 우찬성 등 지방과 중앙의 요직에 두루 등

용됐으며 관리들에게는 강직하면서도 백성들에게 온화한 성품으로 귀감이 되기도 했다.

특히 함경북도 절도사와 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하면서 북방의 일에 능했고 강원도 관찰사로 있을 때는 강릉진을 비롯한 다섯 진포를 쌓는 일에 참여하면서 왜적의 침략에 대비하기도 했다. 또 백성들의 불만을 수렴해 임금께 적극적으로 상소하는 등 각종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을 폈다.

현실을 무시하고 급진정책을 시행하는 등 지나친 이상주의를 펼치는 조광조 일파의 반대대입장에 있던 선생은 1519년에는 남곤 일파와 함께 기묘사화를 일으켜 조광조를 비롯 신진세력을 축출하는데 공헌했다.

또 동서를 관통하는 대동맥 서울~강릉 도로를 개통하는 등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선생은 횡성이 낳은 최고의 향토인물로 추앙 받고 선양되기에 충분한 강원인물이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어른의 성품과 애국심과 공적을 후손에게 널리 전하고 귀감으로 삼아야 하며, 그의 숭고한 사상과 정신 혼이 청사에 영원히 살아 숨쉬기를 바라야 될 것이다.

※ 고흥산(高荊山)과 관련된 자료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 영덕현 盈德縣

성곽 읍성(邑城) : 돌로 쌓았다. 둘레가 1천 3백 97척, 높이는 12척이며, 안에 우물 하나, 못 하나가 있다.

관방 오포영(烏浦營) : 현 남쪽 17리에 있다. 수군만호(水軍萬戶) 한 명이 있다. 신증현 남쪽 13리에 있다. 순변사(巡邊使) 고흥산(高荊山)이 옛 군영은 바닷길을 내다볼 수 없다 하여 여기에 옮겨 설치하고 석성(石城)을 쌓았으니, 둘레는 1천 4백 90척, 높이는 9척이다.

○ 흥양현 興陽縣

동쪽으로는 사도진(蛇渡津)까지 43리이고 서쪽으로는 보성군 경계까지 78리에 이르고 남쪽으로 발포(鉢浦)까지 40리이고 북쪽으로 낙안군(樂安郡) 경계까지 82리에 이르

고, 서울과의 거리는 9백 34리이다.

진지연혁 본래 장흥부(長興府) 고이 부곡(高伊部曲) : 고이는 방언(方言)으로 고양 이[猫]다. 고려 충렬왕(忠烈王) 11년에 이곳 사람 유비(柳庇) : 뒤에 청신(淸臣)이라고 이름을 고쳤다. 가 통역(通譯)으로 원(元)에 가서 공이 있었기 때문에 고흥(高興)으로 이름을 고치고 현(縣)으로 승격시키고 감무(監務)를 두었다. 본조 태조(太祖) 4년에 왜인의 침입으로 인하여 관청을 이사하여 보성군(寶城郡) 조양현(兆陽縣) 땅에 붙어살게 하고 6년에 진(鎭)을 두고 병마사(兵馬使)로 현의 일을 겸하게 했다. 세종(世宗) 5년에 첨절제사(僉節制使)로 고치고 23년 또 장흥부(長興府) 두원현(荳原縣) 땅으로 옮기고 보성군의 남양현(南陽峴)을 떼어서 합치고 인하여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현감(縣監)으로 하였다.

관방 사도진(蛇渡鎭) : 현의 동쪽 43리에 있으며 좌도수군첨절제사(左道水軍僉節制使)의 영(營)이 있다. 관할하는 곳은 회령포(會寧浦)·달량(達梁)·여도(呂島)·마도(馬島)·녹도(鹿島)·발포(鉢浦)·돌산포(突山浦)이다. ○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한 사람이 있다. 녹도영(鹿島營) : 현의 서쪽 45리에 있으니 둘레가 30리다. 수군만호(水軍萬戶) 한 사람. 여도영(呂島營) : 현의 북쪽 59리에 있다. ○ 수군만호(水軍萬戶) 한 사람. 발포영(鉢浦營) : 현의 남쪽 40리에 있다. ○ 수군만호(水軍萬戶) 한 사람. 신증 울현보성(栗峴堡城) : 현의 남쪽 15리에 있다. 돌로 쌓았는데 둘레가 5백 35척이요, 높이가 7척이다. 절도사(節度使)가 권관(權管)을 보내어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했다. 백석포장성(白石浦長城) : 현의 남쪽 20리에 있음. 돌로 쌓았는데 길이가 1천 6백11척이요, 높이가 6척이다. 풍안평장성(豐安坪長城) : 현의 남쪽 22리에 있고 돌로 쌓았다. 길이가 2천4백 척이고, 높이가 6척이다. 이상 두 성은 가정(嘉靖) 계미년(癸未年) : 1523년(중종18)에 순찰사(巡察使) 고흥산(高荊山)이 적이 다니는 중요한 길이라 하여 조정에 보고하고 쌓은 것이다.

◆ 『문헌비고(文獻備考)』

○ 영덕현 盈德縣

진보 혁처(革處) 오포진(烏浦鎭) : 남쪽으로 17리이다. 순변사(巡邊使) 고흥산(高荊山)이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 현 남쪽 13리로 옮겼다. 중종조(中宗朝)에 축성(築城)하였다. 둘레는 1천 4백 90척이며, 수군만호(水軍萬戶)를 설치하고 후에 고쳤다.

○ 흥양현 興陽縣

성지 백석포장성(白石浦長城) : 길이는 1천 6백 11척이다. 풍안평장성(豐安坪長城) : 길이는 4백 척이며, 위의 두 성은 중종(中宗) 18년(1523)에 순찰사 고흥산(高荊山)이 적을 막는 요해(要害)지로 여겨서 쌓았다.

○ 서풍현 西豐縣

서풍(西豐)은 전남(全南) 고흥(高興)이다.

원래는 동풍과 서풍을 합하여 풍남이라 하였으나, 625후 인구증가로 인해 우체국을 중심으로 동쪽을 동풍 서쪽을 서풍으로 행정구역을 분리하였으며 주요 지형지물로는 북쪽끝 해안가에 북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하여 “북바위”라하고 이곳에서 예전에 소가 떨어져 죽었다하여 일명 “소떨어진영”이라 하는 곳이 있고 매년 음정월초에는 당산국을 치고 바다에 풍어를 비는 고사를 모시고 있다.

유래로는 본 부락 위치가 바닷가에 위치하여 예전에 왜구의 침범이 빈번하여 이를 막기위해 현 송정리 쪽으로 주민을 소개하여 이주케 하고 그 뒤 조선 중종 16년(1521)에 순찰사 고흥산이 왜적을 막기 위해 길이 2,400척 높이 6척의 축성을 하고 주민들을 다시 현 위치로 이주시켰다고 하는데 그 전설을 뒷받침하듯 현 풍남에서 남당까지의 축성된 기초부분에서 2-3톤 크기의 큰돌이 출토되고 있음.

◆ 고흥산이 개발하여 만든 활

○ 죽궁(竹弓)

죽궁은 전투시 사병용 보조 활이다. 일명 '병테기 활'이라고 불렀다. 죽궁은 1516년(중종 11년)에 兵曹判書 高荊山이 만든 활이다. 조선왕조의 중요한 國家防衛의 이슈였던 '國弓의 활 재료 國産化'의 일환으로 개발된 활이다. 죽궁에도 복합궁에 속하는 것과 단일궁에 속하는 것이 있다. 단순히 대나무로만 만든 것도 있지만, 대나무에 힘줄을 덧댄 죽궁도 있다.

◆ 고흥산과 관련되어 전해져 오는 야사

○ 대관령 길과 고흥산

백두대간이 동해를 끼고 설악산(1708)과 오대산(1563), 황병산(1407)을 일으키고, 대



관령에서 몸을 낮췄다가 다시 솟아오른 산이 능경봉이다.

겨울철에는 무릎이 빠질 정도로 눈이 많이 쌓이는 곳이나, 비교적 힘들이지 않고 눈 덮힌 겨울 산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능경봉 산행은 해발 850m가 넘는 대관령 고개마루인 대관령 남쪽휴게소에서 시작된다.

능경봉은 왕산면 왕산리와 성산면 오봉리, 평창군 도암면 황계리 사이에 있는 높이 1,123m의 산으로 대관령 남쪽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산정에 영천이 있어 기우제를 지냈고 이 봉에서 맑은 날엔 울릉도가 보인다고 한다.

대관령 줄기의 다른 산에 비해 산행거리가 비교적 짧고 대관령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수시로 볼 수 있어 각광받는 등산로이다. 제왕산의 모산으로 오르기가 다소 힘들거나 찾는 이가 적어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산이다.

대관령에는 고갯길을 내고 두 번씩이나 죽음을 당한 고행산(高荊山)이라는 사람 얘기가 유명하다. 본래 대관령 고갯길은 오솔길이었으나, 이 고갯길을 조선시대 중종 때 고행산이라는 사람이 사재를 털어 수개월간에 걸쳐 우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넓혀 놓았다. 따라서 강릉과 한양간의 교통이 편리해졌다.

그 후 세월이 흐른 후 병자호란이 일어나 청나라 군대가 주문진으로 상륙하여 고행산이 넓힌 대관령길을 이용하여 쉽게 한양을 침범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혼쫓았던 인조가 크게 노하여 고행산의 묘를 파헤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능경봉은 제왕산과 같이 대관령에서 산행을 시작하고 올라갔던 길로 되돌아오는 산행이 편리하다.

선자령 산행의 들머리는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전에 대관령 북쪽 휴게소에서부터 시작된다. 대관령은 영서와 영동을 연결하는 영동고속도로의 마지막 고개였으나 최근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터널을 뚫어 고갯마루는 옛길로 변해버렸다. 대관령의 동쪽사면인 강릉쪽은 아흔 아홉 구비를 돌아 내려가는 험준한 길로 옛날 대관령 정상에는 대령원을 두고 황계리에 황계역을 두어 험한 교통로를 유지하였다고 하는데 오솔길이었던 대관령 길은 조선 중종 때 고행산이라는 사람이 사재를 털어 우마차가 다닐 수 있게끔 길을 닦았다고 한다.

그러나 수십 년 후 1636년 12월부터 1637년 1월까지 있었던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주문진에 상륙하여 이 길을 따라 한양으로 쉽게 침범하자 혼쫓아 냈던 조선 인조임금은 크게 노해 고행산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高荊山 關聯史料

○ 成宗 25(己卯年) - 1494년 2월 2일(己卯)

경기관찰사 이세좌가 지평현감 고흥산을 가자하다

○ 燕山君 5(己未年) - 1499년 8월 7일(甲午)

고형산에게 삼수에 보 설치 여부를 살피게 하다

○ 燕山君 6(庚申年) - 1500년 1월 20일(乙亥)

성현 · 고흥산 · 강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燕山君 6(庚申年) - 1500년 1월 26일(辛巳)

장령 고흥산이 전토를 선택하여 주게 아뢰다

○ 燕山君 6(庚申年) - 1500년 1월 26일(辛巳)

고형산이 역로의 폐단을 아뢰다

○ 燕山君 6(庚申年) - 1500년 2월 6일(庚寅)

장령 고흥산이 각 관아에서 나누어 기르는 말의 관리를 책임지울 것을 청하다

○ 燕山君 6(庚申年) - 1500년 2월 9일(壬辰)

고형산이 사복시의 말에 대해 아뢴 것은 따를 수 없다고 하다

○ 燕山君 6(庚申年) - 1500년 4월 6일(己丑)

야인이 함경도 혜산에 살기를 청하므로 그 처리를 의논하다

○ 燕山君 6(庚申年) - 1500년 7월 3일(乙卯)

유순 · 김응기 · 성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燕山君 6(庚申年) - 1500년 7월 6일(戊午)

장령 고흥산 등이 장성을 쌓는 일의 불가함을 아뢰었으나 들어 주지 않다

- 燕山君 6(庚申年) - 1500년 7월 8일(庚申)  
송여해·이균·안진생 등의 일을 정승에게 의논하게 하다
- 燕山君 6(庚申年) - 1500년 10월 5일(丙戌)  
동지사 이승전이 함경도 남북 방수의 폐단을 상세히 아뢰다
- 燕山君 6(庚申年) - 1500년 11월 3일(癸丑)  
함경도 경차관 고흥산에게 삼수에 어떤보 없이도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지 조사케 하다
- 燕山君 7(庚申年) - 1501년 6월 23일(己亥)  
이계동·이극돈·이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燕山君 7(庚申年) - 1501년 7월 5일(辛亥)  
대사헌 성현 등이 성 쌓는 일을 중지하라는 상소를 올리다
- 燕山君 7(庚申年) - 1501년 12월 26일(庚午)  
한치형 등이 북방의 일과 고흥산에게 상줄 것을 청하다
- 燕山君 9(癸亥年) - 1503년 1월 4일(壬申)  
고형산을 해주 목사로 삼다
- 燕山君 9(癸亥年) - 1503년 1월 18일(丙戌)  
윤필상 등에게 부령진을 옹기는 일을 의논하게 하다
- 燕山君 10(甲子年) - 1504년 6월 2일(辛酉)  
함경북도 절도사 고흥산에게 가선을 더해 주다

- 燕山君 10(甲子年) - 1504년 6월 2일(辛酉)  
함경북도 절도사 고흥산이 전을 올려 은혜에 사례하다
- 燕山君 10(甲子年) - 1504년 7월 23일(辛亥)  
한성부 판윤 민효증이 남도의 행영 및 무산·풍산 등의 보를 옮겨 설치하는 일이  
은편하기를 아뢰다
- 中宗 1년(丙寅年) - 1506년 12월 11일(乙卯)  
대신들과 유승조의 차자에 대해 의논하다
- 中宗 1년(丙寅年) - 1506년 12월 13일(丁巳)  
특진관 고흥산이 아뢰다
- 中宗 2년(丁卯年) - 1507년 #1월 30일(甲戌)  
성희안·강흔·고형산·심정·남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中宗 2년(丁卯年) - 1507년 8월 1일(壬申)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이 경흥부·무이보 등에 창고 설치를 건의하다
- 中宗 3년(戊辰年) - 1508년 6월 18일(甲申)  
대간이 포렴을 계청한 일로써 고흥산을 추고할 것을 청하다
- 中宗 3년(戊辰年) - 1508년 6월 20일(丙戌)  
헌부가 고흥산의 일을 아뢰다
- 中宗 3년(戊辰年) - 1508년 12월 10일(癸酉)  
함경도 관찰사 고흥산이 보을하보의 복립·무산보의 이설에 관한 일로 장계하다
- 中宗 4년(己巳年) - 1509년 #9월 27(丙戌)

삼공이 고흥산의 잉임을 아뢰다

- 中宗 4년(己巳年) - 1509년 10월 20(戊申)  
고형산이 임금의 은혜에 대해 글을 올리다
- 中宗 7년(壬申年) - 1512년 2월 19일(甲午)  
강원도 관찰사 고흥산이 도내의 성 쌓기에 대한 방법을 보고하다
- 中宗 7년(壬申年) - 1512년 5월 14일(丁巳)  
강원도 관찰사 고흥산이 백성의 쌓인 불합리성을 말하다
- 中宗 7년(壬申年) - 1512년 6월 27일(己巳)  
강원도 관찰사 고흥산이 항해를 시험한후 조운하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보고하다
- 中宗 7년(壬申年) - 1512년 7월 13일(甲申)  
병조가 강원도에 강릉성의 기초와 돌 모으는 일이 끝났음을 아뢰다
- 中宗 7년(壬申年) - 1512년 8월 25일(丙寅)  
고형산이 횡성에서 병을 얻었으므로 약을 내리고 육식을 허락하도록 하다
- 中宗 9년(甲戌年) - 1514년 10월 25(甲寅)  
호조판서 고흥산 등이 각사가 축낸 잡물을 추정하도록 아뢰다
- 中宗 9년(甲戌年) - 1514년 11월 20(戊寅)  
간원에서 대사헌 고흥산을 논핵하다
- 中宗 9년(甲戌年) - 1514년 12월 27일(乙卯)  
고형산·안당·남곤·한형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中宗 11년(丙子年) - 1516년 5월 18일(戊戌)  
병조판서 고흥산이 와서 죽궁을 바치다
- 中宗 11년(丙子年) - 1516년 12월 25(辛未)  
병조판서 고흥산이 건강이 좋지 않으면서 그 직임에 오래 있었다고 사직하다
- 中宗 17(壬午年) - 1522년 1월 2일(庚戌)  
고형산이 사직을 청하니 윤희치 아니하다
- 中宗 17(壬午年) - 1522년 1월 17일(乙丑)  
고형산이 궐장에 대한 일과 사직을 청하니 윤희치 않다
- 中宗 17(壬午年) - 1522년 2월 18일(乙未)  
고형산에게 궐장과 교서를 내리다
- 中宗 17(壬午年) - 1522년 6월 22일(丁酉)  
비변사제조 정광필 · 장순손 · 고흥산 · 심정 · 안윤덕 · 한형윤이 왜적에 대한 대책을 아뢰다
- 中宗 23(戊子年) - 1528년 11월 20일(戊午)  
판중추부사 고흥산의 졸기

**<향토문화사 강좌>**

2002년 10월에 자랑스런 문화인물

고형산(高荊山) 先生 열 선양 강연회

- ◎ 일 시 : 2002년 10월 16일 (수) 오전10:30
- ◎ 장 소 : 횡성문화관
- ◎ 주 관 : 횡성문화원

◎ 후 원 : 횡성군, 전국문화원연합회강원도지회,  
강원도민일보사

○ 감 사 약 력

강대덕은 1955년 홍천출생으로  
성수고등학교 문과를 졸업하였으며  
관동대학교 사학과에서 한국사를 전공하여  
고려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강원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관동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관과  
상지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하였으며  
강원대학교, 광운대학교, 대진대학, 상지영서대학  
에서 한국사 강의를 하였고  
현재는 독립기념관에서 학예실장을 거쳐  
교육개발부장으로 재직중임.

연구업적으로 \_\_\_\_\_

「화서 이항로의 시대인식, 신서화」  
「한국문화사」(공저) 東史  
「화서 이항로의 현실대응론과 실천운동」  
「조선왕조실록 영월사료」(上下)  
「조선시대사료를 통해본 홍천」(I, II, III), 횡성,  
화천, 인제, 양구, 고성 사료집 편저  
「한강유역사 연구」(공저)  
「한국과 일본」(공저) 한일관계사학회  
「한국사와 동아시아」(공저) 東史  
「조선통신사와 일본」(공역) 지성의 샘  
그 외 다수의 논문과 연구저서가 있음.

- 1) 高麗時代 典獄署 관직으로 拘禁된 罪囚의 行刑을 맡아보던 正九品官職으로 高思信은 從七品官으로 階高職卑의 行職이었다.
- 2) 김원각, 『高荊山の 상소문』, 전통문화, 1984.
- 3) 素食하다가 肉食을 하는 것이다.
- 4) 이에 대해 사신이 논하가를 諫院이 고형산은 강직한 氣風이 없어서 사헌부의 長官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논박하였다. 그러나 외모는 비록 순박하고 진실하여 文飾은 적지마는 氣局이 宏偉하고 心志가 堅直하며, 처결할 때 임해서는 굳건하여 흔들리지 않고 일에 따라 치밀하게 다스렸으므로, 그때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중하게 여겼다.(『中宗實錄』 9년 11월 20일조 참조)
- 5) 사신은 논한다. 고형산은 寒微한 가문에서 發身하였지만 변방 계책에 유능하여 오래 北方을 鎮守했는데, 오랑캐들이 다투어 자기 자식 이름을 '고형산'이라고 했었다. 사 람됨이 학식은 없으나 처신이 간소하고 검박했으며, 국가에 도움되는 일이 자못 많 았다.
- 6) 高荊山은 橫城人으로서 小科와 大科에 급제하여 벼슬이 贊成에 이르렀다. 성질이 질 박하고 정직하며 부지런하고 검소하였다. 오랫동안 軍의 兵事와 금전의 糧穀을 관리 하는 兵曹·戶曹判書 職任을 맡아 처리가 매우 精密하였으며, 일을 정비한 것이 많 았다.(『新增東國輿地勝覽』 제46권 江原道 橫城縣 新增 人物 本朝 參照)
- 7) 姜大德, 「조선시대 司馬榜目 횡성지역 입격자」, 『조선시대 史料를 통해 본 橫城』, 橫 城文化院, 2001, 530쪽에 보면, 3年前 1480년 式年 生員試에 入格한 司馬榜目에는 거 주지가 橫城으로 되어 있다.
- 8) 『橫城高氏世譜』卷之上, 10쪽에 高襲은 濟州人으로 太宗朝때 官이 宣務郎行金城縣令兼 勸農團判이고 贈二品 資憲大夫吏曹判書兼義禁府都事로 명기되어 있다.
- 9) 司馬榜目에는 成宗 11년(1480) 式年試로 되어있다.(姜大德 編, 앞의 책, 530쪽 高荊山 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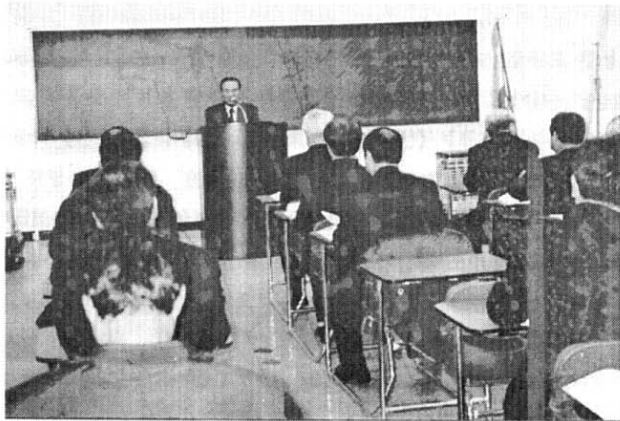


여사매 (제17호)

III. 향토문화 연구문 · 향토사료

태종이 각림사에서 '召慰古老' 한 것에 대하여  
복술의 송경

사회변동에 따른 소의 역할과 우시장의 변모  
지방자치 10년의 성과와 발전방향



# 태종이 각림사에서 ‘召慰古老’ 한 것에 대하여

- 강림 지역의 지명유래전설을 중심으로 -

이 영 식(횡성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위원)  
제12회 강원도향토문화연구발표회(최우수상)  
제17회 전국향토사연구발표회(장려상)

1. 머리말
2. 태종과 관련된 지명유래전설
3. <태종실록>에 나타난 태종의 행적
4. 맺음말

## 1. 머리말

태종(太宗)은 조선 3대 임금이다. 그리고 각림사(覺林寺)는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에 있던 사찰로, 기록에 의하면 태종은 재임기간 중에 각림사에 2번이나 거둥하였다.<sup>1)</sup>

이와 더불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46권 원주목(原州牧) 불우(佛宇)조에 보면 각림사에 대해 “在雉岳山東我太宗潛邸時讀書于址 後講武于橫城駐蹕是寺召慰古老 賜寺田民令州官?恤(치악산의 동쪽에 있다. 태종이 잠저에 있을 때에 여기서 글을 읽었다. 뒤에 횡성에서 강무할 때에 이 절에 머무르며 옛 노인들을 불러다 위로 하였다. 절에 토지와 민호를 주고 주의 관원으로 하여금 조세·부역 등을 덜어주게 했다.)”<sup>2)</sup>와 같이

- 1) 태종 14년 윤9월 14일(갑인)과 태종 17년 3월 5일(신묘)인데, 갑인일에는 횡천 실미원(지금의 횡성 안흥)에서 강무(講武)를 마친 후에 간 것이고, 신묘일에는 처음부터 각림사를 목적지로 하여 간 것이다.(이상은 <국역 조선왕조실록> CD-ROM, 서울시스템에서 발매·정리한 것이다. 이하 <조선왕조실록>에 관한 내용은 모두 이것을 참고했다.)
- 2) 고전간행회, 《신증동국여지승람》, 서경문화사, 1994, 822쪽.  
민족문화추진회, 《신증동국여지승람》Ⅶ(고전국역총서), 민족문화간행회, 1988, 15쪽.
- 3) 물론 태종이 잠저(潛邸) 때 각림사에서 공부했다는 사항이 《태종실록》이나 《세종실록》, 《성종실록》 등에 기록되어 있으나, ‘召慰古老’했다는 내용은 없다. (태종 12년 10월 17일, 태종 14년 9월 14일, 태종 17년 2월 2일, 태종 17년 2월 27일, 태종 17년 7월 5일, 세종 1년 11월 19일, 세종 3년 3월 8일, 세종 17년 5월 20일, 성종 2년 11월 22일 참조)

설명하고 있다.<sup>3)</sup> 그런데 여기서 ‘召慰古老’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옛 노인들’의 정체를 알 수가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옛 노인들’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하여 강림 지역에 전승되는 지명유래전설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 2. 태종과 관련된 지명유래전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각림사에 대한 기술이 자주 나타나는데,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사찰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sup>4)</sup> 그리고 태종이 얼마 동안 각림사에 머물렀으며, 또 누구와 만났는가에 대한 기록은 없다. 아울러 이 사찰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창건되었으며, 또 어떻게 소실되었다는 기록 역시 없다.<sup>5)</sup> 따라서 기록물에 의한 사료를 바탕으로 ‘옛 노인들’의 정체를 밝힌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런데 강림 지역에는 태종과 관련된 전설이 전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것을 실마리로 하여 풀어가고자 한다. 태종과 관련된 전설은 ‘노고소, 횡지암, 수레님이, 태종대, 배향신’ 등 지명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며, 이들 지명유래전설은 태종의 스승이었으며, 고려 왕정 복귀를 위하여 조선에 반기를 든 두문동 72인의 한 사람인 원천석과도 관련되어 있다.

전설은 신화나 민담에 비해서 대체로 단순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정은 지명유래전설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이는 전설의 최소요건인 증거물을 제시하거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야기로서의 짜임새를 갖추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다.

- 4)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 6년 4월 5일(경술)에 예조에서 제한 불교의 혁파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발췌·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조계(曹溪)·천대(天台)·총남(悤南) 3종을 합쳐서 선종(禪宗)으로, 화엄(華嚴)·자은(慈恩)·중신(中神)·시흥(始興) 4종을 합쳐서 교종(敎宗)으로 하며, 서울과 지방에 중이 우거할 만한 곳을 가려서 36개소의 절만을 두어, 양종에 분속시킬 것입니다. ... 선종에 예속된 것으로는 절이 18개소, 전지(田地)가 4천 2백 50결입니다. ... 원주(原州) 각림사(覺林寺)는 원속전이 3백결이고, 거술은 1백 50명입니다. ... 교종에 소속된 것으로는 절이 18개소, 전지가 3천 7백 결입니다. ...”
- 5)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각림사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종 때까지 이 절이 온전하게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익히 알고 있듯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중종 25년(1530)에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숙종 13년(1687) 8월 13일(무오)의 내용을 보면, 지평(持平) 이정익(李禎翊)의 상소에 “... 원성(原城) 각림사(覺林寺)의 위전(位田)은 이미 유궁(儒宮)의 그 전부터의 것이므로 내탕(內帑)의 사저(私儲)로 옮길 수 없는 것인데, 전하께서 장보(章甫)들의 상소에 대하여 오직 고집하시고 윤택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적당하지 않은 분부를 내리시므로, 신은 그욕히 개탄스럽게 여겨집니다. 역시 전하께서 특별히 도로 관직을 주도록 하여 사도(斯道)를 옹호하시는 훌륭한 뜻을 보이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때는 각림사가 유생들에 의해 이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발표자가 현지 주민에게서 조사한 내용은 “각림사는 매우 큰 절로 쌀뜨물이 영월 법흥사 앞까지 흘러 갔으며, 벼룩에 의해서 망했다. 그리고 각림사에 있던 좋은 치악산 구룡사에 있으며, 부처는 오대산 월정사에 있다.”고 한다.(2000년 4월 14일 횡성군 강림면 강림2리 김홍래)

먼저 태종과 관련하여 강림 지역에 전승되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1〉<sup>6)</sup>

○ 노고소 - 태종(太宗)이 스승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을 찾아 왔을 때 스승의 행방을 묻는 태종에게 한 노파가 원천석선생의 부탁을 받고 그가 간 반대 방향으로 가르쳐 주므로서 태종은 스승을 찾아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다. 이에 그 노파는 임금을 속인 죄책감으로 고심하다가 마을 앞의 깊은 소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노파가 빠져 죽은 소라하여 노고소(老姑沼)란 이름이 붙여졌다.

○ 횡지암 - 강림2리에 있는 태종대로 향하는 길가에 큰 바위가 있는데, 운곡 원천석선생이 여기에 앉아서 제자인 태종을 잘못 가르쳐 왕자의 난을 일으켰음을 한탄하였다 하여, 즉 빗(가로 橫) 가르켰다(指)고 한했다 하여 횡지암이라 불렀다고 한다.

○ 변암 - 변암은 옛날에 운곡 원천석선생이 은둔생활을 하였다고 전하는 굴바위로서 강림리 뒷산에 있는데 변암이란 생긴 모습이 고갈처럼 생겼다고 하여 고갈 변(弃)자를 써서 변암이라 한다.

○ 수제미 - 수제미는 수레너미라고도 부르는데, 태종이 이곳에 올 때 수레를 타고 넘어 왔다고 해서 수레너미 또는 이것이 변해서 수제미라고 부른다.<sup>7)</sup>

○ 태종대 - 태종이 조선 3대 임금으로 등극하기 전에 옛날의 스승인 운곡을 찾아 다시 관직에 앉히고 정사를 의논하고자 이곳을 찾았으나 운곡은 태종과의 만남을 꺼려 피신하게 되었다. 방원이 이곳에 도착하여 빨래하는 노파에게 운곡이 간 곳을 물었으나 노파는 운곡이 가르쳐 준대로 거것으로 가르쳐 주었다. 태종은 그곳으로 가서 스승을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이 바위에서 기다리다 스승이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이곳을 주필대(駐匹臺)라고 불러 오다가 방원이 등극 태종이 된 후부터 태종대(太宗台)라 부르고 비석과 비각을 세워 보호하고 있다.

6) 《횡성군지》, 횡성군청, 1986, 197~198쪽과 742~743쪽.

7) 현장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태종이 수레너미로 넘어 온 것이 아니라, 넘어 간 것이라고 하는 세보자들도 있다.

〈자료 2〉<sup>8)</sup>

어, 지금 저 '용의 눈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태종대왕이 거기 와서 쉬어 갔다고 하는 자리로 옛날에 아마 임금님이 와서 쉬어가기만 해도 그 자리를 아주 대단히 기념하기 위해 세워 놓은 태종덴데.

태종대왕이 어떻게 왔었는가 하면, 고려말에 왜 원천석이라고 하는 대학자분이 계시잖아요. 그 선생이 원주 원씨 아니에요. 태종에게 글을 가르키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 고려 충신이, 옛날 사람들은 충신은 불사이군이라 해가지고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킨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걸로 봤을 적에, 그러니까 고려의 신하로서 이성계한테는 신하노릇을 안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저 여기 시루봉이라고 하는데, 비로봉 골짜기에 가며는 그 선생님이 와서 숨어 있던 데가 있어요. 숨어 있던 데가 있는데, 그 비우골 있는데. 그 선생님을 인제 찾으러 이성계, 방원이가 한 번 찾아 빌라고 찾아왔는데.

그 선생님은 인제 태종이 올걸 미리 알고선 태종대 밑에 가면 그 저 다리가 일루 있고, 거 큰 웅덩이가 있어요. 그걸 노고소라 그랬는데, 노고소라고 하고 (거기 새겨져 있는건 구연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서 인제, 할머니 하나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 한테다가 내가 가는 방향을 반대 방향을 가르켜 줘라. 이렇게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찾아오면 만날 것 같으니까 그래 아마 저쪽으로 가라 그랬던가봐 저쪽으로 갔다고 가르쳐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제 그 선생님은 토굴 있는 데로 왔는데. 얼마 있다니까 임금의 행차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가신 곳을 아느냐고 묻길래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대로 얘길 한거지. 그러니까 저쪽, 거길 그러니까 배향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명이 그런데. 그 쪽으로 가셨다고 인제 가르쳐 주고서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같으면 대통령을 속였어도 죄가 아닌데 옛날에 임금을 속였으니까 이거 큰 죄를 졌거든요.

내가 살아 있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거기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인제 태종은 그 바위 위에 와서 쉬어 갔다는 거지. 못만나고 갔대.

8) 《횡성의 전설과 설화》, 횡성문화원, 1998, 189~190쪽.

〈자료 3〉<sup>9)</sup>

○ 배향산 - 태종이 그의 스승인 운곡 원천석을 만나지 못하자 이 산을 향해 배향을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마치골 - 태종이 그의 스승 원천석을 만나러 왔다가 못 만나고, 이 골에서 배향산을 향해 배향을 하므로써 자신이 일을 마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횡지암 - 태종이 원천석을 만나러 왔을 때, 노고소에서 만난 노파가 원천석이 간 방향을 '빛 가리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료 4〉<sup>10)</sup>

원우규 : 요기 노고소 오잖아요? 거기 씨불인 걸 보면 시어머니 고자를 씨불였단 말이야. 안 맞는 글자라 이거여. 고 안에 들어가면 할미 고자에 구연이라고 썼어.(조사자 : 바위에?) 그렇죠. 노고소에서 태종대 거기까지 오면 딱 사백미터야. 정확히 우리가 다 제가지고 한거요. 줄자로다가. 그래서 그 노인네가 거기까지 찾아왔는데, 원천석 참 태종을 가리킨 스승 아닙니까? 그 노인네가 빨래하다 나니까 원천석 그 양반이 오면서 여기 시방 뒤에 행차가 올테니까 일루 횡지암으로 갔다고 하슈. 이렇게 됐단 말이여. 이 양반이 보니까 그진말 할 수가 있다. 그진말 한 다음에 보니까 진짜 태종이 오는 거야. 말타고 죽 오는데 금방 거짓말했네. 횡지암으로 가라 그래. 횡성이라 그러는 거는 비킬 횡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횡성에는 인물이 안 나온다는 거여. 비켜갔다 그러는 거야. 계속 비켜 가잖아요. 그래 일루 오서가지구 변암이라는데, 일루해가지구 이 양반들이 찾아오니 그 안에서 토굴이라는데 숨어 있는. 올라가보면 돌을 이렇게 했는데 제자가 맨들어 놓 거여.(조사자 : 원천석 선생님 제자가?) 그렇지. 토굴에서 와서 숨어 살면서. 약간 야당끼가 있는 거 아니요. 그럼 태조가 사람을 막 죽여 조지는 판이 짱아요. 우리나라 전두환 시기란 말이요. 노태우. 막 잡아 죽이는데 똑똑한 놈 죽이는 참인데 그걸 어디 숨어 살 수가 있어. 그런 역사가 있고.

9) 이영식, 《횡성의 지명유래》, 횡성문화원, 2001, 124~125쪽, 130~131쪽.

10) 정재영·박관수·이영식, 《횡성의 구비문학》1, 횡성문화원, 432~433쪽.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자료에는 각림사에 관한 내용은 없다.

여기서 횡지암의 경우 <자료 1>에서는 운곡이 태종을 잘못 가르쳤다고 하여 이름을 붙여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료 3,4>에서는 노파가 빗가리켰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되어 있다. 또 태종이 강림에 거동한 것이 <자료1>에서는 등극하기 전으로 되어 있고, <자료2>에서는 등극 후에 온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시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원천석이 태종과의 만남을 피한 까닭이 <자료 1>에서는 '왕자의 난'을 일으켜 형제들을 죽인 사건이 그 이유가 되지만, <자료 3>에서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 그 이유가 되며, <자료 4>에서는 '원천석의 야당끼'로 인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위의 <자료 1,2,3,4>를 함께 묶어서 정리한다면, '태종이 변암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스승 원천석을 만나러 왔다. 그러나 원천석은 태종과의 만남을 꺼려 노파에게 자신이 간 방향과 반대로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노파는 그렇게 한 후 죄책감에 소(沼)에 스스로 빠져 죽었다. 태종은 운곡을 만나지 못함을 한탄하며 태종대에서 쉬다가, 마치골에서 배향산을 향해 예를 갖추고 수레너미로 넘어 갔다.'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11)</sup>

### 3. <태종실록>에 나타난 태종의 행적

<태종실록>에는 각림사에 오기까지 태종의 행적이 비교적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 그 내용을 순서대로 발췌·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태종 14년(1414년)

- ① 윤9월 7일(정미) - 횡천 사기소에 머물렀다.
- ② 윤9월 9일(기유) - 어가가 횡천 화동에 머물렀다.
- ③ 윤9월 13일(계축) - 횡천 실미원에 머물렀다.

임금이 말이 뛰는 바람에 떨어졌으나 다치지지는 않았다.

양식이 떨어져 강무(講武) 물이꾼을 풀어주었다.

- ④ 윤9월 14일(갑인) - 원주 각림사에 거동하였으니, 잠저(潛邸) 때 공부하던 곳이다. 절의 중에게 채단(綵段)·홍초(紅?)를 각각 3필씩 내려 주고, 쌀과 콩 아울러 1백 석을 내려 주고, 전지(田地) 1백결과 노비(奴婢) 50구(口)를 더 주고, 절의 노비 등에게 쌀과 콩 아울러 30석을 내려 주었다.

- ⑤ 윤9월 18일(무오) - 어가(御駕)가 광주 동정에 머물렀다.

2) 태종 17년(1417)

- ①2월 27일(갑신) - 거가(車駕)가 원주의 각림사로 행행(幸行)하니,  
겸하여 춘수(春蒐)를 강(講) 하기 위함이었다.
- ②3월 5일(신묘) - 거가(車駕)가 각림사에 이르자 절의 중[僧]에게 전지(傳旨)하기를,  
“내 장차 지의(地衣)를 주겠고,  
또 오는 9월에는 불사(佛事)를 하겠다.”고 하였다.  
물이꾼을 모두 놓아 보냈다.
- ③3월 9일(을미) - 환궁하였다.

위 기록을 묶어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알 수 있다.

첫째, 각림사는 태종이 어렸을 때 공부하던 곳이다.

둘째, 태종은 등극 후 각림사에 두 번 왔다.

셋째, 태종은 각림사에 쌀과 콩, 노비 등을 하사했다.

넷째, 원천석과 관련된 기록은 없다.

그런데 《세종지리지》강원도 원주목 각림사조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치악산 동쪽에 있는데, 고을에 가기 40리이다. 선종(禪宗)에 붙이었고, 전지 3백 결(結)을 주었다. 우리 태종이 잠저(潛邸) 때 글을 읽던 곳이다. 일찍이 횡성에서 무예를 연습하다가, 이 절에다 연(轡)을 머무르고, 옛 늙은이들을 불러서 위로하고, 절에 밭과 민호를 주고, 주의 관원으로 하여금 도와주게 하였다.(밑줄 발표자)

이는 앞에서 살폈던 《신증동국여지승람》권46, 원주목 불우조의 내용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증증 때 발간된 것임을 상기한다면, 그것에 정리된 내용은 《세종지리지》의 것을 참고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sup>12)</sup> 그리고 위 기록과 앞의 1), 2)를 통해서 태종 14년 윤9월 14일~17일 사이에 ‘옛 늙은이들’을 불러서 위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3)</sup>

12)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성종 때에 편찬한 《동국여지승람》을 정한 것이고, 《동국여지승람》은 《팔도지리지》 그리고 《동문선》 등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세종지리지》의 내용이 정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옛 늙은이들(古老)'은 어떤 인물들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태종이 잠저 때 이곳 각림사에서 인연을 맺은 인물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록이 세종 1년 11월 9일(기유)에 정리되어 있다.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송기(宋箕)가 <서울로부터> 와서 이종무들의 죄상을 아뢰고 김훈·노이를 국문 하기를 청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서울에 돌아간 뒤에 결단할 것이나, 우선 기다리라."고 하였다. 물이꾼 3천여 명을 놓아 보내고 원주의 서음소(鋤音所)에 이르러 점심을 들었는데, 판원주목사 조계생(趙啓生)이 마중 와서 알현하였다. 어가가 기대리(岐大里)에 도착하여 왔는데, 상왕이 활과 화살통 하나씩을 여러 질제사 및 사복관(司僕官)에게 주고, 활쏘기 얘기를 하게 하였다. 함길도 관찰사 안망지(安望之)는 사람을 보내어 방물을 진상하고, 충청도 관찰사 정진(鄭津)도 사람을 보내서 말과 방물을 진상하였다. 방물은 호종(扈從)한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원주의 기로(耆老) 정정(鄭政)·유선보(柳善寶) 등 10여 명이 와서 알현하므로, 상왕이 <그들에게> 술을 주도록 명하고, 선보에게 이르기를 "내가 13살 때에 각림사(覺林寺)에 거처하면서 너의 집에 갔었는데, 네가 지금 기억하는가." 하였다.(밀줄 발표자)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첫째, 태종은 13살 때 각림사에 있었다.

둘째, 태종은 원주의 기로(耆老) 정정·유선보 등을 만났으니, 이들은 태종이 각림사에 있을 때 또는 그 이전에 알았던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태종이 강림에 거동하였을 때 만났던 '옛 노인들'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태종이 왕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만난 인물들이라면 위의 밀줄 친 내용과 같이 "내가 13살 때 각림사에 거처하면서 너의 집에 갔었는데, 네가 지금 기억하는가."와 같이 얘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정리된 '옛 노인들'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sup>14)</sup>

다른 하나는 <자료 1,2,3,4>와 연계해서 확대 해석하는 것이다. 원천석은 강림의 치악산 변암에 은거하였다. 그리고 원천석은 태종의 스승이다. 따라서 태종이 원천석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원천석이 '옛 늙은이들'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종의 초청에도 원천석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태종은 직접 찾아 나선다. 하지만 왕이 직접 산속을 다니며 원천석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오히려 사람을 보낸 경

13) 태종 17년 3월 5일에 각림사에 거동한 것은 앞의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횡성에서 강무하다 간 것이 아니다.

14) 물론 이들을 제외한 또 다른 인연(각림사에서 지낼 때 알았던 인물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잠저 때 알았던 인물들을 초청하는 데 있어서 이들을 제외하고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우로 생각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즉 원천석은 태종이 각림사에서 ‘옛 늙은이들’을 부른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천석은 태종이 자신에게 사람을 보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노파가 만난 인물은 태종이 아닌 것이 된다. 그럼에도 노파는 죄책감에 목숨을 끊는데, 그것은 왕명을 어긴 죄책감일 것이다.

한편 황성읍 정암리 ‘황필’에 대한 지명유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황필(黃必)이라는 분이 이곳에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행피울’, ‘행필’, ‘황피울’이라고도 한다. 원주 이씨 대종친회 경원군손(慶原君孫) 뿌리 홍보지에 의하면, 두문동 72현 중 오현(五賢)의 한 사람인 경원군 이반계(李攀桂)는 윤곡 원천석과 같이 고려의 마지막 임금인 공양왕을 따라 치악산에 들어갔다. 치악산 산자락인 사전리, 현재 원주시 소초면 교항리에 은거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던 이반계는 오래 전 태종 이방원을 가르친 인연으로 태종이 이반계를 우의정에 제수(際授)하고자 사전리를 직접 환어행차 하자 이를 미리 안 이반계는 7일 동안 마음을 전폐하고 그의 시배(侍陪)인 황필에게 “내가 내 대신 태종을 만나면 숨은 곳을 말하지 말라.” 일러놓고 태종을 피하려고 깊은 골짜기에 숨었다. 태종이 그의 문전에 당도하자 시배인 황필은 왕에게 거짓을 고하면 화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나무에 목을 매어 죽었다. 이반계 역시 태종과 상면을 하였으나 말을 하지 않으려고 혀를 물어 목숨을 끊었다. 태종이 이반계의 충실을 가상히 여겨 경원군에 봉하였다.”<sup>15)</sup>(밀줄 발표자)

위의 내용은 앞에서 살폈던 <자료 2>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다. 단지 등장 인물과 장소, 그리고 태종과의 만남과 만나지 않음, 자결과 은신처 옮김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이반계가 은거하던 곳 역시 치악산 자락이다. 따라서 원천석과 함께 초청 대상, 즉 ‘옛 늙은이들’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이반계 역시 알았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시배에게 자신의 거처를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한편 밀줄의 내용에 의하면 원천석, 이반계는 공양왕을 따라 치악산에 왔는데, 공양왕이 왕위를 이성계에게 빼앗기고 원주로 추방된 후 공양군으로 강등되었다가 다시 삼척으로 옮겨져 그곳에서 살해되었다.<sup>16)</sup> 따라서 공양왕이 원주에 머무를 때 원천석과 이반계를 비

15) 이영식, 앞의 책, 52쪽.

16) 《국사백과대사전》, 동아문화사, 1975, 145~146쪽 참조.

못한 추종세력들이 다수 있었을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원주를 중심으로 치악산 일대에는 고려를 그리워하며 은거 생활을 영위하던 인물들이 다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이에 태종은 횡성 실미원에 강무를 하던 중 인접해 있는 각림사에 들러 고려의 추종자들을 회유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옛 늙은이들'을 각림사에 초청하여 설득하였을 것이다. 이 때 치악산 인근에 있던 다수의 고려 충신들은 참석하였지만 운곡과 이반계 등은 끝까지 고려에 대한 충정을 고집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앞에서 살폈던 '세종 1년 11월 9일(기유)'의 기록을 상기하면 더욱 그러하다. 태종이 잠저 때 인연이 있던 사람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인물이 아닌에도 자세히 기록한 반면, '召慰古老'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까닭이 그것이다. 즉 그것은 기록하기가 어려운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다시 말해 조선에 반기를 든 인물들을 태종이 초대하여 위로했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것이 되므로, 그들의 이름을 함께 정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르기에 '옛 늙은이들'이라고 정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각림사는 태종이 어렸을 때 공부를 하던 곳이라 하여, 각림사의 중창을 위해 철 1천 근(斤)(태종 16년 4월 28일), 재목 1천 주(株)(태종 16년 8월 23일), 단청을 위해 화원(畫員) 15명을 보내고(태종 17년 4월 2일), 각림사 주지에게 쌀 200석을 하사하는(세종 3년 3월 8일) 등 많은 관심을 보이던 곳이다. 따라서 이러한 각림사에 대한 배려만을 생각한다면 억불숭유책을 강조하던 조선의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바꿔 말해 각림사에 대해서는 억불정책이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 또한 태종이 잠저 때 각림사에 머물렀다는 사실 하나로 인한 것이라면 너무나 큰 배려이다.

#### 4. 맺음말

《태종실록》에 '각림사'에 대한 기록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더불어 태종이 두 번씩이나 거둥한 곳임에도 각림사와 관련된 태종의 전설은 전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명에 있어서 원천석과 관련된 지명유래전설에 태종이 더불어 등장한다. 따라서 강림 지역에 전승되는 원천석과 관련된 지명유래전설은 원천석에게만 한정된 사항은 아니다. 다시 말해 원천석과 태종이 서로 상대가 되어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고려와 조선이라는 큰 틀로써 확장하여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설에서 태종의 회유책은 원천석이 은거처를 잠시 옮기고, 이반계는 혀를 깨물어 목숨을 끊었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고려를 끝까지 섬기고자 한 원천석과 이반계의 충정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료에 근거하여 생각한다면, '옛 늙은이들'을 초대하여 위로함으로써 조선에 대해 아직까지 반감을 갖고 있던 치악산 일대의 고려 충신들에 대한 태종의 회유책은 성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역사는 사실을 기술하는 것이라면, 전설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문학적 상상력이 동원되어 또 다른 역사를 기술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따라서 강림의 민중들은 태종과 같이 왕권을 쟁취한 승리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던 고려 왕정복고의 실패자 원천석을 태종이 오히려 찾아다니게 함으로써 표면의 실패자를 이면의 성공자로 반전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복술의 송경

---

박 관 수(민족사관고등학교)

### 1. 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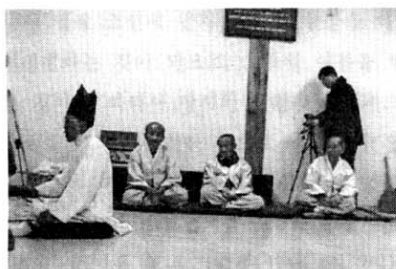


사진1: 왼쪽이 복술이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신장대잡이 2명과 샷대잡이 1명이다.

- 1) **복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만, 대체로 남자가 많다. 맹인도 있었지만 정상인도 많다. 학습 복술도 있고 신내린 복술도 있으나, 대체로 학습 복술이 많다. 복술은 보통 3,4년 간의 학습 기간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1명이 하지만, 2, 3채 이상을 읽을 경우 부복술이 있어 교대로 경을 읽기도 한다. 의복은 일상복을 정갈하게 입기도 하고, 한복을 입기도 한다. 고깔을 쓰기도 한다. '경쟁이', '경자', '경객', '경바치', '송경자', '점쟁이', '판수', '술객', '통신'(신내린복술), '맹인'(소경복술), '문복가' 등이라고 부른다. 제대로 문서를 익히지 못한 사람을 '잡복술'이라고 한다. 귀신잡이가 주로 하는 일이지만, 푸닥거리나 안택 등도 한다.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 침을 놓기도 한다.
- 2) **신장대잡이:** 귀신을 잡아오는 사람으로 보통 1명 내지 2명이다. 어떤 경우에는 3명 정도가 동원되기도 하는데, 여러 신을 분담하여 내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귀신잡이 능력 순으로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되기도 한다. 대잡이는 복술이 데려오기도 하

지만, 보통은 병자가 사는 마을 사람 중에 신이 잘 내리는 사람이 하게 된다. 복술이 데려온 경우에는 복비를 나누어 갖는다. 신장대잡이는 '장대잡이', '대잡이', '장대꾼'이라고도 부른다. 대잡이 중에서도 귀신 있는 곳을 잘 찾아내고 귀신을 잘 잡아들이는 이를 '명대'라고 부른다. '명대'인 경우 돈을 받기도 하며 다른 마을에 불려다니기도 한다. 성정이 끈은 사람은 신이 안 실린다고 한다.

- 3) **삿대잡이** : 보통 1명이고, 마을 사람들 중에서 한다. 복술이 송경을 시작한 후 보통 3일 정도 지나 귀신잡이를 하기 직전에 신장대잡이와 함께 오게 된다.



사진2 : 구경꾼인 마을 사람들

- 4) **구경꾼**: 병자가 있는 마을의 남녀가 모여 곳을 구성한다. 개고기를 먹었거나 초상을 치른 부정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송경이 여러 날 지속되면 마을 사람들이 교대로 구경을 한다. 이를 '밤점고'한다고 한다. 귀신을 잡아 가둘 때는 구경꾼들은 '사귀야'를 외치며 귀신을 욕박지른다. 송경을 하다 쉴 때 밤참을 같이 먹기도 하고 대잡이 뒤에서 불을 밝혀 주며 따라가기도 하고 귀신통을 묻을 때 도와주기도 한다.



사진3 : 병자

- 5) **병자**: 병자는 경당을 차린 방 한쪽에 누워 있다. 귀신들린 병자여야만 송경의 대상이

- 되지 인간 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사병 같은 경우는 송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6) **주인:** 송경에 대해 신뢰감을 가져야 한다. 복술에게 하루 품값 이상의 수고비를 준다.

## 2. 무구



사진4 : 위목과 부적

- 1) **위목:** 위목은 창호지로 만드는데, 가로 15cm 세로 1m 20cm 정도이다. 그 위에 천존, 신장, 장군 등의 이름들을 쓴다. 천존은 가운데 높게, 그 양 옆에 약간 내려 장군, 그 다음에 신장 등을 써 붙인다. 칠원성군이나 사해용왕을 써 붙이기도 한다. 신들의 이름이 많기에 방안 가득히 달아놓는데, 방 밖의 마루, 서까래 등에 달기도 한다. 송경이 끝난 후에는 태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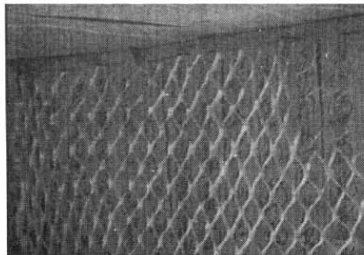


사진5 : 철망

- 2) **철망:** 창호지 전지를 철망 모양으로 오려 천장 가운데에 붙인다. 귀신을 잡아가두게 하는 용도이고, 귀신잡이가 끝난 후 귀신통과 함께 묻는다.



사진6: 북, 북채, 징

- 3) 북 : 통은 오동나무, 피나무를 쓴다. 축원을 할 때는 '갑을병정'을 외우듯이 천천히 친다. 그러다 귀신잡이 할 때는 '잡귀잡신 잡아먹자 잡귀잡신 잡아먹자'를 외우듯이 빠르게 친다. 신이나 귀신 모두 북소리를 좋아한다. 점잖게 북을 치지 않고 손을 높이 들고 흔들며 치는 북을 '번개북'이라 하며 좋지 않게 여긴다.
- 4) 북채 : 기다란 나무 끝을 짚으로 둥글게 만들고 이를 천으로 싸나.
- 5) 징 : 귀신잡이 할 때만 징을 치는 북술도 있다. 신은 징소리를 좋아하지만, 귀신은 징소리를 싫어한다. 징 대신에 숟가락 3개를 북에 달아 대용하기도 한다. '3고1금'이라고 하여 북을 세 번 두드릴 때 징을 한 번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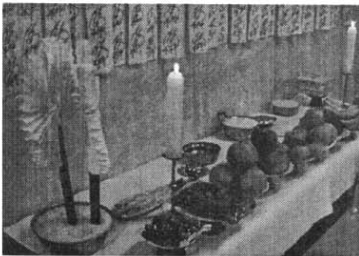


사진7 :왼쪽에 꽂혀 있는 부채 모양의 신장대이다.

- 6) 신장대: 물푸레나무로 길이가 20cm 되는 굵은 나무 끝에 창호지로 부채 모양을 만들어 묶는다. 신 내리고 조복을 받을 때 쓴다. 귀신을 잡아오기도 한다. 콩, 팥, 옥수수 등을 담은 큰그릇에 신장대를 꽂아둔다.





사진8 : 샷대의 꽃술을 만드는 중이다.

7) 샷대 : 흰새끼를 이삭 끈 후에 그 끝에 흰색,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으로 꽃술을 만들어 묶는다.



사진9 : 북에 달려 있는 네모 모양의 납밥

8) 납밥: 긴 창호지를 네모나게 자른다. 자를 때 네모난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차로 연결되게 자른다. 샷대잡이가 하나씩 잘라 동그랗게 말아 귀신 대용으로 사용한다. '납밥'이라고도 한다.

종이에 귀신 모양을 그려 사용하기도 한다.



사진10 : 사귀통, 젓떡, 다듬이돌

- 9) 사귀통: 엄나무로 만든다. 엄나무가 요새는 흔하지 않기에 소나무, 버드나무로 만든다. 굵은 나무를 20cm 정도 잘라 조그마한 구멍을 뚫는다. '귀신통', '수구통'이라고도 한다. 병을 사용하기도 한다.
- 10) 잿떡 : 타고 남은 재를 진흙에 이겨 찰호지나 헝겊에 썬다. '잿밥'이라고도 한다.
- 11) 다듬이돌 : 집안에 있는 것을 사용한다. 조목할 때 신장대를 그 위에 똑딱거린다.
- 12) 부적 :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게 부적을 소지하고 가기도 한다.

### 3. 문복

- 1) 병점 : 병자의 식구가 복술의 집에 와 병점을 친다. 아니면 복술이 마을마다 찾아다니며 방을 한 칸 얻어 기거하며 병자를 찾아 병점을 치기도 한다. 가벼운 귀신이 들려 병을 얻었을 경우에는 복술이 그 집에 가지 않고 뜯밥을 해 내버려 퇴송을 하라는 등의 처방만 하지만, 험한 귀신이 들렸을 경우에는 복술이 복을 가지고 병자의 집을 찾는다. 또한 조상신이 들렸는지 사귀가 들렸는지도 판단하여 처방을 한다. 조상신이 들렸을 경우에는 여느 귀신타처럼 잡아가둘 수는 없기 때문에 '시황풀이를 한다든지' 등의 다른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점을 해서 낮게 할 수 있다는 점괘가 나올 경우 경을 읽게 된다. 복술이 보는 점은 육효점, 단시점, 산통점 등이다.

### 4. 송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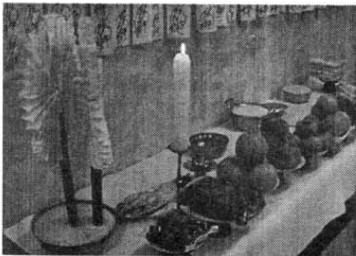


사진11 : 경당을 차린 모습

- 1) 경당 차리기: 경당은 복술이 병자의 집에 가서 방위를 가려 손이 없는 방향으로 안방에

차린다. 1,2일은 동쪽에, 3,4일은 남쪽에, 5,6일은 서쪽에, 7,8일은 북쪽에 손이 있어 그 방향으로서는 경당을 차리지 않는다. 방위를 정한 다음에는 상을 차리고 위목을 건다. 방 가운데 천장에는 창호지로 망 모양으로 만든 철망을 건다. 처음에는 상 위에 주인이 정한 수 한 그릇 떠 놓고 향불과 촛불을 건다. 정한수는 사람이 안 사는 곳에 가서 떠 온다. 노구메와 곡미쌀도 상 위에 놓는다. 떡 시루를 올려 놓기도 한다. 그리고 쌀, 옥수수 등을 담은 큰그릇에 신장대를 꼬아 놓는다. 부잣집의 경우 제상을 차리는 방식으로 상 위에 음식을 진설한다.



사진12 : 송경을 시작하는 모습

2) 송경 준비 : 송경이 시작되기 전에 북 위아래에 끈을 달아 윗끈은 천장에 매단다. 아랫끈은 오른발 오금에 감고 앉아 북을 치기 좋게 약간 비스듬하게 눕힌다. 북통에는 손가락 세 개를 매단다. 이 손가락은 징이 없을 경우 이를 대신하는 것이다. 손가락은 북 위에 올려놨다가 귀신잡이를 할 경우 손가락을 내려 북을 치면 손가락이 동시에 울리게 된다. 그리고 송경을 하다 본격적으로 귀신잡이를 시작하기 전에 샷대와 납땀을 북에 매달아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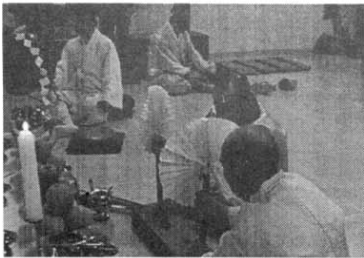


사진13 : 신장대잡이들이 좌정한 모습

3) 청신: 북술이 '신장편'을 읽게 되면 신장대잡이들은 신장대를 잡고 다듬이돌 옆에 앉는

다. 대잡이에게 신이 내리기 시작하면 등에 묵직한 것이 실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신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깨가 잡자기 들썩인다. 몸에 실린 신은 팔로 내려간 다음 신장대에 실린다. 대잡이들에게는 서로 다른 신이 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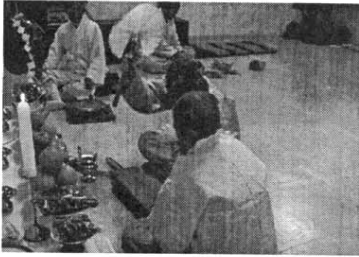


사진14: 조목을 하는 모습

4) 조목: 대잡이에게 신이 실리면 복술은 대잡이에게 무슨 신이 실렸는가를 묻는다. 복술이 천천부터 신장, 장군 등의 순으로 다양한 이름을 물을 때 그에 해당하는 신이 대잡이에게 실렸으면, 대잡이는 신장대를 다듬이돌 위에 똑딱거리며 자신에게 그 신이 실렸음을 드러낸다. 그런 다음에 복술이 여러 귀신들의 이름을 거명하면 그 중에서 병의 원인이 된 귀신의 이름을 부를 때 대를 똑딱거리며 그 귀신이 들렸음을 말해 주기도 한다. 대잡이가 강대를 잡을 경우(거짓으로 신이 내려왔다고 함)나 대를 험겁게 잡아 신이 내리지 않게 할 경우, 복술이 이를 눈치채면 팔문 8자(休生傷杜景死驚開)를 종이에 적어 각각 돌돌 말아서 그 중에서 생문방을 찾아내라고 대잡이에게 명한다. 그랬는데도 이를 찍어내지 못하면 너는 신이 안 실렸다고 하며 대잡이를 바꾼다. 아니면 복술이 대잡이에게 흰종이나 천으로 된 예단으로 가린 위목중에서 자신에게 내린 신장의 이름을 지적하라고 해서 지적하지 못하면 엉터리라고 하며 대잡이를 바꾸기도 한다.



사진15 : 귀신을 찾는 중

5) **귀신잡이:** 귀신잡이가 시작되면 북을 세게 친다. 북술은 대잡이에게 귀신을 잡아오라고 명한다. 대잡이는 용하게도 귀신이 있는 곳을 찾아내고 귀신잡이 대로 귀신을 잡아온다. 햇불을 들고 쫓아오는 마을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빨리 뛰기도 하고 평소에는 다니지도 못하는 덩불을 뚫고 지나가기도 하고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 장물을 찾아 오기도 한다. 귀신을 잡아온 뒤에는 병을 들게 한 귀신이 잡혔는지 점을 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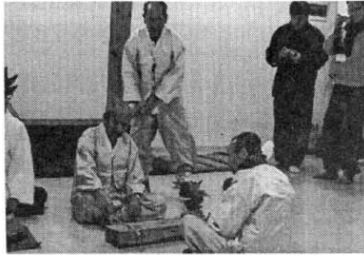


사진16 : 귀신을 잡아온 대잡이가 귀신을 샷대잡이에게 귀신을 실리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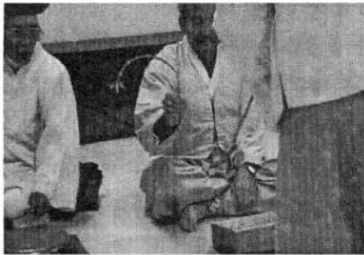


사진17 : 귀신이 샷대에 실리면 샷대가 놀기 시작한다.



사진18 : 왼손에 있는 납밥을 돌돌 뭉친다



사진19 : 오른손으로 솟대를 쓸어올리며 솟대에 실린 귀신이 납밥으로 이동하게 한다.



사진20 : 오른손에서 노는 납밥을 왼손으로 들고 있는 사귀통에 들어가게 한다.

- 6) 솟대에 귀신실리기 : 방 안이나 밖에서 대잡이가 귀신을 잡아오면 솟대잡이는 솟대를 오른손으로 쥔다. 그리고 복통에 매달아놓은 납밥을 한 조각 뜯어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 잡혀온 귀신은 솟대잡이의 팔에 실린다. 팔에 실린 귀신은 손으로 잡은 솟대로 옮겨간다. 귀신이 옮겨가지 않는 경우에는 대잡이가 신장대로 솟대잡이의 등을 살살 두드리며 귀신이 솟대로 옮겨가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귀신이 달아날 경우는 다시 잡아온다. 귀신이 솟대에 실리면 솟대는 격렬하게 움직이며 곳곳하게 선다. 솟대잡이는 솟대를 오른손으로 잡아 훑어 올리면서 귀신을 손으로 잡는다. 귀신을 오른손으로 훑어냄과 동시에 오른손으로 납밥을 동그랗게 만든다. 이때 귀신은 납밥으로 옮겨가게 된다. 납밥이 오른손에서 펠쩍펠쩍 튀다가 왼손으로 감싸고 있는 사귀통의 구멍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솟대잡이는 잣떡으로 구멍을 틀어막는다. 그리고 잣밥 위에 살구나무를 댄다. 그리고는 왼새끼로 묶는다. 귀신이 여럿이면 이 과정을 되풀이한다.
- 7) 귀신물기 : 사귀통을 묶은 뒤에 그 날의 방위를 봐 가며 밖으로 가져가 묻는다. 묻다가 잘못하여 사귀통에서 귀신이 나오게 되면 처음부터 귀신잡는 행위를 다시 해야 한다.

이때 귀신이 힘을 써 달아나지 못하게 신장대잡이들은 신장대를 들고 사귀통 뒤를 쫓는다.

8) 안택 : 귀신잡이가 끝난 뒤에 안택을 하여 여러 가신들을 안정시킨다.

사진:

사진은 김응삼 복술이 2001년 7월 5일 자택과 2002년 2월 20일 민족사관고등학교 민족교육관에서 실연한 것을 캠코더로 촬영하여 편집하였다.

대담 복술:

김응삼(73), 횡성군 둔내면 삼교리(2001. 7. 5., 2002. 2. 20., 2002. 10. 20.)

박영식(60), 횡성군 횡성읍 갈풍리(2002. 1. 13.)

오복환(79), 횡성군 둔내면 석문리(2001. 7. 13., 2001. 8. 4.)

윤만옥(78), 횡성군 둔내면 삼교리(2001. 8. 19.)

최종국(65),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운향사(2002. 07. 27., 2002. 11. 6.)

---

# 사회 변동에 따른 소의 역할과 우시장의 변모

- 횡성지역을 중심으로 -

---

윤재성(민족사관고등학교 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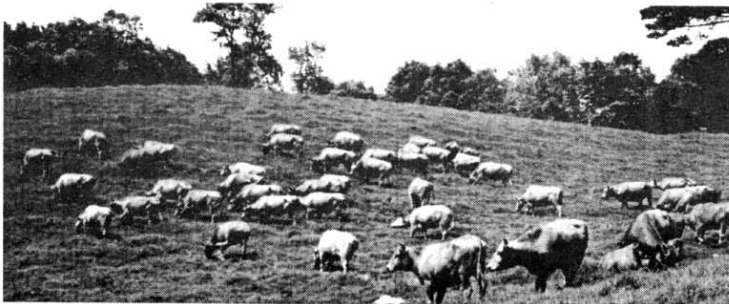
##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 II. 본론

1. 횡성군의 소 사육
2. 우시장의 구성과 변화
3. 소의 생활 속 위상

## III. 결론





## I. 서론

### 1. 연구 목적

시장에는 거래되는 상품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다. 저 옛날의 노예시장이라든가 일반적인 생필품이나 농작물을 주고받던 농산물시장,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증권매매시장에 이르기까지 그 시장 안에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주요 교환물에 따라 그 시장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 한편으로는 지역에 따라 특색 있는 장이 열리기도 한다.

본고는 필자가 재학 중인 민족사관 고등학교가 위치한 황성군의 우시장을 조사하고 쓴 것이다. 우시장은 일반시장과는 다르게 소를 사고파는 시장이다. 우시장은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오고 있는 시장이다. 시간이 흐르면 시장의 종류도 새로 생겨나고 역할 역시 바뀌듯이, 우시장의 형태나 기능적인 측면에도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우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소의 역할도 예전과 달라졌기에 이 모습을 조사하여 보고자 했다.

우시장은 현대에 이르러 몇몇의 일부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옛날과는 달리 현대의 사회에는 급속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까닭에 옛날의 재래적인 시장의 형태가 이제는 백화점이라는 신식으로 지어진 건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재래시장의 형태는 이런 산업화의 영향을 그나마 적게 받은 시골 지역으로 가게 되면 볼 수가 있다.

우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시장의 수가 날로 가면 갈수록 축소 혹은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현재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우시장의 수가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특별한 것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시기에서 일반인, 특히 도시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우시장을 한 번쯤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바이다.

그리고 날로 잊혀져만 가는 옛 풍속을 간접적으로나마 조사해 봄으로써 좀 더 우리 선조들의 생활양식이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런 조사를 하게 되었다. 게다가 근래에는 각 농촌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계화의 영향에 따라 소를 사육하는 방법이나 우시장의 기능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나와있는 우시장에 관한 조사는 그리 활발한 편이 아니다.<sup>1)</sup> 비교적 과거에 성행하던 우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현재 그 시장의 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우시장에 대한 관심 또한 그리 크지 않은 편이어서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시장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의 경우 주로 지역별 우시장에 관한 소개나 기능 위주의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이번 자료에서는 사회의 변동에 따른 우시장과 소의 역할의 변화의 모습을 강원도 횡성군 지역을 중심으로 다뤄나갈 것이다.

## 2 연구방법

우시장의 수가 적은 반면 많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서 각각의 우시장은 지역색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조사 구역을 강원도 횡성군으로 국한시켰다. 횡성지역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학교가 위치한 곳이 횡성지역 내인지라 정보 수집을 하는 데 훨씬 수월한 점이 있었을 뿐더러, 횡성의 우시장의 규모 또한 중부지방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조사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주요한 조사 방법으로는 현장답사와 직접적인 인터뷰 채득이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으로는 직접 우시장을 탐사해보고 한우로 유명한 지역을 구석구석 방문해 보기도 하였다. 한우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가서 직접 농민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어 보기도 하였고 어떤 제보자는 소를 다루는 모습 등을 손수 행동으로 옮겨 보여주기도 하였다. 횡성군 내의 신식 설비를 갖춘 집단 방목장 형태의 목장에도 답사해 보았다. 현장답사 중 조사를 한 사람들과의 인터뷰 내용은 직접 녹음 및 정리하여 보존해 놓았음을 밝힌다. 현장 답사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직접 사진을 찍었으며 횡성군 내의 한우에 관한 통계자료와 객관적 자료를 위해 횡성군청 및 횡성 축협을 방문하여 자료를 얻었다. 또한 우시장 및 소에 관한 자료를 논문이나 책자, 화보 등으로 얻어 이번 논문에 참조를 하였다.

요컨대, 이번 논문을 위해 채택한 주요한 방법으로는 현장답사를 통한 직접적인 인터뷰와 자료 수집이다.

1) 우시장에 관한 연구 현황은 최병욱, "한국의 우시장야화, 우리나라 시장의 변천," 서울우유 131(서울우유, 1978), 이해종, "한우시장의 구조와 가격분석에 관한 연구,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우시장의 크기 및 거래되는 지역과 소값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학회지 18, 1978, 김희석 외 "한우의 번식 장애 발생상태에 관한 연구," 농사시험연구보고 24, 1982.12, 김재광, "우리나라 우시장의 능과 시장권," 공주사범대학 논문집 20, 1982.12, 이창식, "수원과 우시장4," 축산진흥 89, 1985.10, 이해종, "우시장의 구조와 소값형성의 한일비교연구," 강원대 사회과학연구 24, 1986.12, 이창식, "수원 우시장 금석," 기전문화 2, 1987.06, 7건의 국내 학술잡지 기사가 존재하고 정광득, "한국의 축산물 마케팅 개선에 관한 연구,"(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1978), 조영좌, "조선시대 안성장에 관한 역사 지리적 고찰,"(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7), 백미자, "보령지역 시장의 형성과 변화,"(공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0) 3건의 석사학위 논문이 존재한다. (국회전자도서관 검색결과)

## II. 본론

### 1. 횡성군의 소의 사육형태

#### 1) 횡성군의 인문 지리적 환경

강원도의 중심부쯤에 자리 잡고 있는 횡성군은 총 면적의 78%가 임야로 뒤덮여져 있다. 대부분의 지형이 산악지대이어서 조용하고 맑은 자연환경이 오랫동안 보존되어온 지역이다. 횡성군의 대부분의 지역의 해발고도가 평균 500m으로 높은 편이어서 소가 자라는 데는 오히려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유인즉 대부분의 지역이 험악한 산악지대 보다는 평탄한 지형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소를 방목하여 키울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이 알맞게 구비되어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소를 사육하기가 힘든 점 중 한 가지가 여름의 고온 다습한 기후이다. 이 고온 다습한 기후는 초지의 성장을 지나치게 촉진시켜 목초가 억세고 거칠어지기 때문에 소의 사료로 쓰이기에 문제점이 많았고 소가 활동하는 데에도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횡성군은 기온차가 매우 큰 편이고 특히나 서늘한 기후가 주를 이루고 있기에 소의 방목에는 큰 무리가 없다. 또한 산악지대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인해 생성된 맑은 공기와 건조한 기후는 소 사육에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sup>2)</sup> 소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은 일단 최적의 온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소가 잘 자랄 수 있는 최적 생리 온도대는 0~26<sup>o</sup>이다. 또한 수도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이어서 지대가 상대적으로 저림하기 때문에 조방적인 목축이 가능한 점도 적합한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목장으로 유명한 대관령이다. 이 곳은 횡성지역과 흡사한 기후적,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다.

요컨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뚜렷하여 횡성 한우만의 맛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하고 표고차가 해발 100m에서 800m로 고루 분포하고 있어서 소 사육에 장점이 된다. 그리고 공기 및 수질오염이 거의 없는 사육환경의 최적지라는 점과 목초 및 산야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어 벗짚 구입이 용이하다는 점 또한 소 사육에 알맞은 조건이 되는 것이다. 또한, 소 사

2) 횡성군지(강원도 횡성군, 2001), 58~60쪽.

육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교통 역시 근처 영동고속도로의 건설로 서울-횡성-평창-강릉을 이어 수도권까지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가 있어서 소비지로 유통이 원활하다는 점 또한 좋은 조건이 된다. 중앙고속도로의 개통 역시 영남지방과의 교류를 더욱 빈번히 하여 경북 등지와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표1-1〉 횡성군의 인구 추이(단위 : 세대, 명)

연별	세대	인 구		인구 합계	65세 이상고령자	인구밀도	세대당 인구
		남	여				
1976	15,422	44,898	42,729	87,627	-	88	5.7
1977	15,139	43,601	41,532	85,133	6	85	5.6
1978	14,833	42,572	40,912	83,484	6	84	5.6
1979	14,648	38,335	68,103	77,438	6	78	5.3
1980	14,619	36,822	32,708	69,530	5	70	4.8
1981	14,423	36,426	34,413	70,839	5	71	4.9
1982	14,341	35,986	33,925	69,911	5	70	4.9
1983	14,202	35,469	33,790	69,259	5	69	4.9
1984	13,776	33,644	32,087	65,731	5	66	4.8
1985	13,674	31,174	29,346	60,520	5	61	4.4
1986	13,553	30,914	29,398	60,312	-	60	4.5
1987	13,383	29,705	28,521	58,226	-	58	4.4
1988	13,468	28,365	27,213	55,578	-	55	4.1
1989	13,303	26,189	25,502	51,691	-	51	3.9
1990	13,302	24,471	24,012	48,483	5,071	48	3.6
1991	13,348	26,484	25,870	52,354	-	52	3.9
1992	13,608	26,043	25,438	51,481	-	51	3.8
1993	13,893	25,548	24,817	50,365	5,370	50	3.6
1994	14,080	25,074	24,338	49,412	-	50	3.5
1995	14,408	24,881	23,983	48,864	5,684	49	3.4
1996	14,680	24,618	23,667	48,285	5,574	48	3.3
1997	14,728	24,118	23,155	47,273	5,794	47	3.2
1998	14,949	24,324	23,205	47,529	5,960	23	1.6
1999	15,032	24,030	22,956	46,986	6,184	47	3.1
2000	15,149	23,628	22,530	46,158	6,184	46.3	3.0

횡성군 내의 일손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표1〉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거와는 달리 현재 군민들의 수는 많이 감소한 편이다.<sup>3)</sup> 그것도 노년층보다는 중장년층의 감소가 노동력의 부족현상을 가져오게 하였다. 횡성군의 인구수는 1970년대부터 9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내

3) 주민등록인구통계(강원도, 2001) 주: '98년도부터 외국인세대 제외

리막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소폭 증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이촌향도 현상을 실감케 한다. 특히 80년대에 들어서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어 본격적인 도시 집중현상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더구나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기계화가 시작되는 시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인구의 감소와 기계화의 확산 사이에 관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고 사료 된다. 이런 인구 추이로 인해 소를 기르는 경향 또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인구 추이는 비단 횡성군 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는 적극적인 농가 지원과 도시인들의 농촌 이주정책을 장려함으로써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 2) 횡성군의 소의 위상 변화와 우시장의 변모

현대와는 달리 옛날의 농가에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소였다. 그만큼 노동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삼국시대에서는 소를 죽이면 그 죽인 사람을 노비로 삼기까지 하는 등 소의 위상은 대단했었다. 육우(肉牛)가 아닌 일소의 가치는 지금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의 큰 보물이었다. 이렇게 중요했던 소가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줄어들었거나 소의 기능이 바뀌게 되었다. 즉, 일소의 가치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 수 또한 과거에 비교해서 현저히 줄어들었다. 현재 횡성군의 1개면에 일소의 수는 3마리 정도가 있는 형편이다. 지금 주로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의 종류는 육우이다. 결국에는 일소의 역할이 줄어들 만큼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소 사육의 목적이 육우의 매매를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 지금 현재 횡성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육우의 사육 두수는 <표2>와 같다.<sup>4)</sup>

아래의 표에서 보면 육우를 기르고 있는 가구의 수는 30여 년 전과 비교하여 1/4이상으로 줄어든 실정이다. 즉, 예전에 비해 80%가 감소한 모습이다. 반면에 한육우의 두(斗)수는 옛날보다 늘어난 추세이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일소의 가치하락이 한 가구당 사육되는 소의 마릿수를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육두수는 증가한 반면 사육농가는 감소하고 평균 사육두수는 증가하였다는 소리이다. 이것의 원인인즉, 현대에 들어서

4) 횡성군 축정산립과 통계자료.

면서 기계의 발달과 육우 위주의 소의 사육 형태가 큰 규모의 기업적 목장의 확산을 야기시키면서 오히려 황성 지역의 소의 마릿수가 옛날과 비교하여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런 경향은 소를 상품화를 시켜 상업적 이득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2-1〉, 〈표2-2〉 황성지역 한육우의 현황(단위:마리)

년도별 / 구분	한 육 우	
	사육호수	마릿수
1965	9,840	12,069
1970	9,274	12,488
1975	8,880	13,173
1980	7,328	13,619
1984	7,295	22,319
1986	6,689	19,895
1987	5,871	15,743
1988	5,215	13,526
1989	4,930	13,601
1990	4,901	14,583
1991	4,660	15,605
1992	-	-
1993	4,292	18,986
1994	4,128	21,571
1995	3,917	21,589
1996	3,828	24,632
1997	3,303	22,975
1998	2,986	20,478

현재의 우시장에서 주로 팔리고 있는 것이 육우인 이유가 바로 이런 대형 목장의 등장이다. 현재 대형 목장이나 농가에서 기르고 있는 소의 종류는 주로 육우와 비육우이다. 육우는 문자 그대로 고기소라는 뜻이다. 비육우는 육우가 아닌 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肥)육우, 즉 살을 인위적으로 찌우는 소이다. 비육우로는 흔히 거세우가 있다. 황성한우의 특징은 바로 이 거세 비육우가 많다는 점이다. 거세우는 수소의 성기를 거세하여 암소화를 시키는 것이다. 소는 주로 수소보다 암소의 육질이 더 부드럽고 맛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거세를 통하여 육질을 여성화, 즉 부드럽게 하여 육질의 1등급률을 30%에서 최대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sup>5)</sup> 더구나 이런 거세 비육우는 군청에서 한두당 10만원 정도의 장려금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황성지역에서는 거세 비육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의 상품화를 위해 상업주의적 측면에서 이런 행위는 필수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5) [http://www.donga.com/docs/magazine/woman\\_donga/200202/culture02.html](http://www.donga.com/docs/magazine/woman_donga/200202/culture02.html)

지금의 우시장에서는 주로 이런 소들이 팔려나가고 있다. 운영자인 횡성축협측에서는 횡성한우의 품질을 위해 엄격한 심사기준과 선별방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횡성우시장에는 소의 체지방을 검사하는 기구라든가 육질을 체크하는 기계들을 전부부터 도입하여 가동시키고 있다. 그리고 축협 측에서 직접 좋은 품종의 수소의 정액을 미리 추출해 놓고 횡성지역 내의 대형 방목을 하는 목장에 무상으로 배분을 해주고 있다.

우시장 내에서 경매되고 있는 소의 종류가 바뀐 것과 동시에 우시장으로 향하는 운송수단의 변화도 소를 사고파는 데에 있어서 영향을 끼쳤다. 옛날, 교통수단의 발달이 미비했던 시절에는 농가의 농민들이 직접 소를 끌고 몇 십 리 길을 걷고 걸어서 우시장에 도착하곤 했다. 장거리 여정에 따른 험터로 마방이란 것이 존재했었고 소를 위한 신도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운송수단의 발달로 우시장까지 트럭 뒤에 소를 실어서 우시장으로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시장 내의 경매 비중이 줄어들고 상인들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그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주로 50:50의 비율을 이루고 있다. 농민들은 오히려 이런 방식을 편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운송수단의 발달은 전국에 있는 소들과의 연결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우시장에서 다른 지역의 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경기, 강원, 충청권 즉, 수도권을 비롯한 수도권 근방에 있는 중심시장은 수도권 한양을 비롯하여 용인, 안성, 청주, 상주, 충주, 원주 등이 있었다. 이 시대의 주요 간선도로를 살펴보면 횡성의 근접한 위치에 있는 원주를 지나가는 길은 한양에서 시작된 길과 근처 충주를 거쳐 가는 두 갈래의 길밖에 생성되지 못하였다.<sup>6)</sup> 이 때는 도보나 우마차에 의존하여 다니는 시절이다. 어찌 본다면 횡성의 우시장이 큰 규모의 그것으로 발전한 배경으로는 이런 교통로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조선시대부터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었고 횡성의 위치적 조건 또한 한양의 시장과 경기 남부 및 충청권의 시장 권과 이 도로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성장을 이룩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근래에 이르러서는 영동고속도로의 발달로 인해 수도권까지의 시간이 불과 2시간 남짓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횡성 우시장의 기능이 상당부분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횡성에서 생산되는 한우고기가 횡성우시장에서 팔리기보다는 서울의 직영점으로 신속히 운반되어 수도권 내에서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횡성한우를 찾는 소비자들의 수가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는 까닭일 수도 있

6) 최영준, "조선시대 영남로 연구,"(한국도로서, 1975)

겠지만 이에 따른 영향으로 우시장의 기능이 많이 축소되어 가고 있다.

### 3) 횡성군의 소 사육시설과 사육방법

횡성군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해소대책과 영농의 기계화는 농업경영의 필수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고 점차 많은 농기계들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다.<sup>7)</sup> 영농기계화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근래에 들어서는 그 영향이 많은 농촌 사회에 퍼졌다.

아래의 <표3>에서도 볼 수 있듯이, 5년 전과 비교하여 모든 농업용 기구들이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특히, 트랙터의 경우에는 5년 전과 비교하여 50%나 늘어나 지금 농촌 사회에서 얼마나 농업기계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짐작케 한다. 이 영농기계화의 영향은 소의 가치를 바꿔게 해주는 한편 우시장의 기능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더불어 소를 사육하는 형태가 바뀌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표3> 농업용 가구 현황(단위 : 대)

연도별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수확기
1995	5,275	567	1,620	1,279
1996	5,365	652	1,822	1,226
1997	5,153	755	1,904	1,283
1998	6,159	985	2,251	1,298
1999	6,053	1,082	2,305	1,349
2000	5,893	1,165	2,303	1,413

최근 고도로 성장한 과학기술과 혁신적인 경영방식이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횡성군에도 몇몇 곳 있었다. 횡성군 청일면에 위치한 봉명 가축 인공수정소는 소를 비롯한 가축들의 인공수정을 해주는 곳이다. 또 다른 곳은 횡성군 내에서 대형적으로 방목형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설성목장이다.<sup>8)</sup> 횡성군의 많은 산악 지형 사이에 들어선 이 목장은 산 중턱에 넓은 목초지를 만들어 놓고 좋은 시설을 갖춘 축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설성목장의 관계자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sup>9)</sup>

7) 농정과 통계자료(횡성군, 2001)

8) 설성목장.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삼교1리. 부지 10만평에 소 350두 보유. (2002. 6. 2)

9) 김정진(남),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삼교1리. (2002. 6. 2)





이 곳에서는 현재의 소의 역할 변화를 보여주듯 주로 육우 위주로 소를 키우고 있다. 특히, 거세우 및 비육우를 주로 키운다고 한다. 비육우의 경우 주로 사료를 먹이게 한다고 한다. 건초를 사용할 경우 마블링<sup>10)</sup>의 색깔이 좋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주로 사료를 선호한다고 한다. 비육우 외에 목장에서 번식우도 기르고 있다고 한다. 요즘에는 예전과는 달리 우수품종의 소를 계속 번식시켜 나가기 위해 발달된 기술로 정자관리를 하고 있다. 번식우의 경우에는 전국의 각 지역에서 우수한 품종의 수소의 정자를 받아서 횡성축협에서 관리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목장에서는 암소가 발정기가 오면 횡성축협에 인공 수정사

를 불러 우수한 품종의 정자를 소와 결합시켜 1등급 한우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자연교배한 소의 경우 비교적 덩치가 작은 단점이 있는 반면에, 번식우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목장과 같은 대형 기업적 목축을 하는 곳에서는 많이 선호하고 있다.

현대의 좋은 소로서의 기준은 육질이 좋다거나 덩치가 커서 고깃살이 많다거나, 혹은 빨리 자라나는 품종을 좋은 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 잘하는 소의 조건과는 많이 달라진 느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곳에서 수소가 가지는 가치는 그리 큰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설성목장에서는 최고의 육질을 위해 수소를 거세우로 만드는 것에 치중을 하고 있다. 소가 생후 3개월 정도일 때 거세를 시킨다고 한다. 이렇게 거세를 시킬 경우 수소에서는 여성호르몬, 즉 암소의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어 암소화가 되기 때문에 육질이 나아진다. 암소의 경우, 수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질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선택하여 시장에 팔게 된다면 새끼의 분만율이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이 곳에서는 암소

10) 마블링(marbling)은 소의 좋은 육질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깃살에 지방살이 약간 끼여 있는 상태를 말함.

의 분만 또한 주요한 과제로 정해 놓았다. 하지만 암소 중 약 10%는 인공수정을 하더라도 새끼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이 암소는 사료만 축내기 때문에 따로 모아서 비육을 시키게 된다. 즉, 마블링용 사료를 먹여 살을 찌우게 한 뒤 시장에 파는 것이다.

이 목장은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송아지에서부터 성인소가 될 때까지 각 단계별 프로그램이 완비되어 있다고 한다. 실제로 성장 연령에 따라 축사가 분류되어 있었다. 병이 들거나 마른 소는 따로 모아놓고 기르고 있었고 일정 연령이 지나면 목초지에 소를 풀어놓고 기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즘에는 외국 소의 수입률이 비교적 높아 한우 판매에 있어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 목장과 같은 큰 목장에서는 자금 회전이 좋아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의 시세가 한우 값이 좋은 편이어서 목장에서는 주로 소를 파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목장에서는 소를 내놓을 때 횡성의 우시장에 내놓기보다는 횡성축협을 통해 서울 공판장으로 직송된다고 한다. 이 곳과 같은 대형 목장에서는 많은 수의 소를 출하하기 때문에 우시장과 같은 적은 수의 소를 개인 대 개인 형식으로 매매하는 곳에는 팔지 않는다. 그 대신에 많은 수의 소가 거래되는 공판장에서 소를 등급별로 나누어 가격을 매겨 매매를 한다고 한다.

우시장의 기능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판장의 등장이다. 우시장에서는 그냥 살아있는 소를 매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고깃소를 선호하는 시대에서는 불리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우시장에서는 소의 등급이나 품질을 매기는 것이 단지 소의 외형이나 특정 부위의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다. 비록 요즘 들어 신식설비가 완비되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공판장에 비해서 다소 신뢰성이 떨어진다. 공판장의 경우 직접 소를 도살하여 그 안의 육질의 등급을 보고 그 소의 등급이나 품질을 결정하여 소비자들에게 그것을 통보해 준다. 고깃소를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로서는 우시장보다는 공판장에서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파는 소에 더 관심이 가기 마련이다. 이렇게 때문에 과거의 일소를 주고 팔던 우시장의 기능은 지금의 추세와는 거리가 먼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목장과 같은 대형 방목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대다수의 소를 공판장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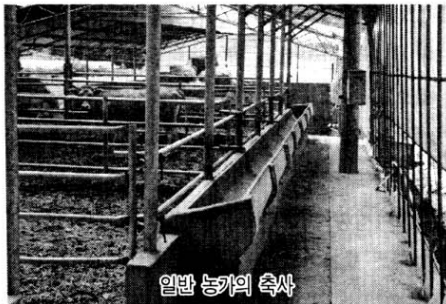
횡성군에 이런 큰 목장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농가에서도 소를 적게는 3~4두에서 많게는 10여 두의 수를 기르는 곳도 있었다.<sup>11)</sup> 필자가 방문한 곳의 주인은 30년 정도

11) 각주 3)과 같음.

소를 키우고 있었고 15두의 소를 기르기 시작한 시기는 97년부터라고 한다. 현재 그의 축사에는 현실을 반영하듯 1마리의 농우가 있고 나머지는 고기소라고 한다. 그나마 농우도 자그마한 일거리를 할 때 사용한다고 한다. 그는 소를 기르는 것은 단순히 부업에 그치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옛날에는 소에 대한 중요성도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 직접 쇠죽을 새벽부터 만들어 가며 퍼주면서까지 소에게 들어가는 정성은 각별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지금은 소의 위상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져 있고 사료의 다양한 발달은 좀 더 사육을 쉽게 해준과 동시에 적은 정성을 기울이게 한 요인도 됐다고 한다. 소가 한 동안 비쌀 때는 일소가 7~800만원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에는 육질을 더욱 우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줄어 심하게는 한 두당 1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한 가지 다른 변화는 주로 소를 찾는 소비자들이 수도권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일소가 거래될 무렵에는 황성군 내에서 주로 순환이 되었지만, 요즘의 고기소는 주로 수도권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는 서울로 팔려나간다고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소비자까지의 거리가 악간은 떨어져 있지만 그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고 운송비에 비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한우들이 수도권으로 팔려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서 외국 소가 자주 들어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한우를 더 좋게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육우이던 일소이던 간에 구매자는 외국 소보다는 한우를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 생김새나 육질에 대한 신뢰도가 한우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황성군 내에서 소를 개별적으로 기르는 모습은 보기가 힘들다. 소를 기르는 집이 있어봤자 기껏해야 1~2마리 정도를 기르는 상태였고, 나머지는 대형목장이나 50여 마리를 키우면서 주업으로 삼는 소수의 사람들밖에 없었다.



현대의 이런 모습과는 달리 일소의 중요성이 높았던 옛날에는 소를 기르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졌었고 길들이는 것 또한 중요했다. 송아지를 한몫하는 일소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한다. 일단 소가 많이 자라기 전에 첫 송아지를 벨 무렵인 생후 20개월 때 교육을 시킨다. 소가 2~3살일 때가 가

장 교육시키기가 가장 좋고 그 이후로는 소의 덩치가 커지고 억세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힘든 편이다. 농민들의 일이 비교적 적은 계절인 봄철에 소를 길들이게 된다. 상대적으로 여름과 가을철에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소를 길들이는 시간이 없고 겨울에는 얼은 땅으로 인해 길들이는 수가 없다.

소를 길들이는 이유는 제대로 교육을 시켜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할 때 소가 제대로 쟁기를 매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매었을 때 제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것을 방지하고자 소를 교육시키는 것이다. 옛날 주 생산원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가 귀중한 동력원이었기 때문에 소를 길들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로 여겨졌다. 수소는 미련스럽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앞으로 자꾸 가지만 암소는 성질이 팔팔하고 풀랑거리는 성질 때문에 수소보다 길들이는 노력이 두 배로 든다.

"소를 길들이는 때는 소가 많이 자라기 전에 훈련시켜야 돼. 하루에 열댓 시간씩 단번에 훈련을 시켜야 소목에 굳은살이 배기고 제대로 소가 일을 한다구."<sup>12)</sup>

소의 어깨와 목 뒷부분에 굳은살이 두툼하게 박힌다면 소는 쟁기질을 별 고통 없이 잘 해낼 수가 있다. 쟁기질을 할 때는 쟁기를 땅 속 깊이 넣지 않고 야트막하게 대어 소가 끌 때 힘에 부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길이 들어진다면 앞에서 끌지 않고 소만 앞장세운 뒤에 쟁기를 깊게 넣고 갈이를 연습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일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다.

이런 모습들은 지금은 영농 기계화로 인해 많이 보기가 어려워졌다. 그나마 소를 길들이어 보신 경험이 있는 세대조차 이제 몇 년 후에는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다.

12) 최종근(남), 71살,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2리(2002. 6. 2.; 2002. 8. 7.)

## 2. 우시장의 구성과 변화

### 1) 시장과 우시장의 유래

생산자와 구매자가 서로 만나서 값을 흥정해 가면서 물건을 교환하는 장이 바로 시장이다. 이런 물건을 교환하는 행위는 이미 오래 전부터 행해져 오고 있었다. 생활에 필요한 잉여물자나 필요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주로 다른 종족이나 생산조건이 다른 동일 종족 사이에서 약탈 또는 상호간의 증여나 조공 등의 형식을 통해 교환이 비롯되었다. 그 후 부족간이나 부족 내부의 적대관계가 사라져 평화스러운 교통이 이루어졌으나 상당 기간 동안에 걸쳐 걸로 드러나지 않는 교환, 다시 말해 대중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사적인 교환만이 이루어졌다. 이런 보이지 않는 교환만이 거듭된 후 공중 앞에서 공평과 평화를 꾀하기 위하여 시장의 형식을 통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로는 교통이 편리하고 눈에 띄기 쉬운 목표물이 있는 곳이 이용되었다.<sup>13)</sup>

시장의 한 형태인 우시장은 그 기원이나 발생에 관한 문헌자료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정기시장의 형성과 그 맥락을 같이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정기시장 내의 한 분야로 차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우의 기원은 그 역사가 삼국시대부터 널리 보급되어 왔다. 특히, 농우<sup>14)</sup>의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축력을 이용한 생산성의 증대는 옛날부터 내려온 것이어서 이런 농우의 공급과 분배를 하는 장소로서 소의 매매 교역을 위한 우시장의 개설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예부터 가축시장의 형성은 정기시장의 형성과 마찬가지로 전국 각지의 정기 시장 내에 함께 개설되었다. 그만큼 예전의 우시장의 비중이 정기 시장의 한 부분으로서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 2) 우시장의 구성요소

우시장을 조사하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시장의 구성요소와 차이점이 존재한

13)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00774>

14) 흔히 눈을 가는 소를 일컫는다.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단은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종류가 일반 시장과는 다른 것이고 또한 시장의 지리적 여건 또한 도시가 아닌 시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 역시 많이 다를 것이라는 추측을 가지게 한다. 하지만 우시장 역시 시장의 한 종류이듯 그 구성요소는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다만 우시장에 맞는 특별한 구성요소가 있었다.

소를 교환하는 시장인 우시장에는 보통 시장에 있는 소비자와 상인, 중개인 외에 다른 구성원 및 구성요소들이 있다.

일단 우시장의 소비자, 상인, 중개인은 일반시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기계화 이전의 전통적인 우시장의 소비자 겸 공급자(상인)는 주로 농민으로 칭할 수 있겠다. 그리고 중개인은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데 공식중개인과 별 중개인으로 나뉘어 진다. 공식중개인은 법적인 자격을 부여받고 일을 하는 반면에, 별 중개인은 그런 자격 없이 비공식적으로 중개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뜻한다. 하지만 이 별 중개인 역시 능력이나 경험, 지식 등이 풍부한 사람들이다. 과거 우시장에서 중개인의 역할은 오늘날보다는 현저하게 높았다. 그때는 중개인 혹은 별 중개인에게 매매의 전권을 위임하고 정작 매매 당사자들은 주막에서 거래 결과를 통보받는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었다. 오늘날에는 이런 관행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 때문에 사라졌지만 그래도 중개인이 흥정과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농촌에서 경운기 등 현대적 농기구의 보급으로 인해 일소의 효용성이 감소되고 육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흥정과정에서 변수가 많이 사라짐으로써 중개인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15)</sup>

횡성 우시장의 경우 예전에는 공식중개인, 즉 축협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중개인들이 완장을 차고 다니면서 소를 중개하였다고 한다. 이 곳은 별 중개인의 수가 공식중개인의 수보다 많은 편이었고 그 기량이 훌륭한 사람도 비교적 많았었다. 이에 반해 공식중개인들은 기량이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 그 이유는 횡성축협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소 거래를 많이 하여 거래량을 늘이고 소를 많이 매각시키는 것만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런 까닭에 축협 측에서 인정해 준 공식중개인은 중개를 올바르게 하려고 선발되기보다는 단지 거래만을 많이 성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별을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농민들은 공식중개인의 수준 미달의 자격에 반발을 하게 되었다. 결국, 축협 측에서는 공식중개인과 비공식 중개인, 즉 별 중개인간의 제도적인 차이 등을 폐지하여 지금

15) "예천의 우시장." (예천군) 참조.

현재에는 두 부류의 중개인이 활동을 하고 있다.

우시장에서의 상인의 역할은 집우(韃牛)와 판매로 요약된다. 상인은 우시장의 집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소를 팔거나 사는 행위를 통하여 우시장이 입지한 지역의 소의 수요와 공급관계 조절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소를 몰고 다니던 시절과 달리 발달된 운송수단 즉, 트럭이나 자동차로 소를 운반함에 따라서 상인들이 소를 구매하는 방식도 일부 달라진 면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우시장을 거치지 않고 상인들이 차를 이용하여 직접 소 사육 농가를 찾아가서 소를 구매하는 것이다. 이런 전정(前庭) 구매는 일종의 밀매인데 상인들도 법적제재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사후이지만 매매증명서를 끊는다.<sup>16)</sup> 횡성 우시장의 경우 이와 흡사한 구매방식이 역시 존재하고 있는데 중간 도매인, 즉 중간상인이 직접 소를 키우는 가옥을 방문하여 소를 구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 상호 간의 이해타산이 맞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의 구매를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횡성지역에서 이런 전정구매를 통하여 소를 구매한 중간상인들은 그 소들을 우시장에서 매매하기보다는 직접 정육점이나 소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 중개인의 중재 하에 개인 대 개인의 거래를 하게 된다. 다른 우시장의 경우 전정판매는 상인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외부상인들에 의해서 행해지는데 축협에서는 중개인들을 통해서 이를 단속하고 있다. 전정구매를 통해 매매를 하게 될 경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정한 거래가 아닌 불공정한 거래로 매매가 이루어 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하지 않나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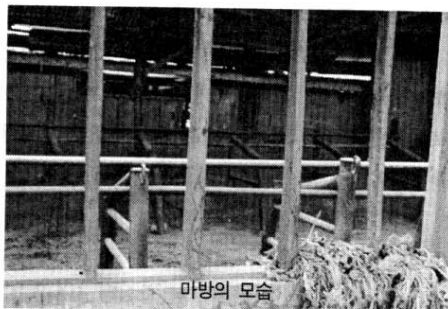
우시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살펴보게 되면 마방의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마방은 소와 소상인 그리고 채꾼(소몰이꾼)들이 쉬어가는 숙소이다. 옛날에는 소를 직접 끌고 걸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소를 매매하는 상인과 그들의 소를 몰고 우시장으로 이동시켜 주는 채꾼에게 있어서 마방의 존재는 필수적이었다. 비록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마방의 존재가치는 사라져서 1970년대 이후로는 그 자취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마방의 역할 가운데 가장 주요한 역할은 소와 소를 몰고 가는 사람의 휴식공간이라는 점이다. 자동차와 같은 효율적인 운송수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시장 간의 이동 방법도 도보뿐이었다. 소를 몰고 걸었을 때 보통 10리를 걷는데 1시간여가 소요된다. 이렇게 장시간의 도보로 인해 피로해진 소와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은 필수적이었다. 더구나 다음날 상품으로 팔려나가야 할 소의 경우에는 마방의 존재는 더욱 필수적이었다. 또한 마방은

16) 위와 같음.

다른 지역에서 몰려드는 상인들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다른 곳의 시세나 동향 등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마방에는 상품이 될 소를 위한 많은 여물을 가져다 놓는다. 이곳에는 외양간 뿐만 아니라 소를 위한 손질용 도구까지 마련되어 있다. 여물을 쪼거나 소를 손



마방의 모습

질하는 것은 주로 마방주인의 몫이고 가끔은 소를 몰고 온 사람이 이런 일을 할 때도 있다. 마방에 준비되어 있는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소를 위한 신이다. '소신'이라고 불리는 짚으로 만든 신발은 장기간 도보로 인해 닳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것을 마방에서 제공해주기도 한다. 이것은 소의 발바닥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신의 역할을 꽤 중요한 편이다.

보통은 소와 소를 몰고 온 사람은 다음날 우시장으로 나가게 되지만 가끔씩은 장기간 마방에서 숙박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마방주인은 소의 상품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모로 최선을 다하게 된다.

마방은 주로 우시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대개의 위치는 우시장의 주변이나 마을의 외곽지역에 위치한다. 우시장의 주변에 있는 이유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이고, 마을의 외곽지역에 있는 이유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마방은 소를 숙박시키는 데에서 받는 숙박료로 운영해 나간다.

이것 말고 우시장에서의 특별한 구성원 중 하나는 바로 채꾼이다. 채꾼은 전문적인 소물 이꾼을 뜻하는 민속용어로 이 사람들은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 소를 끌고 다니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번에 장거리를 운행해야 했던 점들을 미루어보아 채꾼이 존재는 필수적이었다. 이 사람들은 소를 잘 몰 줄 알아야 하고 우시장까지 가는 주변의 지리를 모두 알고 있어야 했다. 채꾼들은 소를 몰아주



바깥에서 바라본 마방의 모습



고 받는 채값으로 직업을 해나갔다. 그러나 이들의 존립근거가 소의 도보이용에 있었던 만큼 도로교통의 발달과 자동차와 기차가 보편적인 운송수단이 됨으로써 이제는 채꾼을 우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밖에도 우시장에서 소의 임신여부를 감별해주는 전문 수의사도 존재했다.

### 3)우시장의 매매

우시장 내의 거래는 주로 흥정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우시장의 매매대상인 소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공산품이나 가공품과는 달리 대충 봐서는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쉽사리 구별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도 정해진 것이 없고 매매당사자의 안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흥정의 과정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시장의 흥정은 당일 시장의 매매두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흥정의 특성상 확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인들도 많이 작용한다. 흥정은 반드시 소의 품질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시장 주변의 분위기에 따라서 흥정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위의 사람들이 구매자를 부추킨다거나 소와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퍼뜨려 사고 싶지 않아도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팔고 싶지 않아도 주위의 분위기에 떠밀려서 강제로 팔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주체가 주로 서민들이어서 다른 일반시장과는 달리 우시장에는 더욱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되고 인간과 동물간의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는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원시적이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담고 있는 시장의 종류라고 생각된다.

옛날의 우시장의 경우 계근대와 같은 소를 측정하는 정밀한 기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를 사려고 하는 구매자들은 소의 등허리를 만져보거나 체형 및 뿔의 모양을 살펴 보면서 그 소의 값을 매기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 사람들의 평가는 정확하다고 한다. 그리고 난 뒤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흥정이 시작되고 중개인의 중재로 소를 매매하게 된다. 이 경우 소를 사는 쪽과 파는 쪽이 각각 돈을 조금씩 내어 중개인에게 중개료를 주게 된다. 보통 소 한 마리당 중개료가 4만원 정도라고 한다. 요즘에는 우시장에 소의 무게와 육질 등을 검사하는 각종 설비들이 완비되어 있어서 육우의 경우에는 kg단위로 값을 매겨 판매를 하게 된다.

#### 4) 횡성 우시장의 변화 형태

횡성 우시장의 정식 명칭은 횡성 가축경매시장으로 횡성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 횡성 우시장의 규모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큰 편이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비육우를 취급하고 있다. 횡성 우시장은 횡성읍 조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504평이다.

70년대 이전에는 지금의 우시장이 없었다. 다만 횡성군 내의 8개면에 있던 우시장의 수는 2개였는데 둔내면에서 열리던 둔내장과 횡성읍에서 열리던 경성장이 그것들이다. 그 당시에는 인접해있는 원주의 우시장 또한 그 규모가 꽤 큰 편이었다. 하지만 횡성군 내에 있던 우시장인 둔내 우시장의 규모는 서울의 동대문 우시장을 제외하고는 중부지방에서 제일 컸었다고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횡성읍의 경성 우시장보다도 컸었다. 둔내 우시장에는 인접한 평창군의 진부와 봉평쪽의 많은 상인들이 근처의 태기산<sup>17)</sup>을 넘어 소를 팔러 오기도 하였다. 당시만 해도 소를 끌고 걸어 다니는 것만이 유일한 이동 방법이었기 때문에 주변지역 이외에는 충청도나 경기도 등지에서 소를 몰고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워낙 둔내 우시장의 규모가 컸었기 때문에 서울의 동대문과 같은 곳에서 소를 끌고 이를 이상을 소요해가며 힘들게 오는 상인들도 있었고 만약 둔내에서 거래가 실패할 경우에는 인접한 횡성 경성우시장에서 소를 매매 했었다. 요즘에는 차량의 등장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과 나타나는 교류가 예전에 비해 좀 더 빈번해 졌다.<sup>18)</sup>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둔내장과 횡성 경성우시장이 하나로 묶여져 결국에는 지금의 조곡리 횡성 우시장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둔내장과 횡성 경성장은 소멸되고 이 모든 기능이 지금의 조곡리 우시장으로 이전해갔다. 이후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7) 흔히 예전의 평창의 진부등지에서 횡성으로 진입할 때 지나가는 산이다. 태기산의 동쪽으로는 평창이, 서쪽으로는 횡성 이 위치하고 있다.

18) 박관수 외 2인 "횡성의 구비문학,"(횡성 문화원, 2002), 65~69쪽.

- 1974년 11월 1일 일반 경매제도 인가
- 1975년 4월 15일 전국최초 일반경매 제도 실시
- 1984년 7월 1일 위탁 판매제도 실시
- 1984년 8월 26일 가축시장 이전(현 위치)
- 1985년 5월 16일 비육우 및 비육 후보우 매일 시장 개장
- 1989년 1월 5일 가축시장 개설 허가

개장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우시장의 개장시간은 시대와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보통 여름의 경우 새벽 4시 정도가 되면 소가 우시장에 들어온다. 그리고 1시간여가 지나면 흥정이 이루어진다. 겨울철의 경우 날씨가 너무 춥고 해가 뜨는 시각이 늦기 때문에 개장시간이 늦춰진다. 늦어도 6시 경에는 소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자동차가 운송수단화 하기 전에는 점심을 먹고 난 이후인 2시가 되어서야 개장을 하였다. 소를 몰고 다니는 거리와 시간을 감안해 보면 오후 개장은 불가피하였다. 농민의 경우 집에서 아침을 먹고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우시장까지의 거리가 서너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개장시간이 오후인 것이다. 이렇게 개장된 우시장은 보통 저녁 어스름한 무렵인 5~6시쯤에 파장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늦게 파장되기도 한다.

우시장의 개장시간이 빨라진 이유는 교통의 발달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과거에는 소를 이동시키는 방법이 도보뿐이어서 그 시간을 계산하여 개장시간이 맞추어 졌지만 트럭 등이 운송수단이 됨에 따라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어서 새벽에 개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런 우시장의 개장시간의 변화는 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변하였는데 처음에는 늦은 오전에 개장하였다가 차츰 새벽으로 시간이 빨라졌다. 마침내 80년대 중반을 넘어서



면서부터 새벽에 장이 서게 되었다. 개장시간이 빨라짐으로 인해 중개인이거나 소규모 상인들은 오후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우시장에 나오는 날에는 다른 일들을 돌볼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오후에 집안의 농사일을 하거나 다른 볼 일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직접 소

를 몰고 오는 상인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트럭과 같은 운송수단을 이용함에 따라 좀 더 광범위한 거래권이 형성되었다. 강원도 홍천, 철원을 비롯하여 경상도의 밀양, 진주, 안동 등 지에서도 소를 팔기 위해 횡성장을 찾기도 한다.

횡성한우의 품질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어서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의 품질은 횡성한우가 최고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횡성축협에서는 횡성지역 내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낳게 되는 경우 무상으로 사료를 배분해주어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

횡성 우시장의 1일 평균 거래장은 10두 정도 되고 1장 평균 출장수 530두, 거래수 447두이다. 주요 시설로는 경매진행장, 접수사, 화장실, 급수시설, 주차장, 통로, 우형기, 계류대, 상하차대 등이 있다. 경매 시에는 kg 단위로 무게를 재어 판매한다.

우시장 주변의 환경 또한 많이 바뀌었다. 예전까지만 해도 운영되어 오던 마방의 기능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어 마방을 운영하던 농가의 축사는 텅 빈 상태였다. 또한 각종 현대화 기기들이 우시장내에 시설되었다. 소의 모양과 크기를 좀 더 정확히 재기 위한 우형기가 들어서게 되었다. 또한 무게를 재기 위한 계근대가 설치되고 차량을 맞이하는 주차장 또한 생겨나게 되었다. 지금의 우시장에는 육우를 팔기위해 소의 체지방을 검사하는 기계라든지 육질을 검사하는 기계도 신설되었다.

지금 현재<sup>19)</sup> 횡성우시장은 광우병 파동의 여파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폐장상태이다. 이로 인해 소를 매매하는 데에 있어서 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 3. 소의 생활 속 위상

#### 1) 일상 생활 속 소의 역할과 변모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소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한우는 예부터 사육해 오고 있는 재래종의 소를 말하며 주로 농업용이나 물품 운반용으로 사용되어 졌었다. 학술적으로는 '한국소' 라고 칭하기도 한다.<sup>20)</sup>

이들 한우는 유럽우와 인도우의 혼혈종에서 유래하여 중국, 양주 등을 거쳐 우리나라로

19) 2002년 7월 기준.

20) "예천의 우시장,"(예천군), 23쪽.

들어오게 되었다. 그 후 타 품종과의 교잡이 거의 없어 순수하게 동족 번식을 유지하여 오늘날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한우는 털 색깔이 황색이며 체구는 다른 소 품종에 비해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성질은 우리의 국민성과 같이 온순하여 사육 관리하기가 쉽다.

이와 같은 한우를 우리 조상들은 주로 농우로서 논갈이, 밭갈이 등의 농사에 이용하였으며 항상 집안 식구의 일원으로서 농부들과는 애환을 같이 하면서 수천 년을 동고동락하며 살아왔다. 과거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소꼴 먹이러 산에 올라가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소등을 타고 귀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리 조상들은 낮에 소와 함께 논밭에서 일을 하고 나면 다음날 아침 소가 먹을 풀을 논두렁이나 밭두렁에서 뜯어 지게에 지고 소를 앞세워 돌아오는 모습이 농촌 풍경이었다. 과거에는 이런 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을 뿐더러 집안에서는 매우 귀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매의 가치는 지금과 비교하여 훨씬 높았을 뿐더러 하나의 큰 재산으로 여겨졌었다.

“아이구,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지요. 옛날에는 소가 있으면 정성을 다해 돌보아 주었죠. 옥수수 같은 거 그저 집어넣고 쇠죽 만들어서 떠다 맥이고 바깥에 말뚝을 박아서 안에서 기르다 바깥에서 일광욕도 시키고 사람이나 다름 바 없었지요.”<sup>21)</sup>

그 시대에서 한 마리의 송아지의 탄생은 곧 한 사람의 인력이 더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이에 송아지의 수에 비례하여 재산의 양 또한 늘어나던 시절이었다. 매매가치가 높았던 소들을 매매하는 장소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런 곳들에는 우시장이 성립되어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옛날과는 달리 현재에 들어서서는 급속한 기계화의 영향으로 트랙터, 경운기 등이 옛날의 일소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소의 기능은 이미 많이 상실되어 있고 고기소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우시장의 매매기준 또한 과거에는 일 잘하고 튼튼한 놈이 높은 값을 받았던 것에 비해, 현재에는 단순히 무게와 육질로서 소의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다.

소를 고르는 기준도 이에 따라 바뀌게 되었는데, 과거의 일소의 경우에는 앞으로 굵어진 뿔과 사방에 고른 털을 가지고 있고 체격도 좋은 그런 소가 좋은 소로 분류되었지만, 요즘에는 이와는 다르게 좋은 육우의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

21) 조성만(남),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2리.(2002. 6. 2: 2002. 8. 7.)

“고깃소는 동그랗기보다는 소 길이가 길고 각지고 등이 넓적한 놈이 좋습니다. 또 뿔, 꺾 빠지고 목이 긴 놈이 좋지요. 이런 게 등심용으로 적합한 놈들이니까요.”<sup>22)</sup>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소는 거름과 축력을 인간에게 제공해주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농업생산을 위해 토지에 사용되는 까닭에 곧 소의 사육은 토지에 대한 투자의 한 방안이며 재생산의 전략이고 동시에 인간의 노동력을 절감시켜주는 기계를 생산하는 과정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동시에 자연환경에 농민들이 효과적, 안정적으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마련한 매개물이자 실체적 의미의 농업용 기계나 마찬가지로이다.

소의 사육과 이용은 농민이 토지에 대한 적응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또한, 소 사육은 축력과 비료를 생산함으로써 우리의 농업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소의 사육은 농민의 경제생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로 채택된 것이었다. 일소로 사육시켜 농업활동의 자원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농가 자본 증진의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농민들의 경제생활에 많은 보탬을 주었다. 즉, 소의 사육은 농업 위주의 생활 속에서 흙과 같은 천연 자원으로부터 최대의 산출을 얻으려는 경제화 활동의 하나였고 농가의 복지증진 행위였다. 그 결과 적게 투자하고 농경작업에 이용 가능하면서도 가장 많은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연령의 소를 사육하려 하였다.<sup>23)</sup>

과거 소가 노동력의 근본이 되던 시절에는 암소와 수소는 서로 다른 대접을 받았다. 암소와 수소는 축력의 차이, 새끼의 출산유무, 성장의 속도와 판매시 금전적 잉여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선택적으로 사용되었다. 수소는 축력이 뛰어나고 성장 속도가 빨라 판매시 금전적 잉여가치가 높아서 사육율이 높았다. 그러나 암소는 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육의 잉여가 낮았다. 암소가 성장속도가 느리다고 하더라도 제 때에 주기적으로 새끼를 낳으면 잉여가 수소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없지만 새끼를 제때에 낳지 못하면 수소보다 사육의 가치가 낮아지게 된다. 즉, 암소는 사육의 안정성이 낮은 관계로 사육율이 저조했다. 이로 볼 때 과거 농가의 소 사육은 효용가치가 가장 큰 축력을 얻음과 동시에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를 마련함을 의미한다. 이렇듯 옛날 사회에서 소의 가치가 높고 효용성이 컸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농경사회가 발달될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었음과 동시에 국가의 기본 경제활동인 농업의 진흥을 도와 근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었다고 생각된다.

22) 각주 21)과 같음.

23) 배영동, “소의 사육과 농가경제적 효용성,” 민속연구(안동대)고 민속학연구소, 1991.2)



일소를 부리는 장면

이런 소의 역할의 변하기 시작한 것은 근래에 이르러 기계화가 도입되고 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사고방식이 나타나면서부터이다. 다시 말해 옛날의 농경위주의 사회에서 이제는 기술위주의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소의 역할도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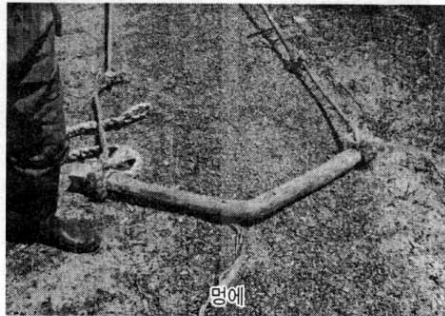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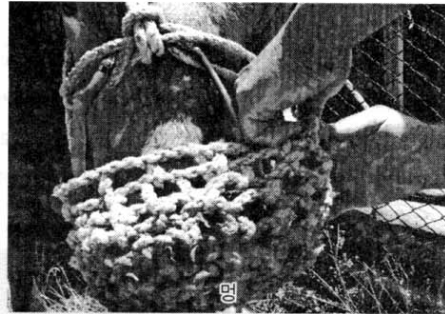
근래에 이르러서는 소의 효용성이 일하는 소의 효용가치보다는 고깃소의 효용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점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소는 고깃소의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기의 육질이 더 나은 암소의 가치가 수소에 비해 더 높게 여겨진다. 암소의 육질은 수소의 그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육질화가 더 잘 되어있기 때문에 가치가 더 높다. 현재에는 오히려 거세우라고 하여 수소의 성기를 거세하여 암소화시키는 개량형 소가 나오고 있어 암소의 가치를 대변해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소 한 마리가 집안의 전 재산이 될 정도로 귀하고도 소중한 존재였다. 바로 소 한 마리가 집안의 일꾼 여러 사람이나 마찬가지로였기 때문이다. 언제나 논밭 일을 할 때면 일소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귀중한 존재였다. 거기에다가 새끼를 낳는다면 그것이 하나의 소득원이 될 수 있기도 했었다. 보통 옛날에 좋은 소 한 마리에 논 세 마지기는 샀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한 마지기도 사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소의 사육은 과거에는 주업으로 키우는 경우도 볼 수 있었으나 근래에 이르러서는 그것의 가치 절하나 육우로 효용이 변화 됨에 따라 또는 불균형한 수입으로 인해 부업으로 소를 기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현재에는 일소보다는 기계로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개인 농가에서는 소에 대해 예전처럼 큰 관심을 가지지는 않는다. 게다가 대형 방목형 목장의 등장으로 인해 소의 대규모 기업적 목축이 이루어져 농가에서는 관리의 어려움 등을 꼽아 주업보다는 부업으로 소를 사육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일련의 추세들은 사람들의 소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소를 찾게 되는 소비자들의 목적이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를 가진 소를 찾기보다는 단순히 쇠고기를 먹기 위한 식육용의 소를 찾고 있는 것이다.

## 2) 잊혀져 가는 것들, 그리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

이번 조사를 통해 많은 사실들을 보고 알게 되었으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계속되어 가는 현대화 속에서 옛 모습이 차츰 잊혀져 가는 것이다. 현지 조사 중 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몇 가지의 농기구를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었다. 일소와 관련된 농기구는 4가지였다. 크게 멍, 멍에, 씨레, 번지 등이 있었다.

멍은 소의 입에 짚으로 엮은 마개이다. 이것은 소가 돌아다니면서 아무 것이나 먹지 못하도록 입 위에 마스크와 같이 덧씌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가 일을 하다가 잠깐 쉬게 내버려 두었을 때 혼자 해로운 잡초를 먹지 못하게 할 때 쓰이는 것이다. 멍에는 소의 목 부분에 걸치는 V자 모양의 나무토막으로 이 멍에의 양 끝부분에 줄을 묶어 씨레를 연결할 때 쓰인다. 씨레는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논을 갈 때 쓰이는 기구이다. 번지 또한 씨레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평평한 나무토막으로 역할은 씨레질을 할 때 동시에 논을 평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것들은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농기구이다. 하지만 미래에는 이



런 농기구의 모습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되리라는 추측을 가지게 한다. 많은 현대문명의 이기들이 발달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데에 편리함과 이로움을 주고 있지만 기계화가 발달함에 따라 잃는 것 또한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일소의 가치 하락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황성군의 노인수가 많은 만큼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하지만 일단은 일소의 필요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다. 강원도 정선, 영월 지방의 지형들은 대부분이 험악한 산악형이라 기계들로 그 논과 밭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높



거나 가파른 지형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방에서는 기계보다 오히려 일소의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그 효용성은 높은 편이다. 또한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기후, 즉 폭우가 내린 뒤에 땅이나 진흙벌 같은 곳은 오히려 일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소는 기본적으로 목과 꼬리만 나와 있으면 다른 부분이 진흙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아직 약간씩 일소의 역할이 남아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일소를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는 하나의 전통문물이 사라져 간다는 위기와 아쉬움 때문이다.

일소의 보존가치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더군다나 소를 일을 시키기 위한 소로 만들어 낸다는 것은 웬만한 훈련과 노력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일소로 기르는 기술을 습득한 지금의 노인세대들이 곧 사라진다면 과연 다음 세대에서 일소를 만들어 내리라는 보장도 없게 될뿐더러 만들어 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살아있는 생생한 일소를 우리 주변에서조차 구경하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씨레와 번지

그래도 일소라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우리 국민들과 가까이 한 존재였다. 이런 일소의 가치가 떨어지고 줄어들에 따라 미래에 사라진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 일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일반 농민들 사이에서는 일소가 그 위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농촌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달

래주는 것은 딱딱하고 차가운 금속덩어리의 기계보다는 되새김질을 하는 황토색 소 한 마리일 것이다.

“그저 농사꾼 본업이지. 국민학교 나오고부터 17,18살 지나면서까지 계속 소를 몰고 키웠지. 근데 이제는 아무래도 기계화가 되야지. 소를 끌고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 그건 뒤떨어진 사회지. 허허허”<sup>24)</sup>

질은 아쉬움이 배어 나오는 말투였지만 농민들 역시 기계화의 효율성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24) 각주 15)와 같음.

### 3) 생활 속의 소의 위상 변화

농민들 사이에서 소의 위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이곳이 나이 든 세대에게는 일소의 역할이 일반인들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들은 옛날부터 농사와 함께 해 온 생활을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언제나 그들의 삶 속에는 항상 소와 함께 살아 온 그런 모습이다.

“내가 소를 키워서, 송아지 때부터 키우면서, 이렇게 소하고 가까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짐승도 내 말을 알아듣단 말이야. 내가 요놈을 길러서 내가 맥이고 거두고 일할 때 일 시키고 그러니 그런 거지. 요 저기서 봤잖아. 내가 ‘워~’ 하니깐 돌아서 딱 섰잖아. 말을 못해서 그렇지. 머리는 사람만큼 영리해. 영리하다구. 내가 밖에 나갔다가 경운기 들고 오면 저기 축사에서 얼굴 빼꼼히 내뺨고 있다구.”<sup>25)</sup>

어릴 적부터 함께 키워주면서 생활해 온 만큼 그들과 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가까워 보였다. 일생을 동고동락하며 살아왔다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은 농사꾼은 소와 함께 생활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내기철이 되면 딱딱한 기계음만이 눈에서 들려온다. 더 이상 예전의 어르신네들의 구수한 소몰이를 하시는 모습이나 일소의 모습들은 찾을 수 없었다.

비단 일소뿐만 아니라 육우를 기르는 농가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기계화 시설과 첨단 시설의 지원을 받는 대형 기업농의 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의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소를 집에 한 마리를 키우면 집에 가족이 하나 더 있는 셈이죠. 아침에 일 나가기 전에 언제나 여물을 놓아주고 가야 되고 항상 들여다보고 잠자리를 왕겨로 깔아주고, 또 옛날에는 축사 안에 소를 키우고 있다가 바깥에 말뚝을 박아놓고 오후에 일광욕도 시켜줘야 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계화 때문에 농가에서는 비교적 수지가 잘 맞지 않는 편이지요.”<sup>26)</sup>

기계화에 따른 목장의 등장은 일반 농민들에게 농사가 주업, 가축 사육이 부업인 형태로

25) 각주 15)와 같음.      26) 각주 3)과 같음.

바뀌게 하였다. 그 이유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할 경우 수지가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소를 키우면 사료값, 설비값들을 많이 투자하는 데에 비해 소 값은 예전에 비해 떨어졌기 때문이다.

소와 함께 많은 세월을 지내 온 만큼 그들, 특히 나이 많은 농민들과 소들 사이에는 일반인이 느낄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소하고 둘이 나가서 일을 하면 얘기할 사람이 없거든. 소하고 둘만 얘기하는 기라. 그니까 가면서는 심심하면 잡념을 넣는 거야. ‘이라~’ 해도 가구 곧바로 때려도 가유. 가는 건 간다구. 그러니까 가면서 괜히 심심하니까 심심풀이로 노래도 부르고 소리두 하는 거지.”<sup>27)</sup>

이러한 소들과의 무형(無形)의 커뮤니케이션은 그들과 일심동체가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또 이것은 힘든 노동의 시간 속에서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찾으려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원인 중 한 가지는 일소를 키우는 과정에 있을 것이다. 보통의 소에서 일을 하기 위한 소로 만들기는 참 어려운 일이다. 일소를 만들 때에는 단번에 그 길을 잡을 수 있도록 하루에 열댓 시간씩 밭이나 논에서 일을 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목에 살이나 뼈가 굳어지기 전에 멍에를 대어 미리 체형을 만들어 나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이제는 기계화로 인해 점차 사라지거나 혹은 변화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는 소는 육우가 팔리게 되고 일반농가에서는 보기가 힘들게 될 것이며 오직 대규모로 기계화, 기업화 된 목장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민들의 진한 땀 냄새와 농사일을 손으로 하는 풍경은 앞으로는 보기가 힘들어 질 것이다. 결국에는 일소의 효용성이 줄어든 만큼 그 위상 또한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다. 집안의 보물로 여기던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한 덩어리의 육질로서 위상이 깎이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의 소에 대한 가치관이나 관념이 바뀌게 되었고 소를 여타의 돼지나 닭과 같은 식육용의 가축으로 바라보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TV나 사진과 같은 것에서 소가 논을 가는 장면을 볼 때 감탄을 내뱉으며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

27) 각주 15)와 같음.

### Ⅲ. 결론

계속되어 발전해 나가는 현대 문명 이기들의 확장은 우리가 평소에 무감각했던 그런 것들을 잃게 하고 있다. 이번 논문 조사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사라져 가는 전통이었다. 주변 지역의 가구들을 방문하여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이런 현실을 직접 느낄 수가 있었다.

지금 일소를 다루고 계시는 어르신 세대들이 지나고 난다면 더 이상 일소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 일소를 다루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만큼 이 세대들이 지나고 난다면 더 이상 일소를 다루는 모습은 보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는 더 이상 살아 움직이는 일소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단순히 황금만능주의의 풍조와 상업화만을 추구하는 지금의 추세가 소를 상품화시켜 가치를 매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된다.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드렸을 때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얘기하시는 할아버님을 보면서 아쉬움이 느껴졌다. 소와 관련된 민속적인 풍습<sup>28)</sup>도 예부터 많이 전해져 오고 있지만 이제는 그 자취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나마 남아있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민속적인 요소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또한, 일소의 사용이 가능한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를 들어, 기계로 농사를 하기가 어려운 산간지방 같은 곳은 일소의 역할을 많이 애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소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일소 사용의 이런 변화가 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시장은 우시장 나름대로 좀 더 달라지는 것이 더욱 나올 것이다. 도시에 있는 백화점에서 편리하게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장을 보는 것도 편리하겠지만 우시장에서 사람들과 소와 흥정을 해가며 직접 분위기를 느끼는 장 또한 색다른 맛이 있을 것이다. 이렇기에 우시장의 존속을 위해서 군청과 같은 관공서에서 우시장을 관광 상품으로 지정해 준다거나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로 보존을 하여 오랫동안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

28) 강원도 각 지역에는 예부터 소와 관련된 풍습이 전해져 오고 있다. 예를 들자면, 홍천에서는 소가 새끼를 가지고 있다가 해산을 할 때 때문에 슬가지로 꽂은 원새끼를 걸어 놓아 부정한 사람이 함부로 출입하는 것을 막는 풍습이 있다.

직한 일일 것이다. 또한, 우시장 주변에 소와 관련된 음식점이나 박물관, 마방 등과 같은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 우시장의 존속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횡성 한우의 우수한 품질을 좀 더 알릴 수 있다면 우시장이 더욱 알려질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녀갈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할 것이다. 비록 이런 것들이 하찮은 일이라 생각될 수도 있으나 하나 둘씩 사라져 가는 우리의 고유의 모습을 작은 것이라도 지켜주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서 이런 현상에 따라 잊혀져가는 전통의 중요성도 느낄 수가 있고 소를 사육하는 방법 등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필자는 단순히 우시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의 민속 문화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시장이란 것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회변동에 따른 농촌사회에서의 변화는 많은 부분에 걸쳐서 영향을 받았다. 우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시장 내에서의 소의 가치가 옛날과 변화했다거나 소비자의 위치, 농촌 생활에서의 소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농촌 기계화는 생산성의 제고를 가능케 해주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급속도로 진전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더욱 풍부한 물량과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고 농촌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작용하였다. 일반 농촌사회의 농민들 또한 이런 시대의 흐름을 큰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나이가 드신 옛 세대 분들 까지도 기계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급진적인 이러한 발달은 옛날과 비교하여 많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현재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촌 향도 현상 속에서 노동력의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이미 농촌 사회에 정착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는 완전하게 토착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모습 속에서도 짙은 아쉬움이 생겨난다.

단순히,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자재인 전통의 기본 토대 위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 온고지신의 모습이 가장 필요할 때이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이 조금은 우리 전통을 아낄 줄 아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으면 하고 외래 문화의 무분별한 도입에 앞서 우리의 전통 풍속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사족이지만 이번 논문을 쓰기 위해 주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좀 더 우리의 토속적인 문화에 대해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시골 민심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을 수 있었다. 어느 곳을 가든 친절하게 맞이해 주

는 태도와 열심히 생활에 종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필자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한편으로는 민속 조사라는 거창한 장르 앞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끝까지 완성을 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먹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번 경험이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준 것 같다.

[참고문헌]

- 배영동, "소의 이용과 그 농업기술사적 의의," 한국민속과 문화연구(형설출판사, 1990.12.)
- "횡성군지"(횡성군, 2001)
- 배영동, "소의 사육과 농가경제적 효용성," 민속연구(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1.02.)
- 조영좌, "조선시대 안성장에 관한 역사 지리적 고찰"(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7)
- "예천의 우시장,"(예천군, 2001)
- 한양명.김성채 외 "도리깨질 끝나면 점심은 없다,"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한수원 울진 원자력본부 (공편), 2001.

---

## 地方自治 10년의 成果와 發展方向

---

고 석 용(지방자치발전연구소장)

### I. 序

지방자치의 보편적 의미는 『일정지역의 주민들이 그지역의 일들을, 그지역 주민들의 책임하에, 그들 스스로(또는 대표자를 통하여)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들 한다. 또 다른 의미로는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도 이해 하고 있기도 하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지배하는 사회환경과 문화가 미래의 가장 큰 자산이기도한 다양성이 강조되는 시대와 사회이다.

획일적 중앙집권적 통치수단으로는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특성과 그 지방만이 갖고 있는 자연 환경 문화가 세계 유일의 특화이며 자원이기도 한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는 지식, 정보, 산업, 경제, 환경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 제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이기도 하다. 20세기 다량생산체제의 산업구조와 기술력은 이제는 세계가 보편화되어 자원이 풍부한 나라와는 경쟁에서 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세기 우리나라의 중요 수출산업이었던 섬유산업이 하향산업이 돼버린 것은 무한한 자원을 가진 중국시장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가와 지방을 통치하고 관리 발전시키는데에도 사회의 변천에 따라 통치하고 관리하는 방식도 변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새로 출발한지 벌써 10여년이 되었고 단체자치까지는 민선3기의 시대가 열렸다.

지방자치단체간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지역의 발전과 침체 우열이 서서히 차이를 보이면서 지역간 자치단체간에도 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다.

바로 21세기는 국가와 국가간의 경쟁은 물론 지역과 지역간에도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시대이며 지방자치는 우리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성과 문화, 자연과 환경을 새로운 사고

와 아이টে으로 접목시켜 세계제일의 특성있는 지역사회와 우리만이 갖는 전통과 문화, 자연과 환경 등을 지역의 자산으로 잘 가꾸어 세계속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을 창출해 나감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은 물론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를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더불어 가꾸어가는 노력이 21세기 지방자치가 추구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 Ⅱ. 지방자치 10년의 일반적 성과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은지가 벌써 10여년이 지나 단체까지는 민선3기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방자치가 다시 도입되던 90년대 초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기대반, 우려반으로 염려하며 민선2~3기가 지나면서 나름대로 제도가 정착되리라는 기대속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지 벌써 10여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가 정말 우리주민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착되고 중앙집권체제하에서보다 더 발전되고 더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또 지방자치의 본질대로 지역의 일들을 지역주민들의 생각대로 추진하고 해결되고 있다고 느끼는 주민은 얼마나 될까?

정말 우리지역이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사회를 가꾸기위해서 지역주민들의 합의된 『방향과 목표』는 무엇이며 주민들과 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등의 기회와 과정은 있었는가?

지역의 중요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이 얼마나 통합되고 반영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를 되물으면 중앙집권체제나 지방자치때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와 행정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결정의 리더들의 사고가 임기응변식 단견으로 정책을 결정하므로서 글로벌시대의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과 목표가 주민들과 합의되지 못 한데 기인하며 이로 인하여 행정의 비효율적인 낭비적요소의 잔존, 조직과 제도의 비효율성등의 변화하는 시대를 주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대흐름에 이끌려감으로서 나침반 없는 항해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결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이 제도의 장점이 행정과 잘 접목되지 못함으로서 제도시행 10여년이 지났음에도 효율적인 제도와 취지가 정착되지 못하여 지방자치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 하겠다.



### Ⅲ. 지방자치 어떻게 가꾸어야 바람직한가 ?

지방자치는 일정지역의 자치의 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행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전문적 식견과 방법을 접목시켜 그 지역의 문제와 미래를 효율적이고 경쟁력있게 가꾸어 나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감으로서 살기좋은 복지사회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자치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을 함께 생각해보기로 한다.

#### 1.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겠다.

지방자치는 결국 그 지역의 주민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 지역의 문제나 미래 또한 그 지역주민의 몫이다. 물론 대표자인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정책결정을 하겠지만,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의 결정은 사전에 주민이 주체가되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 2. 발전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하겠다.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주민들의 지역사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주민참여가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자치10여년동안 우리지역사회가 추구하고야 할 방향과 목표는 분명하게 설정되었는가? 또 한 우리지역만이 갖는 특성이 고려되어 계획된 사업은 경쟁력이 있는가? 미래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주민들의 생각과는 얼마나 일치하고 통합된 의사의 결집과 동의는 받았는가?

한 지역사회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한 존재하고 그리고 세계속에 경쟁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함수들이 모두 고려되어 사전에 이론없이 모든 주민들이 한 방향으로 한 목표를 향해 나갈 때 더 효율적이고 발전의 가속이 붙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상적인 방향과 목표도 중요하지만 합의된 주민의사의 통합을 위한 과정과 절차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다.

### 3.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세워져야겠다.

모두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의 지역사회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한 어떤형태로든 변화하고 발전하며 이어가게 마련이다. 또한 한 지역사회를 변화, 발전시키는 데에도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하에 가꾸는것과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가꾸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지역의 특성, 자연, 환경, 문화등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발전요소를 미래의 가치로 가꿀 수 있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목표달성이 용이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중요한 것이 지금처럼 행정에 일방적인 계획보다는 지역마다 계층마다의 생각과 의견을 마을, 집단, 계층단위에서부터 수렴하고 고려하는 과정과 절차의 배려이다.

### 4. 모든 정책들은 종합적으로 추진해야하겠다.

지역의 정책들은 지역전체의 문제와 여러가지 분야의 문제가 상호연관 되게 되어있다. 전체의 문제와 동떨어진 분야의 문제와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면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져 재투자하게 되거나 얼마못가서 다시 추진해야하는 일들이 발생하게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과 계획에는 합의된 의견의 계진 그리고 많은 재원과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종합적인 계획하에 우선순위에 의한 단계적인 투자계획에 의해 완성되면 전체의 사업이 이루어지게되고 효율성도 높아지게 된다.

지방자치초기에 우리들은 이러한 마스터플랜 없이 단위사업을 중구난방으로 임기내 추진하다보니 단위사업은 완료되었어도 전체목표를 위한 효율성은 극히 미미한 사례들을 흔히볼 수 있게된다.

### 5. 지역, 계층간의 이기주의는 극복되어야겠다.

물론 지역의 문제가 이해집단간의 갈등 문제이며 협상의 과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해 지역간, 집단, 계층간에 자기이해에만 집착하다보면 지역전체의 발전과 이익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된다. 그렇다고 전체를 위해서 발생하는 소수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보상이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겠다. 이러한 조정의 역할이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몫이다.

이외에도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의 개선, 부정부패의 척결등 가꾸어야 할 과제들이 많겠지만 지방자치시행 10여년을 통해서 가장먼저 고려해야할 몇가지를 정리

해 보았다.

#### Ⅳ. 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자세

지방자치는 결국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지역의 일이고 우리지역의 문제이며 우리지역의 미래를 가꾸는 과정이다.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우리의 미래를 누가 대신 하겠는가? 결국 나, 우리, 지역사회가 해결하고 풀어가야 할 숙명적과제이다. 대의제도하에 대표자는 주민들로부터 전체의 문제의 전권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주민의 생각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조정자의 역할일 뿐이다.

지역주민 또한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지역전체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며,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표자가 있으니 알아서 하겠지라는 방관적자세는 결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항상 우리나라는 공동체의식속에서 함께라는 사명의식으로 가꾸어가는 노력이 자치시대 정착을 앞당기고 지역사회발전 선진복지 문화사회를 가꾸는 지름길이다.

어사매 (제17호)

IV. 학술세미나 연구논문  
황성의 명칭과 역사의 재조명  
황성의 민속과 관광화 방안  
황성동족마을의 구조와 운영  
황성지역의 항일민족운동



---

## 橫城의 名稱과 歷史의 再照明

---

元 永 煥 (강원대학교 교수)

1. 머리말
2. 橫城의 名稱과 變遷
3. 橫城人의 생활과 변천
4. 橫城의 先賢先師와 精神文化
5. 맺는말

### 1. 머리말

인류의 역사는 산과 강을 배경으로 발전하여 왔다. 산에서 나무열매를 따먹고 짐승을 잡아먹으며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이동생활을 하다가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면서 씨를 뿌려 농사를 짓고 짐승을 기르는 목축을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산과 강 그리고 들판이 어우러진 인간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중동부에 위치한 횡성지역은 준엄한 태백산맥의 서쪽에 위치하여 동북쪽으로는 태기산(1,261m), 동남쪽으로는 사자산(1,120m), 남쪽으로는 치악산(1,288m), 천태산, 운무산, 수리봉, 발교산 등 크고 작은 산들이 겹겹이 둘러있다. 또한 섬강과 주천강 상류의 크고 작은 하천들이 수없이 많으며, 길고 짧은 하천유역에는 크고 작은 들판이 형성되어 인류생활에 적합한 곳이다. 이와 같이 인류가 생활하기에 적합한 횡성지역에는 일찍부터 인류가 생활하면서 횡성의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

횡성의 역사를 개관한 서책들은 『橫城郡誌』를 비롯하여 『橫城의 歷史와 文化遺蹟』 등이 있고, 횡성의 역사를 부분적으로 다룬 趙東杰 教授의 「횡성과 3.1 운동」, 金濟基 선생의 「횡성지명고 - 於斯買와 潢川에 대하여-」 등 수 편의 논저들이 있으나, 아직까지 수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橫城’이라는 지명은 조선 태종 14년(1414)에 명명되었으나 그 이전인 고구려시대에는 潢川이라 하였고 통일 실라 시대에는 潢川이라 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다시 潢川이라 하였다가, 조선시대에 橫城으로 개칭하였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橫城의 名稱의 변천과 역사적 의의 그리고 橫城의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 2. 橫城의 名稱과 變遷

『世宗實錄』 地理誌에 의하면 橫城縣은 원래 고구려 潢川이었는데(일명 於斯買라고 함) 신라 때 潢川이라고 개칭하였고, 고려 때 다시 潢川이라고 하였으며, 조선 태종 14년(1414)에 潢川은 洪川과 흡이 같으므로 橫城이라고 하였다고<sup>1)</sup> 기록되어 있고, 『高麗史』에서는 횡천현은 본래 고구려 때 潢川(일명 어사매)이라고 했고, 신라 경덕왕 때 潢川이라고 했으며, 고려 때 다시 潢川이라고 했고 고려 공양왕 즉위년(1389)에 監務를 두었으며, 별칭으로 花田이라고 했다<sup>2)</sup>고 기록되어 있다. 새로운 국가가 창설될 때마다 횡성의 명칭이 바뀌어졌다. 이와 같이 국가의 명칭이 바뀔 때마다 지방의 명칭이 바뀐 것은 비단 횡성뿐만 아니라 국가가 바뀌어지면 대부분의 지방명칭을 바꾸었다. 예를 들면 寧越郡은 奈生郡에서 영월군으로 변천하였고, 平昌郡은 郁烏縣, 白烏縣이 平昌郡으로 개칭되는 등 대부분의 郡·縣의 명칭이 변경되었다.<sup>3)</sup>

이와 같이 국가가 새로 개창될 때마다 지방의 郡·縣의 명칭이 개칭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위정자들이 전 왕조가 관할하던 통치체제를 보다 새롭게 하여 국민정신을 새롭게 하고 국가와 민족을 새롭게 통치하려는 국가통치전략에서 시도되었다.

새로운 국가의 통치전략은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통치전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1392년 7월 17일 개성 壽昌宮에서 고려 공양왕을 내몰고 즉위한<sup>4)</sup> 朝鮮의 太祖 이

1) 『世宗實錄』卷153, 地理誌 江原道 橫城縣條 참조.

2) 『高麗史』卷58, 潢川縣條 참조.

3) 『增補文獻備考』卷17, 輿地攷5 郡縣沿革 江原道 奈生郡·郁烏縣條 참조.

4) 『太祖實錄』卷1, 太祖 元年 7月 丁未條.

성계는 易姓革命을 한 군주는 國民精神을 새롭게 하기 위해 首都를 반드시 옮겨야한다고 하고 1394년 11월 29일 首都를 개성에서 漢陽으로 옮기고 다음해인 1395년 6월 13일 漢陽府를 漢城府로 개칭하고, 漢城府를 5部로 나누고 5部의 下部組織으로 52坊(후에 47坊)을 설정하여 수도를 통치하였다.<sup>5)</sup> 또한 같은 날 交州道와 江陵道를 합하여 江原道라고 하였다.<sup>6)</sup> 이상과 같이 새로운 國家를 건설한 위정자들은 통치전략으로 首都를 옮기거나 지방 제도를 개편하여 그 명칭을 개칭하였다.

고구려와 백제를 통일한 신라가 고구려 때 橫川縣을 개칭하여 潢川縣이라 하고 신라와 후백제를 통일한 고려가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통치전략으로 통일신라시대에 개칭한 황천을 고구려 때의 명칭이었던 횡천으로 복칭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朝鮮王朝가 고려시대의 명칭인 橫川을 橫城이라고 개칭한 것도 위정자들의 지방통치전략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다.

橫城과 관련된 명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橫川 :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의 횡성읍을 취감고 흐르는 섬강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지 않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고 하여 또는 縱으로 흐르지 않고 橫으로 흐른다고 하여 橫川이라고 했다는<sup>7)</sup> 설에 이의를 제기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고구려시대에 처음으로 橫川縣이라고 한 명칭은 섬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2) 潢川 : 통일신라 경덕왕 때 潢川이라고 개칭한 이유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통치자들의 통치전략에서 횡천현을 황천현이라고 개칭하였음은 틀림없으나 수많은 글자 중에서 潢字를 쓴 것은 무슨 이유였는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潢字의 뜻은 ‘웅덩이·갈바닥물·은하수·별 이름’ 등의 뜻으로 쓰인다. 따라서 潢川은 ‘은하수’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한 표현이다. 따라서 潢川도 섬강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섬강을 높에서 보면 은하수 같이 반원형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횡성의 지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sup>8)</sup>
- (3) 橫城 : 횡성이라는 명칭은 조선왕조의 3대왕인 태종14년(1414)에 橫川의 음이 洪川과 비슷하기 때문에 橫城이라고 하였다.<sup>9)</sup>

5) 元永煥, 『朝鮮時代 漢城府 研究』,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0 참조.

6) 元永煥, 「江原監營의 史的考察」, 『江原史學』4, 1988 참조.

7) 橫城郡·江原鄕土文化研究會, 『橫城의 歷史와 文化遺蹟』, 1995, 27·28쪽 참조.

8) 金澤基, 「橫城의 地名考-於斯買와 潢川에 대하여-」, 『於斯買』4, 橫城文化院 1987 참조.

9) 『世宗實錄』권153, 地理志 江原道 橫城縣條 참조.

홍천과 음이 비슷하다고 하여 횡성이라고 했다면 城字는 어떤 뜻이 있을까?

필자는 城字는 人類歷史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글자이며 횡성이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통치자의 철학이 담긴 중요한 명칭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橫字는 섬강이 橫으로 흐른다는 의미로 섬강과 관련이 있는 글자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고, 城字의 뜻은 재성, 성쌍을 성, 성성 등으로 불리지며 城郭·城邑·都城·宮城·山城 등으로 사용된다.

城의 뜻은 일정한 구역을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외부와 차단하기 위하여 흙으로 쌓은 것을 土城이라고 하고 돌로 쌓은 것을 石城이라고 하였다. 城郭의 發達史를 보면 인류가 일정한곳에 정착 생활을 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가축이 도망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 안에 있는 가축은 우리의 것이라는 인간에게 소유개념이 생기게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적이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용, 또는 보호용이 되었다. 처음에 나무로 치던 울타리가 전쟁과정에서 불에 잘 타므로 나무대신 진흙을 묻쳐서 울타리를 쌓고 이것을 토담이라고 하였다.

氏族社會가 部族社會로 發展하였고 部族社會가 部族國家가로 發展하면서 統治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쌓은 큰 담을 토성이라고 하였고, 이 성을 邑城이라고 하였으며 邑城이 있는 部族國家를 城邑國家라고 하였다. 이후 임금이 거주하는 궁궐을 보호하기 위하여 쌓은 성을 宮城이라 하고 首都를 보호하기 위하여 쌓은 성을 都城이라고 하였다.<sup>10)</sup>

太宗 14년(1414)에 橫川을 橫城으로 개칭 할 때 城字의 유구한 歷史的 사실을 알고 성자를 취했는지 아니면 횡성지역에 속한 德高山에 큰 산성이 있으니 그냥 橫字와 城字를 합성하여 명명하였는지는 기록이 없으므로 확인 할 길은 없으나 59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횡성의 의미를 음미해보면 유구한 歷史와 심오한 철학적인 명칭이라고 하겠다.

蟾江을 의미하는 橫字와 마을과 주민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며 임금을 보호한다는 의미의 城字를 합성하여 횡성이라고 하였으니 횡성의 뜻은 무지개같이 아름다운 섬강 유역에 자리잡은 횡성 지역과 여기에서 생활하는 주민을 수호하며 영원히 발전시키는 것이니, 橫城이란 명칭은 유구한 역사와 심오한 철학이 담긴 이름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4) 於斯買 : 김준기씨에 의하면 어사매는, '엇매'로 橫川과 같다고 하였다.<sup>11)</sup> 김준기씨는 「龍飛御天歌」를 이용하여 매우 논리적으로 연구하였으나 이미 고구려 시대에 불렀던 지명

10) 서울특별시, 『서울城廓』, 1976, 29~34쪽 참조.

11) 金澤基, 「橫城地名攷 -於斯買와 橫川에 대하여-」, 『於斯買』4, 橫城文化院, 1987 참조.



을 천여 년이 지난 후인 조선시대에 창제된 용비어천가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꼭 맞느냐 하는 것은 더 연구해 볼 여지가 있다.<sup>12)</sup>

김준기씨의 주장대로 於斯買를 옛말로 볼 수도 있겠으나 역사학적 입장에서 보면 於字를 장소, 斯字를 이것저것 하는 대명사, 買字를 물건을 주고받는 교환의 뜻으로 해석하여<sup>13)</sup> 於斯買를 고대사회에서 이 물건, 저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漢韓大字典에서 於字를 보면 기델어·어조사어·있을어로 풀이하였다. 우리가 於를 어조사로 사용할 때 ‘太宗臺在於講林’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太宗臺는 강림(에) 있다’고 하여 於字는 무엇이 어디에 있다는 장소를 표시한다. 따라서 於字는 장소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이다. 斯字는 此字와 같다고 하였고 此字는 이것이라는 대명사이다. 따라서 斯字는 이것 저것 하는 대명사로 쓸 수 있다. 買字는 살매, 구할매 등으로 풀이하여 이것 저것 교환한다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결국 於斯買는 이것 저것 매매하는 곳으로 고대사회에서 물물교환을 하던 곳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횡성이 상업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고구려시대부터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던 장소로 유구한 상업적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 의미가 더 클 것이다.

於斯買를 옛말로 보아 물이 횡으로 흐른다는 橫川의 뜻과 같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으나 於斯買를 고대인이 물물교환을 하던 역사적인 상업의 장소로 보는 것이 횡성의 역사적 의미가 더욱 크게 부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於斯買는 고대사회에서 물물교환하는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花田 : 횡성을 별칭으로 花田이라고 했다는 근거는 고려사 橫城縣名條에 ‘橫川縣 本高句麗 橫川…恭讓王 元年 置監務別號花田’이라고 기록되었고, 『東國輿地勝覽』에도 橫城縣沿革條에 ‘縣名. 橫川, 於斯買, 潢川, 花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橫城 高氏 始祖 高仁庇가 上將軍으로 花田君에 봉해졌다는 것으로 보아 花田도 橫城縣名의 하나였음이 틀림없으나 왜 花田縣이라고 했으며, 언제 명명했는지는 명확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횡성담 전설로 물 속에 잠겼으나 갯천면 花田里 釜洞里 일대가 縣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는데 花田里 일대에는 鄉校터 獄墻터 花城들 등의 지명이 남아 있어 이 일대에 횡성현

11) 김준기씨는 於斯買를 옛말, 즉 橫川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龍飛御天歌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13) 橫城郡·江原郷土文化研究會, 『橫城의 歷史와 文化遺蹟』, 1995, 27·28쪽 참조.

官衙가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고,<sup>14)</sup> 花字와 田字를 합성하여 지명으로 한 것은 이 곳에는 개나리·진달래·철죽 등 꽃나무들이 많이 있어 붙여진 지명으로 추정 할 수 있다.

(6) 蟾江 : 횡성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강을 蟾江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蟾江이라고 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은 없으므로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섬강을 潢川이라 하여 아름다운 무지개 같다고 옛 사람들이 했거니와 섬강은 두꺼비가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과 같다는 의미로 섬강이라고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횡성댐으로 인하여 평상시에 물이 많이 흐르지 않으나 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여름철에는 많은 수량이 흘렀다.

미풍이 부는 달 밝은 밤에 횡성의 강물을 구경하면 섬강이라는 江名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 강 물위에 작은 파도들이 꼭 두꺼비가 기어가는 것 같기 때문이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유식한 횡성인이 달 밝은 밤에 달구경을 나왔다가 산들바람에 작은 파도가(물결)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빛깔, 그 모양이 두꺼비가 엉금엉금 기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두꺼비 蟾字를 붙여 섬강이라고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지개같이 아름다운 강이라는 의미로 潢川이라고 했거나 강 위에 비치는 달 빛 아래의 잔잔하게 흐르면서 일으키는 작은 물결을 두꺼비로 표현한 것은 시적인 표현이요 횡성의 정감을 자아내게 하는 아름다운 명칭이라고 하겠다.

### 3. 橫城인의 생활과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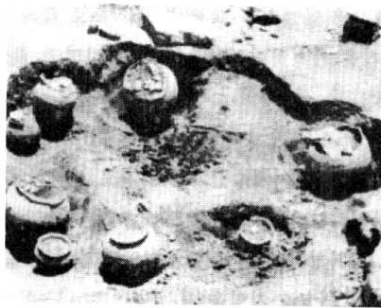
횡성지역에 언제부터 인류가 생활을 하였는지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둔내면 현천리 주천강 상류 일대에서 2~3만 년 전의 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었고 인접해있는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홍천강 유역에서도 중석기시대의 유적이 발견됨으로서<sup>15)</sup> 횡성지역 일대에 이미 석기시대부터 인류가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약 2천여 년 전에는 큰 마을을 형성하고 생활하였던 집단 거주지가 둔내면 둔방내리에서 발견됨으로 횡성인들의 생활모습을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sup>16)</sup> 둔내유적 유물에 의하면 이미 2천여 년 전에 竪穴式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생활하였으며 수정으로 만든 구슬을 장신구로 사용하는 등 문화생활을 하였다.<sup>17)</sup>

14) 同上 416쪽 화전리 참조.

15) 강원고고학연구소, 『홍천 하화계리 도문 중석기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996 참조.

16) 강원대학교 박물관, 『屯內遺蹟調査報告書』, 1984 참조.

17) 同上.



#### ◁ 사진

1985년에 발굴한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의 유적과 유물

횡성인들은 인류 생활의 발전과정에 따라 이미 석기시대부터 횡성지역에 정착하여 씨족사회를 형성하고 생활하면서 씨족끼리 합쳐서 하나의 部族을 형성하였고, 이 부족들이 합하여 部族國家(城邑國家) 형태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부족국가 형태가 馬韓 54개국의 하나로 되었을 것이고 고구려·백제·신라가 정립하였을 때 백제국의 영역에 속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횡성이 백제의 영토였다는 확실한 자료를 제시할 수 없으므로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백제가 성장하면서 한강 유역에서 성장한 馬韓지역을 대부분 차지하였으므로 백제의 영역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18)</sup> 그러나 백제도 처음부터 횡성지역까지 그 영역을 넓혔다고 볼 수는 없고 백제가 국가의 기반을 다지며 대대적인 영토를 확장한 시기가 제8대왕인 古爾王(-234~286)에서 近肖古王(-346~375) 때이므로 횡성지역은 이 시기에 백제의 영역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5세기 초부터 高句麗가 크게 성장하면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특히 20대왕인 長壽王은 백제를 공격하여 蓋鹵王을 죽이고 한강 유역의 백제의 영토를 차지하였으므로 횡성지방은 高句麗의 領土가 된 것이다.<sup>19)</sup>

백제의 영토를 차지한 고구려는 각 지역마다 郡·縣을 설치하여 통치하였으니 이 때 횡성지역을 橫川縣이라고 명명하였다. 고구려·백제·신라가 각축전을 벌리면서 경쟁을 하다가 신라 24대 진흥왕 때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고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한 후 신라 경덕왕 때에는 郡·縣의 명칭을 개칭하면서 橫川縣을 潢川縣으로 개칭하였으니 횡성인들은 고구려인에서 신라인으로 국적을 바꾸어 생활하게 되었다.<sup>20)</sup>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전 국토에 9州 5小京을 설치하여 통치하였는데, 이 때 횡성을 비롯한 오늘날의 강원도 지방에 해당되는 지역을 朔州라 하였고 原州에는 신라 5小京 중의

18) 횡성지역이 馬韓 54국의 하나로서 백제의 영토였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

19) 橫城郡·江原郷土文化研究會, 『橫城의 歷史와 文化遺蹟』, 1995, 28·29쪽 참조.

20) 同上.

하 나인 北原京을 설치하였다. 朔州의 首府는 春川에 있었으며 그 하부 조직으로 郡과 縣을 두었는데 고구려 통치 하에 橫川縣은 그 명칭을 개칭하여 漢川縣이라고 하였고, 朔州 소속으로 하였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왕조에서는 지방의 통치 구조를 수차에 걸쳐 개편하였는데 고려 초기에는 전국을 16道로 개편하는 동시에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취지로 신라시대의 지방의 명칭을 개칭하여 고구려시대 명칭으로 복칭하였다.

신라시대의 황천은 고려시대에 와서는 橫川으로 복칭하여 朔方道 소속으로 하였다.<sup>21)</sup> 그러나 고려 중기에는 전국을 5道 兩界로 개편하면서 朔方道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영동 지방을 東界, 영서 북부 지방을 交州道(東州道·春州道), 영서 남부 지방을 楊廣道에 소속하였는데, 이 때 황천은 처음에는 交州道の 소속으로 春州에 속하였다가 후에는 楊廣道の 소속인 原州 관할이 되었다.<sup>22)</sup> 고려 말기인 恭讓王 即位年(1389)에는 처음으로 橫川縣에 監務를 두었다.<sup>23)</sup>

새로운 왕조를 개창한 조선왕조는 1395년(태조 4) 6월 13일 고려시대의 交州道와 江陵道를 합하여 江原道라고 하였고,<sup>24)</sup> 1413년(태종 13)에 監務를 縣監으로 개칭하고 橫川의 음이 洪川과 유사하다 하여 橫城이라 개칭하였다.<sup>25)</sup>

『世宗實錄』地理志에는 황성지방에는 313호에 595명이 생활하였는데 황성을 본관으로 한 姓氏는 秋·高·趙·尹·黃氏이며 외부에서 온 성씨는 金氏와 朴氏이고 황성의 人物로 門下侍郎平章事를 지낸 文正公 趙을 기록하였다. 또한 이들이 경작하는 토지는 2,737結인데 그 중에서 논은 1/10정도이다.<sup>26)</sup>

『世宗實錄』地理志 보다 300여 년 후에 편찬된 『輿地圖書』에는 황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다. 황성은 縣內面, 南靑龍面, 西公根面, 北晴日面, 甲川面, 井谷面, 屯內面, 隅川面 등 8개 면이 있고 8개 면에는 55개의 리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 거주하는 황성인들은 2,778호에 남자 3,078명 여자 3,022명 총 6,100명이 생활하였다.<sup>27)</sup>

21) 橫城郡, 『橫城郡誌』, 1986, 41·42쪽 참조.

22) 同上.

23) 『世宗實錄』卷153, 地理志 江原道 橫城縣條 참조.

24) 『太祖實錄』卷6 太祖 3年 6月 辛卯條 참조.

25) 『世宗實錄』卷153, 地理志 江原道 橫城縣條 참조.

26) 同上.

27) 輿地圖書上 江原道 橫城 참조.

오늘날 횡성읍에 해당하는 현내면에는 7개 리에 344戶, 남자 397명, 여자 363명 총 760명이 거주하였고 남청용면은 6개 리에 270호 남자 316명, 여자 296명 총 612명이 생활하였으며 서공근면에는 8개 리에 412호 남자456명, 여자 459명 총 915명이 생활하였다. 북청일면에는 6개 리에 212호, 남자228명, 여자 222명 총 450명이 생활하였고, 갑천면에는 5개 리에 346호 남자355명, 여자358명 총 713명이 생활하였고, 정곡면에는 8개 리에 442호 남자 470명, 여자 476명 총 946명이 생활하였다. 둔내면에는 10개 리에 571호 남자 646명, 여자 639명 총 1,285명이 생활하였고, 우천면에는 5개 리에 181호, 남자 210명, 여자 209명 총 419명이 생활하였다.

이상의 호구를 리별로 표를 작성 해보면 다음과 같다.

朝鮮後期 橫城의 隅川面 戶口表 (1759년 통계)

	리	호	남자	여자	총수
	우 천 면	정암리	33	40	37
법주리		31	39	40	79
오원리		34	40	41	81
수남리		29	30	30	60
두곡리		54	61	61	122
계	5	181	210	209	419

이상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천면이 5개 리에 181호 419명이 생활하여 가장 작은 면이었으며, 둔내면이 10개리 571호 1,285명이나 거주하여 가장 큰 면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당시의 인구조사가 정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산간벽지에 1759년 당시 2,278戶에 6,100명이 생활하였던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횡성현에는 횡성인들을 관할하였던 縣監은 원래 從六品官이었으나 한때에는 正三品 武官職의 營將討捕使가 거주하면서 횡성현감을 겸임하기도 하였다. 횡성에 거주하였던 營將討捕使가 軍事와 治安의 측면에서는 원주·영월·평창·정선·홍천·인제·횡성 등 7개의 郡縣을 관할하였으므로 횡성의 위상은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28) 縣監의 職級은 원래 從六品官이었는데 橫城縣監을 武官三品官이 겸직하였다는 것은 횡성의 위상은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횡성현에는 하급관원으로 座首 1명, 別監 2명, 軍官 6명 衙前 24명, 知印 14명, 使令 23명 등 70명이었고, 縣에 소속된 인원 妓生 5명, 官奴 21명, 官婢 12명, 軍牢 30명 등 68명이 있었다. 현감까지 총 139명이 횡성현의 인구 6,100명을 관할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조선왕조 태종 13년(1413)에 완성을 본 조선 8道, 4府, 4大都護府, 20牧, 75都護府, 77郡, 148縣 체제의 지방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강릉대도호부가 縣으로 강등되거나 원주목이 縣으로 강등되는 등 약간의 변동은 있었으나 道·府·牧·郡·縣 제도는 480여년간 유지되어 왔다.<sup>30)</sup> 그러나 조선말기에 이르러 조선왕조 8도 328개의 府·牧·郡·縣 제도는 폐지하고 1895년 5월 26일 자로 조선 23府 337郡<sup>31)</sup>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때 高宗은 '地方制度가 불완전하여 郡과 縣이 균형이 맞지 않고 관리가 지나치게 많아서 가혹한 세금을 증수하는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上意가 하달되지 못하는 등의 폐단이 많으므로 監司·留守 등의 구제도를 폐지하고 府·郡制를 실시하여 폐해의 근본을 차단하고 백성들이 태평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고자 하니 모든 官民은 나의 뜻을 이해하라'<sup>32)</sup>라고 詔勅을 내렸다. 이것을 보면 지방제도를 개혁한 것은 國利民福을 위한 것이었으나 사실은 1894년 甲午改革으로 중앙제도를 개편할 때부터 조선왕조의 전통을 무시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여 침략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日帝의 의도가 개입하였으니 지방제도의 개혁도 고종의 뜻대로 國利民福을 위해서 시도되었던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23府 337郡의 지방제도가 불과 1년 2개월 만인 1896년 8월에 폐지되고 조선 13道 제도가 시행된 것을 보면 고종의 의도대로만 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23府 337郡 지방제도 시행에 따라서 강원도 지방에는 春川府와 江陵府가 설치되었다. 춘천부에 춘천군·양구군·홍천군·인제군·횡성군·철원군·평강군·김화군·낭천군·회양군·금성군·양근군·지평군 등 13개 郡이 소속되었고 강릉부에는 강릉군·울진군·평해군·삼척군·고성군·간성군·통천군·흡곡군·양양군 등 9개 군이 소속되어 강원도 지방은 2개府와 22개郡으로 편성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강원도에 소속되었던 원주목·평창군·정선군·영월군은 충주부에 소속되었다.<sup>33)</sup>

29) 『經國大典』卷1, 吏典 外官職條 참조.

30) 官報 第58號, 開國 504年 5月 26日, 勅令 第98號 참조. 官報에는 336郡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관보에 聞慶郡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문경군을 합치면 337郡이 된다.

31) 內務部 『地方行政 發展史』, 1979, 77~79쪽 참조.

32) 同上.

33) 同上.

이상과 같이 橫城郡은 春川府 13개군의 하나로 춘천부에 소속되었으나 23府 337郡 제도는 다음해인 1896년 8월 4일 자로 폐지되고 조선 13道·8府·1牧·331郡이 시행되었다. 이때 춘천부와 강릉부는 폐지되고 강원도로 다시 명명되었으며 충주부에 소속되었던 원주·영월·정선·평창을 다시 강원도 소속으로 하여 23府 시대에 춘천부의 13군과 강릉부의 9군을 합하여 강원도는 26개군이 되었다. 횡성군은 강원도 26개군 중의 하나가 되었다. 1414년(태종 14) 부터 480여년 동안 縣監이 관할하였던 橫城縣이 1895년 23府 337郡제도 실시에 의하여 橫城縣은 橫城郡으로 되었고 郡守가 관할하게 되었다.<sup>34)</sup>

1910년 일제는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고 보다 효율적인 植民地 統治를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하였다. 특히 그들은 새로운 中央官制와 함께 지방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府·郡·面 이하의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강화하였다. 1917년 자료에 의하면 횡성군은 8개면(郡內面·隅川面·井谷面·屯內面·甲川面·晴日面·公根面·古毛谷面) 108개 리로 개편되었다.<sup>35)</sup>

#### 4. 橫城의 先賢先師와 精神文化

횡성지방에는 유구한 역사의 변천 속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조선시대 生員·進士 시험은 1393년(태조 2)부터 시작하여 1895년(고종 32) 폐지될 때까지 502년 동안 230회를 실시하여 총 47,997명의 生員·進士를 배출하였는데 현재 찾아진 자료는 186회분이고 44회분은 찾지 못하였다. 186회에 합격한 생원·진사는 모두 40,649명이고 확인되지 못한 생원·진사는 44회분 7,348명이다. 확인된 40,649명 중 강원도에서 생원·진사에 합격한 인원은 총 1,581명이다.

이것을 각 府·牧·郡·縣別로 살펴보면, 원주가 가장 많은 535명이고, 강릉 282명, 춘천 217명, 홍천 81명, 횡성 77명,<sup>35)</sup> 양양 57명, 철원 52명, 영월 36명, 울진 26명, 평해 23명, 삼척

34) 越智唯七,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一覽』 江原道橫城, 1917 참조.

35) 橫城文化院, 『조선시대 史料를 통해서 본 橫城』, 2001, 「조선시대 사마방목 횡성지역 임격자」에서 橫城의 生員·進士를 101명으로 기록하였다. 이것은 횡성을 본관으로 하는 모든 생원·진사를 추출한 것이다. 그러나 본관이 횡성이라고 해서 다 횡성사람은 아니다. 橫城의 생원·진사 77명은 과거 합격 당시 거주지가 횡성인 사람만 추출한 것이고 101명은 거주지와는 관계없이 횡성조씨·횡성고씨 등 본관이 횡성인 사람 모두를 추출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다. 횡성을 본관으로 한다고 해서 서울에 사는 횡성고씨를 횡성지역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횡성지역에서 생원·진사에 합격한 사람은 77명이 되어야 한다.

13명, 인제 11명, 김화 11명, 낭천 11명, 간성 10명, 안협 10명, 평강 10명, 평창 10명, 회양 10명, 통천 8명, 고성 6명, 정선 6명 등이다.<sup>36)</sup>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으로 규모가 가장 작은 縣은 10명 내외의 합격자를 냈는데, 횡성만 77명을 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횡성에서 가까운 원주에 七峰書院이라는 다른 지역에는 거의 없는 교육기관이 있었던 교육적인 배경도 있었겠지만 月川 趙穆선생이나 耘谷 元天錫선생과 같이 학문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先賢先師의 정신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횡성지역에는 忠孝와 節義, 改革, 清白吏 등의 정신문화의 유산을 남긴 분들이 많다. 이 중 가장 훌륭한 분들을 시대별로 몇 분만 살펴보면, 첫째는 趙 將軍을 들 수 있다. 조충 장군은 고려시대 文武를 겸비한 장군으로서 횡성을 본관으로 하였고 이름은 湛若이었다. 1171년(명종 1) 侍中 趙永仁의 아들로 출생하여 1220년(고종 7) 50세까지 생존하셨다. 부친인 조영인과 아들 조계순과 더불어 3대가 元帥를 지냈다 하여 三元帥덕으로 불려졌다. 조충장군은 부친이 시중이었으므로 과거시험을 거치지 않고 蔭敍로 관리에 임명되었으나 명종때에 과거시험에 응시하여 급제하였다. 여러 官職을 거쳐서 1209년(희종 5)에는 國子祭酒에 임명되었고, 1211년(희종 7)에는 대사성 한림학사로서 同知貢擧를 겸임하였으며, 동북면병마사, 예부상서 등을 거쳐 1216년(고종 3)에는 거란족이 침략을 감행하자 참지정사 鄭叔瞻이 行營中軍元帥가 되고 趙 장군이 副元帥가 되어 거란족을 격퇴하는데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조충장군은 1218년(고종 5)에는 守司空尙書左僕射가 되어 개경으로 돌아왔으나 거란족의 침입이 날로 심하고 관군이 미약하여 다시 서북면 원수가 되어 김취려·정통보 등을 인솔하고 출정하여 거란군을 대파하였다. 거란족들은 이후부터 江東城에 들어가 웅거하였으나 조충장군은 다시 강동성을 공격하여 함락하는 등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크게 공헌하였다.

둘째로 原州元氏의 증시조로 모시는 耘谷 元天錫을 들 수 있다. 운곡선생은 고려 충렬왕 元年(1330) 7월 8일에 출생하여 이름을 子正이라고 하였고, 호를 耘谷이라고 하였으며 原州元氏 증시조이다. 성장하면서 文章과 學問이 뛰어나 수재로 널리 알려졌고 26세에 國

36) 江原郷土文化研究會, 『江原文化史研究』第3・4輯, 1998・1999, 부록 참조.

37) 原州元氏 宗親會, 『耘谷元天錫詩史』 참조.

破屋鳥相呼 民逃吏亦無 每年加蔽? 何日得難娛 田屬權勢宅 門連暴虐徒 子遺殊可惜 辛苦竟何辜



子監試에 합격하였으나 고려말의 정치가 문란함을 개탄하고 치악산 동쪽 기슭에 은거하여 농사를 지어 부모를 봉양하면서 생활하였다. 일찍이 芳遠(조선 태종)을 가르친 바 있었는데, 방원이 조선왕조의 3대왕으로 즉위한 후 운곡선생을 모셔가려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태종이 그의 집을 찾았으나 미리 소문을 듣고 치악산 깊숙히 숨어버렸다.

太宗은 3일간이나 耘谷선생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집을 지키는 老軀를 불러 선물을 후이 주고 돌아갔다. 태종이 머물던 곳을 후세사람들이 駐臺 또는 太宗臺라 하고 강원도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태종이 운곡선생이 숨어 계실 山을 향해 절을 하였다 하여 拜向山이라는 이름의 산이 있으며, 태종이 산을 넘으며 스승을 만나지 못하여 원통해 했다는 원통재가 전설로 전해온다.

운곡선생은 조선왕조 건국이후 30여 년 간을 치악산 동쪽기슭에 위치한 弃岩에서 草根木皮로 생활하면서 伯夷·叔濟와 같이 굳은 절의를 지키다 세상을 떠났다. 운곡선생은 젊은 시절부터 고려 말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혼란을 개탄하면서 개혁정치를 부르짖으며 울분을 토하였으니 그의 개혁사상은 그의 시에서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운곡선생은 1,144首의 耘谷詩史를 남겼다. 운곡선생은 25세(1354) 때 楊口를 지나다가 탐관오리의 수탈로 텅 빈 마을을 보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무너진 집에는 새들만 지저귀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관리도 보이지 않네, 해마다 폐해만 더해가니 어느날이나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는가. 모든 토지는 권세자들에게 모조리 빼앗겼는데 문 앞에는 포악한 관리들이 줄지었네. 남아 있는 백성들이 더욱 가엽구나. 이와 같은 백성들의 괴로움이 결국 누구의 잘못인가? <sup>38)</sup>

정량흠은 운곡을 고려말의 三隱이라고 하여 모두가 존경하는 鄭夢周와 吉再에 비교하였는데 節介와 史筆의 곳곳함이 그의 문학에 전해지고 있으므로 역사에 담당한 이는 三隱보다 耘谷이라고 평하였다.<sup>39)</sup> 또한 許穆은 耘谷은 君子の 자세를 몸으로 보여준 분으로 백대의 스승이라고 하였다.<sup>39)</sup> 이와 같이 耘谷이 남겨준 節義와 正義의 정신은 횡성의 정신일뿐만 아니라 민족정신으로 추앙되고 있다.

셋째 橫城高氏의 대표적 인물 高荊山을 들 수 있다. 고흥산은 1453년(단종 1)에 출생하여 1523년(중종 18)까지 71세를 생존하였던 인물로 從一品官인 右贊成에까지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사방 10리의 땅을 하사받을 정도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큰 업적

38) 橫城郡·橫城文化院,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1999 참조.

39) 원주시 행구동 석경촌 소재 耘谷先生 墓碣碑文 참조.

을 남긴분이다. 고형산은 1483년(성종 14) 31세로 別試文科 시험에 합격한 이후 출사하여 수많은 官職을 역임하였다. 지평현감, 함경도도사, 사헌부장령, 함경도경차관, 사헌부집의, 해주목사, 함경도절도사, 함경도관찰사, 형조참판, 강원도관찰사, 한성부판윤, 공조판서, 호조판서, 병조판서 등 중앙이나 지방의 요직을 두루 거친 후 우찬성에 이른 전형적인 전통 官吏였다.

특히 함경도도사, 함경도경차관, 함경도절도사, 함경도관찰사 등을 역임하면서 외적의 침략을 물리치고 북방을 수호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중앙관직에 있으면서 강릉→서울 도로개통, 京江船 개통 등 陸路를 개척하고 水路를 개통한 추진력이 뛰어난 유능한 관리로 높이평가 받았다. 또한 고형산이 관리로 있던 시기는 勳舊勢力과 新進士林勢力이 대립하여 정치사회가 매우 어지러웠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勤勉誠實한 생활로 修身齊家治國에 전념하였던 모범적인 관리였다.<sup>40)</sup> 횡성인들은 高荊山의 官僚精神을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鄭宗榮을 들 수 있다.

정종영은 1513년(중종 8)에 출생하여 1589년(선조 22)까지 77세까지 생존하였던 인물로 4道 觀察使에 六曹判書, 漢城府判尹까지 지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대표적인 清白吏에 기록된 최대의 인물이다. 정종영은 원주에서 탄생하였으나 산소가 횡성에 있고 또한 그 후손들이 횡성에 많이 살고 있으므로 횡성의 인물로 보아도 큰 이의는 없을 것이다.

정종영은 28세 때인 1541년(중종 35)에 生員·進士 兩科에 합격하였고 3년 후인 1544년(중종 38)에 大科에 합격하여 承政院 正字로 임명된 후 77세까지 무려 47년 간이라는 긴 세월을 官吏생활을 하면서 江原道·慶尙道·全羅道·平安道の 4도 관찰사를 역임하였고, 吏曹·戶曹·禮曹·刑曹·兵曹·工曹의 6조 판서와 漢城府判尹을 역임하였다. 또한 官吏로서 가장 회구하는 清白吏錄에까지 기록되었다. 이와같이 화려한 경력에다 清白吏까지 된 인물은 우리의 역사상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분이다.

『典故大方』에 의하면 조선왕조 518년 간 수많은 官吏들 중세서 清白吏錄에 기록된 사람은 217명이었다.<sup>41)</sup> 조선시대 官吏로서 가장 절실하게 추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였던 것은 清白吏錄에 기록되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清白吏錄에 기록되면 본인의 영광은 물론이요 후손들에게까지 官吏에 우선 임명되거나 승진에 특전을 주는 등 특혜가 주어졌기

40) 橫城郡·橫城文化院, 『歷史에 빛나는 橫城의 人物』, 1999 참조.

41) 姜毅錫, 『典故大方』卷2 清白吏錄 참조.

때문이다.

清白吏는 청렴결백한 모범 官吏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조선시대 청백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정종영이 출사하던 시기는 이상적인 도덕정치를 추구하며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士林官僚들이 대거 등장되어 기득권을 지키려는 勳舊勢力의 대립으로 야기된 己卯士禍와 외척간의 권력투쟁으로 야기된 乙巳士禍 등 투쟁과 반목이 반복되던 시기였으므로 高官大爵이면서 정쟁에 휘말리지 않았던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복잡 혼란한 시기였음에 불구하고 정종영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았고, 큰 화도 입지 않았으며 清白吏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으며, 모든 公職者의 귀감이 될 분이였다.<sup>42)</sup>

## 5. 맺음말

1. 橫城이란 단어는 橫川의 橫字와 城郭의 城字를 합한 合成語로써 橫川유역에 위치한 지역과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들, 그리고 통치자를 보호한다는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이다. 橫城이란 명칭은 1414년(太宗 14)부터 불렀고 橫城郡이란 명칭은 1895년부터 불렀다. 고려시대에는 橫川縣, 신라시대에는 潢川縣, 조선시대에는 다시 橫川縣, 조선시대에는 橫城縣이라고 하였다.

2. 橫川과 潢川은 蟾江을 의미하는 것이며 橫川은 섬강이 옆으로 흐른다는 의미요 潢川은 섬강이 무지개같이 반달모양으로 아름답게 흐른다는 의미이다. 또한 橫川을 두꺼비섬자를 사용하여 蟾江이라 한 것은 휘영청 밝은 밤에 작은 파도를 이르키며 흐르는 횡천의 모습이 두꺼비 등과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 於斯買와 花田은 橫城의 별칭으로 於斯買는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못하였던 원시사회 또는 고대사회에서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던 장소라는 뜻이며 오늘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의 모체이고 花田은 조선시대 橫城縣이 위치하였던 곳으로 지금은 횡성댐으로 수몰된 갑천면 花田里이다. 花田이라는 의미는 글자 그대로 꽃이 많이 피는 밭을 의미하며 또한 꽃이 많은 곳이라는 뜻이다.

42) 元永煥, 「七峰書院과 江原의 열」, 耘谷學會 學術大會發表文要旨, 2001. 9. 33~44쪽 참조.

4. 橫城지방에는 2~3만년 전부터 인류가 생활하였으며 최소한도 2000여년 전부터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氏族社會·部族社會를 형성하고 생활하였고 수정과 같은 장신구를 만들어 문화생활을 하면서 생활하였다. 氏族社會에서 자기의 氏族을 구분하기 위하여 붙여진 표식이 文字가 생기면서 姓氏가 생기게 되었다. 橫城을 본관으로 하는 趙氏·高氏·秋氏·黃氏·尹氏 등이 거주하게 되었고 또한 金氏·朴氏 등이 이주하였다.

5. 조선시대 횡성지방에서 다른 지방에 비교하여 生員·進士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은(77명) 우연한 것이 아니다. 횡성지방은 근처에 七峰書院이 있어 교육여건도 좋았으나 횡성을 연고로 하는 趙·元天錫·高荊山·鄭宗榮선생 같은 수많은 先賢先師들이 남겨 준 정신문화의 덕택이며, 오늘날 횡성지역이 비교적 산간벽지이면서도 교통의 요지요 상업의 중심지로 발달하는 것은 원시사회부터 물물교환이 이루어졌던 유구한 역사적인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6. 역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지나간 사실을 인식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알아서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설계하여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므로 횡성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先賢先師들이 남겨준 忠孝의 정신, 節義와 改革정신, 清白吏정신을 역사의 敎訓으로 삼아 그것을 실천하는데 모든 횡성인들이 총 매진할 때 횡성의 영원한 발전과 번영이 있을 것이다.

---

## 횡성의 민속과 관광화 방안

---

김 의 숙 (강원대 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2. 횡성인의 성품
3. 생산 민속
4. 민간신앙
5. 횡성댐 수몰지역의 구비전승
6. 횡성 민속문화의 관광화 방안
7. 맺음말

### 1. 머 리 말

민속은 전통성, 변화성, 지역성, 시대성, 현장성이라는 특징을 지닌 민중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문화의 독특한 양상이다. 횡성의 민속은 횡성인에 의해 창출된 그들의 역사이며 문화이기에 횡성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가에 대한 사실을 얻을 수 있고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물음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민속 문화이다.

횡성인의 삶과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문헌 기록은 일반적으로 너무 소략하다. 따라서 횡성인의 삶과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창출하여온 민속의 제반 양태들 곧 품성, 의식주, 관혼상제, 세시풍속, 생산풍속, 민간신앙, 민속예술, 민속놀이, 구비전승 등을 통하여 추론하는 것이 상책이다.

횡성은 수려한 자연과 비옥한 땅 그리고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 각광받는 지역이다. 또 주민의 성품이 착하고 진취적이며, 영동 및 중앙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사통오달의 국도가 있어 교통이 편리해서 '살기 좋은 미래의 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 횡성에는 이미 '레저단지'와 '신공업지대'로 부상하여 수많은 업체가 들어와 있고, 횡성됨을 자원으로 하는 여러 종류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부응하여 본 논문은 횡성이 지닌 독특한 민속문화의 양상과 본질적인 의미를 천착하고 나아가 21c의 화두인 '문화관광의 시대'에 맞추어 보려는 시도로서 집필되었다. 내용 중에는 다소 이상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상(理想)'은 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삶의 가치라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횡성의 민속은 강원도 및 전국적인 보편적 양상을 지닌 부분이 태반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타지역과의 차별성이 있는 자료만을 선택하여 논의하였다.

## 2. 횡성인의 성품

조선조 정조 때에 발간된 《여지도서輿地圖書》의 〈횡성橫城〉조에 보면 “효도가 지극하여 노인들을 공경하고 농사일에 힘쓰며 송사가 없는 고장이라(樹風敬長力農無訟)”고 하였다. 곧 횡성인은 어른을 존경하고 부지런하며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들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근현대에 와서 항간에는 “횡성 가서 잘난 체하지 말라”는 말이 속담처럼 퍼져 있고, 횡성인의 똑똑함에 빚대어 “횡성 사람은 서울 사람을 못 속여 먹으면 잠을 못 잔다”는 말도 생겨났다.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일본사람들 사이에 “횡성 가면 죽는다”, “횡성은 제2의 개성”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sup>1)</sup> 이것은 횡성인이 똑똑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근면·성실·절약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1) 구비전승에 의하면 횡성사람이 개성사람을 이긴 경우가 등장한다. “횡성까쟁이와 개성까쟁이가 만나 내기를 하였다. 창호지와 초를 갖고 흥가에서 하룻밤을 새우기로 하였는데 횡성사람은 창호지로 문을 발라 밤을 새우고, 개성사람은 초에 불을 붙여 밤을 새웠다. 다음날 횡성사람이 창호지를 떼어 가지고 갔으나 개성사람은 초가 다 타버렸으므로 가지고 갈 것이 없어 결국 횡성사람이 개성사람보다 더 까쟁이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한국의 문화자원, 전국문화원연합회, 1999, 횡성조 305쪽]

31운동 때 횡성인들은 양양군민과 함께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하게 만세를 불렀으며, 10여 차례의 시위에 5천여명이 참여하여 5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때에 일본 헌병대가 자리 잡고 있던 횡성읍의 뒷산은 지금 31공원이 되어 기념비가 서 있다. 또 횡성인들은 진즉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녀교육에 매우 열성적이었다. 그래서 사회적 지도자와 지사들을 많이 배출하였다.<sup>2)</sup>

그렇다면 과거사에서 보듯이 부지런하고 은유한 농심(農心)의 횡성인들이 근현대사에 들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자존심과 독립심 내지는 교육열을 지니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횡성에 일찍이 나라와 세계를 향한 '길'이 열려 있어서 남보다 빨리 세상에 눈을 떴고, 현명하게 대처한 때문이다.

'길'은 오고 가면서 만나 상호간에 정보를 전달하고, 문물이 유통되는 공간이다. 횡성은 강원도 땅이면서도 일찍이 서울과 동해안의 강릉 목호 등을 연결하는 경강국도(京江國道)가 관통하였고, 또 서울의 경강상(京江商)들이 황포돛배로 남한강과 섬강을 이용하여 횡성과 문물을 교류할 수 있는 수로(水路)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도로와 수로라는 양대(兩大) 길을 보유한 횡성이기에 사람과 물류의 드나들이 빈번하여 나라와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빨리 알 수 있었고 그것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웠던 것이다.

### 3. 생산 민속

#### 1) 횡성 한우(韓牛)의 전통성

횡성읍 거리를 지나다 보면 정류장마다 '횡성한우'를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횡성 하면 한우, 한우 하면 횡성을 떠올리게 된다. 횡성군에서는 1995년부터 한우를 군(郡)의 상징물로 정하고 '최고급 명품화'로 육성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사업의 목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횡성한우를 전국제일의 으뜸 한우로 개발 육성하여 고품질의 차별화된 청정 한우고기 생산과 브랜드화 및 품질인

2) 여기에는 횡성의 선현들이 이룩한 학문, 충효와 절의, 개혁, 청백리 등 정신문화의 전통도 한 몫을 하였다. 횡성은 예로부터 강원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인구도 적은데 5위에 해당하는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곧 알려진 186회의 생원·진사의 합격자 중에서 강원도의 1581명(전국적으로는 230회에 총 합격자 40649명)은 원주-535명, 강릉-282명, 춘천-217명, 홍천-81명, 횡성-77명, 양양-57명, 철원-52명, 영월-36명, 삼척-13명, 인제-11명, 김화-11명, 낭천(화천)-11명, 간성-10명, 평창-10명, 고성-10명, 정선-6명 등이다. 이는 횡성에 가까운 원주에 七峰書院이라는 다른 지역에 없는 교육기관이 있었으며, 또 조목(趙穆)·원천석 선생과 같이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가진 선현들이 남긴 정신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원영환, 횡성의 명칭과 역사의 재조명, 2001.12.14, 제1회 횡성학술세미나 요지집]

증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 또 직관점을 이용한 적극적인 판로의 모색과 쇠고기를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의 자체개발을 통하여 사육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삼고 있다.<sup>3)</sup>

주지하는 바대로 횡성한우는 육질이 풍성하여 씹는 맛이 좋고 유백색의 근내 지방도가 높아 연하고 담백하다. 또 혈액순환과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아 일반 곡류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미노산라이신과 황아미노산을 다량 함유한 고급 단백질 식품이다. 그리고 맛을 결정하는 글루타민산이 함유되어 품질과 맛에서 다른 브랜드의 쇠고기보다 월등하다는 인정을 받고 있다.

횡성은 해발 100-800m의 표고차가 고루 분포한 준고냉지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뚜렷하고 공기와 수질오염이 거의 없어서 한우 사육에 있어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런 연유로 예로부터 횡성한우의 유명도가 높아서 중부지역에서 제일가는 한우 경매시장이 횡성장날(1일과 6일)에 열리고,<sup>4)</sup> 도축장도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횡성의 한우가 이렇게 횡성의 이미지메이커(ImageMaker)로 등장하고 브랜드화한 것은 환경의 영향과 관청의 도움 때문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예로부터 한우를 사랑하여 온 횡성인들의 민속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횡성의 농가에는 독특한 민속신앙이 전승하고 있으니, 곧 소의 건강과 생산을 위하여 '구멍이 뚫린 돌(石)'을 외양간에 매달아 놓는 습속이 그것이다. 소를 키우는 집에서는 개천이나 들에 나가 구멍이 평 뚫어져 있는 돌을 주워서 그 구멍에 끈을 끼워 외양간에 걸어놓는데, 어떤 집은 그런 돌을 2-3개나 걸어 두었다.

이것은 소의 건강과 번성을 소망하는 소박한 꿈이 빚어낸 신앙의 한 양상이다. 곧 돌이 지닌 제액(除厄)의 기능과 구멍이 지닌 생식력의 기능을 감염받으려는 유감주술에서 비롯된 신앙 행위이다. 전통적인 민간신앙에서는 돌은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여

3) 횡성의 농가에서는 대개 집집마다 개량 우량종자에 해당하는 한우(韓牛)를 기르는데, 종우(種牛)에는 모두 명패를 붙이어서 관리한다. 그러나 횡성 한우의 혈통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우의 미래가 반드시 밝지만은 않다. 그것은 최근에 "횡성 한우를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후손들은 동물원에 가서나 한우를 구경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용의 유인물이 '횡성 한우를 사랑하는 농가'의 명의로 횡성지역 축산농가에 배포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금자, 횡성의 자존심 '횡성 한우', 동트는 강원, 2001년 4호(통권29호), 강원도]

4) 우시장(牛市場)은 5일마다 선다. 우시장에는 지금은 트럭으로 다니나 예전에는 항상 걸어다녔다. 갑천면에서 횡성까지 40리이므로 소를 매매하려면 칫닭이 울기 전에 떠났는데, 채찍으로 소를 몰아 횡성읍에 이르면 마방에서 쇠죽을 먹이고 우시장으로 끌고 갔다. 예전의 우시장은 주로 일소를 매매하는 시장이었으나 지금은 고기 위주의 소를 매매한다. 그래서 암소보다 수소가 비싸다.



마을의 입구에 선돌(立石)을 세우고 돌로 '하루방'을 만들어 액을 제거하였다. 또 돌은 생산의 에너지를 지닌 존재로 상징되어서 바위에 밟고 돌가루를 내어 마셨는데, 이러한 생식력의 기능 위에 생산의 원천인 '여성적'인 것을 상징하는 '구멍'이 뚫린 돌을 취하여 모신 행위야말로 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상이다.

소에 대한, 횡성인의 사랑은 이것뿐이 아니다. 농사일을 담당하는 소의 큰 뿔을 귀하게 여겨 예로부터 소를 싸움시키는 것을 '뿔쓸짓'으로 여겨 절대로 싸움을 시키지 않았다. 또 소를 자식처럼 여겨 겨울에는 춥지 않게 덩석을 입히거나 외양간에 짚을 두툼하게 깔아준다.

추위에 소가 얼면 단오 무렵에 뜬어둔 썩을 사람 오줌에 적셔서 불에 달군 호미로 뜸을 떠주고, 봄에 소가 여물을 잘 먹지 않고 몸이 마르면 '들피 먹었다'고 해서 콩과 보리를 삶아 먹이고 껌질을 벗긴 뱀을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먹였다. 그리고 소가 병을 자주 앓으면 외양간터가 나빠서 그렇다고 해 지관(地官)을 불러 위치와 방향을 다시 잡았으며, 쇠죽을 끓이는 곳은 반드시 소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서 배려하였다.

오늘의 '횡성한우' 브랜드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소를 위하고 사랑한 농민들의 '신앙'과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 2) 토종꿀

예전에 횡성지역에서 토종벌을 치기 위해서는 처음에 숙이 빈 통나무를 잘라 꿀을 발라서 벌이 좋아하는 장소인 바위나 돌무덤에 갖다 놓았다. 양력으로 5~6월쯤이 좋다. 분봉한 여왕벌이 지나가다가 그곳에 내리면 일벌들이 따라 내려 자연분봉의 벌 한통을 얻게 된다. 토종벌은 그곳을 근거로 해서 열심히 꿀을 물어나른다. 가을이 되면 벌떼를 모조리 잡은 후에 벌꿀을 떼다. 그리고 다음해에 다시 산골짜기를 방황하는 산벌을 유인하여 붙잡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연기를 쏘여서 벌과 꿀을 분리시킨 후에 꿀을 뜨고 벌에게도 월동준비를 해준다. 요즘은 토종벌을 치는 집은 대개 5~10여통 친다. 토종꿀 한되 값은 현재 15만~20만원 정도이다.

산에서 토종벌을 받을 때면 쌀을 양재기에 넣고 콩을 놓는다. 그리고 동전도 놓는다. 벌을 받는 날에 만약 외부인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날 가져가더라도 옷이나 수건을 반드시 벗어놓고 가야 한다는 금기가 있다.(갑천면 포동리 채록)

산골에서 토종벌을 치는 사람들은 원래 토종벌을 받는 것은 순전히 산신령의 점지에 의

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래서 벌이 안 되려면 벌떼들이 그 집의 벌통 옆에 며칠 몇날을 모였다가도 주인집을 떠난다는 것이다. 또한 토종벌은 자기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것을 미리 안다고 한다. 그래서 임종 며칠 전부터 목 부분부터 허리 사이가 허영게 되는데 이것을 몽상(蒙喪)을 입는다고 한다. 그리고 제아무리 새 주인이 극진히 아끼고 보살피주어도 죽은 주인의 3년상(喪)이 나간 뒤에는 그 집에 붙어 있지 않고 어디론가 멀리 떠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벌에 대한 횡성인의 독특한 민속에 대해서 앞으로 그 본질적 의미의 천착이 요구된다.

#### 4. 민간신앙

##### 1) 공근면 상화대의 돌탑신앙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횡성현에는 사직단(社稷壇), 문묘(文廟), 성황단(城隍壇), 여단(?壇)이 있어서 군민의 평안과 시화연풍(時和年豐)을 빌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이들 제단의 제사는 관이나 유림에 의해 주도되었다.

공근면 초원2리 상화대 마을에는 2기의 돌탑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여 대대로 '돌탑제'를 지내왔다. 이 탑은 1880년경에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 쌓은 것으로서 탑을 쌓고 난 후부터 마을이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정월 보름의 서낭제 뒤에 돌탑제를 지낸다. 이 돌탑제는 주민들에 의해 주도되는 동제적 성격의 마을신앙으로서 횡성에서는 상화대 마을이 유일하다.

상화대의 돌탑은 둘레 6m, 높이 3m 쯤되는 원뿔형으로 2기가 있다.<sup>5)</sup> 할아버지탑·할머니탑으로도 부르는 것으로 보아 남·여로 세우는 장승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탑은 왼쪽이 할아버지탑, 오른쪽이 할머니탑이다. 할아버지탑은 남근형의 윗돌이 없혀 있고, 할머니탑은 세개의 둥근 윗돌이 없혀 있다.

돌탑의 형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원인이 전승한다. 풍수지리가 근본원인인데, 첫째는 행주형의 풍수요 둘째는 수구가 허한 풍수가 원인이다.

첫째, 상화대 마을이 배형국의 행주형(行舟形)이고 마을 앞에 있는 태봉산이 노적거리

5) 탑이 서 있는 위치는, 지금은 도로가 새로 포장되어서 마을의 입구가 아닌 밖으로 가는 길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탑 사이의 거리로 보아 예전에는 마을의 입구였음을 알 수 있다.

형상이다. 배는 물건을 다 실으면 떠나가므로 배형국의 마을 곧 배가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탑으로 눌러 놓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풍요의 상징인 노적거리 형상의 태봉산이 그대로 있음으로 노적거리가 마을에 유감되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둘째, 마을의 수구(水口)가 허(虛)하여 마을의 부(富)가 빠져나가 가난하므로 그것을 탑으로 비보해서 부자가 되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는 관련 설화가 전승한다.

“이 마을의 흥씨 집안에 군내의 청일면에서 시집을 온 부인이 있었다. 시집을 와서 보니 땅이 나쁘지도 않은데 마을 전체가 무척이나 가난하여 죽도 끓이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그 이유를 물은즉 해마다 ‘풍수’의 피해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 날밤 수심에 잠긴 부인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는『상화터로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허전해서 못사는 것이니 그곳에 둥근 돌탑을 양편에 세우면 틀림없이 풍년이 들어 부자마을이 될 것이다』라고 계시하였다. 꿈을 깬 부인은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고 또 동민에게 알려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 탑을 쌓고 제사를 지내니 과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돌탑신앙의 사례는 동해시 삼화동 삼화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척빈탑’에서 볼 수 있다. 예전에 삼화동은 죽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여 ‘죽동네’로 불리던 마을이다. 언젠가 주민들이 도사의 말을 듣고 돌탑을 쌓아 수구를 막고서 마침내 부자 마을이 되었으므로 하도 고마워서 그 탑을 일러 가난을 물리쳐 주었다는 뜻으로 ‘척빈탑(斥貧塔)’이라고 하였다.<sup>6)</sup>

## 2) 둔내면 두원리의 관우사당(關羽祠堂)

둔내면 두원리에는 소설 《삼국지》의 관우(관운장)를 신앙하는 관우사당이 있다. 사당은 두원1리 정성학씨 덕의 덕 바로 위에 있는데, 지은 지가 25년이 되었다. 처음에 사당은 옹장골에 있었는데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는 길가여서 관에서 험이라 하여 현재의 장소로 옮겨 지었다. 4평 정도의 기와집인 사당 안에는 관우의 형상을 조상하여 모시고 있다.

제사는 예전에는 한달에 한번씩 지냈으나 지금은 경칩이나 상강 때 정씨네 일가친척들만이 모여 지낸다고 한다. 이것으로 보면 여기 관우신앙은 마을신앙이 아니라 가문신앙인 셈이다.

6) 김의숙 외, 민속학이란 무엇인가, 청문각, 1996, 142쪽

정씨 가문에서 관우사당을 모신 것은 정씨의 선친이 80여년 전에 그의 한학선생(漢學先生)님이 돌아가시자 후사가 없던 스승의 제사와 신앙을 물려받아 모시게 된데서 비롯한 것이며, 이 관우신앙은 조선 선조때부터 부친 스승의 조상이 모셔온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스승은 임진란 때 들어온 명군(明軍)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중국 군대에서 군신(軍神)으로 모시던 관우신앙이 전승하여 온 것으로 생각된다.

관우신앙은 임진왜란 때 명군(明軍)이 들어오면서 전래한 도교적 신앙인데, 관우를 관왕(關王) 또는 관성제(關聖帝)로 부르고 군신(軍神)으로써 믿는 신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598년(선조31년)에 명군의 요구로 안동과 성주에 무묘(武廟)라 하여 관왕묘(關王廟)를 처음 세웠고, 1600년(선조33년)에는 명나라 신종의 칙령으로 동대문 밖에 동관묘, 남대문 밖에 남관묘를 세웠는데 지금도 남아있다. 현재 홍천군 서면 두미리 북돋지 마을에도 조선조 말기 명성황후의 측근이던 진령군이 관성제의 위신력으로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키야 한다고 건의하여 지었다는 관우사당이 있다.

관우는 축한의 장수로서 관제·관왕·관성제군·관보살로 신격화하여 중국민족에게 무운(武運)과 재운(財運)의 수호신이며 유계(幽界)의 신령으로 신앙되어 왔다. 관우가 무신(武神)으로 제사를 받기 시작한 것은 당나라 중기부터이다. 또 관우가 왕조의 존경과 숭상을 받기 시작한 것은 명의 영락제가 타타르를 정복할 때, 그리고 청의 강희제가 타이완을 정복할 때 영험을 가져다 준 것으로 믿은 데서 비롯한다. 그래서 비도(匪徒)와 민간의 비밀결사들도 관우를 수호신으로 믿었으며, 청나라 초기에 명나라의 유민들은 부흥운동의 신령으로 삼았다.

관우가 재산신(財産神)이 된 것은 그가 조조에게 잡혀있을 때 조조가 상마금·하마금 등의 푸짐한 상을 내렸는데도 사퇴하고 유비에게 돌아간 고사에서 연유한다. 특히 관성교에서는 그는 지상지존이며 삼계의 북마대성(伏魔大聖)이어서 모든 질병을 몰아내고, 자손을 점지하며, 소원을 달성하여 주는 축복자로 여긴다. 현재에도 대만에서는 관우를 큰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다. 사찰경내 대웅전에도 자태가 웅장한 관우를 모시고 있고, 대만 사람들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도록 관우 상(像) 앞에 머리숙여 기원한다.

## 5. 횡성댐 수몰지역의 구비전승

갑천면 대관대리에 횡성댐이 생김으로써 중금리, 구방리, 부동리, 화전리가 수몰되었고 거기에 살던 주민들도 뿔뿔이 헤어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승하던 유형무형의 문화유산

들도 사라졌다.

1993년도에 필자는 댐으로 인한 지역문화의 소멸을 염려하여 수물 마을을 답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록한 구비전승을 발표한 바 있다.<sup>7)</sup> 그 중에서 횡성을 대표할 만큼 독특한 것 두 편을 소개한다.

### 1) 장독바위의 비극

부동리(가마골)에서 대관대리로 건너는 다리인 부동교에서 약 50m쯤 되는 물속에 장독대로 썼다는, 2평 남짓한 반석의 장독바위가 있다. 이 바위에는 순리를 저버린 탓에 망해버린 일가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가마골(釜洞)의 장독바위에 인근에 큰 집을 짓고서 살았다. 그 집은 부자인데다가 뒷산에는 좋은 약수가 있어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당시에 가마골에는 인가가 드물고 또 집들이 가난해서 나그네를 받을 수 없었으나, 그 집은 부자인데다가 인심도 좋아서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여들었다. 그래서 이 부자집의 하인과 여자들은 손님을 접대하는 일로 눈코 뜰 사이가 없었다. “손님은 갈수록 좋고 비는 올수록 좋다.” “가는 손님의 뒤통지는 예쁘다.” “오늘월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데 여자들은 거울을 제외하고서는 고통과 바쁨 속에서 살게 되니 지치고 짜증이 났다.

그러던 어느날 한 스님이 탁발을 왔다. 며느리가 시주는 얼마든지 할터이니 소원을 풀어달라고 하자 스님은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래서 며느리는 약수와 손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손님들이 오지만 얹게 해달라고 하였다. 스님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손님은 들만 하니까 드는 것이니 재고하여 보라고 하였다. 며느리는 방법이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여 재고하고 말 것도 없이 방법만 가르쳐달라고 졸랐다. 스님이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하자 며느리는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자 스님은 비방을 알려주고 떠나버렸다. 곧 “은밀히 개를 잡아 피를 약수에 뿌리고 개의 가죽으로 약수바위를 덮은 후에 쌀 3되3홉을 놓고 절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은 모두가 좋아하였다.

7) 김의숙, 횡성댐 수물지역의 민속문화, 횡성댐 수물지역의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강원대학교, 1994.)

마침내 기회를 보아 며느리는 하인들에게 개를 잡게 해서 스님이 시킨 대로 하였다. 며느리가 개피를 약수에 뿌리고 바위에 개가죽을 썬 후 절을 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일고 회오리바람이 무섭게 불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순식간에 부동천이 넘치고 독이 터져 검붉은 황토물이 마을을 덮쳤다. 산으로 피신한 며느리네 사람들은 곡식 하나 남기지 않고 농토가 씻겨나가고, 고래등처럼 웅장하던 집이 흔적없이 쓸려 나가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비가 그친 후에 돌아와 보니 오로지 장독대로 사용하던 장독바위만이 물속에 잠긴 채 남아 있었고, 탐스럽던 곡식이 가득하던 농토는 자갈밭이 되어 있었다. 그후 이 가족은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과거사를 간직한 장독바위만이 물 속에 남아 있었다.』<sup>8)</sup>

## 2) 시집살이요

예전의 시집살이는 맵고도 매웠다.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인내의 덕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따라서 그것을 표현한 <시집살이요>가 향간에 전승하는데, 갑천면 포동리에서 채록한 민요가 문학적으로 지극히 아름다우므로 소개한다.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돌을 주면서 “돌을 농 안에 넣어두었다가 돌이 말을 하거든 그때부터 말을 하거라. 그 이전에는 절대로 말을 하지 마라.”고 하였다. 딸은 이를 명심하고 계속 귀를 기울였으나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나도 돌이 말을 하지 않으므로 며느리도 3년간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병어리라 하여 신랑더러 친절에 데려다주고 오라 하였다. 그래서 친절으로 가던 중 꿩이 푸드득거리는 것을 본 신부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저 꿩을 잡아가지고 감시다.”고 하니 신랑이 깜짝 놀라 다시 시댁으로 데려왔다. 며느리는 잡아온 꿩을 구워서 잠자코 시댁 식구들 앞에 놓고 다음과 같이 읊으니 이를 들은 식구들은 모두가 탄복하였다.

이 다리 저 다리 건던 다리는 서방님 잡숫고  
이 가슴 저 가슴 썬던 가슴은 내가 먹고  
이 주둥이 저 주둥이 놀리던 주맹이는 시어머니 잡숫고

8) 이런 유형의 전설이 이웃인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의 백우산에도 있다. 백우산의 경우는 장군바위를 깨뜨리는 것으로 손님을 끊었다. 장군석을 깨뜨리자 거기서 학 두 마리가 날아가고서 망했다는 것이다.

이 나래 저 나래 덮던 나래는 시아버님 잡숫고  
이 꼬리 저 꼬리 치던 꼬리는 시누이 잡숫소.<sup>9)</sup>

## 6. 횡성 민속문화의 관광화 방안

횡성은 뛰어난 자연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수려한 산과 거기서 생성되는 계곡의 맑은 물, 아름다운 풍치의 횡성호수 등 1차원적 관광자원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 1차원적 자원을 이용한 등산, 스키, 썰매, 자연휴양림 등 2차원적인 스포츠 및 레저사업도 활발히 번창하고 있다. 더구나 사통오달의 국도와 지방도 및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기에 관광화의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또는 '정보의 시대'라고 말한다. 여기서 '문화의 시대'는 문화관광의 시대를 내포한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곧 21세기에는 문화가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이 된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앞으로는 경치와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1·2차원적 사업에서 나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하되 보다 발전적인 3차원적 관광사업인 문화관광사업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왔음을 뜻한다. 따라서 횡성군에서도 21세기형의 관광사업인 문화관광상품을 창출을 열렬히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곧 산자수명하고, 교통이 매우 편리하며, 친절하고 근면한 사람들이 살고있는 횡성군은 전지역을 문화적 관광단지로 전환하려는 계획과 의지가 절실히 요구된다.<sup>10)</sup>

문화관광의 대상으로는 종교 성지와 인물 유적지를 비롯하여 축제, 민속, 예술, 건축, 문학이나 그 발상지가 포함된다. 횡성군에 있어서 문화관광 대상으로서의 종교 성지로는 2곳을 추천할 수



9) 김의숙 외, 민속학이란 무엇인가, 청문각, 1996. 110-1쪽 재인용

10) 최근에 횡성군에서는 기존의 관광지들을 정신문화, 생태관광, 내수면관광, 고원위락 등 4개의 관광규역으로 설정해 관광산업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일환의 하나로 가장 낙후된 서원면 석화리와 우천면 하궁리 일대에 골프장을 비롯한 대규모 리조트 개발 및 외지의 기업유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있겠다. 곧 서원면 풍수원성당, 청일면 신대리의 봉복사가 그것이다. 그리고 민속으로는 '횡성회다지소리'와 그 고장인 우천면 '정금마을'이 있고, '전설의 고향'으로는 각림사가 있는 강림면을 추천하는 바이다. 아울러 횡성댐을 이용한 자연생태 관광화의 계획을 추진하여야 하겠다.

#### 1) 횡성 회다지소리의 발상지 - 정금리

우천면 정금리는 1984년도 전국예술민속경연대회에서 <횡성 회다지소리>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민속마을이다. 정금리는 마을의 지형이 우물처럼 생겼기에 '우밀'이라 하였는데, 그곳에서 금이 나서 우물 井자와 金을 합해 井金리가 되고 이어서 鼎金리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이 마을은 신라의 박혁거세에게 패주한 진한의 마지막 왕인 태기왕(泰岐王)이 설욕을 다지면서 주둔하였다는 태기산 자락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인데, 군청 소재지에서 동쪽으로 13km지점에 있다. 현재 이 마을은 1리와 2리로 나뉘어있으며, 170여 가구가 거주한다.

정금리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민속마을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의 예술문화 수준을 높이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횡성회다지소리'(강원도 무형문화제 제 4호)로 강원도와 황성군의 이미지를 확장시키었다. 그리고 주민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정금민속보존회'는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 및 각 종의 축제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1984년도의 <횡성 회다지소리> 외에도 1985년도에 '정금 율레놀이', 88년도에 '점말 옹기 굽기놀이'를 가지고 출연하였으며, '두레농요'로 93년도 도대회 우수상, '미나리타령'으로 83년 도대회 우수상, '어리리타령'으로 90년 도대회 종합최우수상과 91년도 전국대회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강원도민속경연대회에 '횡성들소리'(1994년도), '농가월령가'(1997,2000년도), '횡성농부가'(1999년도), '횡성두레농요'(2001년도)로 참여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정금리는 예로부터 '만경두레'라는 일종의 품앗이제도가 발달하여 70~80여명이 모여 공동작업을 해왔으므로 농사에 관련된 다량의 민요들이 생겨나 전래하고 있다. 정금리에서 전승되는 대표적인 민요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소모는 소리 - 밭갈이를 하거나 모내기 직전 씨레질을 할 때 소의 동작을 위해 부르는 노래
- 미나리 - 모를 심을 때 부르는 노래. 소리의 중간에 '에이여' 라는 후렴을 넣는다
- 단호리 - 논을 애벌맬 때(호미로 맬) 부르는 노래
- 상사데이 - 두벌 논맬 때(손으로 맬) 부르는 노래
- 어러리 - 나무를 하러 오르내리면서 지게 목발을 두드리며 부르는 노래

그리고 정금리에는 다양한 민속놀이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한 놀이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 셋을 소개한다.

#### (1) 옹기굽기놀이

옹기굽기는 옛날의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옹기장이들은 사회의 멸시와 가난 속에서도 옹기굽는 일에 전생애를 바쳤으며, 옹기는 우리 조상의 손때와 애환이 서려있는 민족의 그릇이기에 전래민속이 담겨 있다. 정금리에서는 인근에 있었던 점말의 옹기굽기를 놀이화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그때의 놀이과정은 다음과 같다.

작품구성은 전 5과장으로 되어있다. 곧 입장-소지반죽 및 성형-가마치성-불지피기-옹기도부 및 한마당놀이이다.

- 1과장: 출연기를 선두로 농악사물, 소지반죽꾼, 남너도부꾼, 흙지게, 도공, 소리꾼, 화부, 노인 순으로 입장한다.
- 2과장: 선술이에 맞추어 소지반죽꾼은 반죽메로 반죽을 하고, 도공은 옹기물레를 돌려 성형을 한다.
- 3과장: 옹기가 잘 구어지기를 바라는 치성으로 제물을 차려놓고 고축으로 천신과 지신에게 치성을 드리고, 옹기가마 좌우에 술을 붓고 음복을 한다.
- 4과장: 옹기가마에 불을 질러 옹기를 굽는다.
- 5과장: 다 구어진 옹기를 도부꾼들이 지게와 머리에 이고 이 고장 저 고장으로 팔러간다. 그리고 농악사물에 맞추어 출연진은 신명나게 한마당을 펼친다.

이때 부르는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어화세상 도공님들	이내말쭙 들어보소
이내소리 주는대로	온갖힘을 다해가며
차근차근 이겨보세	황성우밀 바라골에
웅기점말 생겼다네	태백산의 주봉되어
봉화산이 솟았으니	봉화산의 정기받아
웅기가 유명했네	물레돌려 성형하여
1000도의 소성하여	서민그릇 웅기그릇
얼싸좋다 웅기로다	해가뜨나 달이뜨나
일구월심 비는마음	웅기구면 잘나오게
도보하면 잘팔리게	어화등등 내자식아
칠기청산 보배든가	만첩청산 꽃송이야
귀엽기도 추량없네	한두살에 철을몰라
무럭무럭 자라다가	에이호리 소지야

## (2) 육례놀이

정금리에서는 예로부터 엄격한 옛법에 따라 육례예절이 전승되어 왔는데, 역시 이것을 민속놀이화하여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품한 적이 있다. 육례는 혼례에 있어서 지켜야 할 6가지의 의례로 납채-문명-납길-납폐-청기-친영 등이다. 이를 내용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납채(納采) : 남자쪽에서 여자쪽에 혼인의사 유무를 확인한 후에 여자쪽에서 그 남자를 채택한다는 의사표시로 예물을 보내는 것이다.
- ② 문명(問名) : 남자쪽에서 여자의 생모의 성씨를 묻는 예이다.
- ③ 납길(納吉) : 남자쪽에서 가묘(家朝)에 점을 쳐서 길흉판단을 얻고나서 여자쪽에 전하고, 처음으로 여자쪽에 혼인에 관한 구체적인 일을 결정한다.
- ④ 납폐(納幣) : 남자쪽에서 여자쪽에 예물을 보내고, 혼약성립을 증명하는 예로서 검은 비단과 붉은비단을 보냈다. 이것은 음양을 갖춘다는 뜻이다.
- ⑤ 청기(請期) : 남자쪽에서 여자쪽에 혼인날짜의 가부를 묻는다.
- ⑥ 친영(親迎) : 신랑이 신부를 친히 맞아들이는 대례에 해당한다.

### (3) 회다지놀이

이 회다지소리가 전통적으로 전승하는 마을이 있으니, 바로 우천면 정금리이다. 정금리에서는 회다지로 1984년도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최우수상을 받고, 이어서 실시된 전국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획득하였다. 이때의 소리 및 놀이과장은 다음과 같다.

#### 제1과장 : 상여행진

망자의 액을 달래는 방상씨를 선두로 출연기, 만장, 명정, 공포에 이어서 요여, 상여, 백가 마을 따라 상주와 상여꾼들이 상여소리를 내며 외나무다리를 건너 입장한다.

#### 제2과장 : 회다지 율동과 소리

하관이 끝난 후 회를 넣고 다지는 과정으로 여덟사람의 회다지꾼이 회작대기를 들고 금정 안에 들어가 선소리꾼이 앞뒤에 서서 선소리를 주면 회다지꾼들이 그 소리를 받는다. 구체적인 놀이과장은 다음과 같다.

- 연회 - 회다지꾼들이 선소리에 맞추어 서로 등을 대고 엎드려서 서서히 다리를 드는 율동을 반복하는 늦은 가락과 동작이다.
- 칭회 - 회다지꾼들이 회작대기를 바꾸어 쥐고 회를 다지며 돌아가는데, 이는 연회과정보다는 조금빠른 중간다지기이다.
- 방회 - 회다지가 절정에 이른 과정으로서 두발치기와 세발치기의 율동과 소리가 매우 빠르고, 회를 굳게 다지는 마지막 과정이다.

이와같이 여러 종의 민요와 놀이 등 온전한 민속을 간직하고 있는 정금 마을은 조상의 멋과 애환이 담긴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정금민속보존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정월 보름이면 인근의 마을이 함께 이틀간 <태기문화제(泰岐文化祭)>를 거행하고 있다. 그리고 보존회 주관으로 <전국회다지소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왔다.<sup>11)</sup>

그러므로 정금리는 강원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특색있는 민속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어서 전국의 대학생들이 방문하고 민요를 배우고자 한다. 따라서 정선의 '아리랑학교'처럼 조

11) 2001년 9월 30일에 제17회 태풍문화제 개최 기념으로 열었던 '전국회다지소리 경연대회'에는 총 10개 팀이 출연하였다. 곧 경기-1(회다지), 경북-1(달구질), 강원도에서 양양군(달구질)과 영월군(회다지)이 출연하였으며, 횡성군내에서는 횡성읍(회다지), 안흥면(회다지), 둔내면(달구질), 청일면(회심곡), 공근면(회다지), 서원면(달구질) 등 6개 읍면이 출연하였다.

건을 갖추어 정금리 소재의 초등학교에서만 전개하는 민요교육을 확대하고, '민속관'에서 정기적으로 '횡성회다지소리'를 연출한다면 볼거리와 체험거리로서 훌륭한 문화관광상품이 되고 지역 이미지의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2) 종교 성지 - 봉복사와 풍수원성당

### (1) 청일면 봉복사

청일면 신대리의 덕고산(현 태기산) 서쪽 기슭에 봉복사(鳳腹寺)가 있는데, 횡성군의 현존 사찰 중에서 가장 유서가 깊은 절이다.

봉복사는 신라 선덕여왕 16년(647)에 자장율사가 덕고산에 창건하고 삼상(三像)을 조성 봉안한 후 또 5층석탑을 조성하고 봉복사라 칭하였다. 그리고 진덕왕 6년(652)에 낙수대·천진암 등의 암자를 지었고, 문무왕 9년(669)에 소실되어 동왕 11년과 12년(652)에 원효조사가 중건하였다. 고려 덕종 3년(1034)에는 도솔암·낙수암이 소실되었고, 조선 영조 23년(1747)에는 서곡선사가 봉복사 전부를 중건하였다. 그후 강원도 대부분의 사찰처럼 6.25전쟁 중에 완전히 소실되어 소규모로 중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sup>12)</sup>

이상의 기록과 주변의 그윽한 자연환경으로 볼 때 현재와 달리 과거에 봉복사는 상당히 큰 가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옛 가람을 되살리는 불사(佛事)를 시행하고 홍보하여 횡성의 관광자원으로 삼아야 한다.

게다가 봉복사는 풍수지리(風水地理)로 보아 매우 중요한 곳이다. 구비전승에 의하면 봉복사는 한국의 불교성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설악산의 적멸보궁인 봉정암(鳳頂庵), 여주의 봉미산(鳳尾山) 자락에 있는 신희사와 함께 봉황형(鳳凰形)의 지형에 속한다. 그리고 봉복사는 그 중심인 배(腹)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사찰이기에 '鳳腹'이다.<sup>13)</sup>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의 성과가 있어서 봉복사의 관광문화 조성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12) 현재 봉복사의 유물로는 6기의 부도가 있고, 1988년에 조성된 새 부도 1기가 있다. 이외에 최근에 발굴된 비석 1기, 봉복사의 구(舊) 사지(寺址)에 삼층석탑 1기가 있다.[횡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횡성군·강원향토문화연구회, 1995, 171-2쪽]

13) 봉복사의 사명(寺名)은《신증동국여지승람》과《범우고梵宇攷》에서는 "奉福寺在德高山"으로《횡성읍지》와《여지도서》에서는 "奉福寺在縣北七十里五房"으로《관동지》와《관동읍지》에는 "鳳腹寺在縣北七十里五房今爲單房"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당초에는 '奉福寺'로 불리다가 후에 '鳳腹寺'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논거(횡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72쪽)로 보면 후대에 봉복사의 이름이 풍수지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 (2) 서원면 풍수원(豐水院)성당

횡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천주교신자가 많다. 그것은 횡성이 초기 천주교도들이 숨어서 신앙을 키우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마을이 서원면 유현리의 풍수원 마을인데, 이른바 천주학생들이 모여서 이룬 마을이다. 이 마을은 순교자의 피로 얼룩진 초기 천주교 역사에 횡성군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게 한 데에 큰 몫을 하여왔다.

이 마을에 들어서면 서울 명동성당처럼 고딕식의 뽕족탑이 높이 솟은 붉은 벽돌집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데 이것이 1907년에 세운, 강원도 최고(最古)의 풍수원성당(유형문화재 69호)이다. 이 성당은 스무칸 정도의 초가집 성당을 헐고 지은 것인데, 튼튼함과 아름다움으로 손꼽힌다. 프랑스인 신부 르메르의 뒤를 이어 온 정규하 신부가 설계하고, 중국에서 온 건축기술자 3인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 성당은 이곳의 웅기가마에서 구운 벽돌로 벽을 쌓고, 프랑스에서 들여온 함석으로 지붕을 엮었다. 여기에서는 초기에 성심학원을 세워 신자들의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쳤고 그것이 모태가 되어 광동국민학교가 설립됐는데, 거기서 1980년까지 21명의 신부가 탄생하였다.

이 마을에 성당이 서기까지에는 술한 사연을 간직한 마을의 역사가 있다. 180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승훈과 중국 신부인 주문모를 포함하여 3백여인의 천주교 신자가 순교한 신유교란(辛酉敎亂)이 있었다. 그리고 현종의 <척사윤음斥邪繪普>에 적힌 대로 “천주학은 서양사람을 이 땅에 불러오고, 부모를 무시하고 조상제사를 지내지 않을 뿐 아니라 남녀 귀천의 구별을 없이하여 삼강오륜의 질서를 파괴하였으며, 천당과 지옥을 말해서 백성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사교”라고 하여 지속적으로 박해하였다.

이런 박해와 탄압에 밀려 강원도 산골로 숨어들었으니, “교우들이 피난처를 찾아 헤매던 중 산간벽지로 수목이 울창하고 세상과 멀리 떨어져 관헌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기에 여기를 터전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신분을 감추고 숯이나 웅기를 구어 팔고 화전을 일구어 식량을 조달하였다. 마침내 1886년에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면서 그들은 신분을 드러내었고, 1890년에는 초가집 성당을 지어 ‘풍수원성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풍수원성당은 초기에 춘천·원주·양구 등의 강원도와 경기도 양평을 관할하는 천주교의 중심지 역할을 맡았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의 천주교를 원주와 춘천의 교구청에서 관할하게 된 지금도 해마다 유월에 행하는 성지순례행사인 성체대회를 이곳에서 개최한다. 지금도 마을주민들은 대부분 천주교신자이다.

풍수원성당은 이미 한국 천주교의 성지가 되어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배려하여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관광지로서의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 (3) '전설의 고향' - 강림면과 각림사

횡성군에서 강림면만큼 전설이 풍부한 곳도 없다. 강림면은 강림리, 부곡리, 월현리 등 3개의 법정리로 이루어진 작은 면이지만 치악산 국립공원을 끼고 있어 풍치가 수려하고 나옹화상, 원천석, 태종, 각림사 등에 얽힌 전설이 많아서 '전설의 고향'이라는 문화관광 명소로의 조성이 요구된다. 특히 과거에 태종(이방원)의 비호로 횡성에서 가장 번창하였으나 지금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린 '각림사(覺林寺)'의 역사와 유적지를 개발하면 종교적 성지(聖地)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담당하리라고 본다.

강림면의 전설로는 저 유명한 <뽕전설>을 비롯하여, 상원사가 습지여서 절을 지을 수 없자 나옹화상이 지팡이로 아랫마을 부곡의 한 곳을 찌르자 물이 나와 연못을 이루었다는 무내의 <나옹소>, 운곡 원천석 선생이 은거하던 곳이라는 <횡지암橫指菴>, 운곡이 지사들과 하늘과 조상께 제사를 지내었다는 고깔바위(弁岩), 원천석을 만나러 온 태종에게 거짓으로 가리켜 준 것에 죄책감을 느낀 노파가 자살했다는 <노고소老姑沼>, 태종이 운곡이 피하여 간 쪽을 향해 절을 하였다는 <배향산拜向山>, 태종이 말에서 내려 쉬어 갔다는 <주필대>와 <태종대>, 태종이 수레를 타고 넘어왔다는 <수레넘이>와 <수리재>, 쥐와 고양이 형상의 <쥐산>과 <고양이바우> 등 수없이 많다.

강림면이나 안흥면에 이르면 노인들에게서 각림사에 대한 전설을 들을 수 있다.

"각림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강림사라고도 해요. 저기 태종대의 태종이 지은 절이래요. 그 자리는 현재 강림우체국 자리 조금 위 좌측 발이죠. 거기서 기왓장이랑 쇠북 거 등 그런 냄비 정도의 바라 있지요? 그게 나오는 걸 봤어요. 절은 빈대 때문에 망했대지요. 빈대 때문에 살지 못하고 망했는데, 재료 일부를 오대산 상원사로 옮겼다는 거예요."<sup>14)</sup>

각림사는 조선조 초기에 크게 번창하여 한번 쌀을 씻으면 영월 범홍사까지 쌀뜨물이 흘러갔다고 하는 절로서 태종(이방원)이 소시적에 공부하던 곳으로서 그 인연으로 왕의 비호를 받아 크게 중창되었는데 지금의 강림우체국 자리에 있었으며 임진왜란 때 소각된 것

14) 제보자 : 김용성(남,73세), 강림5리, 2001.8.18. 채록

15) 태종이 등극 후특명으로 절을 고쳐고 큰 사찰이 되니 주민이 바위를 태종대라 하였다. 임진년 왜적의 난에 다 났으나 바위만은 우뚝하더라.(登極之後 特命改構 遂爲巨刹 而居民以巖爲太宗臺 壬辰之倭賊之亂 寺盡焚蕩 而臺巖 猶屹立焉)[사찰사전, 대동야승]

으로 알려져 있다.<sup>15)</sup> 일찍이 원주와 치악산의 대표적 인물인 운곡 원천석이 자주 들러 문답을 나누던 수도처이기도 한 각림사에 대한 평가는《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조선조 초기에 예조판서와 대제학을 역임한 변계량이 지은 아래의 시와 그리고 기사(紀事)에 잘 나타나 있다.<sup>16)</sup>

雉岳爲山名東海	치악산이 동해지방에 이름이 높고
山之寶剝覺林最	산의 사찰 중에 각림사가 제일 좋네
雲煙巖壑幽千年	운무와 바위골짜기 몇 천년이던가
地靈擁衛天龍會	지령이 천신과 용신의 모임을 감쌌네

『각림사는 치악산 동쪽에 있다. 우리 태조가 잠저(潛邸)에 있을 때 여기에서 글을 읽었다. 뒤에 황성에서 강무(講武)할 때에 임금이 수레를 이 절에 멈추고 옛노인들을 불러다가 위로하였으며, 절에 토지와 노비를 하사하고 주(州)의 관원에게 명령하여 조세와 부역 따위를 면제하여 구휼하게 하였다.』

각림사에 대한 기록은《태종실록》에 자세하다. 태종이 소시적에 각림사에서 독서하였고, 그로 인한 인연으로 왕의 꿈에까지 매양 “사우(寺宇)와 산천이 보이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태종은 ‘각림사’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배려하고 중창 때에는 많은 물자와 곡식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황성으로 강무(講武)<sup>17)</sup>할 때는 부처의 처소(각림사)에 가려는 뜻을 말리는 사간원의 상소<sup>18)</sup>도 물리치고 2회(태종14년과 17년)에 거쳐 행행(行幸)해서 소원을 빌었다. 그때의 상소를 보면 이렇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옛제도를 본받아 매양 춘추로 강무를 행하였으니 이는 예로써 거동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무를 정지하고 ‘각림사’로 행차하고자 하니, 臣 등

16) 신증동국여지승람(46권), 원주목, 佛宇條

17) 강무는 조선시대에 왕이 주상하여 1년에 2회 봄가을로 행하던 사냥과 무예훈련을 이른다. 강무장으로는 강원도의 철원·김화·횡성·회양·평강, 경기도의 광주, 충청도의 순성, 황해도와 해주 등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철원도호부 편을 보면, 철원의 강무장은 부의 북쪽에 있으며, 땅이 넓고 사람이 드물어서 새와 짐승이 함께 있으므로 강무하는 곳으로 삼고, 망패(網牌) 90명을 두었다고 하였다.

18) 태종실록, 17년(1417) 2월 10일

은 아직 부도(절)로 행차하신 뜻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전하의 一身은 자손만대에 취하는 바가 되는즉 명분 없이 거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이번 각림사의 행차를 정지하고 특별히 강무한다는 명령을 내리시어 강무장을 순행하여 法을 후세에 드리우소서.” **《태종실록》**에 게재된, 태종과 각림사의 관련 기록을 연차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원주 각림사에 쉼을 내렸다. 임금이 잠저에 있을 때 이 절에서 글을 읽었는데 승(僧) 석초(釋超)가 주지로 간다고 하직하니 향을 주어 보냈다. [태종 10년(1410) 12월 임자(20일)]

(2) 명하기를 원주목사에게 각림사 중이 수조(收租)한 일을 핵문하지 말게 하였다. 원주 각림사 주지 석휴(釋休)가 와서 “완우한 승도들이 신이 서울에 나갔을 때 전세(田稅)를 후하게 거두어 전객(佃客)이 官에 고소하였고, 또 요역도 다단(多端)합니다.”고 아뢰었다. 승정원에 명하여 원주에 치서(馳書)하기를, “후하게 거두어 들인 일은 핵문하지 말라.” 하고, 이어서 요역을 경감하였다. 이 절은 방금 재건되어 낙성을 보게 되었다. 中官을 보내어 부처에게 검고 붉은 폐백 1필을 각각 바치고, 승들에게는 면포·명주포 합계 10필, 마포 50필, 저화(楮貨) 200장을 내렸으니, 임금이 잠저에 있을 때 독서를 하던 곳이기 때문이다. [태종 12년(1412) 10월 기사(17일)]

(3) (임금이 횡성에서 講武를 마치고) 원주 각림사에 거동하였으니, 잠저때 공부하던 곳이다. 절의 중에게 채단·홍초를 각각 3필, 쌀과 콩을 100석을 내려 주었고, 아울러 田地 100결과 노비 50구를 더 주었다. 또 절의 노비들에게도 30석의 쌀과 콩을 내려 주었다. [태종 14년(1414) 윤9월 계묘(3일)]

(4) 명하여 철(鐵) 1000근을 원주 각림사에 주니, 사승(寺僧)으로서 중창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태종 16년(1416) 4월 경인(28일)]

(5) 강원도 도관찰사에게 명하여 각림사를 중창하는 재목 1천 주(株)를 주고, 도내에 나누어 배정하여 폐단 없이 운반하여 들이도록 하였다. 또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본궁의 쌀·콩을 합하여 1백 석을 군자감에 바치고, 충청도 제천 창고의 쌀·콩을 바꾸어 각림사에 주라”고 하였다. [태종 16년(1414) 8월 임오(23일)]

(6) 거가(車駕)가 원주의 각림사로 횡행하니 검하여 강무를 위함이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 각림사에서 글을 읽었는데 자라서도 매양 꿈을 꾸면 소시적에 놀던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급전(給田)하고 절을 중신(重新)하게 한 것이다. 내가 강무를 평계로 태조와 모후 두 분의 기일에 가서 보고자 하였으나 태조의 기일은 5월에 있고 모후의 기



일은 9월에 있으니 5월은 바로 농사철이고 9월은 벼가 무성할 때이다. 만약 연고 없이 간다면 대간(大諫)이 반드시 막을 것이다. 또 불법은 비록 믿기 어렵다고 해도 중국에서 들어온 지 오래 되었으니 비록 부처를 위하여 한 차례 간다고 하더라도 또한 좋을 것이다. [태종 17년(1417) 2월 갑신(27일)]

(7) 원주 각림사의 중이 사곡(私穀) 200석을 근처 제천 창고의 쌀 100석과 바꾸도록 청하니, 허락하고 승정원에 전지(傳旨)하기를, “각림사는 내가 젊었을 때에 놀던 땅이다. 지금도 꿈속에서 가끔 간다. 그러므로 중수하고자 하는 것이지 부처를 좋아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중들은 성질이 지리하고 탐할 수 있으니 간사승(幹事僧)으로 하여금 나를 빙자하여 범람하는 일을 못하게 하라.”

그 뒤에 또 전지하기를, “연안부의 본궁 곡식 200석을 그 부의 창고에 들이고, 충청도 제천의 창고 쌀 100석과 경원창의 보리 20석을 각림사에 주라” 하니 대개 낙성한 법회를 도운 것이다. [태종 17년(1417) 7월 무오(5일)]

(8) 命하여 옥천부원군 유창(劉敞)을 각림사로 보냈다. 이보다 앞서 임금이 황고(皇考)와 황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화엄경을 만들었는데, 유창에게 이 경을 보내었다. 그리고 각림사가 완성되매 향(香)과 소(疏)를 주어 법회를 베풀어 낙성하였다. [태종 17년(1417) 7월 무오(5일)]

이상의 기록 중에서 (8)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기록이 있으니 곧《동문선》에 있는 변계량의 소(疏)가 그것이다. 소(疏)란 주소(奏疏)이니 신하가 임금께 올리는 글이다. 먼저 중창법회에 관한 글인 <원주각림사중창경찬법화법석소原州覺林寺重創慶讚法華法席疏>를 보자.

『각림정사는 일찍이 임금께서 행차하셨던 곳이며,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참다운 경입니다. 마땅히 성스러운 곳에서 성스러운 법회를 열 만합니다. 생각하오니, 성상의 은혜로 이름 있는 절에 머물게 된 뒤로 재목의 썩은 것은 바꾸고 이지러진 것은 보충하고자 수희(隨喜)할 인연을 널리 구하였더니 반 년 동안에 부처님을 모실 법당과 승이 살 요사가 높이 세워졌습니다.

지기(地祇)와 천룡이 옹호하며, 임금의 꿈에도 자주 보였습니다. 이는 전생의 인연으로서 임금님의 생각이 특별히 미치신 것입니다. 이번 낙성식을 베풀어서 위[上] 없는 법회를

열었습니다. 한 가치의 향은 널리 시방의 세계를 향기롭게 하고 삼관(三觀)의 묘한 뜻은 모든 법의 강령을 밝혔습니다. 감통(感通)함은 형체에 그림자가 따르는 듯하고 공덕은 향하사로도 비유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나니 만복을 받으시기를 해와 달이 항상 솟는 듯하고 억만년 동안 하늘과 땅처럼 오래 수(壽)하소서. 왕비께서도 복 많이 받으시고 태자께서도 길이 길하고 건강하여지이다. 여섯 기운이 순하여 풍우가 때 맞으며, 다섯 가지 무기[兵]를 거두어 조정과 지방이 평안하여지이다.<sup>19)</sup>

이 글은 변계량이 썼으나 유창의 입장에서 올린 소로 보인다. 위의 (8)에서 임금에 유창을 각림사로 보낼 때 화엄경을 가져가게 하였고, “성상의 은혜로 이름 있는 절에 머물게 된 뒤로 재목의 썩은 것은 바꾸고 이지러진 것은 보충하고”의 기록에서 유창이 경전과 향 및 왕의 발원문(疏)를 지니고 반년 전에 도착하여 절의 중창을 도운 것으로 여겨진다.

또 위책에는 이 소(疏) 옆에 또다른 소가 있으니 역시 변계량이 태종의 입장에서 쓴 글이다. (8)에서 유창에게 소를 보냈다고 하였는데, 여기의 소가 바로 그것일 것이다.

『보배로운 절을 중창하는 것은 옛날의 사림을 기념한 것이며, 참다운 경을 설하여 드날리는 것은 저승의 명복을 비는 것입니다. 이에 간절함을 다하여 백호(白毫)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생각하오니 치악산의 각림사는 젊었을 적에 거쳐하던 곳으로 세월이 많이 지났으나 잊히지 않기에 여러 번 행차하였나이다. 산천은 완전히 예전과 같고 수목들은 울창해서 그늘을 이루었습니다. 쳐다보고 서성거리며 느껴보니 옛날이 생각납니다. 절이 허물어지고 기울고 좁고 누추하니 험 것을 고쳐 새롭게 하기를 사양하지 않으며, 단청까지 배풀고 토지와 종을 하사하여 부처와 승을 공양케 하였습니다. 이에 내 마음이 편안하니 아마도 전생인연이 정(定)한 것인가 봅니다.

이 낙성의 성스러운 법회에 의지해서 선조의 영명들을 천도하고자 합니다. 이에 청정한 승들을 모아 법화경의 미묘한 뜻을 말하게 하니 글자마다 광명이라 참으로 모든 부처의 근본이요 귀절마다 1천 경의 중심이 됩니다. 일백 명의 승에게 가사와 바릿대를 주고 향과 등불로 정근하오니 삼보께서 자상히 비추시고 감응하여 주소서. 엎드려 원하나니 길이 업장을 녹여 없애고 참된 근원을 깨달아서 만법의 미묘한 이치를 생각하고 마음을 밝히어

19) 국역 동문선, VIII, 539쪽 [東文選, 卷之一, 一百十三, 疏]

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환상에서 진실한 상(相)을 증득해서 정묘부인(淨妙夫人)을 따르게 하소서. 길이 상서를 발해서 후손들이 번창하게 하고 국가의 기초가 끝없이 뻗으며, 중생을 무궁토록 전져주소서. 무릇 성정을 갖춘 이는 이익을 얻을지어다.」

이렇듯이 태종의 비호로 아름답던 각림사는 언제 어떻게 폐사(廢寺)되었을까? 앞의 설화에서 문헌에는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다고 하였는데, 앞의 구비전승에 보면 각림사는 '빈대' 때문에 망하였다고 한다.<sup>20)</sup> 구비전승에서는 이처럼 우리나라 폐사설화의 대부분이 빈대로 인하여 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빈대 곧 유생의 등쌀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망한 사례를 풍자한 것이다. 치악산 주변에서 채록한 다른 설화에서도 <개산절터>가 빈대 때문에 망했다고 하였다.

“여기서 가까운 곳에 개산절이 있었대요. 근데 빈대가 많아 가지고요. 절 주지가 어디 한번 갔다 오니까 빈대가 기둥같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거죠. 주지가 나갔다 들어오니까 문을 열고 보니가 상대방 기둥이 전부 빈대 기둥이래요. 그래 하 무서워서 불을 싸냈대요, 빈대 죽으라고”<sup>21)</sup>

횡성의 정금리에 있었던 개원사의 폐사 과정으로 보이는 이 설화도 빈대 때문에 절이 망한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빈대가 끼게 되었는지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sup>22)</sup> 그렇다면 빈대가 영험하고 선견지명이 있어서 끼게 되었는가? 아니면 신령이 조화를 부려 빈대를 끼도록 하였는가? 여기서 빈대에 대한 이해야말로 한국 사찰의 성쇠 문제를 푸는 열쇠에 해당한다.

조선조에 들어 불교는 승유배불정책으로 된서리를 맞아 고달프고 서러운 시집살이를 겪는다. 유생들이 공자의 사당을 중수할 때면 중들이 하는 일 없이 논다고 해서 동원하자고

20) 각림사가 '빈대' 때문에 망하였다는 기록은 이영식의 저서(횡성의 지명유래, 횡성문화원, 2001, 125쪽, 정양골 條)에도 나온다.

21) 치악산 주변지역문화조사, 강원문화연구(7집), 1987, 84쪽. 이는 개산절터가 폐사가 된 설화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인근의 사찰을 조사하여보니 횡성현 동쪽 28리에 있는 정금산(鼎金山)의 개원사(開元寺) 관련 설화로 보여진다. (신증동국여지승람(46권), 횡성현, 佛宇條)

22) 간혹 보이는 설화가 있는데, 거기에는 절의 승려가 신도의 미색을 탐내어 재물을 어긴 때문에 빈대가 끼게 되었다고 한다. [서정강, 전설지, 한국국악협회 제천지부(1996), 57쪽]

결의하고, 관청에서도 부역할 일이 있으면 중들을 동원하였다. 강원도의 간성읍지인《수성지수(水城誌)》에 보면, 진부령길은 관에서 역승(役僧)을 모집하여 개시하였다. 또 아무때나 절간에 들어와 밥을 해내라고 명령하였으며, 종이나 위패목을 만들어내라고 강요하였다. 게다가 말을 타고 법당까지 들어오는가 하면 기생을 끼고 와서는 술상을 내오라고 행패를 부렸다. 그래서 하마비(下馬碑)를 세우고 범종이나 괘불 불사를 하면서 왕실의 안녕을 축원하는 의식을 끼워 넣어보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피를 빼는 빈대같은 유생들이 수없이 달려들자 스님네들이 할수없이 절간을 버리고 떠났다.그러므로 빈대 때문에 망한 각림사는 결국 유생의 등쌀 또는 승유정책 때문에 폐사하였다는 뜻이다.

우리의 속담에 “빈대 붙는다”, “빈대 같은 놈” 등의 속담이 있다. 이는 빈대의 속성이 그렇듯이 타인의 곁에 붙어서 노력과 재산을 축내는 존재를 풍자하는 말이다. 못된 유생들이야말로 국가정책으로 인하여 존재가치를 상실한 사찰에 기생하거나 폭력을 휘둘러 사찰경제를 마비시키고 마침내 폐사토록한 장본인들이다. 따라서 ‘빈대’는 승유배불의 정책 아래서 승려를 멸시하고 사찰의 존엄성을 함부로 짓밟았던 못된 유생(儒生) 또는 사찰에 대한 억압정책을 주도한 유학자들을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각림사는 황성의 사찰로서 유서가 깊은 절이다. 이에 대한 연구와 복원을 통해 성지화하면 황성의 관광문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4) 황성담의 관광화

황성과 원주시의 생활용수를 위해 갑천면에 속한 여러 마을과 땅이 물 속에 잠기므로 고향을 잃고<sup>23)</sup> 수많은 전통 민속과 문화유산이 수몰되어 버린 사건이 있었으니 곧 저수용량 8천7백만t의 황성담 건설이다.<sup>24)</sup> 이로 인해 251세대가 이주하고 3279필지인 621만5천m<sup>2</sup>가 수몰되었다. 이는 국가시책의 일환이지마는 황성군으로 보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어차피 발생한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빨리 전환하는 자세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23) 고향을 잃고 이주하는 주민들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군에서 조사한 바로는 이주대상 가구 251세대 중 원주지구로 117세대, 황성지구로 33세대, 기타 101세대로 나타났다.[황성담수몰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강원대학교, 1994, 112쪽]

24) 황성담의 조성으로 수몰된 갑천면의 4마을 곧 중금리, 부동리, 화전리, 구방리에서는 선사시대의 유물이 다수 발견된 점으로 보아 선사인의 터전이었다. 곧 구석기의 뿔석기, 신석기의 빗살무늬토기, 청동기의 고인돌과 민무늬토기 등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중금리에 있는 3호 고인돌은 7개의 성혈(性穴)이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화성의 옛터, 황성군, 1996, 27쪽] 그런데 묻혀진 문화유산이 어찌 이런 유(類)의 것뿐이겠는가. 거기에는 셀 수 없는 정도로 많은 무형의 문화유산인 구비전승이 묻혀 버렸음에랴.

것이다.

횡성댐에는 많은 토지가 묻힌 대신에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것을 자원으로 삼는 관광화 작업이 요구된다. 현재 그 일단으로 갑천면 중금리에 '망향의 동산'을 조성하고 수물지역에서 화성정(花城亭)과 3층석탑 2기를 옮겨 세웠다. 그리고 전시관을 건축하여 민속품을 전시함으로써 실향민들의 향수를 달래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망향의 동산과 전시관이 애초에 실향민을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므로 그 규모가 협소하고 작다. 댐은 이제는 다수의 외지인도 즐길 수 있는 육지 속의 호수이므로 규모를 확대하고 다량의 지역 민속품을 전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간 인기가 있었던, 인근 청일면 소재의 '강원민속촌'이 현재 문을 닫은 상황이라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나아가 규모를 확대하여 조각공원이나 강원의 산간마을을 조성하고 또 호수의 자연을 잘 관리하여 자연생태관광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sup>25)</sup>

#### (5) 횡성의 축제문화 - 태풍문화제와 태기문화제

인류사를 보면 어느 사회이든 놀이문화인 축제가 있다. 그것은 인간이 유희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축제(祝祭)의 뜻은 사람들이 소원성취를 위해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신령에게 제사하고 이어서 신과 인간 또는 사람과 사람이 동일성(同一性)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한바탕놀이를 펼치는 것이다. 따라서 축제는 신에게 제사하는 신편과 한바탕 먹고 마시고 노는 난장판이라는 이중구조로써 이루어진다. 대체로 신(神)판은 없고 난장(亂場)판만이 있는 요즘의 어떤 축제는 이런 의미에서 변질이다.

횡성의 축제로 대표적인 것은 <태풍문화제泰豐文化祭>와 <태기문화제泰岐文化祭>이다. 횡성의 대표적인 축제인 <태풍문화제>는 1981년에 처음 시작하여 郡의 번영과 발전을 빌고 아울러 군민이 체육경기로 화합을 다져오고 있으며, <태기문화제>는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전통민속놀이를 기반으로 하여 벌이는 향토성이 짙은 축제이다.

25) 이 사업을 위해서는 수물지역에서 수집한 많은 민속품이 현재 강원민속촌의 창고에서 잠자있으므로 그것을 설의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거기에 따른 비용은 금번에 확정된 "댐건설 주변지역 추가지원 사업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겠다. 지역문화의 보존과 존과 창달이라는 측면에서 늦기 전에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태풍문화제〉는 10월(2001년에는 9월28일부터 10월1일까지) 공설운동장과 부대행사장에서 열린다. 대체로 문화제는 전야제, 본제, 공개행사,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으로 구분된다. 전야제에는 제등행진·불꽃놀이·군민노래자랑 등이 있고, 본제에는 가장행렬이나 개회식이 있다. 공개행사에는 마스게임·합동농악·에어로빅·용줄다리기·백일장·전시회 등이 있고, 체육행사에는 육상·마라톤·씨름·궁도·축구 등이 있다.

2000년도 〈태풍문화제〉의 주요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9.29.(금) - 더덕아가씨 선발대회
  - 횡성문학과와의 만남
- 9.30.(토) - 문학(백일장, 사생대회)
  - 한우축제
  - 전국회다지소리 경연대회
  - 통나무 장기대회
  - 예술단 공연
- 10.1.(일) - 도전 광장
  - 농산물 이색경기(감자쌓기, 미끈호박들기, 더덕까기, 안홍전떡먹기)

이외에도 〈태풍문화제〉 행사기간에는 각종의 전시회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이 열렸다.

횡성의 축제가 문화관광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향토적인 색깔이 있어야 한다. 어느 곳의 축제에서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외면을 당할 것이 분명하다. 〈태풍문화제〉 때는 군민체육대회가 문화제의 행사일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어서 대체로 산만한 느낌이 들므로 주제가 약해지는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진정으로 횡성다운 것, 횡성의 축제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을 개발하는 노력과 지혜가 요구된다.

## 7. 맺 음 말

본래 횡성인은 강원도의 인심 그대로 부지런하고 순박한 품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일찍이 국도와 수로가 있어서 서울과의 문물교류를 통하여 세상이 돌아가는 물정을 빨리

파악하여 어지러운 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하던 슬기도 있다. 따라서 순박한 인정, 근면, 슬기로움을 지닌 횡성인은 향토를 '살기좋은 미래의 땅'으로 바꾸어 갈 것이다.

횡성 한우는 태기산 더덕, 매화산 복수박과 함께 횡성이 본고장이다. 토종의 한우를 브랜드화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한우가 이렇게 부각된 것은 전통적으로 소에 대한 사랑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구멍 뚫린 돌을 외양간에 매달고 소의 안녕을 빌었고, 소싸움을 시키지 않고 식구처럼 대하였다.

횡성에 존재하는 민간신앙으로서 특이한 것은 공근면 초원리에 상화대에 있는 '돌탑신앙'과 둔내면 두원리에 있는 '관우신앙'이다. 전자는 막들로 탑을 쌓고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앙이요, 후자는 중국의 도교적 신앙으로서 군신(軍神)과 재산신(財產神)이 된 관우를 모시는 신앙이다. 명나라 군대가 임진왜란 때 가져온 관우신앙의 잔재가 둔내에 있음이 희한하다.

횡성댐이 조성됨으로써 갑천면의 증금리, 구방리, 화전리, 포동리가 수몰되었다. 그러므로 전담과 집 그리고 무형의 문화유산이 수몰되고 흩어졌다. 그러나 채록하여 남겨놓은 구비전승은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이다. 특히 '장독바위 전설'과 '시집살이요'는 지역을 대표하는 유산이므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하고, 금년은 '지역문화의 해'이다. 이는 문화를 이해하여 세계가 화합하자는 뜻이 들어있고 나아가 문화가 관광상품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제시된 명제이다. 따라서 각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고유한 문화를 계발하여 지역문화의 격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부산하게 시도하고 있다.

횡성의 문화 중에서 문화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는 가장 향토성이 짙은 <횡성회다지소리>와 그 발상지인 '정금리' 마을이다. 회다지의 공연은 물론이고 농요를 포함한 회다지를 가르치는 것도 관광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종교 성지로는 풍수원성당과 태기산의 봉복사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이미 천주교의 성지로 알려져 있으나 후자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홍보와 시설의 부족으로 소외되고 있다. 지자체와 불교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과거에 횡성의 사찰 중에서 가장 흥성한 것은 강림면 소재의 각림사이다. 폐사된 절터에는 유허비 하나 없으나 태종의 비호를 받아 흥성하였고, 원천석이 종종 수도하였으며, 태종이 소시적에 공부하던 곳이다. 빈대(유생) 때문에 망했다는 각림사지를 개발하면 성지(聖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림사지가 있는 강림면은 원천석과 태종에 얽혀있는 설화가 많고 또 면내(面內)의 국립공원인 치악산의 경관이 수려해서 '전설의 고향'으로 이벤트화해서 관광지로 전환하면 좋을 것이다. 현재 서울의 한화관광회사가 여성의 체험관광으로 횡성참숯사우나와 안홍전빵을 결들인 관광상품을 판매고 있는데 안홍전빵집에서 지호지간인 여기 '전설의 고향'을 첨가하면 효과적인 나들이상품이 될 것이다.

현재 문화관광상품으로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은 '축제'이다. 주제가 분명하고 향토성이 강한 축제는 성공한다. 영월의 '동강축제' '김삿갓축제', 정선의 '아리랑축제' 등이 성공의 예이다. 횡성의 '태풍문화제'와 '태기문화제'가 문화관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선명한 주제와 향토성을 참작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많은 양의 행사를 함께 진행하면 주제가 분산되고, 지역 고유의 향토성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동네잔치는 될지언정 외지인을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에서는 뒤진다.



---

## 횡성동족마을의 구조와 운영

---

오 영 교 (연세대학교 교수)

1. 서론
2. 동족마을 연구의 방법론
  - 1) 지방사연구와 동족마을
  - 2) 횡성의 전통사회와 문중교육
  - 3) 동족마을의 성립과정
3. 횡성 동족마을의 구조와 운영
  - 1) 동족마을의 형성과정
  - 2) 崇祖사업과 祠宇
  - 3) 동족마을 문중의 토지·노비제 운영
  - 4) 祭儀 집행과 族契의 운영
4. 맺음말

### 1. 서론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橫城 관내의 동족마을이다. 이곳은 경상도나 전라도, 그리고 충청도의 다른 세도가문, 동족마을에 비하면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마을이다. 과거에는 위세가 당당하던 가문의 후손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평민화되고, 동족집단의 세력도 그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상실하면서 쇠퇴해 가는 것은 어느 동족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조사대상이 된 각 마을도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장 부유했다' '학문이 높았다' '가장 많은 숫자가 거주했다' 라는 말이 있을 뿐이다. 전통적 동족마을 공동체가 와해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특히 동족마을의 宗家は 조상에 대한 祭후과 주요 경조사 및 명절에만 떠들썩해지며, '남아 사는 이들은 떠나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남아 사는 의미를 생각하고, 떠나 사는 이들은 남아 사는 이들의 얘기를 들으며 떠나 사는 의미를 새기는 장'으로 자리 매김 될 것 같다.

현대로 오면서 경제적 기반이 되어왔던 농토는 상속과 농지개혁 과정을 통해서 상당 부분 소멸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든든한 종친회가 존재하여 先親들에 대한 時祭가 거듭되며 橫城·原州는 물론 서울·경기와 강원도 관내에서 두루 참석한다. 宗約의 모임도 꾸준히 이어져 문중의 중요한 일에 서로 협동하며 공동으로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

비록 의형적으로 동족마을이라는 현실공동체는 쇠퇴하고 있고, 남아있는 보통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의 현장에 지나지 않지만 후손들에 의한 종족공동체의 존속은 아직도 상당히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이제 마을 자체는 과거의 유형·무형의 재산을 단순하게 보존하고 전시하는데 국한된 장소로 기능하나, 후손들은 도회지로 나아가 교육을 받고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하여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떠나간 마을 사람들이 마을과 집안을 생각하는 활동은 마을 바깥, 특히 종족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즉 도시에서 옛 동족마을의 연대감을 잘 활용하여 오늘날에도 동족간의 상부상조행위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반복)조사 대상이 된 대부분의 문중은 시조에 제사를 드리는 대중회 참석은 물론 횡성·원주 주변 소중회 모임도 활성화되어 있다. 문중의 중심이 되는 횡성 동족마을과 때로 인근 도회지에서 매년 큰 제사 때와 송조회 행사 때에는 모두 모여 문중의 중요한 일에 서로 협동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적 동족마을의 공동체는 쇠퇴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규율과 규범 속에서 아직도 다른 형식으로 살아있다고 하겠다.

동족마을이란 대체로 한두 同姓同本の 성씨집단이 특정 마을에 대대로 거주하면서 마을의 인적 구성뿐만 아니라 운영에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동족마을의 구성원들은 同祖意識을 갖고 있고 동족결합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을 지니고 있었다. 동족마을의 형성시기는 대체로 조선후기 17세기 이후로 보는 연구가 많다.<sup>1)</sup>

1) 동족마을에 대한 대표적인 논저는 다음과 같다.

정진영, 「조선후기 동성마을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 『한국사론』 21, 1991, (국사편찬위원회)

김덕규, 「한국의 동족공동체-이른바 동족, 동족부락에 관한 관견」 『씨족부락의 구조연구』 1991, (일조각)

이광규, 「동족부락」 『한국의 가족과 종교』 1990, (민음사)

1930년대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촌락의 반 이상이 동족마을이라는 지적이 있다.<sup>2)</sup> 동족마을에 대해서는 인류학, 사회학, 지리학 등에서 많은 연구가 진척되어 왔다. 이들 연구를 통해 동족마을의 개념, 분포, 구성, 친족조직, 통혼권 등 비교적 많은 내용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주로 동족마을에 대한 현상적인 조사·연구라는 점에서 조사 당시의 외형적인 면모를 보여줄 뿐 그것이 가지는 역사성을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역사학의 연구성과와 지역소재 고문서의 활용을 통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

定住意識이 고착된 三南지역 土族들의 삶과 달리 南漢江·北漢江 및 陸路를 통한 서울과의 빈번한 來往이 가능했던 首都 인근지역 土族의 경우, 上京從仕와 落鄕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 鎭城 지역 동족마을의 宗孫들 역시 관직을 위해 고향을 떠났다가 즉시 돌아와 世居地에서 삶을 영위하고 선영 근처에 묘소를 설정하고 있다. 家藏資料에는 世居地 및 서울에 각각 생활의 터전을 마련했던 이들의 면모가 거듭 드러난다. 이로 인해 본 지역에서는 ‘鄕中公論’을 주도하고 官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역 유력 문중들의 勢과 시수단으로 활용했던 적극적인 鄕權 개입에 관한 사례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鎭城 관내 동족마을은 祠宇·別廟 등의 건물을 통해 마을 내 다른 姓氏에 대한 가문의 위세와 권위를 나타내는 한편, 同族간의 결속과 하층농민을 지배하기 위한 장치로서 宗約(宗規)을 운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타 지역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는 先祖에 대한 제사와 묘지 관리, 동족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상의 작업을 통해 조선 후기 동족마을의 형성과정과 그 구조 및 운영에 대해 서술하고, 地宜에 따른 강원지역 동족마을의 역사적 성격을 밝혀 지방사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려 한다.<sup>3)</sup>

2) 善生永助, 1934. 『朝鮮의 姓』 55면

3) 본래 전통사회 구조는 각 지역별로 편차가 많고 지역세력의 성격·기반·전개양상도 다양하다. 지방자료의 발굴과 이를 통한 지역사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橫城 동족마을과 가문 연구는 三南 지역(安東·星州·南原)에 집중되었던 지역사 연구에서 강원도지역사 분야를 확대시키고 독자사례를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2. 동족마을 연구의 방법론

### 1) 지방사연구와 동족마을

지방화 시대의 전개와 함께 지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종래에 지방이란 중앙에 대한 대립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중심부와 주변부, 전체와 부분, 선진과 낙후, 세련됨과 조야함, 우월함과 열등함 등의 이분법적 대립 이항에서 후자에 연결된 상상과 결부되었다. 그러나 이제 지방을 재조명하고 발굴함으로써 그것에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는 움직임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전략과 맞물려 더욱 활발하게 되었다. 그것은 정치적 목적 뿐 만 아니라 관광산업을 포함하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자원의 개발이라는 명분과 결합하며, 그리고 국가 중심 혹은 중앙 중심의 역사 쓰기 혹은 역사읽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역사 인식의 틀을 추구하려는 학문적 지향을 나타낸다.

문화는 그 사회가 공유하고 있고 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신념, 가치, 태도 그리고 행동으로 구성된다. 문화는 동적이며, 살아있는 문화는 언제나 변화하는 과정 위에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 속에서 문화의 고유성을 찾는 일이다. 고유성이 정체성의 밑거름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은 스스로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립의 기초는 역시 정체성의 확립이다. 스스로를 찾고 스스로를 알리는 그런 작업이 새삼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결국 문화적 정체성을 갖는 일은 보다 긴 안목으로 지방의 발전방향을 논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인 것이다. 그때 문화경쟁력도 갖추어 진다.

황성 지방사 연구는 황성문화의 바른 모습을 밝혀 바른 지역개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래의 지방사' 연구란 지표면상의 일정 공간을 토대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 왔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유·무형의 자취들, 즉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 고찰하여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지방적인 특수성을 연구함으로써 그 안에서 보편적인 역사적 의의를 발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 인식과 파악에서 가장 보편적인 접근방법은 행정체계에 의해서 그 공간적 경계에 의하여 지역단위를 설정하는 것이다. 즉 일정한 행정단위의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동질적이며 지역사회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활세계는 행정체계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행정적 경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사람들의 생활은 오히려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단위 위주로 지방사회의 경계를 짓는 것은 제한적인 의미에서만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족마을 연구에서는 행정단위를 너머선 현실생활이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세계를 구획해내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문화권 개념으로 방언, 풍속, 사회적 출입 등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유되는 공간에 대한 연구가 될 것이다. 거주지역 단위들간의 연계를 만드는 것은 경제활동(시장의 공유나 동일한 시장체계에 속하는 것, 자원의 공급이나 생산과 소비의 상호관계 등), 민간신앙의 연망(공동으로 참여하는 민속 의례와 축제) 등이다.<sup>4)</sup>

전통시대 횡성의 사족들 사이에는 하나의 공동운명체적 연망이 형성되어 있었다. 횡성권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지역적 연망을 통해서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통혼권은 이러한 문화권과 중복이 된다. 혼인이란 관습과 풍속이 같은 집안 사이에 선호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관과 이념적 지향이 공유되며 경제적 교류와 사회적 왕래가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문화권의 형성과 지속은 지역경계를 넘어가는 혈연(문중과 종족)조직과 성원 끼리의 학연,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통혼권이 성립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통혼권과 관련하여 동족마을 주민들은 단순한 행정체계에 의거하여 일상의 세계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었고 지역경계를 넘어서는 사회적 출입의 넓음이 일상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깥출입'이란 말은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그 범위가 넓을수록 위세가 크다는 것을 말한다. 종족은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가서 지역분파가 많고 넓을수록 사회적 위세가 컸다. 이들 각 종족분파는 또한 그들의 혼인망과 함께 바깥출입의 범위를 결정하고 정치적, 사회적 동맹을 이루었다. 종족지파의 분산과 통혼권은 곧 정치적, 사회적 위세의 한 지표가 되었고 실제로 그것은 아주 중요하였다.

일본에서는 촌락공동체의 성격이 강하여 외부인은 촌락의 허락이나 마을 구성원들의 동의허락 없이는 함부로 촌에 들어올 수 없지만<sup>5)</sup> 한국에서는 동족 혹은 문중이 더욱 중요하다. 어떤 개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혹은 분쟁에 연루되었을 때 한국에서는 촌락공동

4)김광역, 1996, 「지방의 생산과 그 정치적 이용」, 『한국문화인류학』29(1)

5) 문옥표, 1994, 『일본의 농촌사회』(서울대출판부)

체의 상징으로서 都會·民會가 있지만 동시에 해당 문중의 유력자가 처리하였다. 문중 혹은 종족회의가 촌민회의를 능가하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무리 그 개인의 혈연이라도 그 마을회의의 결정이 우선한다. 중국 역시 촌락 공동체적 이념과 혈연공동체적 이념이 결합되어 있다.<sup>6)</sup> 그런데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지역을 넘어서서 당일 왕복이 불가능한 거리를 갖게되면 문중조직의 관계가 약화되고 새로운 지역에 독자적인 종족이 성립한다. 즉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나간 종족분파 사이에는 상호 연계망이 유지된다.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촌락사회에 대한 문중(종족)의 간여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문중의 墓와 位土, 그리고 문중제산, 祠宇 등이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권리행사와 연계망의 경험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의 지도를 제공한다.

형성의 어느 한 지점에 거주하는 종족의 일원에게 있어서 그의 세계는 형성과 그의 조상과 친척이 살고있는 모든 지역을 망라하여 구체화된다. 그들 사이에 내왕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혼인망을 통하여 그 연망은 재생산되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영향력을 갖는다.

## 2) 橫城의 전통사회와 門中교육

한국의 전통사회는 현대의 한국사회와는 현저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정치 체제 면에서는 가부장적 절대 왕권제였으며, 경제 체제 면에서는 봉건제도에 입각한 농업 분위의 사회였다. 또한 뚜렷한 신분제가 확립된 사회 체제로서 유교윤리가 지배적인 사회 윤리로 작용하는 사회였다.

전통사회가 가족의 결합체인 동족을 근간으로 하는 확대된 가족 사회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데서 그 가부장적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단위 가족들이 모인 친족 내의 혈연적인 결속력을 기본으로 하여 다수의 친족간의 세력 조정도 타 가문과의 혼인 및 기타 인맥 형성을 통하여 적절히 유지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정치의 질서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조선사회는 오늘날의 한국사회와는 현저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정치 체제 면에서 가부장적 절대 왕권제였으며, 경제 체제 면에서 봉건지주제에 입각한 농업 분위의 사회였다. 또한 뚜렷한 신분제가 확립된 사회 체제로서 유교윤리가 지배적으로 작용

6) 김광억, 1998. 「현대중국에 있어서의 혈연공동체와 촌락공동체」 『농촌사회』 8집

하는 사회였다.

조선사회에 내재한 윤리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와 가정의 기본 윤리는 가부장권의 세습 계승제를 정당화시켰다. 세습군주에게 절대왕권이 부여된 것처럼 전통 가족사회 내에서는 가부장에게 가족 통솔의 지휘권이 절대적으로 부여되었다. 가족의 대표자로서, 가족생활의 감독자·지휘자로서, 재산권자로서, 조상숭배의 의무를 지닌 제사권자로서, 그리고 자녀의 교육자로서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녔던 것이다. 가부장의 지위는 문중의 최고 어른이었다.

둘째 가부장의 계승제를 요구한 유교 윤리는 혈연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파생시켰다. 각 개인은 자신의 개인적 존재가치보다 자신이 속한 門中과 家系 속의 서열에 의해 자신의 존재가 파악되는 관계가 더욱 중시되었다. 즉 전통사회의 개인은 개인으로서 독립된 존재이기보다는 집단 속의 일원으로서 존재하였던 것이다.

셋째, 남성 우위의 성별 차등 가치관을 강화하였다. 남성 적장자 만에게 가부장권이 세습되는 가족제에서 男兒 중시 사상은 가계의 존폐 가능성과 연관되어 생겨난 당연한 귀추였다. 따라서 여성은 生男의 의무를 다하여 가문을 번성시키는 역할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았다.

넷째, 유교 윤리는 인간관계에 있어 縱的인 질서를 확립시켰다. 가족내의 부자간, 형제간, 남녀간의 수직적인 인간관계가 강조되었고, 심지어 他門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분별, 연령별, 職役별, 行列별, 嫡庶별 등 무수한 종적 구분 원칙이 작용하여 수직적인 관계로 파악되었다.<sup>7)</sup>

조선사회는 개별가족을 근간으로 하는 확대된 가족 사회로서 가부장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혈연적인 결속력을 바탕으로 다수 친족간의 세력 조정이 가능했고 타 가문과의 혼인 및 기타 인맥 형성을 통하여 이를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안정과 정치의 질서 또한 이루어 질 수 있었다.<sup>8)</sup>

조선시대 전통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수로 보아 다인 수 대가족 가정이었다. 대개 3~4대의 가계 구성원들이 나이나 촌수에 의한 혈연적 서열관계를 유지하며 한 가정을 이루었던 것이다.

7) 유해명, 「전통가정교육의 사회적 배경」 『한국인의 전통가족교육사상』(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13면

8) 김택규, 『씨족부락의 구조분석』(일조각, 1978)

여성한국사회연구회, 『가족과 한국사회』(경문사, 1995) 267~274면

결혼한 자식들이 모두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유형을 확대가족이라 한다면, 결혼한 자식 1인만 부모와 동거하게 되는 유형을 직계 가족 또는 확산형 직계가족이라 한다.<sup>9)</sup> 한국 전통 가족 유형은 자녀가 결혼할 경우 장남 부부와 그 자녀만이 부모 및 조부모와 동거하고 차남 이하 자식들은 혼인과 함께 분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7세기초의 가족형태를 보면 대다수의 부부 가족 유형 외에 직계가족 유형이 양반, 상민, 천민 계층에도 존재하였으나, 양반과 상민 가족에 비해 천민 중에는 직계 가족 수가 낮았고, 확대 가족 유형은 상민과 천민에게만 약간씩 존재하였다. 1인 가족 유형은 천민 가족에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상민, 양반의 順으로 높았다고 한다.<sup>10)</sup>

부와 자의 관계는 성격상 상하관계이다. 가족은 이들간의 상하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수직구조인 것이다. 수직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자의 2인만이 주축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아들이 다수일 때는 이들간에 우선 순위가 결정되게 된다. '長子優待 不均衡 原則'의 특례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중국 전통가정의 경우 아버지와 2자간의 삼각 구조를 근간으로 하여 다수 아들간의 均分主義 원칙을 적용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는 비록 수직구조였다 하더라도 자의 단독 상속원칙을 적용한 데다 자의 존재를 양자로 대치하는 등 家長權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家長的 垂直構造였다.<sup>11)</sup> 이에 비해 한국 전통 가정 사회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혈연적 수직구조를 발달시켜 왔으며, 그 결과 가부장권과 효의 개념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확대된 혈연조직으로서 門中은 현존하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조상 선조까지도 그 구성원에 포함한다. 사망한 조상들에 대한 기억의 축적이 문중의 역사이고, 이는 곧 家風과 家格을 형성한다. '일단 성립된 문중은 끝없이 존속하여야 한다'는 永續志向性은 구성원 개개인을 구속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며 가계 계승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문중은 개개의 가족 구성원들이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확실한 신분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그 개인들이 맺게되는 타 문중과의 교류, 그리고 국가로부터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졌다. 예를 들어 개개의 문중구성원들은 자신의 개인적 존재 가치보다 '모씨 문중 사람' 또는 '어디 모씨 누구의 몇 대손'이라는 가문의 계보나 혈연

9) 이광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일지사, 1975) 46면  
10)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일지사, 1983) 390면  
11) 이광규, 『전계서』 279면



적 관계 속에서 더 확실한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개인의 행동평가마저도 자신이 속한 집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지역 집단간의 협력도 개인을 단위로 하기보다는 집 더 나아가 문중이 책임지는 것이었다. 특히 개개인이 독립적 가치를 지니기보다는 문중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적, 혈연적 계보 상에서 하나의 연결 고리로서 더욱 큰 의미를 부여받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전통가정에서 개인의 존재란 그 개인 속에 깃든 문중과 사회와 혈연의 역사성 측면에서 인식되었다.

이로 인해 守家思想이 강조되었다. 이는 문중의 흥성을 도모하고 유지하려는 사상이다. 수가사상은 문중 구성원 개인의 성취를 중요하게 여김과 동시에 문중의 흥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전통가정의 아동들은 엄격한 심신의 관리를 통해서 인격을 닦고 장차 성인으로서 담당해야 할 기본적 역할을 학습하는 외에, 한 문중의 구성원이자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르게 처신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 문화에 따른 교양을 갖추어야 했다.

전통가정에서 이루어진 아동의 교양교육 중에는 선비들의 풍류놀이인 시문 짓기나 春帖字 쓰기, 친족간의 혈연관계를 파악하는 家系史 익히기와 寸數 계산법, 그리고 생활에 절인 인사 및 언어 사용법, 실생활 기능인 셈하기와 생활 禁忌 등이 있었다.<sup>12)</sup>

우선 가계사교육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族譜를 중심으로 한 家系譜 익히기와 寸數 계산법, 조상의 德業과 官職, 家訓을 통한 訓育 등을 들 수 있다. 당시의 사회 문화적 특성상 집안의 家格에 의해 인간 교제나 통혼의 기회, 관직 진출의 범위가 제한을 받았고 개인의 신분 또한 자신이 속한 가문과 선대 조상과의 혈연적 거리로 파악되었던 사회였기에, 이 가계사 교육은 남녀 아동 모두에게 필수적인 교양으로 중요시되었던 내용이다.

구체적인 예로써 男兒의 경우 과거에 응시할 요건으로 4대조(親家와 外家) 어른의 이름을 쓸 수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女兒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성장 후 출가하여 친정 가문의 계보 및 전통을 대표하고 친정에 욕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계에 관한 지식과 가문 교유의 정신을 학습할 필요가 있었다.

家系史 교육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族譜를 통한 조상 및 친족간의 혈연적 계보에 관한 것이었다. 즉 代와 世와 寸數로 계산되는 직접, 간접의 혈연관계에 기초하여 자신을 둘러싼 가문의 구성원들과의 혈연적 親疎와 遠近 감각을 익히는 내용이었다. '知譜學'

12) 유안진,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대출판부, 1990) 569~581면

은 조상들로부터 자기까지의 가계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始祖나 中始祖를 비롯한 큰 인물의 정신가 행동을 알고 그를 본받는 것을 의미했다. 때로 증시조의 삶의 궤적은 후손들에게 하나의 경전처럼 암기되었으며, 조상이 생존시에 만난 인물과 배운 스승 및 관계를 가졌던 가문들이 후손들에게 역시 동일한 삶의 체험요인으로 학습되어지곤 했다. 조상의 학문과 사상은 후손들에게 동일한 사상의 맥을 따르게 하고, 조상이 이룬 성취를 공유하도록 하며, 문중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공동으로 쌓아 올린다고 생각한 것이다.

생활예절 교육의 또 다른 내용인 언어 사용법이나 인사법은 아동이 가계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직계 조상과 친족들간의 혈연적 관계를 파악한 후에야 가능한 것이었다. 언어사용법을 보면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의 예만 보아도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 즉 촌수나 향렬 계산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伯父, 叔父, 姑母, 從姑母, 또는 아저씨, 할머니 등의 호칭이 촌수나 향렬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 외에 敬語, 評語, 下待語로 구분되는 語尾 變化를 익혀야만 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나이와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었지만 향렬에 의해서도 달라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관성에 대한 파악훈련이 대단히 중요하였다.<sup>13)</sup>

인사법의 경우를 보더라도 문중의 冠婚喪祭나 歲時節期를 전후하여 어떠한 인사법으로 어느 촌수 범위까지 적용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했다. 따라서 아동은 어릴 적부터 혈연적 원근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의 인사, 즉 태도와 신체동작과 개념의 차이를 철저히 익혀야 했던 것이다.

성인들의 言行은 그대로 아동들에게 지각되고 그들의 메시지가 직접 전달된다. 성인들의 행동 가운데 남성모델인 조부, 부친과 숙부들의 행동은 남아에게 기억으로 남는다. 남아는 종손과 남성 친족원들의 손님접대행동, 어조, 제사지내기 및 종가의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 정보를 머리 속에 담아 두었다가 훗날 유사한 상황이 되면 그 정보를 인출해서 재현한다. 매 상황마다 스스로 본 바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적절한 상황에서 재현하므로 無言 중의 관찰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전통 가정의 교양 교육은 아동으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문중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파악하게 하는 일관된 성격을 띠고 있다. 언어 사용법이나 인사법 등의 생활예절 교육을 통해 자신과 상대방이 이루어내는 혈연적 관계를 강하게 의식하는 법을 배우

13)김인희·정순목, 「한국문화와 교육」(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4), 117면

게 하였고, 족보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가 이루어내는 계보상의 관계성을 파악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책임 의식과 존재의식을 고취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제사 역시 중요한 守家의 과업이었다. 조상의 생애와 인물됨을 기리며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제사라는 의식으로 지속된다고 보았다. 철이 든 자녀의 경우,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참여하는 의례는 가족 단위의 것만이 아니다. 아버지는 문중단위의 의례나 지역단위의 의례에 참여할 때 자녀를 데리고 가기도 한다. 의례에 참여하는 동안 아버지는 자신의 이해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 의례의 의미를 언어로 말해주기도 한다.<sup>14)</sup>

또한 가정에서 자녀는 사회의 '교육받은 집단'에 공유되는 知的 遺産이 활용되고 전수되는 것을 경험한다. 가정에서 자녀는 교육받은 사람답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배운다.

특히 공동의 지적유산에의 입문은 흔히 '膾炙名句'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생선회나 구운 고기처럼 입에 오르내린다'는 원래의 말뜻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자녀가 회자명구를 접하게 되는 것은 책에 적힌 문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을 통해서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회자명구'를 말할 때의 모든 사항은 그 명구에 관하여 자녀가 가지게 될 의미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아가서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불가결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四蒙輯要』에서도 '대체로 어릴 때는 뜻과 생각이 자리잡지 않았으므로 늘 格言과 至論으로 날마다 베풀어주어 귀와 가슴속에 가득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오래도록 스스로 익히게 하면 行習과 智力이 함께 성장되고 잘못되는 폐단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되어 마침내 확고히 되고, 성취하는 경지에 다다르면, 뒤에 비록 참설과 유혹이 있다 하여도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sup>15)</sup>

이상의 문중교육을 통해 전통사회 아동들은 이론보다는 실천이 강조되는 생활화 교육을 받아 인물과 예의를 갖춘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가 되도록 훈련되었던 것이다.

### 3) 동족마을의 성립과정

조선전기의 變系(邊)적 친족체계는 17세기를 기점으로 점차 혼인형태에서 유교적 요소의 강화, 嫡長子 중심의 남녀차등상속, 長子단독봉사 등을 특징으로 하는 父系중심의 친족체제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嫡長子 중심의 종법적 가족질서에 따라 족보에서 친

14) 이홍우, 「전통가정교육의 방법적 원리」 『한국인의 전통가정교육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157~166면

15) 鄭光淑, 『四蒙輯要』 序

손·외손을 똑같이 취급하던 것을 친손중심으로, 기재순서에서도 年齡順에 따르던 것을 무조건 아들을 앞세우게 된다. 또한 養子 범위의 확대, 行列字 사용범위의 확대 현상이 보인다.<sup>16)</sup>

이러한 가족제도상의 변화결과로 부계혈연집단인 문중이 강화되었다. 한편 조선후기 사회변동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장기간의 均分상속의 시행으로 인한 家産의 분할과 영세화, 양란 이후 기존의 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체제의 이완, 그리고 새로운 향촌세력이 대두되었다. 이에 사족들은 문중의 결성과 강화라는 대응방식을 취하였고,<sup>17)</sup> 바로 강화된 특정 문중을 중심으로 동족마을이 형성되어 갔다.

하나의 성씨만으로 구성된 동족마을은 드물며, 실제로는 특정성씨가 특정마을을 주도할 때 그 마을을 치칭한다고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지배적인 성씨가 전 가구수의 1/2이상을 상회하는 마을을 일컫지만, 1/2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주도권을 자지고 있는 마을도 가리킨다. 동족마을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河回마을이다. 16,17세기에 하회마을에는 柳씨가 상대적으로 많기는 했지만, 安氏와 權氏의 조세도 상당하였다. 安씨와 柳씨의 女婿·外孫으로서 함께 살아 하회는 異姓雜居하는 모습을 보였다. 류씨의 동족마을로서의 하회가 확고해지는 것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이르러서였다.<sup>18)</sup>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4리의 경우 우봉 이씨가 거주하고 있던 마을에 양주 최씨가 입학하면서 우봉 이씨가 쫓겨 나갔으며, 그 결과 양주 최씨의 동족마을이 되었다고 한다.<sup>19)</sup>

그런데 女婿·外孫 및 여타 姓氏가 함께 거주하던 異姓雜居의 마을이 동족마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정 성씨의 경제적·사회적 기반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경제적 기반이란 토지와 노비의 소유로 나타나는 것이며, 사회적 기반은 관직이나 학문적으로 뛰어난 조상(顯祖)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茶山 丁若鏞은 오랜 동안 현직을 역임하지 않은 재지 사족들이 尊富를 잃지 않는 까닭은 '집집마다 각기 한 조상을 떠받들고 一莊을 점하여 종족이 흩어져 살지 않으므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근본이 뽑히지 않았다'<sup>20)</sup>라고 적시하였다. 이 시기 동족마을이 경

16) 최재석, 1979, 「조선시대의 족보와 동족조직」, 『역사학보』 81

17) 12)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활동의 사회사적 배경」, 『동양학』 23, 1993.

「조선후기 문중서원연구-전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18) 정진영, 1999,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340~341면

19) 양보경, 1980 「반월면 4리 동족부락에 대한 연구」, 『지리학논총』 7

20) '士大夫?於時數百年 而其尊富不衰 其俗家各藏一祖占一莊 族居而不散處 所以維持鞏固 而根本不拔也' (『輿猶堂全書』1, 詩文集 「跋擇里志」)

제적 기반과 顯祖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동족마을은 17세기이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고, 18,19세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통해 점차 보편적인 마을의 형태로 발달하게 하였다.

南漢江 지류를 끼고 있는 橫城은 급격한 도시화와 이농현상으로 인해 동족마을이 급격히 붕괴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옛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많다.

〈 橫城의 동족마을 분포 현황 〉

주요 문중	동족마을 소재지
橫城趙氏	橫城郡 公根面 上洞里와 橫城邑 鼎岩里 望白마을, 隅川面 산전리, 屯內面 弓宗里
橫城高氏	屯內面 弓宗里와 橫城邑 正奄里, 公根面 德村里 회진부락
羅州林氏	학곡리 쇠판이 마을
金海許氏	橫城邑 茅坪里, 書院面 琴台里
密陽朴氏	橫城邑 盤谷里와 佳潭里, 生雲里, 屯內面 屯防內 鳥項里 馬岩里
牛峯李氏	橫城邑 墨溪里와 盤谷里
金海金氏	橫城邑 馬山里와 玉洞里, 甲川面 兵之防里 秋洞里, 公根面 鶴潭里 노루미, 書院面 玉溪里 琴台里
原州元氏	橫城邑 南山里, 隅川面 牛項里, 公根面 三倍里
晉州鄭氏	橫城邑 盤谷里
羅陽陳氏	橫城邑 介田里
星州都氏	橫城邑 正庵里
全州柳氏	公根面 上洞里, 富倉里
草溪鄭氏	公根面 鶴潭里 公根里 佳谷里
甯松沈氏	公根面 梅谷里, 흥터(興塚)
全州李氏	公根面 梅谷里 안담
利川徐氏	公根面 梅谷里
韓山李氏	公根面 水白里와 淸谷里
淸州韓氏	書院面 玉溪里
江陵崔氏	書院面 鴨谷里
安東金氏	書院面 玉溪里
慶州李氏	安興面 池邱里
全州李氏	安興面 池邱里
旌善全氏	安興面 池邱里
江陵金氏	安興面 佳川里, 屯內面 斗元里 馬岩里 禾洞里
慶州金氏	屯內面 自浦谷里 屯防內里 石門里, 淸日面 春堂 1리
原州李氏	屯內面 石門里, 公根面 梧山里 梅谷里 德村里
竹山安氏	屯內面 玄川里
淸川金氏	屯內面 石門里, 甲川面 大官岱里
杞溪俞氏	甲川面 花田里
延逸鄭氏	甲川面 浦洞里, 淸日面 甲川 1리
安東權氏	淸日面 柳洞 3리

### 3. 橫城 동족마을의 구조와 운영

#### 1) 동족마을 형성과정

형성을 본관으로 하지 않는 문중의 경우 入鄕祖로부터 마을이 시작된다.

서원면 옥계리의 청주 한씨 동족마을은 시조 韓蘭 이후 14세 節制公派에서 기인한다.

節制公 仲孫(14, 忠淸左右都節制使)-(15)-舜命(16)-三傑(成均進士,17)-浚(18)-季崇(成均進士,19)-必成(義禁府都事,20)-輻(掌樂 僉正,21)-沃南(副司勇,22)-逸善(23)-永世(24)-得賢(25)

14세 증손은 세종 7년(1425)에 태어나 무과에 급제한 뒤 충청좌우도절제사에 올랐던 인물이다. 이후 단종 2년(1454) 權奸의 用事를 보고 벼슬에 대한 생각을 접고 南原 漁隱洞에 내려가 학문과 농사를 짓다가 다시 高阜 畚內面 天台山(지금 전라북도 井邑郡 梨坪面 山梅里)으로 자손과 함께 옮겼다고 한다. 후손들은 1983년 3월 이곳에 齋室과 墓碑를 건립하였다.

재차 17세 삼걸과 18세 준은 전라북도 高敞郡 夫安面 元德山에 뫼자리를 사용하였다. 원주로의 이전은 성균진사를 지냈던 19세 계승이었다. 선조12년(1597)에 태어나 인조 22년(1644)까지의 그의 생몰년대를 감안할 때 17세기 초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계승의 묘는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운동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후 23세 일선에 이르기까지 원주시 지정면 보통리 북금동에 뫼자리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의 광터(북금동)라 불리는 곳이 1차 이거지로 보인다. 이후 25세 득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옥계리 대산에서의 삶이 시작되고 이후 후손들은 대산에서의 정착이 확실함을 보이는 뫼자리를 사용하고 있다. 즉 고창-원주시 호저면-횡성 서원면 옥계리로의 이동 과정을 보여준다.

옥계리의 전경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농토가 적었던 만큼 외지인의 정착이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고 기껏해야 타성씨도 외손에 해당되었다. 이로 인해 동족마을치곤 거의 완벽한 청주 한씨 단일 성씨가 거주하는 진풍경이 50여 년 동안 연출되었다. 34세 韓萬天의 증언에 따르면 기미년 3·1운동 때는 물론 6·25전쟁시기에도 커다란 폐해없이 살아왔으며 범죄없는 마을의 전통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옥계1리의 청주 한씨는 1반에 10세대 2반에 16세대 등 총 43세대 가운데 26세대에 이

21) 鄭元善, 『世蹟』上

르른다. 한편 계승(진사공)의 후손들은 횡성 옥계1리와 원주 흥업면 대안리의 양평군 양동면 금곡리의 세 종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 숫자가 300여 호에 달한다.

다음으로 공근면 부창리의 전주 류씨의 경우 上土洞과 下土洞에 거주하며 11대 宜昌 이후 횡성에 정착하여 승지 宜昌派 후손을 이루었다.

『全州柳氏譜牒』에 따르면 시조는 柳濕이며 묘는 전라도 高山 栗谷리에 있다. 6대 軒은 호가 駱峰이며 성종 17년(1486)에 生員, 성종 20년(1489)에 급제하였다. 그의 벼슬은 大司諫에 이르렀고 清白吏에 뽑혔으며 이후 吏曹判書에 贈職되었다. 그의 墓는 양주 송산 흑석리에 있으며 龍阜書院에 배향되었다. 이후 10대 수 당시 '李适의 난'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호가 菴인 수는 명종21년(1566) 안산군수를 역임하다가 李适과 내외종간이라는 사실 때문에 홍천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으며 인조 즉위년(1623)에 군수를 제수받았다. 이괄의 권세는 '삼일천하'에 그치고 판군에 쫓겨 이천·홍천 쪽으로 밀려왔으며 이때 약간의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전언되고 있다.

11대 宜昌은 호가 德厚이고 通德郎이었던 바 홍천·횡성 관내 承旨 宜昌派의 中始祖가 되었다.

횡성 부창에서의 삶을 시작한 것은 12대 이었다. 자가 汝淵이었으며 첫 번째 부인인 원주 이씨의 묘는 선산인 양주군 별남면 엄소리이나 두 번째 부인인 南陽 洪氏와 슬하의 자녀를 이끌고 부창에 들어오게 되었다.(묘:공근면 부창리 삼군동) 이후 13대 후손부터 21대 俊秀 22대 元熙에 이르기까지 동족마을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서울인근에 거주하던 류씨는 10대 수에 이르러 1624년(인조2)에 발발한 이괄의 난을 피하여 홍천 성수리로 이주하였고 다시 이괄이 三田渡·京安驛·이천을 거쳐 홍천 성수리에 쫓겨오자 다시 12대 때 지금의 횡성군 공근면 부창리로 이전하여 오늘까지 거주하며 승지 의창파 후손을 형성하게 되었다.

공근면 초계정씨의 동족마을의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먼저 草溪鄭氏의 始祖 光儒侯 鄭倍傑 이후 內給仕公派, 千戶長公派, 大提學公派, 博士公派, 大司成公派의 大派를 형성하고 있다. 3세 福公의 장남 榮(4세)의 후손이 內給仕公派를 둘째 辛夫의 후손이 千戶長公派, 3세 福卿의 후손이 大提學公派, 3세 福儒의 후손인 7세 丞의 후손이 博士公派, 동일한 7세손이자 둘째인 太華의 후손이 大司成公派를 형성하였다.

그중 大提學公派는 아들 光祖(9세)대에 慶山宗派를 형성하였으며, 둘째 光繼의 子 補生과 英은 草溪 晉州派를 형성하였고, 셋째 修가 關東派를 형성하였다. 여기에서 關東派는 中派이며 다시 宗派, 山逸公派, 宣務郎公派, 慶州公派, 別坐公派, 醴泉公派, 松浦公派, 主簿公派, 進士公派, 義州公派, 弘儀公派의 小派로 구별된다.

13세 溫의 후손중 둘째 允의 후손은 義州公派, 14세 允謙의 둘째아들 炯의 후손들이 進士公派, 15세 淑의 둘째 아들 末榮의 후손들이 主簿公派를 형성하였다. 본격적인 小派의 형성은 16세 宗榮의 후손들로부터 기인된다.

따라서 오늘날 횡성에 살고 있는 草溪鄭氏는 大提學公派(關東派)에 속하면서 다시 16세에서 17세에 걸쳐 小派가 나뉘어져 있는 셈이다. 공근면 일대에는 關東派가 거주하고 있다.

원주의 入鄕祖인 11세 便(변:1364~1450)은 司宰副令 脩의 아들로서 고려조 通禮門 奉禮를 지냈고 贈職으로 禮賓寺正을 받았다. 그의 부인은 고려왕족인 順平君의 딸이었다. 고려 왕조가 멸망하자 부인과 함께 당시 원주 땅이었던 干川으로 피난하여 스스로 '上丁'이라 하고 李孝誠, 權淳과 더불어 3處士라 칭하며 고려 遺民으로서의 死生 契分을 맺었다. 家傳에 따르면 부인 왕씨가 종사의 소멸을 슬퍼하여 강에 투신하였고 비록 그 시신을 찾을 수 없었지만 후손들은 干川 伽椰谷 便의 묘에서 더불어 묘제를 봉행하였다.21)

한편 便의 아들인 興은 원주향촌에서의 삶을 영위하다가 원주 本峴(鳳山洞)에 묻혔고, 대를 이은 후손들이 '干川爲貴地 本峴爲富地'라 일컬으며 草溪鄭氏 세거지로서의 원주의 위상을 분명히 했다.

14세 允謙(1463년~1530년)은 시호가 莊襄이며 家傳襲承으로 淸溪君에 封君(1519년)되었다. 16세 宗榮(1513년~1589년)의 호는 恒齋이며 시호는 靖憲이다. 부친은 현감 淑이며, 中宗 8년 11월16일 원주 東梨里(필자주:지금의 鳳山洞)에서 출생하였다. 慕齋 金安國의 문인으로 그에게서 직접 性理書を 받고 수학하였다. 그는 戶曹와 工曹判書를 한 번씩, 兵曹와 吏曹判書를 두 번씩, 禮曹와 刑曹判書는 세 번씩 역임하는 등 중앙의 요직을 두루 지내고 清白吏에 錄選되었다.

그는 死後 1638년(仁祖16) 七峰書院에 配享되었다. 七峰書院은 1673년에 賜額되었다. 1680년(肅宗36)에는 靖憲이라는 諡號를 받았으며, 1729년 후손들에 의해 창건된 別廟에 봉안되었다.

17세기에 접어들면서 宗法적인 부계친족질서가 점차 확립되고 광범위하게 전개되었



는데, 草溪鄭氏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橫城 公根(草堂)의 동족마을 형성은 16世 宗榮의 묘가 조성된 후 17世와 18世 基廣, 20世 洙明대 즉 17세기 초반에 이르러서였다. 이후 21世 八柱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완전히 草堂으로 移居하여 18세기 이후 지역 내 門中の 위상정립에 힘쓰게 된다.

漢城左尹의 벼슬을 역임한 18세 基廣이 1613년 江原觀察使를 지낸 뒤 橫城 草堂에 碧玉亭을 짓고 退休한 때부터 宗家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693년(肅宗19) 20세 洙明이 寧越府使를 退官한 다음 본격적으로 개척하였다. 우선 茅屋을 짓고 清流를引入하여 池塘을 굴착하고 花樹를 심었다. 즉 자연미에 인공미를 더한 전통적인 사대부가 건축조경을 보여준 곳이었다. 兩池 사이에 '獨樂堂'이라는 亭子를 조성하고 독서와 사색하는 곳으로 이용하였다.<sup>22)</sup>

養子였던 洙明은 祖父 基廣의 嫡庶 남녀 13인, 生父 錫圭의 嫡庶 남녀 12인 등 本家和 生家の 후손들을 돌보면 수백 여 구의 衣食을 관장하였다.<sup>23)</sup>

한편 21世 八柱는 成均館 進士였으나 1725년 가족을 거느리고 서울에서 낙향하여 橫城 草堂으로 이전하였는데, 시냇물이 瀑布처럼 흐르는 연못의 동쪽에 3개의 기둥이 있는 정자를 세우고 본인의 별호인 '述齋'라는 현판을 내건 후 매일 서적을 읽으며 소요하였다.

八柱는 敦睦과 宗族保存에 유난히 힘쓴 인물이었다. 宗榮의 제사에 대해 '道學 德望'으로 遷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여 諸宗의 합의를 도출하고 公根에 別廟를 건축하며 옆의 土田을 경작하여 春秋祭享費로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 八柱는 벼슬을 역임하지 않은 대신 문중의 모든 기록물들과 절차 등을 정리한 문서를 남겨 草溪鄭氏 동족마을의 초석을 닦은 인물이다.

## 2) 崇祖사업과 祠宇

동족마을의 구심점이자 마을내 타성 민들에게 과시의 수단으로 이용된 건물의 건립과 현조에 대한 선양사업의 전개사실을 볼 수 있다.

먼저 璿성조씨의 世德祠 정비과정을 살펴보겠다.

趙?(1171~1220)은 璿성 역사상 손꼽히는 인물로 고려 100층의 한 사람이며, 璿성조씨

22) 「三止齋遺稿抄」(熙佐) 등 수많은 후손들의 시 가운데 그 풍치가 서술되어 있다.

23) 당시 宗家の 生活과 官歷에 관해서는 錫文이 남긴 「府君日記」와 洙明의 「僉正公日記」, 25세 鴻漸이 남긴 「家狀日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조 익의 8대손이다. 고려시대의 武將·文臣이며 趙永仁의 아들이다. 부친인 조영인, 아들 趙季珣과 더불어 3대가 원수(元帥)를 지냈다 하여 三元帥라 부른다. 그는 公根面 上洞里 紫之峰 아래 있는 굴바위(石窟)에서 태어났다고 전언된다.

조충의 묘소는 고려 고종 7년(1220) 9월에 開城郡 上道面 蓮洞의 太祖 王妃 齊陵 서편 언덕에 안치되어 있었다. 이후 그의 묘가 훼손되어 자취를 찾코자 할 때에 1926년 가을 誌石이 발견되어 失墓이후 707년만에 墳墓를 再修하였고 秋季의 享祀禮를 행하였다.<sup>24)</sup> 1948년 봄 宗中에서 정암리 망백으로 遷墓하였고 誌石도 이장되었다.<sup>25)</sup>

한편 1924년 가을 世德祠가 정비되었다. 횡성 조씨의 후손들은 공근면 상동리 삼원수골에 세덕사를 세우고 삼원수의 位牌를 봉안하였으며 그 다음해에 횡성군 유림회일동의 후원으로 재력을 모아 東臯齋라는 齋室을 건립하였다.

丙寅年(1926) 11월 횡성 文廟 直員 鄭鎬瑄, 掌議 任東鎬, 횡성 儒道闡明會長 鄭鎬鳳, 횡성군수 吳贊甲, 江原道參與官 石明瑄, 횡성경찰서장 近藤의 이름으로 발기문이 작성되고 별도의 「東臯齋修契案」이 작성되었다.<sup>26)</sup>

즉 契명칭은 조충이 講道한 언덕의 지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항상 東臯에 있는 獨樂院을 열고 論道經邦하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 門弟및 賢士大夫와 더불어 講道하였으며 樂院을 스스로 소요하며 스스로 거문고를 타고 시서를 쓰며 즐겼다고 한다.

財源은 지역의 유지자가 성의로 각출하되 액수가 많으면 世德祠 옆에 東臯齋를 건축하고 建齋 이후 春秋로 師友가 단합하여 講經할 것과 高師를 초빙하여 秀才에게 무료로 강습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후 세덕사는 重修를 거듭하며 횡성 조씨 문중과 횡성 일대의 정신적 구심체로 기능

24) 辛鍾遠, 1988, 「趙?墓誌銘」, 『江原史學』 4집 참조

25) 당시 墓所遷禮 집행위원으로 망백에 거주하는 東鎬, 翼烈, 基復, 基亨, 基益, 秉鎬, 基陽, 基憲, 永鎬, 聖熙, 基宗, 基臨과 서울에 거주하는 基性이 담당하였다.

26) 修契規約

- 一. 契稱號以 公講道之阜名爲定事
- 一. 凡我冠儒服儒之人 齊心協力共修 此契爲定事
- 一. 尙賢之誠 崇德之意 須要尊重爲定事
- 一. 契財 兪君子 隨其誠意 各出多少金 建立資本爲定事
- 一. 契財充實時則 世德祠傍 東臯齋 建築爲定事
- 一. 建齋以後 春秋兩節 團合師友講經 習禮修明倫?尊崇道德爲定事
- 一. 資金?餘之時則 延聘高師 後生秀才 無料教育爲定事
- 一. 世德祠中 所入費用 以契財擔當爲定事

하였다. 세덕사의 건축물은 1925년 9월 3일(문정공 祭日)에 완공된 사당(10.2평) 및 내삼문(神門:2평), 1926년 12월에 완공된 재실(초가, 9칸, 22.5평)과 담장 1식(56.4m)이 있다. 문 중에서는 사업비 404,450원을 들여 1976년 4월 사당의 기와와 석가래를 교체하고, 재실지붕을 개량하였다.<sup>27)</sup>

1986년 2월 28일 황성군청에 의해 대통령 순시의 지시사항에 따라 '조충장군 묘역 정화사업'을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황성 儒林대표들도 鄕校 典教 김주옥, 유도회 황성지부장 조기현 외 49명의 이름으로 세덕사의 복원을 건의하였다.

황성군(군수 김세기)에서는 역사적 인물 묘역(정암리 소재)을 성역화하여 관광자원 및 호국교육장화를 위한 장기적 발전 계획을 세우고 문중의 의견을 존중하여 망백으로 이축하였다. 세덕사 이축의 최종 계획으로는 황성읍 정암3리 산207-1의 위치에 사당1동(10) 내삼문 1식 담장 등과 묘역정화 및 조경, 홍일문 건축, 안내사무실 및 관리실 건축, 화장실 건축, 안내판 설치, 기념비 건립, 동상건립, 청소년훈련원 등의 건립을 모색하였다.<sup>28)</sup>

다음으로 수백리 한산 이씨의 牧隱 李穡(1328~1396)의 影堂이 주목된다. 顯祖로서 이씨의 영당을 건립하여 강원 영서 일대의 한산 이씨들의 결집체로 삼은 점이 특이하다.

영당은 1932년 李元植이 주선하여 건립되었는데 정면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형태로, 영당 전면에는 韓山李氏花樹親睦會에서 쓴 「記」와 朴寅春이 짓고 安承哲이 쓴 「牧隱李先生影堂新建築記并板上韻」의 현판이 걸려 있다. 1933년 10월 29 한산 이씨 화수친목회에서 작성한 현판에 따르면 영당은 공근면 상수백리 164번지 목조 초가·평가 건물 2동 및 상수백리 165번지 전 317평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음력 3월 中丁日과 9월 중정일에 제향을 올리는데 한산 이씨 문중은 물론 부근의 유생들이 참사하여 목은선생의 덕을 추모한다.

한편 영당 건립후 1933년 9월 20일에 작성된 「享祀時到記」에 따르면 황성·원주·홍천·양평에서 모인 후손 88명과 申百均 등 士林參拜가 132명, 그밖에 기관장으로서 황성군수(李淙煥), 황성면장, 공근면장과 황성郡屬, 황성面屬, 황성경찰부장, 황성경관, 공근경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해마다 작성되는 「義捐物品錄」에는 후손들의 제수용품과 황성군수·황성문묘 직원이

27) 世德祠丙辰重修記 後孫 衡鎮 謹記 참조

28) 이에 황성조씨 문중에서는 대종회장(조기익)의 명의로 세덕사 신축사업 대상지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고 종중소유 토지 일부를 증여하였다.

보낸 육포·어포 등의 물품이 기록되어 있다.

1936년 3월 14일의 춘향제에는 후손 60여명과 유림 30여명 수백 學術講習所長 이용구 강사 이계복 외 生徒 일동이 참배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후 수백초등학교 학생들의 참배전통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영당 건립 후 청풍 김씨가에서 3대에 걸쳐 분향과 청소를 담당하였고, 주민들에게 1일과 15일에 대대적인 청소·분향에의 참여를 독려했다. 6,7년 전부터 봄·가을 제사 가운데 10월 3일 가을 제사만을 봉행하며 최근에도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춘추향사(양력 5월 5일, 10월 10일)를 위한 종종 수계의 재원은 답 1석 3두락, 전 9일경 대지 4필지에서 거두어들이는 도조로서 마련하고 있다.

草堂의 草溪鄭氏 동족마을 역시 顯祖를 내세워 마을을 장악한 경우로 볼 수 있다. 鄭允謙의 不廟와 鄭宗榮의 別廟가 그것이다.

우선 鄭允謙의 不廟를 살펴보겠다. 不廟란 不遷之位의 對象이 되는 神主를 두는 祠堂이다. 본래 忌祭祀에서 墓祭祀로 넘기는 4대 항렬의 사람이 죽는 代盡이 발생하면 4대 이상이 되는 祖上の 神主는 祠堂에서 꺼내 묻어야 하지만 나라에 功勳이 있는 사람의 신주는 왕의 허락을 받아 옮기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不遷位가 된 神主는 처음에는 묘 밑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宗家근처에 祠堂을 지어둘 수 있게 됨으로써 不廟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不廟는 본래 국가의 공인절차를 받아야 하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地方儒林의 공의에 의해서도 정해지게 되었다.

奉祀孫이자 長曾孫 17세에 別世하여 3대 奉祀가 끝난 후 1615년 長玄孫 基廣대부터 不廟를 창건하여 永世奉祀하는 예법을 시행하고 있다. 基廣대에 원주 望鍾里에 있던 宗家は 이후 橫城 草堂으로 옮겨졌고 본 不廟는 1694년에 宗家 내에 重建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16세 宗榮의 公根別廟를 들 수 있다.

祠堂에는 4조의 神主만을 봉안하기 때문에 부모를 하계되면 高祖考?의 신주를 옮겨 봉안하고 祖考와 考의 신주를 차례로 옮겨 봉안한다. 사당에서 들어낸 高祖高?의 신주는 아직 4대의 대수가 다하지 않은 長房孫의 집으로 봉안하거나 묘소에 埋安한다.

草溪鄭氏는 대대로 3대 제사에 그치는 고로 1653년 19세 錫文이 별세하자 宗榮의 祀板을 山逸公 基成의 집으로 옮겼는데 재차 1662년 基成이 喪을 당하자 이후 諸宗이 承旨

公 基豐의 집에 모여 祖(宗榮)祀 遷葬과 祀板을 종가에 還奉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3대 奉祀로 끝났으나 院享 儒賢인 名祖이므로 遷의 논의는 부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 가문에서 兩代 不(允謙)는 예법에 어긋남으로 4대 奉祀하기로 결정하여 우선 奉祀를 연장하였다.

여러 논의 끝에 ‘清白吏不?’ 로써 논리를 정하고<sup>29)</sup> 이어 20世 洙明의 별세 이후 오랜 동안 恒齋公別廟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다가 1729년(英祖 5) 碧玉亭 黔川公 建柱집에서 會集하여 永世奉祀를 위한 別廟건축을 결의하고 장소는 三然堂(淸城君 故居)의 舊基로 정하였다. 4월 11일에 開基하여 5월 11일에 上樑하고, 그해 7월 11일에 준공하여 같은 해 11월 7일에 位板을 봉안하였다. 齋室은 8월 1일에 시작하여 11월에 上梁하고 1730년 3월 15일에 蓋瓦하였다. 동년 11월 7일에 祀版을 봉안하고 享祀는 음력 3월 10일과 9월 10일에 墓祭는 10월 1일로 정하였다. 당시 營建有司는 鳳柱·熙慶이고 錢穀과 木材를 모으고 賦役을 통해 완성했는데 立木處分 등 경비만 600兩에 달했다.<sup>30)</sup>

別廟는 몇 차례의 重修를 거듭한다. 重修의 전과정 즉 논의와 재원의 마련, 관리까지 關東派 전 문종의 관심 속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그 단합력을 과시하는 사안이 되었다. 이후에도 祀宇 및 齋室의 重修는 수차 실시하였고 有司 2人を 두어 陰每月一日과 陰十五日에 오늘날까지 焚香奉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후대의 시기이기는 하나 宗家 내에 세워진 孝旌門을 주목하게 된다. 草堂의 宗家에는 允謙의 不廟와 정면 大門 앞에 27세 顯九의 孝旌門이 설치되어 있다. 1891년 10월의 「禮曹立案」에 따르면 강원도 進士 金樂容 등이 故 學生 鄭顯九의 효행에 대해 旌閭之典을 베풀 것을 요구하는 소를 올린 것이다.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에 대해 부모가 발병하면 인분을 먹이고 斷指하여 피를 먹이며 상장이 끝난 후에도 묘소에 가서 朝夕으로 문안과 곡하기를 3年을 하루처럼 행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 判下 사항은 旌閭를 세울 때 材木과 匠手를 예에 따라 관에서 거행하고 그 집안의 煙戶와 還上 등 제반 잡역은 일체 감해줄 것을 지시하였다.<sup>31)</sup>

이상의 건물과 七峰書院에의 享祀는 忠·孝에 뛰어난 顯祖들의 삶을 드러내고 여러 동족의 단결과 마을 내 他性貫 출신자들에 대한 草溪鄭氏의 위상을 보여주는 장치였다.

29) 「壬申日記」 僉正公(洙明)

30) 鄭元善著, 「世蹟」 上

31) 「光緒十七年 十月 日 禮曹立案」

### 3) 동쪽마을 문중의 토지·노비제 운영

#### (1) 토지소유 현황

동쪽마을을 이끌어 가는 草溪鄭氏의 경제력은 토지보유실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1768년으로 추정되는 戊子量田시 토지대장에 原州소재 토지 현황이 기재되었고 橫城, 洪川, 坡州, 驪州 등지의 사례는 근거를 위한 기록으로 덧붙여져 있다.<sup>32)</sup>

이상의 토지는 原州 入鄕祖인 11세 便이후 후손들의 묘자리와 세거지, 상속으로 이어 받은 곳에 소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橫城의 경우 宗家가 있는 碧玉亭과 鄭宗榮의 別廟가 소재한 公根, 公須位畓이 소재한 동막골(봉우재 동쪽의 골짜기) 및 국제골(국제골, 국자골)과 창봉리, 성동리 장지원리 및 甲川面의 馬日院(里)이 존재한다. 파주 자곡면의 경우 鄭宗榮의 配인 文化柳氏의 墓畓이 소재하였다.

먼저 戊子年(1768) 草溪鄭氏家의 조세량을 근거로 추정한 토지 소유규모는 다음과 같다.

#### 鄭氏家의 소유전답규모(추정)(단위:두락)

\*추정방법-전답규모 상정

- ① 원주 호매곡면과 사근사면, 본부면, 저전동면의 경우 8.5束=1斗落으로 상정함. 그 중 본부면과 망종은 1負=1斗落이나 대개의 지역은 0.85:1의 비율로 계산 됨.
- ② 斗落(時落, 落種)이 명기된 경우는 斗落數를 그대로 사용

지역	稻(畓)	雜穀(田)	합
(원주)			
호매곡면	182.5	544.5	727
사근사면 산저	69.6	76	145.6
본부면 본현	42	84	126
저전동면 이소 망종	91.5	133.9	225.4
(횡성)			
공근면	158.7	615.8	774.5
갑천면 마일원	41.2	96.9	138.1
(기타)			
홍천 검기산	79	158	237
파주 자곡면 도감동	10	20	30
도합	674.5	1729.1	2403.6

32) 「耕稼雜錄」으로 명명됨

③ 田의 경우 생산력-畝:田=200:130으로 추정

규모- 畝:田=1:2로 추정, 동일한 결부의 경우 전을 답의 2배로 추정.

특히 '日耕'의 노동량 추정치가 부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임

④ 18세기 후반 논 1斗落은 100평, 밭은 50평에 이룸

⑤ 1결은 30~40斗落

⑥ 英祖년간 대대적으로 「陳田下諒成冊」이 작성

⑦ 흥천과 파주 지역은 조세납부와 상관없이 斗落 수가 기록되어 있음.

이와 같이 量案에만 수록된 草溪鄭氏가의 토지소유 규모는 畝 674.5斗落, 田 1,729.1斗落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位田과 相續 田畓이 빠져있는 규모이므로 본래 草溪鄭氏가가 지니는 토지소유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한편 분재기상으로 확인되는 17세기 초계 정씨 문중의 토지 소유량은 다음과 같다.

1631년 和會成文의 分給 재산 내역(田民)

	구분	토 지		畝牌	비고
		畝(斗落)	田(斗落)		
奉祀條	父邊	17두락	27두락+16부8속		
	母邊	9두락			
1녀(정호경)	부변	66두락+11부1속	45두락	노2	
2녀(한복유)	부변	62두락	48두락	노2 비2	
3남 기광	부변	67두락+27부8속	22두락	노2	원주 礮岩面畓 陸庫 不知其數두락 추가
	모변	15두락+11부1속	5부5속	노2	
4남 기성	부변	40두락+47부7속	58두락	노1 비1	
	모변	9두락+6부5속	31부2속+1.5日耕	노2	
5남 기평	부변	66두락	44두락	노1 비1	
	모변	15두락+21부	20부2속	노1 비1	
6녀(권종길)	부변	69두락+18부	46두락	노1 비1	
	모변	14두락+17부	4부7속	비2	
7녀(윤의립)	부변	52두락+13부6속	30두락	노1 비1	
	모변	15두락+11부1속	16부5속	노2	
8녀(이응기)	부변	45두락	49두락	노1 비1	
	모변	15두락+21부5속	15부4속	노1 비1	
9남 기풍	부변	66두락+17부	49두락	노1 비1	
	모변	15두락+17부	6부5속	노1 비1	
도합		657두락+240부4속 +원주장암면답	418두락+116부8속 +1.5日耕	노21 비13	

본 分財記는 조선전기의 평균 분식의 원칙을 따르면서도 조선후기의 承重者·長男 위주의 상속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奉祀條는 '先世立議'를 따를 것을 강조하여 長子·長孫에게 집중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17세 료의 재산은 父邊의 경우 원주와 횡성의 근거지와 양주, 연안, 광주, 장흥, 연산, 남원에 소재하며, 母邊의 경우 보성, 광주 등에 위치한다. 奉祀條의 경우 母邊의 경우 원주 만종리에 위치한다.

奉祀條와 長男분깃을 제외한 많은 田土·奴婢의 경우 나머지 8남매에게 고루 분배됨으로써 宗家재산의 영세화는 진행되고 있다.

## (2) 奴婢制 운영

奴婢 일가족은 대체로 여러 주인에 의해 분할 소유되고 있었다. 말하자면 노비는 개별적으로 소유주가 정해지기 때문에 외형상 한가족을 이루고 있지만 실제에서는 가족 구성원 개인의 소유자가 모두 다를 수도 있었다. 노비를 소유했던 양반층은 노비를 상속·매매·기증할 때 노비가족을 1,2명씩 분할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였다. 노비소유주는 노비일가족을 분할 소유함으로써 노비의 통제, 즉 도망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 감시와 도망시 공동으로 推刷할 수 있었으며 평소의 使喚이나 身貢 징수도 철저하게 강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私奴婢의 자녀수는 자료의 한계, 즉 유아사망률이 높았을 뿐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 혹은 主家에서 外居奴婢의 생사나 자녀 출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런데 초계 정씨 橫城의 宗家를 중심으로 한奴婢의 경우 호적을 구성한 32家 가운데 대체로 2.66口의 자녀를 두었으며 많은 경우 7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평균 奴1.4口 婢 1.2口을 두었다.

草溪鄭氏 奉祀條 奴婢 현황(17세말)

지역	奴婢현황		비고
	奴	婢	
원주	66	84	
횡성	45	52	공근·갑천 포함
홍천	10	14	
강릉	10	7	안의 포함
양양	44	5	郡內, 二里助邑里 포함
영남	40	47	안음·거창 포함
김천	26	26	
피주	8	11	在日面 都監洞 柳氏墓下
니주	62	34	
의산	10	10	古邑 포함
장흥	27	15	
해남	4	8	
남원	3	3	下龍伏面 道禮洞里 포함
무장	24	16	
고창	17	24	
도합	396	354	



이외에도 金川(奴3, 婢3), 坡州 在日面 都監洞 柳氏墓(奴3 婢4), 江陵 安義, 나주, 익산 東面, 장흥 古邑, 해남, 남원, 원주, 무장 下龍伏面 禮洞里, 고창, 영남 등 각 지역의 奴婢들의 명이 기록되고 부모의 출처와 함께 최소 3대에 걸쳐 추가로 기록되고 있다.

이상의 토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력과 노동력으로서의 다수의 노비를 구사하여 동족마을 내 위상을 정립하고 문중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

#### 4) 祭儀 집행과 族契의 운영

##### (1) 祭儀

전통적인 동족마을은 高祖를 중심으로 하는 것, 入鄉祖를 중심으로 하는 것, 일족의 高官이었던 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 일족의 始祖를 중심으로 하는 것 등 4개 조직이 가장 중요하였다.

유교 의례에 있어서 가족 내지 친족의식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의례는 제사이다. 가례의 제례에는 四時祭, 忌日祭, 墓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16세기 조선에서는 四時祭, 忌日祭 외에도 俗節祭(節日祭), 生諱日祭 등이 더 있어, 고려적·불교적 祖先意識에 유교적 祖先意識이 혼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四時祭는 보통 時祭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사계절의 가운데 달(음력 2,5,8,11월)에 高祖 이하의 조상을 함께 제사하던 합동제사의 하나이다. 시제는 조상을 모신 사당에서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당이 협소할 경우에는 正寢의 대청에서도 할 수 있었다. 기일제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올리는 제사이며 모든 제사에 우선하여 제수도 가장 풍성히 차리게 된다. 기제사에는 다른 제사와 달리 돌아가신 당사자만을 제사하는 것이었으므로 신주나 지방도 당사자의 것만 모시고 제수도 單設로 하여 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제사 당사자와 배우자를 合設하여 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sup>33)</sup>

墓祭의 경우 『家禮』에서는 매년 3월 상순에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체로 10월에 행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매년 4節日(清明, 寒食, 端午, 秋夕)에 묘소를 찾아가 제사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시제보다 더 중요한 제사가 되기도 했다. 墓祭는 음력 10월에 기제사를 지내지 않는 그 옷대의 조상, 즉 5대조 이상의 조상에 대한 제사를 일년에 한 차례 지내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墓祭는 그 조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 시제에 참여하는 범위는 직계자손, 방계자손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33) 이영춘, 『喪禮와 祭禮』 『조선시대생활사』, (1996, 역사비평사), 60면

제사를 지내는 主祭者 및 參祭者는 속절계, 時祀는 子, 孫 등이 참여하고, 忌日祭인 경우에는 獨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國忌에는 다만 齋素를 하였다.

횡성 조씨 문중에서 거행했던 제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歷代祖上 祭享日字

조상명	제향일자 (음력)	묘소소재지
三元帥	3월 3일. 9월 3일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 世德祠 (望白으로 이전)
文正公(8세 沖)	9월 3일	횡성읍 정암리 망백
庶尹公(17세 俊)	10월 1일	상동
副正公(18세 應世)	10월 1일	상동
別提公(19세 進)	10월 10일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安岳公(20세 中立)	10월 10일	원주시 부론면 법천 能安
松湖公(20세 正立)	10월 10일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守英峰
大司諫公(20세 誠立)	10월 10일	원주시 부론면 홍호리
佐郎公(20세 恭立)	10월 2일	횡성읍 정암리 望白
宣毅郎公(20세 命立)	10월 1일	상동

1년 수 차례 반복되는 각 문중의 의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의 제도적 의미를 구현하고 하고 나아가서 그 행동의 총화로 이루어지는 삶의 의미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적 장치를 가리킨다. 이러한 祭儀를 통해 초계정씨 顯祖인 鄭宗榮이 늘 자제에게 경계하여 말했던 “나는 일찍이 내 자신의 편안함을 얻으려고 남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본뜬다면 모든 일에 허물이 적으리라”는 훈계와 ‘詩文을 금지’ 하고 ‘故鄉을 지키라’는 유언이 회자되게 되었던 것이다.<sup>34)</sup>

철이 든 자녀의 경우 가문단위의 의례나 지역단위의 의례에 참여하여 그 의례의 의미, 즉 의례행동의 제도적 의미 또는 의례행동의 기저에 들어 있는 논리적 가정과 논리적 귀결을 이해하려 하였다.

## (2) 親族契의 운영

전주 류씨 동족마을에는 宗契가 셋이 존재한다.

34) ‘每誠子弟曰吾未嘗求便於已而貽害於人若曹體此心庶乎寡過矣’(右贊成鄭公神道碑銘并序,李端夏 撰)

전통적인 契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고찰할 때에는 成員權에 관한 것, 임원과 회의에 관한 것, 契資에 관한 사항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성원의 자격, 가입, 추가적 가입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가, 가입은 자의로 하는가 혹은 의무적인가 또는 계예의 追加契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신입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또한 출자와 그 관리, 운영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成契시의 출자의 형태는 무엇인가? 둘째로는 출자의 방식인데, 이와 관련하여 출자의 비율, 즉 계원 사이의 출자가 균일한가 혹은 차등이 있는가 하는 것도 고려된다. 셋째는 契資의 관리에 대한 것인데 그 殖利에 있어서의 이율, 계자 대출의 방법, 또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 등이 그것이다.

한편 류씨 동족마을에는 宗契가 셋이 있는데 '大大宗契'는 10대 적과 11대 의창의 후손으로서 흥천 동면 월운리 형성 상동리 부창리에 거주하는 류씨들이 모두 가담하지만 '大宗契'는 12대 은의 후손들이 '小宗契'는 13대 秀幹·秀萬의 후손들이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제시기 이후 「대종계안」과 「소종계안」은 보존되어 그 운영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1933년 이래 기록된 「대종계안」에 따르면 '승지 의창과 후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18대·19대·20대에 걸친 동족들이 참여하고 있다.

癸酉年(1933)12월 10일 傳堂記에 따르면 位土畝를 경작하여 현금으로 180원32전, 正租 17석, 白米 1석17두, 黃太 11두를 수입하고 있다. 계財源을 바탕으로 殖利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류씨문중 외에도 정씨 등 마을 사람들에게 제한적이거나 공개되어 있었다. 이 자는 년5할에 달하는 高率이었다.

이곳의 契資는 대체로 쌀이 주가 되는 데 契資의 형태는 백미에서 백미+현금으로, 다시 현금으로 변화과정을 겪고 있다. 現物契資에 대한 선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契資의 현금화추세는 계속 진행되며 특히 해방 이후로 갈수록 강화된다. 일제하 대종계의 운영은 중증토지 매입과 과천·흥천·업소 등지의 墓幕 관리비, 농회비, 水利稅 등으로 지출되고 있다. 해방이후 대종계의 운영은 적극적인 대부사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22斗落의 토지 수입 외에 상당부분이 이자수입으로 일관되고 있다. 아울러 1957년부터 전주류씨 시조(濕) 재실 수리비를 부담하는 등 전국적인 연계에 힘쓰고 있다.

한편 병자년(1936) 「소종계안」의 좌목에 따르면 宗孫 柳塲과 門丈들이 가담하고 있다. 포함전문 102원 10전내 地稅 2두락, 上土洞 3두락답 지세, 附課稅, 林野稅, 饋價, 墳墓代金으로 지불하고 있다. 역시 대부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바 류씨 문장에게는 4분이자 타성

씨에게는 2~3분의 차등 이자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大宗中 借用條'라는 항목이 있어 대종계와 연계되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동족 계로서 영당의 관리와 동족의 화목을 위해 1941년(辛巳)에 규정된 한산이씨 화수친목회를 들 수 있다.<sup>35)</sup>

### 5) 가족구성

양반가문의 世傳문서 가운데 상당수의 準戶口·戶口單자가 있다. 대단한 가문은 못되어도 상민과는 구별되는 양반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준호구·호구단자상의 유향이라는 신분의 표시를 소중히 간직한 모습도 볼 수 있다.

빈약한 양반에게 있어서 준호구나 호구단자는 양반으로서의 마지막 표시이며 면역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문서를 고수해 왔던 것이다.

호구대장(호구장적)을 개수하기 위하여 각호에서 호구상황을 적어 3년에 한번씩 제출하는 것이 호구단자이다.

호주가 호구단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이입·면입의 검사를 거쳐 주군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구대장 또는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오차여부를 확인한 후 1부는 단자를 제출한 호주에게 환부하여 각가에 보관케 하고 1부는 장적을 개수하는데 자료로 이용하였다. 지금 고문서로서 전래되는 호구단자는 환부된 단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 단자가 관에 의하여 구대장과 대조·확인되어 제출자에게 환부되지 않으면 준호구적인 효력도 함께 갖게 된다. 본래 준호구는 호주의 요청에 의해 해당관청에서 호적대장을 근거로 재작성해준 호적등본이다. 과거시험·소송·병역 등 공적인 업무의 첨부자료로 이용되었다.

호적대장의 신분구분에 많이 이용되었던 것이 호주 처의 성씨, 본관의 표현방법이다. 즉 양반의 처인 경우 '무슨 氏·籍 어디'라고 기재되는 반면, 상민 이하의 경우 '무슨 冢史(조이) 또는 姓, 本 어디'라고 기재된다.

노비인 경우 대개 성씨와 본관을 칭하지 않는다.

조선시대의 호적은 자(子) 묘(卯) 오(午) 유(酉)의 식년(式年)마다 작성되었고 특별히 실무책임자로서 지방 각 읍·면 단위로 감관(監官)을 두었는데 지역사정에 밝은 사대부를 임명하였다. 작성절차는 우선 호주가 호구단자(戶口單子) 2부를 작성하여 올리면

35) 韓山李氏 花樹親睦會定款

이임(里任)·면임(面任)의 검사를 거쳐 주군(州郡)에 보내지고, 주군에서는 그 호구단자를 구(舊)호적과 비교한 후 1부는 호주에게 되돌려주어 보관하게 하고, 또 1부는 호적개수(改修)의 자료로 삼는다. 관은 구호적 및 관련 문서와의 대조가 끝난 호구단자 말미에 삭제, 첨가, 개서(改書)의 자수(字數)를 보여주기 위해 주(周) 협(挾) 개(改) 기(幾)자를 횡서한 후 호주에게 되돌려 주었다. 환부된 호구단자는 준(准)호구적인 효력을 지니게 되며 현재의 호적등본에 해당되는 기능을 지니는 것이었다. 호적은 대개 면단위로 수록되어 사망자와 이주자, 지역별 호구수가 기록되었다. 각호의 기재는 호주의 직역(職役)·신분과 성명·나이·생년(生年)·본관(本貫), 그리고 4조(四祖)와 외조(外祖)의 직역, 동거식구의 이름과 직역?나이, 노비의 소유실태·변동상황 등이 기록된다. 호의 편제는 오가작통제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10가작통제를 따르는 지역도 있다.

강릉 최씨의 경우 도합 5건의 호구단자가 남아 있다.

최진급(嘉慶 3년 원주관호구)

(嘉慶 12년 원주관호구)

최병규(嘉慶 24년 원주관호구)

(道光 8년 원주관호구)

최재관(광서11년 원주관호구)

그 중 嘉慶12년(순조7,1807) 호구단자는 최진급이 83세에 원주목에서 발급한 것으로 거주지는 古毛谷面 4리 鴨谷村이고 長子 海量 夫婦(故) 孫子 秉珪(40),秉瑞(34),秉玖(30),秉瑜(27) 夫婦와 둘째 아들 海旻(54)부부, 손자 秉(29), 秉濬(20) 부부 및 세째 아들 海鼎(45) 부부, 손자 秉瑗(25)부부, 秉瑛(20)부부 등 대가족이 동거하고 있었다. 이들을 뒷받침하는 노동력은 노6, 비12口였다.

이를 통해 신분 직역제 운영의 모습, 五家作統制의 편제 변화, 노비의 소유실태 변화 양상 등을 계기적으로 살필 수 있다.

#### 강릉최씨 취석공파의 五家作統 편제

연 도	거주지	통호수	직 역	성명(나이)
1798(정조22)	고모곡면 4리 압곡촌	2통 2호	幼學	崔鎭?(74)
1807(순조 7)	고모곡면 4리 압곡촌	1통 3호	幼學	崔鎭?(83)
1819(순조19)	고모곡면 4리 압곡촌	1통 3호	幼學	崔秉珪(52)
1828(순조28)	고모곡면 4리 압곡촌	1통 2호	幼學	崔秉珪(61)
1885(고종22)	고모곡면 4리 압곡촌	2통 3호	幼學	崔在寬(68)

호구단자를 통해 살필 수 있는 사실은 1807년(호주 최진급)의 경우 3형제 및 손자부부에 이르기까지 22명의 가족이 동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1828년(호주 최병규)의 경우 아들 2형제(大顯·泰顯)부부와 동생 3명의 부부가 분가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885년(호주 최재관)의 경우 2명의 동생부부 및 2형제(養浩·養源)부부 그리고 손자(光夏)부부를 비롯하여 3대에 걸친 가족구성원이 동거하고 있다.

## 5. 맺음말

본 연구는 橫城을 世居地로 한 관내 동족마을의 형성과정과 운영 내용에 관한 것이다. 기존 동족마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정주의식이 고착된 三南지역내 사족들의 향촌사회에서의 삶에 초점이 모아졌다. 반면 횡성 관내 士族들은 水路와 陸路를 통한 서울과의 빈번한 來往이 가능했던 바, 上京從仕와 落鄕을 거듭 반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 때문에 官과의 대응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鄕權 개입보다는 門中과 동족마을의 운영에 치중한 면모가 나타난다. 그리고 門中의 주요 사안은 赴學를 이용하여 서울에서 개최된 宗會에서 결정한다거나 京有司와 각 地域有司를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적 연망의 범위가 橫城에 머물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횡성 관내 동족마을들은 宗派를 중심으로 하여 小宗들을 결속시키려 하였고 종족의 親疎를 분명히 하여 계통을 밝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尊祖敬宗’ ‘親親合族’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17세기 이후 세거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宗法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父系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다른 지역의 同姓 親族과도 유대를 강화하였고, 공동조상의 제사도 정비하였다.

이러한 전통 위에 성립한 관내 동족마을의 문중들은 오늘날에도 ‘先朝遺業의 보호유지 및 추모사업, 育英사업, 회원상호간의 敦睦繁榮’이라는 목표 하에 ‘獎學會의 운영’, ‘先世 奉審事業’, 始祖 崇拜와 관련된 ‘祠宇·齋室의 건립’, ‘宗史발간’ 등의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조선후기 동족마을의 이해를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마을은 우리의 전통적 생활공동체의 최소단위이다. 또한 국가와 郡縣의 지배체계가 최종적으로 미치는 말단의 행정단위였고 사회경제적으로는 兩班·常民·賤民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공간이었다. 그러나 본고 역시 家父長的인 父系 親族體系의 확립에 따른 동족마을 내의

兩班조직과 門中의 활동에 대한 고찰에 국한된 듯하다. 따라서 동족인과 非동족인의 관계, 특히 마을 단위의 기층민과의 관계 및 전통적인 공동체적 생활방식을 가지고 존재해 왔을 그들의 조직에 대해 더불어 살펴보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학·인류학적 연구방법론의 적용 여부도 고려해야 될 것 같다.

---

## 橫城地域의 抗日民族運動

—1894년~1919년의 동학·의병·3.1운동을 중심으로—

---

姜 大 德(尙志嶺西大學)

- I. 緒 言
- II. 횡성지역의 동학운동
- III. 횡성지역의 의병운동
  - 1. 횡성의병의 사상적 연원
  - 2. 횡성의병의 창의이념
  - 3. 횡성의병의 활동전개
  - 4. 횡성의병의 성격
- IV. 횡성지역의 3·1독립운동
  - 1. 3·1독립운동의 배경
  - 2. 3·1독립운동의 전개
  - 3. 3·1독립운동의 양상
  - 4. 3·1독립운동의 의의
- V. 結 語





## I. 緒 言

우리 한국민족은 자주근대화를 수행하여 민족의 근대적 실력을 튼튼히 확립해야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기에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자주근대화가 저지 당했으며, 결국은 1910년 일제에게 식민지로 강점 당하여 온갖 박해와 탄압과 학살과 착취를 당한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다.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떨어진 이후에는 수많은 독립운동 투사들과 애국적 국민들이 모든 것을 다 바쳐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孤軍奮鬪하였다.

오늘날 우리 한국민족이 타의에 의해 비록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다시 독립을 찾고 이만큼 크게 발전하고 있는 배경에는 선구자와 애국자들의 희생과 가르침이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말 이래 한국의 근대사는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전근대적 사회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민족의 노력이 전개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민족의 노력은 개화와 위정척사 그리고 동학사상운동<sup>1)</sup>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운동은 그 내부에 지니고 있는 역사적 성격에서 일정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가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민족의 강한 의지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었다.

더구나 19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민족운동은 보다 적극적인 항일운동으로 자리잡았으며, 일제가 국권을 침탈한 이후에는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민족 독립운동으로 계승되어갔다.

횡성지역은 강원근대 항일민족운동사의 용거지로서 의병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는 위정척사사상과 존화양이의 학문적 전통이 계승 발전되어 있었던 곳이며, 그 바탕에 자리잡은 횡성주민들의 항일 저항의식과 자주의식이 연결되어 전기의병에서는 격렬한 항일투쟁으로 발전된 의병활동의 시작된 배경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항일투쟁은 일제강점기 1919년 3.1독립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역적인 항일민족운동의 선행연구가 핵심주제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충분했던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바람직한 연구결과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sup>2)</sup>

1) 李澤徽, 「1890년대의 사상사적 흐름」, 『갑오동학농민혁명의 爭點』, 집문당, 1994. 43~63쪽.

2) 단지, 조동걸 교수(현, 국민대학교 명예교수)의 『橫城과 三一운동』, 三一운동 기념비건립 횡성군협찬회, 1972에서 제1장 횡성의 역사편에서 제4절 「구한말 민족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동학운동과의 관계', '의병운동과의 관계'를 다룬 것이 유일한 것이다.

따라서 본 고찰은 황성지역의 1894년 동학농민운동부터 1895년의 의병항쟁, 1905년, 1907년의 의병무장투쟁, 1919년의 3.1독립운동까지 살펴 항일민족운동을 통하여 한민족 스스로가 독립에 대한 결심과 인식을 굳게 하였던 지역민중들이 적극 참여하여 강원도는 물론 전국적인 거족적 항일독립운동으로의 발전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II. 황성지역의 동학운동

우리의 근대적 민족운동으로 최초의 대중운동이었던 동학운동은 동학농민혁명운동, 갑오농민전쟁 이라고도 한다.<sup>3)</sup> 동학운동은 4단계로 발전되었다.<sup>4)</sup> 제1단계는 '고부민란'의 단계이다. 이 단계(1894. 1.11~3.3.)는 최초로 전라도 고부에서 탐관오리의 봉진적 가렴주구에 대한 민요의 단계이다. 아직 '농민혁명운동'이라고 할 수 없는 전주곡에 해당되는 '소민란' 또는 '소폭동'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제2단계는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제1차 농민혁명운동'의 단계이다. 이것은 호남일대의 농민들이 全瑋準·孫化中·金開男 등의 지도하에 茂長에 南接都所를 설치하고 봉기를 준비한 후 동학교도를 중심으로 군현을 점령하고 관군을 격파한 다음 전라도 수도인 전주에 입성한 단계(3.20.~5.7.)이다.

제3단계는 동학농민혁명운동의 執綱所시기이다. 이것은 淸軍과 日本軍이 동학농민혁명운동에 개입하여 조선에 침입하자 두 나라 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동학농민군과 관군

3) 역사적 용어호칭에 대하여 해방 전까지는 주로 '東學亂' 혹은 '東匪의 亂'이라고 불리었으나 1950년대부터는 '東學農民革命' 혹은 '甲午農民戰爭' 등으로 고쳐 불리는 추세이다. 이 운동을 혁명(revolution)으로 규정하는 학자들은 이를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을 지향한 反外勢(反帝) 민족주의 내지 반봉건 평등주의 민중운동으로 간주하며, 農民戰爭(peasant war)이라고 성격 지우는 학자들은 이를 일종의 계급전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혁명 혹은 농민전쟁이라 칭하는 역사가들은 이 운동을 토마스 뮌저(Thomas M tzer, 1498~1525)가 일으켰던 독일 농민전쟁(1524~26)이나 洪秀全(1814~64)이 주동한 중국의 太平天國의 亂(1850~64), 심지어는 프랑스 大革命(1789) 등에 비견시키면서, 한국 民衆의 자유·평등·민권 등 근대적 이상을 지향한 진보적 성격의 잠재적 사회혁명(social revolution)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영익 교수는 1894년 봄·가을 두차례에 걸쳐 폭발했던 민중운동을 이른바 동학농민봉기라 명하고 그 규모와 격렬성에 있어 전통시대 한국 민중운동의 최고봉을 이루었다고 하면서 갑오농민봉기를 진보적 성격의 사회혁명으로 규정하는 南·北韓의 통설은 한국근대사를 이른바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혹은 마르크스(Karl Marx)류 유물사관의 역사발전론을 한국역사에 도식적으로 무리하게 적용한데서 비롯된 誤設이라고 보았다. 1894년 전봉준 등이 일으킨 제1차 농민봉기는 본질적으로 儒敎의 忠君愛民思想에 바탕한 保守的 指向의 무장개혁운동(armed reform movement)이었다고 규정하였다.(柳永益, 『甲午農民蜂起의 保守的 性格』, 『갑오농민혁명의 爭點』, 집문당, 1994. 353쪽.)

4) 慎鏞廈, 『東學과 甲午農民戰爭研究』, 一潮閣, 1993.

사이에 全州和約이 성립되고 그 결과 전라도 53개 군현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농민통치를 실시했던 단계(5.8~9.12)이다.

제4단계는 동학농민혁명운동의 제2차 농민혁명운동의 단계이다. 이것은 '동학란' 진압을 구실로 조선에 불법 침입한 일본군이 철수하지 않고 도리어 조선에서 청일전쟁을 도발하며, 궁궐침범을 자행하여 왕궁 시위대를 무장해제 시키고 마음대로 전권을 농단하며 내정간섭을 자행하자 동학농민군이 재봉기하여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혈전을 전개하다가 일본군의 현대적 화력에 눌러 동학농민군이 패배한 단계(9.13~연말)이다.

일찍이 동학 2세 교주 海月 崔時亨(1829~1898)이 동학의 敎祖伸冤을 명분으로 1871년 10월 강원도에 처음 들어온 곳은 寧越 稷洞으로서 그곳에서 만 일년을 은거하며 살았다.<sup>5)</sup> 그후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그 이듬해부터였으며, 주로 영월·평창·정선·인제·홍천·횡성·원주 등지였다.<sup>6)</sup>

이와 같이 횡성지역의 동학운동은 최시형의 영향으로 강원도 남부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때 함께 많은 횡성군민이 이에 가담하여 원주·홍천·횡성이 한 지역권으로 항일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며, 1894년 가을 전봉준이 전라도에서 농민봉기를 일으켰을 때 충청이북 즉 북쪽에서는 9월 18일 최시형 교주와 각 지역의 두령을 모아 놓고 함께 싸울 것을 결정한 후 손병희에게 統領旗를 내렸다. 이때 손병희의 통령을 받고 내려온 인물로는 홍천에 車基錫·沈相賢·吳昌燮, 횡성에는 尹冕鎬, 원주에는 李和卿·林淳化 등이었다.

이들은 원주·횡성·홍천에서 동학교도를 모아 횡성군 둔내·갑천 등지를 거쳐 홍천 서석에서 동면으로 진출하여 홍천읍으로 공격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동학농민군들은 홍천의 정부군과 정면충돌하여 싸우게 됐고, 그들은 또 다시 횡성군수 李弼榮이 진두지휘하는 군대와 동학군을 토벌하던 甲午義旅가 민간포수를 모아 동면 방면의 동학군을 공격하니 큰 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反東學 甲午義旅로 활동하여 東學黨 征討人錄과 甲午軍功錄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은 원주의 李哲和, 횡성의 鄭駿時이다.<sup>7)</sup> 특히 홍천지역은 동학군이 東面 東草里에서 시작하여 그해 10월 25일을 전후해서는 瑞石面 豊岩里에서 큰 전투가 일어나 최후의 혈전을

5) 윤석산, 『東學踏查記』, 신서원, 2000. 125~134쪽.

6) 최시형이 1898년 4월 6일 관현에 체포될 때도 原州 好楮面 松洞 趙鐵汝의 집에 있었다. 그러므로 동학과 인연이 깊은 고장이다.

7) 『橫城郡誌』(1968년간) 81쪽에 갑천의 鄭蘭基도 가담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별인 곳으로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곳이다.<sup>8)</sup>

그런데 이때 홍천 전투에서 정부 官軍외에 강력한 민간부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평에서 포수를 모아 만든 孟英在의 동학도별대이다. 동학도별대는 횡성지역과 홍천 동면·서석면의 전투에서<sup>9)</sup> 공적으로 동학도별이 끝난 후 砥平縣監의 벼슬을 받았다.<sup>10)</sup>

이와 같이 동학운동은 횡성을 비롯하여 강원남부지역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동학교의 정신과 활동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했던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 후 횡성지역의 항일투쟁은 특히 일제치하에서 1919년 3·1운동으로 발전시키는 훌륭한 터전이기도 했다. 더구나 횡성지역의 3·1운동은 동학교도인 천도교도에 의한 것이었다.

횡성지역을 포함한 우리 나라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 농민전쟁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낮게 평가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19세기 조선사회의 구조는 士·農·工·商의 구조로서 양반귀족(士)의 바로 아래에 농민층이 있었고, 농민층 아래로 부르조아(bourgeois) 계층에 해당하는 工·商이 身良役踐層으로 취급되어 농민층보다도 도리어 계층 그 자체로서는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다.

19세기 조선사회의 농민층은 경제적으로는 빈곤하였지만 사회적으로는 대부분이 지위가 상승하는 양인신분이었으며, 조선후기에 서당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농민층의 교육수준이 현저하게 되었다. 따라서 19세기말 조선사회의 농민층은 중세말기 서부유럽 사회의 농민층과는 현저하게 다른 정치적 사회적으로 훨씬 더 성숙한 계층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한국근대사에 있어서 부르조아 계층은 미성숙했으므로 구체제의 담당신분인 양반귀족

8) 오늘날 동면 속초리 許氏 문중이나 서석면 풍암리에 가면 10월 25일 전후해서 며칠간 제사를 많이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洪川郡 瑞石面 豐岩里 자락고개에는 東學革命軍慰靈塔(地方文化財記念物 제25호)과 東學革命軍義塚이 소재하고 있다.

10) 砥平에는 1894년 당시에 세운 孟英在의 扶正斥邪碑가 현존하고 있다.

11) 서양의 도식에 교조적으로 추종해서 처음부터 농민층은 혁명운동을 전개할 수 없는 미성숙한 계층이었고 오직 부르조아(bourgeois) 계층만이 혁명운동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한국근대사의 특수성을 간과한 견해라고 본다.(신용하, 『한국근대사회의 구조와 변동』, 一志社, 1994, 135쪽.)

12)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운동은 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제를 주장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조건을 고려하면 전제군주제의 입헌군주제로의 변혁은 대세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부르조아개혁 추진층의 개화파도 마찬가지여서 1894년 당시에는 아직 공화제를 추진하지 못하고 입헌군주제를 모색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대신 동학농민혁명운동은 중세적 구체제의 마지막 정치세력인 민비수구파 정권을 실력으로 붕괴시켰으며, 중세적 구체제의 사회적 근간인 양반사회신분제를 철저히 폐지하여 신분해방을 성취해서 제도상의 자유와 평등을 쟁취했고, 봉건적 지주제도와 수취제도를 전면부정하여 새로운 근대체제를 추구하였다.(신용하, 위의 저서, 135~136쪽.)

그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성숙된 계층인 농민층이 혁명운동을 일으켜 구체제를 붕괴시킨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sup>12)</sup>

근대사회를 수립하면서 중세적 구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은 필수의 선행과제이다. 우리나라의 중세적 구체제를 붕괴시킨 것은 부르조아 계층이 아니라 1894년에 봉기한 동학농민층이었다. 민비수구파의 관군이 동학농민군에게 연전연패하여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만 없었더라면 驅兵入京하여 그들의 새로운 정권을 수립할 수 있었음은 명백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들의 힘은 국내수구파는 붕괴시킬 수 있기에 충분하였으나 불법으로 간섭하여 침입해온 일본군의 근대적 무력적 힘을 물리치기에는 부족하였다.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물리치지 못하여 신체제를 수립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중세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의 이행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운동이 실제로 성공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국근대사와 19세기 한국 근대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Ⅲ. 횡성지역의 의병운동

#### 1. 횡성의병의 사상적 연원

개항직전 두 차례의 洋擾와 그를 이은 강화도조약 전후부터 國論을 주도하였던 존양위척론은 성리학의 교학적인 범위를 넘어 민족·국가·전통사회와 문화를 수호하려는, 왜양일체론을 전제로 한 배양척화론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항기의 존양위척운동에는 화서의 문인들은 물론 전국적인 유림들이 참여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화서학파는 여타학파에 비해 춘추대의적 보국의리정신과 존화양이·위정척사론에 더욱 철저하였다.

丙寅洋擾 때는 조정의 召命에 응하여 상경해서 올린 華西 李恒老의 상소를 필두로, 강화도조약의 체결에 반대해서 올린 勉菴 崔益鉉의 持斧伏闕上疏와 경기·강원 兩道 화서연원의 重菴·省齋 문인 50여 명이 개항반대로 연명하였던 상소, 그리고 1880년 『朝鮮策略』이 계기가 된 1881년 신사년 가을 관동소수 洪在鶴의 개화반대관동연명유소 등은 그 두드러진 사례라 하겠다.

물론 화서 이항로를 비롯한 화서학파의 존양위척론은 서구열강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백성을 구하고, 그들이 평소 강론하였던 堯·舜·禹·湯·文王·武王·周公·孔子의 道, 즉 國家·民族·文化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보다 현실적으로 관

런된 시급한 문제는 개항이 가져올 당시의 정치·사회적 위기의식이었다.

이 가운데 勉菴의 지부복궐상소와 重菴·省齋 문인의 연명상소는, 비록 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동일한 시대상황하에서 학문적 연원을 같이한다. 그러면서도 전자는 출사한 관료의 입장에서, 후자는 재야의 입장에서 각각 상소를 올린 것이므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제 그 두 상소의 논지를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13)</sup>

첫째, 지금의 일본은 과거와 달라 서양의 '鬼'·'前導'가 되어 있기 때문에 [倭洋一體: 필자주] 조선의 仇敵인 것이다.

둘째, 일본이 통교하고 있는 서양은 이적보다도 아래에 위치한 인간의 형상을 한 금수이다.

셋째, 이런 까닭에 지금의 개항문제는 人獸의 문제이므로 華夷의 문제였던 丙子?丁卯의 兩亂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넷째, 그러므로 일본과 일단 통교하고 난 후에는 절대로 그 세력을 물리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邪教: 논자주]가 전국에 만연해 우리의 미풍양속을 어지럽히게 될 것이다.

다섯째, 일본의 통상요구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서양과 결탁한 데 대한 일본의 죄를 질책하고 그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논지의 저변에 깔려 있는 사상도 역시 화서 이항로의 철저한 춘추대의적 존양위척사상인 것이다. 그리고 화서학파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대외정책 등의 여러 방면에서 일본의 침략적 야욕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연명상소에서는 앞으로 계속될 일본과 서양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내수외양'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즉, ①군졸을 철저히 훈련시킬 것[練士卒], ②국고를 튼튼히 할 것[克府庫], ③민생의 생업을 태평하게 할 것[安民業], ④변방의 수비를 견고히 할 것[固邊備] 등 4가지의 內修政策을 주장하였고, 또 洋物을 엄격히 금하는 일이 당면한 급선무라고 보았다.<sup>14)</sup> 그러나 이

13) 『國譯勉菴集』卷3, 疏, 「持斧伏闕斥和議疏」, 124~135쪽 참조; 『重菴集』卷5, 疏, 「代京畿江原兩道儒生論洋倭迹仍請絕和疏」, 100~104쪽; 『習齋集』卷5, 疏狀, 「複合儒生斥洋疏」, 1~6쪽 참조.

14) 『習齋集』卷5, 疏狀, 「複合儒生斥洋疏」4쪽.

와 같은 그들의 요구는 묵살된 채 일본과의 朝日通商條約은 체결되고 말았다.

이제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킨 일본은 대한침략정책으로 진행해 갔다. 이 때 일제가 이러한 침략정책을 펼쳐 가는 데 있어 최대의 방해요소로 등장한 것은 바로 그 때까지 조선에서 보다 우월한 지위를 유지해 왔던 청나라의 세력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해서 조선내에서 청나라 세력을 완전히 구축하기 위해 淸日戰爭을 도발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볼 때, 1876년 강화도조약이 일제 침략세력의 상륙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라면, 이 청일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정치정세는 일제 침략세력의 터전을 쌓아올리는 기틀이 되었던 것이다.<sup>15)</sup>

한편 일본은 청일전쟁의 개시와 함께 金弘集을 총재로 하는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조선의 내정개혁’을 급진적으로 단행하였다. 화서학과 문인들은 이러한 갑오개혁을 ‘改正朔[年號變更]’·‘易服色[衣服制度 變更]’·‘變官制[官制變更]’·‘革州郡[地方制度變更]’ 등을 개혁한 것을 보고 대변고로 단정했다.<sup>16)</sup>

이 가운데 의복제도 변경은 당시로서는 참담한 개혁이었다. 1894년 6월 ‘盤領窄袖[등근 것에 좁은 소매]’로 1차로 개정하였다가 같은 해 12월 다시 朝臣의 大禮服을 黑團領으로 하고, 進宮市의 通常禮服을 黑色周衣로 2차의 개정을 시행해서 黑色的의 西洋式 服制를 택하게 되자 화서문인인 의암 유인석은 이를 지적하면서 통탄하고 있다.

오호라 예통하도다. 4천 년 華夏正脈과 2천 년 孔孟大道와 조선 500년 禮樂典型과 家家 數十世 冠裳法도가 여기서 단절되었도다. 이제 글 읽는 선비는 어떻게 처신해야 옳겠는가... 이것[變服令: 필자주]은 天地·聖賢·先王·父祖에 죄를 지은 것이라 살아서 장차 어찌 하리요. 이제 성토하다 죽고 舉義하다 죽으리니 先王의 道를 수호하다 죽는 것은 선비의 義理인 것이다.<sup>17)</sup>

즉 전통적인 복제를 서양식 복제로 개혁한 것은 華脈·道脈을 위시해 조선의 正脈과 고유한 習俗 등 傳統文化까지 모두 일시에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변고를 당한 현실에서는 선비로서의 意義를 상실했기 때문에 현실대응책으로 모두 죽음을 각오하고 舉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같은 생각이 의암 유인석으로 하여금 통탄하고 절규하게 하였다.

15)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編, 『獨立運動史 I -義兵抗爭史-』(원호처, 1971), 121쪽.

16) 『昭義新編』 卷1, 「西行時在旌善上疏」, 9쪽.

17) 『昭義新編』 卷4, 「乙未毀服時立言」, 132~133쪽.

땅을 치며 통곡하고 칼을 빼어 自刎하여 목에 피를 倭曾 井上馨과 [朴]泳孝·[李]光範 이하 開化派 逆賊들의 면상에다 뿌린 자가 몇이나 있었는가. 八路의 士民중에 痛憤大呼하며 擧義해서 오랑캐의 무리를 무찌르고 逆黨[開化黨:필자주]을 섬멸시켜 君臣士民의 몸에서 洋服을 벗겨내고 다시 先王의 法服을 입히려는 자가 있었는가 없었는가.<sup>18)</sup>

이와 같이 현실 상황을 살펴볼 때, 황성지역을 비롯한 강원전역의 의병봉기 분위기는 의복제도가 바뀐 뒤 즉, 1895년 초두에 벌써 성숙되어 갔다고 하겠다. 이런 정세하에서 러시아를 위시해 독일·프랑스 등의 세 나라는 일본이 청일전쟁의 결과로 획득한 요동반도를 청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 三國干涉으로 인해 일본의 약점이 露되되자 조선조정에서는 일본의 영향력을 배제해 가면서 親露政策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당황한 일제는 1895년 8월 20일[양력 10월 8일] 閔妃를 시해한 乙未事變이라는 국제적 범죄를 자행했다. 뿐만 아니라, 사변을 일으킨 직후에는 민비가 그 동안 “自己的 親黨을 끌어들여 국왕의 총명을 壟蔽하고 정치를 문란케 해서 그 죄악이 크기 때문에 부득이 폐위시켜 庶人으로 삼는다”는 王后廢位詔勅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sup>19)</sup> 그리고는 1895년 11월 17일을 기해 建陽원년 1월 1일로 음력에서 양력의 曆法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斷髮令을 선포하였다.

華·重·省 門人들과 의암 유인석은 앞서 변복령이 내려진 뒤에 이미 단발령과 유사한 어떤 조치가 취해지리라는 사실을 예상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가 단발령이 내려지기 전인 1895년 윤5월 錦溪 李根元에게 보내는 편지에

朝宗制度가 일제히 革罷되고 마침내 先王의 法服을 무너뜨렸으니, 법복이 훼손되었은즉 毀形은 또한 그 다음 일일 것이리라.<sup>20)</sup>

라고 한 것으로 보아 毀形의 예상을 알 수가 있겠다. 이는 바로 의암 유인석을 비롯한 화서문인들이 이미 ‘毀服’과 ‘毀形’을 동일한 맥락에서 인식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의 사실에서도 이러한 점은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18) 『昭義新編』 卷4, 「答朱汝中庸奎書」, 133쪽.

19)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編, 『獨立運動史 I - 義兵抗爭史 - 』(원호처, 1971), 141쪽.

20) 『昭義新編』 卷4, 「答李文仲根元書」, 134쪽.



이 상투와 圓袂[法服:필자주]의 存·不存에 따라 華夷人獸의 判·不判과 綱常大道의 保·不保가 달려 있으니... 머리는 한번이라도 자를 수 있을지언정 상투는 한번도 잘릴 수 없고, 몸은 한번이라도 찢길지언정 圓袂는 한번도 찢길 수 없다.<sup>21)</sup>

여기서 상투와 '圓袂[法服]'의 보존여부에 따라 華夷·人獸의 결판난다고 했으니,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곧 開化와 守舊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하겠다.<sup>22)</sup> 즉 상투와 '원메'가 華와 人을 상징하고 수구와 自主를 의미하는 데 비해 삭발과 변복은 夷와 獸를 상징하고 개화와 예속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sup>23)</sup> 그러므로 강원지역에서 前期義兵이 봉기하는 데 추진력을 제공한 사건은 역시 화이의식에 뿌리박고 있었고 이의 표출시킨 직접적인 계기는 이적과 금수를 상징했던 변복령과 단발령의 사건이었다. 이 점은 전기의병에 대한 다음의 이야기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오로지 義兵으로서 말하건대 공적으로는 천하국가로 하여금 장차 이적·금수를 면하게 하고, 사적으로는 내 몸으로 하여금 장차 이적·금수를 면하게 함이었다.<sup>24)</sup>

이와 같은 변복령·단발령과 더불어 전기의병 봉기의 명분을 더욱 강화시켜 준 사건은 을미사변의 민비시해사건이었다.

이번에 擧義한 이유는 撤文과 通文에서 먼저 위로 國母의 원수를 갚는 것을 언급하고, 다음에 斷髮하는 일이 불과하다는 것을 말했다.<sup>25)</sup>

이처럼 화서학파의 전기의병 봉기이유를 말할 때마다 반드시 '報國母之讐'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민비시해사건인 을미사변이 거의의 명분을 뚜렷이 제시해주었기 때문인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횡성지역을 비롯한 강원전역 전기의병 봉기의 직접적인 기운은 변복령이 내려진 직후인 1895년 초부터 비롯되고 있으며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그 결정적인 계기

21) 『昭義新編』卷3, 「贈言金仲一還國」, 117쪽.

22) 朴成壽, 「舊韓末義兵戰爭과 儒教的 愛國思想」(『大東文化』677合輯,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70), 172~173쪽 참조.

23) 朴敏泳, 「毅菴 柳麟錫의 衛正斥邪運動」(『清溪史學』3, 1986), 183쪽.

24) 『昭義新編』卷3, 「與李文仲根元書」, 134쪽.

25) 『昭義新編』卷5, 「金公梅思鼎贊策」, 134쪽.

가 되었다. 여기에서 변복령과 단발령은 華夷人獸論의 이분법적 명분의 문제에서 맥락을 함께 하며, 또 이 두 사건과 을미사변은 모두 이후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항일의병투쟁의 진원지가 되었던 점은 물론 항일독립투쟁에서도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즉 황성지역의 전기의병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 2. 황성의병의 창의이념

그간 학계에서는 1895년 11월 15일 단발령 공포 이전의 의병봉기는 懷德의병의 文錫鳳 義陣(1895.10.11. 報恩集會)만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여 왔고 이를 전기의병<sup>26)</sup>의 효시로 인식해 왔다. 그러던 가운데 근래 연구된 성과에 의하여 문석봉의병이 효시가 아님이 밝혀졌다. 이미 1894년 일제 '甲午倭亂'에 항거하여 安東의 徐相轍<sup>27)</sup>과 平南 祥原의 金原喬 등에 의하여 甲午義兵이 일어났었고, 또 을미사변 직후에도 江界에서 金利彥·金昌洙[후일 金九]가 의병활동<sup>28)</sup>을 했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강원은 물론 황성지역 전기의병의 발단은 전국적으로 봉기한 을미의병과 같이 춘추정신의 존화양이란 大一統論을 갖고 있는 유교적 입장의 화이관에서 변복령과 단발령인 毀服·毀形·太陽曆 사용, 州郡制度개편, 그리고 閔妃[명성황후]시해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을미의병은 國賊討伐·國母報酬[讐]·斷髮不服[反對]·排洋排倭 등의 기치를 내들고 개화와 일본을 불공대천의 원수로 간주하고 復讐雪恥의 義로서 의병을 기도하였다.

26) 대체로 한말의병사의 시기구분은 乙未義兵·乙巳義兵·丁未義兵으로 구분하는 3시기 구분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왔으나 최근 의병의 심층연구에 의한 성과에 따라 趙東杰은 한말의병을 前期義兵(1894~1896)·中期義兵(1904~1907.7)·後期義兵(1907.8~1909.10)·轉換期義兵(1909.11~1915.7)·末期義兵(1915.8~1919.2) 등 크게 5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본고에서 사용되는 전기의병은 이 시기구분법에 따른 것이다[趙東杰, 「義兵運動의 韓國民族主義上的 位置(下)」(『義兵戰爭研究(上)』,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편, 1990.5), 242~244쪽; 趙東杰, 「義兵戰爭과 3?1運動의 關係」(『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 1989), 441~449쪽 참조].

27) 朴宗根은 그의 논문 「日清開戰에 있어서 日本軍의 朝鮮王宮占領事件에 대한 朝鮮人民의 反抗鬪爭」(『歷史評論』 316號, 1976)에서 1894년 양력 9월 安東에서 徐相轍의 반일봉기를 의병운동의 출발점으로 보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바 있었다. 그 후 金祥起는 의병항쟁이 을미사변과 단발령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즉 조선정부 각 부서의 「來去案」 기록과 駐韓日本公使館記錄, 그리고 일본의 신문 기사 등의 관계자료에 의하여 구체적 사료로 1894년 7월에서 9월까지 安東 胎峰 일대에서 전개된 서상철의 安東義兵을 확인하여 갑오왜란을 직접적 계기로 봉기한 최초 甲午義兵으로 발표하였다[金祥起, 「朝鮮末 甲午義兵戰爭의 展開와 性格」(『한국민족운동사연구』3), 35~73쪽].

28) 金九, 『白凡逸志』(白凡金九先生紀念事業會, 1947), 62~85쪽.

강원과 함께 황성지역의 전기[을미]의병 倡義理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尊攘·衛斥論의 화이관에서 찾을 수 있다. 의암 유인석·습재 이소응 등을 비롯한 화서·중암·성재 문인들은 일본을 격퇴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이같이 화서학파의 존양위척사상은 중화의 명맥을 보전하여 춘추대의와 대의명분을 사상적으로 삼는 민족자존적이고 전통적인 문화의식<sup>29)</sup>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화의식은 자민족중심주의의 일본인식에 대한 지배적 계층서열의식을 강하게 하였고, 조선은 일본보다도 지배적으로 우위에 두었으며, 그 서열[우월]의식에 의하여 식민지지배에 대응하였던 대항방법이었다.

둘째는 國賊討伐·國讐報復論에서 찾을 수 있다. 화서학파 유생들은 명성왕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에 통분하여 국모를 시해한 원수를 갚는 일을 춘추대의라 여겼다. 이러한 유생들은 국수보복을 主辱臣死의 충군애국사상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죽음으로써 임금에 충성하고자 하는 勤王兵의인 성격도 찾아볼 수 있다.

셋째는 開化亡國論에 입각하여 창의하였다. 1890년대는 위정척사의 대상이 일본에 집중되어 斥洋에서 斥倭로 대상이 변화되었으며, 1894~1895년 이후에는 강력한 반개화론에 입각하여 개화파들이 외국과 통상하는 것은 망국의 근원이 되고 반민족적 행위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변복과 삭발을 하고 부임하는 친일·부일 개화파 관리들을 처단하였던 것이다.<sup>30)</sup>

### 3. 황성의병의 활동전개

#### 1) 전기 의병활동

강원 황성지역에서 전개된 전기의병(1895~1896年間)운동은 일찍이 화서 이항로가 1866년에 '義旅策'을 개진할 때 전개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895년 을미년간의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의 위기상황 의식을 기저로 한 華·重·省·毅 문인들의 국가에 대한 위기의식과 전통적으로 정치체제의 한 주체자였던 사림이라는 신분에서의 윤리적 위기의식에서 의병운동은 행동화된 독자적 대응노력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에서 강원전역은 물론, 황성지역 전기의병에 영향을 미쳤던 의암 유인석의 '處變三事'가 기본적인 행동강령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을미사변이라는 국가변란과 단발령 시행

29) 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實踐思想運動과 春川義兵」(『春州文化』 11, 春川文化院, 1996), 277쪽.

30) 姜大德, 앞의 책, 236쪽.

과 같은 개혁정책으로 인한 문화단절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던 사람들이 처신하는 방비책<sup>31)</sup>이라고 볼 수 있다.

大禍가 오늘에 이르렀으니 선비로서 처신할 방책 세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舉義掃清'으로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소탕하는 것이요. 둘째는 '去而守之'로 고국을 떠나 해외에 가서 大義를 지키는 것이요. 셋째는 '自靖'으로 세상을 등지고 自靖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니 각자가 자기의 뜻대로 좇아서 할 것이다.<sup>32)</sup>

그리고 이 세 가지 행동방법은 비록 다른 일이지만 그 意義는 모두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각자 스스로에 따라서 길일을 선택하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모두 다 유교의 義理와 도덕적 가치인 道에 귀결되기 때문이다.<sup>33)</sup> 그는 또한 殷의 微子·箕子·比干 등 '三仁'의 행위가 각각 상이하하였으나 그 귀결점은 모두 '仁'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설명하였다.<sup>34)</sup>

이러한 '처변삼사'의 대비책에 따라 李弼熙·元容錫·安承禹·申芝秀·李範稷 등의 少壯들은 '舉義決策'을 선택하였다. 또 朱庸奎·朴貞洙·吳寅泳·朴胄淳·元容正·崔炳軾·崔烈·李肇承·鄭華鎔·洪選杓·洪德杓·李正奎 등은 유인석을 따라서 요동에 들어가 '守義決策'을 지키려고 했고, 梁斗煥과 몇몇 동지들은 '自靖'하기로 결정했다.<sup>35)</sup>

의암 유인석은 당시 養母 德水李氏의 상중[1895.10. 사망]이었으므로 舉義할 수 없었다. 다만 일제의 침략세력이 미치지 않는 堯舜古城에 망명하여 衣冠과 禮義를 보호·보존하고 전통문화인 舊制를 수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유인석은 얼마 후 "나라의 원수를 갚지 못하면 신하가 될 수 없고, 신체를 보존하지 못하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守義策

31) 대비책인 「處變三事[處有三策]」는 舉義掃清·去而守之·自靖과 舉義掃清·去之守舊·自靖守之, 舉義掃清·浮海去守·自靖致命[致命遂志], 舉兵·浮海·自靖 등 표현의 행동양식은 모두 正道 도덕적 가치에 處義의 정당성을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화서문인의 사람들은 최종적 수단으로서 국가·민족·문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신분의 책임윤리의식에 기반을 둔 출처관을 가지고 있었다.

32) 李正奎, 「從義錄」, 앞의 책, 619쪽: "大禍至此 處義有三 一曰 舉義掃清 二曰 去而守之 三曰 自靖 各從其志."

33) 『昭義新編』卷2, 雜錄, 中央出版文化社, 1981, 69~71쪽.

34) 위의 책, 雜錄, 69쪽. 이 故事의 출처는 『論語』 微子章이다: "微子去之 箕子爲之奴比干諫而死孔子曰 殷有三仁焉."

35) 『毅菴集』卷50, 附錄, 從義錄, 739쪽.

36) 『昭義新編』卷1, 西行時在旌善上疏 6쪽.

를 포기하고 舉義策을 결심하게 된다.<sup>37)</sup> 유인석의 거의책에 호응한 원주·지평·제천 지역의 의병으로 화서문인의 華·省·毅 문인유생 의병장들이 주도세력을 이루고 의병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후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華·省·毅 문인으로서 유인석 의병진영에 참여하였던 인물은 다음과 같다.

- ①江陵：崔永勳·吳寅泳·朴胄淳·裒是綱·李東極·李濟奎·千洛龜·許健·李基薰·朴善實·沈相駿·崔鍾吉
- ②原州：朴貞洙·元容正·金思鼎·元容錫·具然庠·沈興奎·朱鉉三·韓東直
- ③春川：申芝秀
- ④洪川：朴長浩
- ⑤橫城：裒縉煥·李明魯
- ⑥麟蹄：張泰鎮
- ⑦旌善：金持修

한편 춘천의병은 1895년 12월 6일 습재 이소응을 의병대장으로 추대하고 정인회·성익현·박현성 등과 이면수·이진웅·이만웅·이경웅·이면웅 등을 참모로 구성하고 橫城義陣將 權大衡 등 洪川·砥平·永平·抱川·鐵原陣將과 각 지역의 募兵官 등의 춘천의병 진영을 새로 조직하니, 장관·종사 1백여 명에 총군 1천여 명이며, 民軍은 1만여 명이었다. 습재 이소응은 모든 의병을 모아놓고 討賊復의 동맹을 약속하고, 이미 정한 군제에 새롭게 군율과 율령상벌 조목을 제정하고 춘천의병 편제<sup>37)</sup>를 [표 1]과 같이 편성하였다.

이소응이 의병대장에 취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倡義檄文「檄告八道」를 8도에 보내 인심을 격동시켰으니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금 倭奴가 창궐하고 국내에 賊臣[개화파:필자주]이 그들에게 붙어 國母를 시해하고 임금의 모발을 강제로 자르기까지 하며, 만백성을 모아서 개나 양[犬羊]의 무리 속에 빠트리게 하며, 堯舜과 孔子·朱子의 道를 쓸어 없애려하려 하니 皇天上帝의 위에서 진노하시고 온 군대와 백성들이 不共戴天의 원수로 생각한다. 무릇 우리 곳곳에서 봉기하는 충의의 장수들은 中華를 높이고 夷狄을 물리치며 국가를 위해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는 것으로 제일의 大義로 삼아야 한다. 의병이 이르는 각영 각읍의 장관으로서 만일 자기 일신의 편리한

37) 필자는 1999년 12월 초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華西學派의 學脈과 民族運動' 학술회의에 참석하였다가 乙未義兵 및 華西學派 名譽回復對策委員會 李鍾立 會長님으로부터 정보제공을 받고 춘천의병장 李景應 實記인 「乙未義兵實蹟」[이경응 증손 李海正氏 소장]과 習齋 李昭應의 『習齋稿抄』원본을 새로 발굴하여 1차로 분석하여 춘천의병편제를 최초로 정리한 것이다.(姜大德, 「華西 李恒老의 時代認識」, 新書苑, 2001. 286쪽.)

것을 생각하여 관망하며 곧 호응하지 않는 자나 적의 편에 붙어 군정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이들은 모두 夷狄禽獸의 앞잡이요, 난신적자의 徒黨이니 단연 軍律을 시행하여 먼저 베고 차후에 보고할 것이다.<sup>38)</sup>

[표1] 1895년 전기 춘천의병 편제

직 위	이름
上 將?義兵大將	習齋 李昭應
亞 將	九樞 李晚應
軍師將	盤湖 李勉洙[武科 司果]
先鋒將	李載豐[楊州人]
突擊將 兼 監軍事	朴賢[玄]成
前軍將	李冕應
前軍副將 兼 運糧使	申在喜[加平人]
前軍謀士將	李明菴
謀士將	黃 鎮
召討將	洪允令
巡撫將	李晦[景]應 후임 張漢斗
守城將 兼 運糧使	各邑 地方官
率兵執事·都摠隊長	哨長 成益賢
教練執事	李用俊
軍器執事	全致弘
運糧使	黃永鎮
參 謀	李守春 等
別從事	閔聖元·尹英信
從 事	李斗彩·安興·李東國·韓喜玉·鄭登龍·睦昌信·朴敦錫·朴閔信·李載[培]仁 等
募兵軍官	金順善·金太玉·黃 更
率兵執事	陳文三·崔東漢
率兵都摠使	成益賢
按察軍中事	李晦[景]應
護察軍官	朴 錫
軍 卒	沈奇澤
春川募軍丁官	柳重洛·任燾玉
加平募砲兵官	李忠應
楊口募砲兵官	李大有
狼川募兵官	鄭夏玉
麟蹄募兵官	金安裕
楊州募兵官	池德成
砥平陣將	崔台憲[洪川人]
洪川陣將	南宮?[洪川人]
橫城陣將	權大衡[橫城人]
鐵原陣將·自稱大將	俞鎮奎[鐵原人]
永平·抱川陣將	金顯龍[永平人]

춘천의병장에 취임한 이소응은 춘천 봉의산에 제단을 설치하고 ‘舉義誓天祭’를 지내고 각 면의 부호들에게 군량을 징발하고 군기고를 열어 일반 민병에게도 무기를 주어 밤낮으

38) 『習齋集』卷33, 雜著, 「徵告八道」, 4쪽 ; 『恒窩集』卷20, 雜著, 「春川倡義布告文」, 1056~1057쪽; 柳重岳은 李敬器[昭應]作을 代筆하여 「春川倡義布告文」도 발송하였음을 알 수 있다.

로 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1월 26일[음 12.12] 春川義所의 이름으로 인근 官邑에 “義兵의 軍需經用이 시급하니 각 고을에서 납입해야 할 戶布錢 및 租稅를 밤을 세워서라도 납입하라”는 군수전의 납부를 독촉하는 통문을 보냈다.<sup>39)</sup>

1896년 양력 1월 13일자로 정부에서 조인승<sup>40)</sup>을 춘천부 관찰사 겸 선유사로 임명을 하였으나 그는 춘천부에 부임을 못하고 가평관아의 향리[豪吏] 申正萬집에 수행원과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18일자로 兼任春川裁判所判事로 발령을 내렸다.<sup>41)</sup>

그러나 그 곳에 있는 것을 탐지한 춘천의병은 가평으로 출동하여 그들을 춘천으로 잡아와 춘천읍 앞 개못개[佳淵里?犬淵里, 현 춘천세무소가 소재한 중앙로 273가, 죽림동일대] 처형장에서 10여 명의 의병들이 총살하였다고 車相瓚은 그의 회고록에서 기록<sup>42)</sup>하고 있다. 이것이 을미의병운동 가운데 의병이 친일 현직고관을 처단한 사건으로는 처음 있는 예로서 춘천의병의 과격성과 반개화성을 대변하는 사건으로 당시 내각대신들은 물론 지방관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었다.<sup>43)</sup>

한편 경기도 砥平에서 1895년 11월 28일 李春永·安承禹·李範稷·元喆常·申芝秀 등과 砲軍 출신 金伯善과 起兵할 것을 모의하여 원주 安昌驛에서 창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舉義한 지평의병은 의암 유인석의 체천의병의 전단계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들은 의세를 몰아 원주읍으로 진군하고 12월 3일 체천 장담으로 남진하여 의진을 설치하고 이소식을 듣고 李弼熙·徐相烈·吳寅泳·朱庸奎·裴是綱 등 유인석 문인들이 모여들자, 이춘영 등

3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0, 233쪽 : 李求鎔, 「江原道地方的 義兵抗爭」(『江原義兵運動史』, 강원대학교 출판부, 1987), 99쪽.

40) 『官報』 제244호, 建陽元年 2월 10日 月曜日, 「彙報」에 춘천의병에 처형당한 “春川府觀察使 曹寅承을 潔身으로 就義忠節凜烈事로 政府에 恤金給與件을 上奏하고, 또 特旨로 從一品을 追贈하여 易名之典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41) 『官報』 제227호, 建陽元年 1월 21日 火曜, 「敘任及辭令」, 69쪽.

42) 車相瓚, 「내가 亂離치러 본 이야기」, 『彗星』 1권 8호, 1931. 11. 참조.

43) 春川府觀察使 曹寅承의 처단사건에 대하여 몇 가지 설이 있다. 먼저 『梅泉野錄』에 의하면, “春川觀察使 曹寅承은 본래 書法으로 저명하였으나, 그가 이 때 삭발을 하고 부임하자 江原道義兵들은 그를 살해하였다. 이 때 살해된 관리들은 20여명이나 되었다[金倉江 澤榮이 加錄]. 그는 이 때 삭발을 하고 임지로 떠났다. 그가 도착하여 의병들이 자기를 살해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가마[轎子] 안에서 小刀를 꺼내어 자결하였다[李蘭谷 建芳이 改正][黃玆, 『梅泉野錄』, 196쪽] : 한편 『독립신문』에 의하면, 李德一이 조인승을 포살한 이유로 강원도 재판소에서 그를 絞首刑으로 판결되었으나, 이듬해인 1897년에 감형되어 終身懲役刑으로 선고받았다. 『독립신문』 제93호, 갑보, 1896년(高宗 33) 11월 7일자와 『독립신문』 제122호, 갑보, 1897년 1월 16일자 참조[李求鎔, 「江原義兵의 抗日鬭爭」(『江原道抗日獨立運動史(Ⅲ)』, 光復會江原道支部), 138~144쪽].

은 여주의 무과출신으로 李舜臣 장군의 후예로 신망이 두터운 이필회를 의병대장에 추대하는 동시에 의진의 면모를 갖추었다.<sup>44)</sup>

안승우는 의병부대가 제천에서 단양·주천·평창으로 진군하면서 12월 14일 강릉의진을 결성하기 위해 강릉으로 이동하는 閔龍鎬에게 사람을 보내 제천의진과 합세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다.<sup>45)</sup> 그러자 안승우는 12월 20일 영월로 들어가 이춘영 부대와 합류하고 춘천의병장 李昭應 의진에게 춘천과 원주사이인 횡성·원주간을 적으로부터 견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sup>46)</sup>

횡성지역의 전기의병활동은 을미의병이 봉기하는 초기단계에 擧義분위기가 가장 왕성하던 곳으로서 원주는 지평에서 시작한 이춘영·안승우·김백선 등을 모태로 형성한 이필회의진이 편성되기 이전에 군사를 소모하였던 중요한 지역이다. 원주는 횡성과 같이 화서학파의 주요 본거지 가운데 한 지역이었다. 남한강 수계인 원주·횡성은 충주 제천 등으로 연결되는 활동근거지였으며, 춘천·가평은 북한강유역으로서 華·重·省 문인들이 활동한 근거지이다. 그러므로 횡성지역은 독자적인 활동형태보다는 유인석의 제천의진과 민용호의 강릉의진 그리고 이소용의 춘천의진과 상호관계 속에서 긴밀한 연계성을 지니고 활동권역을 형성하여 춘천·강릉·제천 세 의진과 합세하거나 상호 연합하여 의병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 2) 후기 의병활동

횡성지역의 후기의병(1907~1910年間)활동 배경은 高宗이 한국병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한국정부나 국민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저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국제 정의를 호소하여 열강의 여론이나 간섭에 의한 國權回復을 기도하였다. 그리하여 미국·러시아 등 각국에 여러 번 密使를 파견하면서 일본의 한국침략상을 날날이 폭로하고 한국에 대한 구원을 호

44) 李正奎, 『從義錄』, 19쪽.; 朴貞洙,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355~356쪽.

大將 李弼熙, 中軍 李春永, 先鋒 金伯善, 軍師 徐相烈, 軍務都有司 安承禹, 書記 元容正, 參謀 李弼根 등으로 편성하여 이필회의 의병부대를 새롭게 의진을 갖추었다.

45) 원주에서 제천의진(지평의병)의 總督召募將 金思鼎과 都領將 朴雲瑞가 소모한 군사를 민용호가 거점으로 속여 가로챈 처사 등 강릉의진과의 갈등문제가 노출되었는데, 이들 의진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한 논문이 있다.(朴敏泳, 「제천·강릉·춘천의병의 상호관계에 대한 검토(1895-6)」, 『2001년 제천의병전사관 개관 기념 학술회의』, 세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한국근현대사학회, 2001.)

46) 安承禹, 「與春川義兵所」, 『湖西義兵事蹟』, 堤川郡文化院, 1994, 566쪽.; 朴貞洙, 『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 365쪽.



소하였는데 그 중 큰 것이 '헤이그' 密使事件이었다.

고종은 당시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 제2회 萬國平和會義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李相高·李儁·李璋種 등 3인을 밀파하여 회의에 참석토록 하였다. 이에 1907년 6월 25일 그곳에 도착한 이들은 평화회의에 참석하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국제세력 관계와 일본측의 방해로 인하여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자, 부득이 신문기자들에게 일본의 한국 침략상을 낱말이 폭로하고 한국을 지원해 줄 것을 호소하게 되었다. 이것을 '헤이그' 밀사사건이라고 한다.<sup>47)</sup>

이 사건은 동년 6월 말경에 일본정부에 보고되었고, 7월 2일에는 이또오(伊藤博文)에게도 알려 왔다. 한편 일본정부에서는 7월 12일에 회의를 열어 밀사사건에 관한 책임을 묻고, 일본정부가 앞으로 한국내정의 전권을 장악하기로 결정하여 그 실천방법으로서 한국 황제로 하여금 황태자에게 양위하게 할 것 등을 伊藤統監에게 지령하였다.

이에 이또오는 내각총리대신 李完用을 불러 고종의 양위를 즉시 강행토록 압력을 가하였고, 이어 이완용 등 내각대신들은 7월 16일 밤부터 18일 밤까지 매일 입궐하여 고종을 협박하고 양위를 서둘러냈다. 고종은 할 수 없이 19일 새벽에 황태자로 하여금 국정을 대리케 한다는 조칙을 내리고 맡았다.<sup>48)</sup> 물론 황태자의 대리 집정이 양위한 것과는 다르나 친일내각과 일본인의 강압에 못 이겨 황태자의 황제 즉위식이 거행되었던 것이고 보면, 이는 곧 고종이 퇴위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고종의 퇴위는 그 간에 일본의 한국 침략행위를 완강하게 저항해 온 國父마저 물러나고, 순종이 즉위했다는 사실도 중대한 일이거나, 그 보다도 외세의 강요에 의하여 타의로 국왕이 퇴위 당하였다는 자체가 조선 멸망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로서 고종 퇴위는 마침내 세 번째로 크게 일어나는 의병항쟁의 요인이 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국 각지에서는 다시 의병이 봉기하여 한말의병항쟁 가운데서 가장 격렬한 반일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때의 의병이 1907년 丁未년에 기의하였기 때문에 丁未義兵이라고 부른다.<sup>49)</sup>

이와 같이 정미의병은 고종의 퇴위사건을 계기로 야기되었다. 그것은 丁未7條約의 체결이나, 군대해산이 있기 이전인 7월 22일에 이미 경기도 안성군에서 약300명의 의병이 일어

47) 李璋根, 『韓國獨立運動史』, 尙文院, 1956, 277쪽.

48) 李光麟, 『韓國史講座』Ⅴ(近代篇), 一潮閣, 1981, 493쪽.

49) 丁未義兵을 또 제3기 후기의병(제5단계: 1907. 8.~1908. 5. · 제6단계: 1908. 6.~1909. 10.)이라고도 한다.

50) 金允植, 『續陰晴史』下, 光武11年(1907) 7月 26日條 213쪽.

난 것이다. 그러나 정미의병이 본격적으로 폭발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된 것은 정미7 조약의 체결과 군대해산이 강행된 이후부터였다. 즉 7월 24일 일본측은 법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고 강제로 韓日新協約을 조인토록 하여, 한국의 전권을 일본인들이 장악함으로써 차관통치가 시작되자, 가뜩이나 고종의 퇴위로 분개하고 있던 민심은 고조되고 있었다.<sup>50)</sup>

그 뿐만 아니라 7월 31일 일제가 작성한 군대해산의 조칙을 순종으로부터 재가받은 형식을 취하여 1897년 2월부터 친위대중에서 선발한 군인으로 侍衛隊를 신설한 후, 1905년 4월 중앙군인 시위대와 친위대를 통합하여 이름뿐인 1개 衛混成旅團(총 4,706명)으로 감축시킨 서울 시위대를 훈련원에 집합시켜 해산식을 실시하였고, 8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의 한달 사이에 지방 鎮衛隊의 해산을 감행하였다.

그러므로 皇室侍衛隊의 극소수만을 남겼을 뿐, 이제 한국군대는 완전히 해산됨으로써 사실상 군대 없는 나라가 되었다. 따지고 보면 한 나라의 군대는 적어도 그 나라의 주권과 그 백성의 자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이를 위한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해산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거나 국가의 멸망을 뜻함이었다. 그러므로 일제가 이를 강행하였다 함은 그들이 장차 한국을 併呑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며, 때문에 이 지경을 당하여 의병의 봉기는 참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다.

구한말(1905년 4월)의 총병력은 서울에 있던 시위대와 친위대를 합친 4,706명(1905년 4월 현재)과 지방에 있던 지방의 진위대 2,434명, 그리고 특수부대(헌병대?여성학교?무관학교 등)병력 500여명을 합한 총7,600여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丁未秘密覺書에 따라 그나마 유명무실했던 한말군대조차 없애려고, 이또오는 우선 8월 1일을 기하여 서울 시위대의 해산을 단행하려 하였다.

이를 눈치챈 한국군 시위대 2개 대대(제1?2연대 각 1대대)는 朴昇煥 참령(제1연대 1대 대장, 현 소령)의 자결에 분기하여 무장해제는커녕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까지 벌여 피차간에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결국 이 전투는 전국적으로 의병항쟁의 신호가 되어 각지로 과급되어 갔다.

이 때 서울시위대의 항쟁은 일본군보다 열세하여 이겨내지 못했으나, 그 해산병들은 각 지방으로 흩어져 서울의 사태를 알리는 동시에 해산된 지방진위대 군사들과 더불어 의병에 가담, 합세하여 그 주력을 이루면서 활동하게 되었다.

50) 金允植, 『續陰晴史』下, 光武11年(1907) 7月 26日條 213쪽.

黃玹은 “그들이 곧 성밖으로 달아난 자는 모두 의병에 합류하였다”<sup>51)</sup>고 하였고, 宋相燾는 “남은 군인들은 각자 흩어져 八路 의병이 다시 일어난 것은 이로부터였다”<sup>52)</sup>고 하였으며, 일본군의 자료에서도 “해산된 군인의 대부분은 지방으로 도망하여 暴徒(義兵: 필자 주)의 무리에 뛰어들어 오랫동안 禍亂의 불길을 종식시키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sup>53)</sup>고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당시의 후기 丁未義兵抗爭은 甲午·乙未義兵이나 乙巳義兵에서와 같은 民兵만의 항쟁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편 지방진위대 중에서도 원주나 강화 등의 몇 군데에서는 해산군인세력이 유난스러웠다. 이 가운데서 특히 원주진위대의 경우는 해산을 위한 일본 감시관이 오기 전에 무기를 가진 채 미리 봉기함으로써 여러 의병부대보다도 그 주력을 이루었다.<sup>54)</sup>

이로써 후기의병은 고종퇴위와 정미7조약 그리고 한국군대의 해산으로 말미암아 봉기하였으며, 때문에 의병목적은 ‘國權防衛’에 두고 있었다.<sup>55)</sup> 이는 원주에서 재기한 李麟榮이 각도 의병장들의 추대를 받아 전국 13도창의대장에 오른 동시에, 원수부를 설치하고 서울 진격을 위해서 의병통일체의 연합의병부대를 편성하여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내세운 후기의병의 의거목적에서도 족히 알 수 있다.

한말의병은 제1기 의병의 목적을 ‘國讐報復’에 두었고 또 제2기 의병의 기의목적은 ‘國權回復’에로 부각되었으며, 제3기 의병에서는 창의목적은 ‘國權防衛’의 항쟁으로 전개시켜 갔다. 이때 후기의 정미의병은 전기 을미의병이나 중기 을사의병의 의병처럼 명분과 의리를 내세우던 유자들과는 달리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해산병이 합류하면서 그 핵심적 이념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후기의병항쟁은 전투능력이 과거보다 월등하게 높아졌으며, 또 의병의 병수(兵數)로 보거나, 조직에 있어서도 지난 제1기나 제2기보다도 훨씬 규모가 컸던 것이므로, 오

51) 黃玹, 『梅泉野錄』卷5, 光武11年 丁未 7月條.

52) 宋相燾, 『騎驢隨筆』, 南相憲條, 121쪽.

53) 『朝鮮暴徒討伐誌』, 139쪽.

5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獨立運動史』, 1, 512쪽.

55) 그러나 당시 자료인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5일자 「지방의 투쟁」과 맥켄지의 『대한제국의 비극』(신봉룡 역주, 탐구신서 266쪽.)을 보면, 의병이 확산되는 요인으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일제의 과잉진압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으며, 둘째는 일제의 가혹한 조세수탈이다. 민공호는 강원관찰사 黃鐵의 해산 권유문에 답신할 때 의병봉기의 명분과 관련하여 일제의 조세수탈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暴徒에 관한 編冊』, 115쪽.)

묘한 기습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정미의병은 갑오·을미의병이  
나 을사의병과 같이 민병만의 항쟁은 아니었다. 이는 관군으로서 지난날 의병을 탄압하던  
해산병이 일어나 민병인 의병과 합세했던 까닭에 후기의병(제3기 정미의병)은 을미의병이  
나 을사의병과는 대열의 구성 또는 성격면에서 다양성을 지녔고, 역시 전투면에 있어서도  
치열하고 장기적인 "피의 항쟁"을 벌여 한말의병의 극치를 이루게 되었다.

후기의병<sup>56)</sup> 당시 황성지역과 강원도 지역에서 활약한 의병장과 의병부대는 민공호 의병  
부대, 이강년 의병부대, 李麟榮·李殷瓚 의병부대, 許薦 의병부대, 王會鍾·金湊默 의병부  
대, 지용기 의병부대, 유흥석 의병부대, 그리고 沿海州에서 의병활동의 義脈을 이어간 유  
인석 의병장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격렬하게 항쟁한 민공호·이강년·이인영 의병부  
대가 대표적이다. 그밖에도 황성 출신으로서 의병활동한 의병장은 崔仁舜·韓相烈·朴性  
默·姜道永 등이 가장 대표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황성출신이 아니면서 황성에서 활약한  
의병장은 宋洛中·李康季·閔肯鎬·朴長浩·余龍瑞·沈相熙·金相台·趙炳仁·韓鳳洙  
등이 활동하였다.

황성에서 활동한 韓基錫·韓甲復 등이 크게 활약하였으며, 황성군의 서기(포수계장) 吳  
正默이 많은 산포수들의 힘을 빌어 사환, 노동자들과 더불어 의병부대를 조직한 후 크게  
활약하였다. 황성출신의 강도영은 청일전쟁 춘당고개에서 일본수비대와 싸우다가 전사하였  
다. 그리고 한상열은 후에 만주로 들어가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최인순은 강릉에서 전사하  
였다.

특히 신화 속의 인물처럼 구전되는 閔肯鎬는 황성지역의 의병활동은 물론, 강원전역에  
서 활약상이 뛰어났다.<sup>57)</sup> 그는 원래 서울출생이며 驪興閔氏 일족으로서 일찍이 1897년(光  
武元年) 원주진위대 고성분견대 하사로 입대하여 聞慶·豐基·杆城·高城 등지의 분견대  
를 전전 근무한 후 春川分견대에 전출되어 1900년(광무4) 正校직에 올라 다음해 처음으로  
特務正校(特務上士)의 지위에 발탁되어 원주진위대에 전입되어 근무하다 8월 5일 충주수

56) 강원지역 후기의병은 '北部守備區大討伐作戰'이 끝나는 7월을 중심으로 양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겠  
다. 후기 1기를 1907년 8월부터 1908년 7월까지로, 후기 2기를 1908년 8월부터 1910년 8월 29일 庚戌國恥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활동양상을 살펴본다.

57) 본 연구에서는 일제측의 의병 학살 기록인 『暴徒에 관한 編冊』·『暴徒에 관한 編冊』·『暴徒에 관한 編  
冊』 등을 주자료로 활용하였다. 위 자료는 누락되거나 과장 보고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상  
의 한계는 가능한 범위에서 의병측 자료와 비교 검증하여 엄밀한 사료비판을 통해 사실에 접근하여 극  
복하고자 한다.

비대 니노미야(李宮)소위로부터 군대해산의 소식을 듣고 약 300여명의 원주진위대 병사를 이끌고 원주 우편취급소 및 경찰서를 습격하였던 인물이다.

민공호는 의병을 조직하면서 오정목을 포군대장으로 투입케 하고 의병부대를 정비하여 제천·충주·풍기 등지를 습격하면서 일본수비대와 격전하였다. 민공호부대는 횡성지역을 주 활동무대로 德高山(현 泰岐山, 1,261m)과 鳳腹山(1,028m)에 감싸있던 甲川面(현 晴日面) 新垵里 鳳腹寺에 의병진영을 치고 홍천·인제·원주·평창·영월·강릉·제천·충주·풍기·울진 등지를 주로 이동하면서 약 1,500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단연 발군의 활약을 보이고 있다. 후기의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의병세력을 규합하여 타 의병부대와 밀접한 연계를 맺으면서 활동하였다.<sup>58)</sup>

민공호는 1907년 9월 22일 봉복사에 잠거 중 일본군 사토우(佐藤)대위가 지휘하는 원주수비대와 격전하자 패하고 홍천·인제·강릉 등지로 이동하면서 의병소모활동 및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받게되자 부하를 잃고 40여명을 이끌고 1908년 2월 29일 원주군 富興寺 石逕寺에 있는 宣諭委員 朴善斌한테로 가는 도중 寧越郡 水周面 講林(현 安興面 講林里) 동방 10거리에 있는 登子峙 부근에서 민공호 부하가 잠복하는 것을 탐지하고 충주수비대 한국순사대 權警視 이하 15명에게 쫓아오자 북방 약 10리 지점인 蕨德里에 민공호가 그의 부하 90여 명과 함께 잠복하고 있는 것을 탐지하고 오전 11시 췌덕리 양방면을 포위하여 권순시 순사대가 공격하자 민공호 의병들은 서방고지를 점령하고 촌락 圍壁에 의거하여 완강히 저항하였다.

충주수비대 순사대는 수회에 걸쳐 돌격을 반복하여 의병 20명을 사살하고 의병장 민공호를 포박하자 남은 의병들은 동북방으로 일단 피신하였다. 그날 밤 민공호 부하 60여명의 의병들은 강림으로 역습해 와 용감한 동작으로 민공호를 구출하고자 순사대를 공격하자 피아의 거리가 10수미터로 접근할 때 포박당하고 있던 민공호가 도주하려고 하자 권순시 순사대는 그를 살해하였다. 횡성의병들은 의병대장 민공호와 의병들의 屍身 11구를 유기하고 북방으로 퇴각하였다.<sup>59)</sup> 그러므로 민공호 의병진영은 쇠약해지자 의병들은 전선에서 사망으로 이탈 잠적하거나 귀순하는 자들이 있었다.<sup>60)</sup>

58) 각 의병부대와 상호연락체계는 민공호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그는 강원도내 32개 의병진영과 상호 연락을 총지휘하였다.『暴徒에 관한 編冊』, 122쪽·150쪽. 참조)

59) 『朝鮮暴徒討伐誌』, 733~734쪽.

60) 朝鮮總督府警務局, 『暴徒史編輯資料』, 獨立運動史資料集 제3집, 597~598쪽.

특히 횡성의병의 오정묵은 횡성군 靑龍面 葛豊里 출신으로 원래 횡성군 수순교 겸 포수 계장으로 있었으나 1907년 8월 포수 20여명을 인솔하고 鳳腹寺에 수렵차 출장중 민공호의 권유에 못 이겨 포군대장으로서 그 무리를 민공호 의병부대에 투신케 함으로써 의병활동이 시작하게 된다. 그는 횡성의병의 민공호 의진과 더불어 堤川을 습격하고 忠州 康嶺村에서 日兵에게 패배하여 의진의 충돌이 생겨 마침내 민공호 의진을 떠나 남면 鋼山洞에 잠복 중 일본군에 탐지되자 이곳을 떠나 횡성군 晴日面 栗實里에 잠복 중 귀순자 免罪詔勅이 발표되자 이를 듣고 1908년 4월 3일 마침내 귀순하였다. 그리고 그가 인솔하였던 부하 포수 60여명은 그의 권유에 의해 전부 귀순케 하였다.<sup>61)</sup>

韓相說(烈)은 횡성의 독립 의병부대를 지휘하던 의병장으로서 그는 隅川面 下水南里에서 출생하여 양반의 후손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한편, 보부상의 두둑을 겸하여 다소 俠氣가 많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1907년 8월 군대해산 직후 의병이 사방에서 봉기하자 약 200 명의 의병을 소집,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橫城·砥平·洪川·原州·平昌·寧越 등의 각 지역을 공격하여 1908년 4월 2일 홍천군 月雲里의 서북에 있는 福洞에서 일본군 횡성수비대에 큰 타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항하자, 횡성수비대는 한상열 의병장의 부인을 포로하여 구금시켰다. 그는 더욱 분노하여 마침내 金顯國<sup>62)</sup>·琴基哲과 협력하여 4월 20일 일본군 횡성수비대를 공격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晴日面 銅坪里 방면으로 이동한 후 잠적하였다.<sup>63)</sup> 그 후 그는 국내에서 항일투쟁의 어려움을 느끼고 1920년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투사들과 결합하고 大韓義勇府에 가담하여 참모의 중책을 맡아 활약하였으며, 1926년 2월 에는 大韓獨立黨 참모로서 국외에서의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sup>64)</sup>

이외에도 횡성지역에서의 항일의병활동은 1908년 1월 10일 횡성 서방에서 약 40명이, 3월 5일 횡성 동북지점 40리 지점에서 약 150명이, 7월 횡성 동방에서 약 60명이, 13일 횡성 북방 40리 지점에서 약 150명이 횡성지역에서 항일투쟁을 하였으나, 유력한 의병장들이 조기에 전사하거나 피체되어 의병부대간의 조직적 연계도 소원해지자 의병의 사기도 저하되

61) 『暴徒史編輯資料』, 598~599쪽.

62) 金致永은 原州郡 所草面 日實里 출신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인물이었으나 민공호가 불러 의병진영의 召募將으로 삼았다. 그는 민공호가 순국하자 대단히 분개하여 金顯國이라 改名하고 韓相說·琴基哲 의병부대와 합세하여 횡성 등지를 습격하였으나, 모두 격퇴당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寧越郡 水周面 雉岳山에 잠적하여 있는 듯하다고 원주경찰서 관내 의병장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暴徒史編輯資料』, 599쪽.)

63) 『暴徒史編輯資料』, 599~600쪽.

64) 『橫城郡誌』, 總論, 人脈, 『愛國志士』, 119~120쪽.

어 의병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역사상 민족과 국가가 위급할 때 언제나 분연히 일어나 우국충정을 펼쳤다. 횡성지역의 항일의병투쟁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1919년 3·1독립운동과 독립군 무장투쟁의 직접적인 원류를 이루었으며, 그 후로도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민족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어 애국계몽운동과 한국 민족의 새로운 민족문화 창조와 발전에 기여하였다.

#### 4. 횡성의병의 성격

이상과 같이 한말 횡성지역의 의병항쟁은 한국근대사 및 한국근대사회 변동과 한국독립운동사에 매우 큰 역사적 의의를 갖는 획기적인 항일민족운동이었다.

횡성의병은 항일의병 투쟁에 있어서 1895년 음력 12월(양력 1896년 1월) 봉기한 전기의 병활동의 성격은 일본제국의 침략의 일환으로 갑오변란, 갑오개혁, 갑오·을미변복령, 을미사변, 단발령 등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망국의 위기로부터 국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만 했던 시기에 국가를 위한 국권회복의 구국운동이었다.

일본의 한국 침략행위를 완강하게 저항해 온 고종이 일본의 강요에 의해 강제 퇴位당하는 절박한 역사적 상황에 처하여 있었던 시기에 횡성의병이 지녔던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이 크게 높아져 愛國愛族의 구국적 애국사상이 성장하여 義兵抗爭과 항일독립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말 횡성지역 의병을 포함한 강원 의병과 전국의 의병은 처음부터 국가의 방위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심점을 상실한 채 안팎으로 대처해야 할 처지에 있었다. 전·후기의병은 신분면과 사상면에서 전통사회의 계급적 갈등과 봉건사회에 있어서도 반봉건 일부농민과의 이념적인 마찰 등을 극복하여 항일투쟁을 자민족중심의 민족주의적인 자주·자존의식의 성격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후기의병에 있어서는 의병참여가 유생과 농민, 그리고 지방포수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참여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즉 의병토벌에 앞장섰던 관군이 군대해산 후 해산군인마저도 의병에 합류하였으며, 심지어 관아의 관노가 의병장이 되어 참여함으로써 의병구성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65) 洪川郡에서는 軍隊解散 이후 9월 중순경 洪川官衙의 官奴가 義兵將이 되어 800여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활약하기도 하였다.(『皇城新聞』 1907년 9월 19일자 참조)

되었다<sup>65)</sup>

한편, 사상면에 있어서도 위정척사론을 기반으로 한 화서학과 유림계층 뿐만 아니라 개화계층도 의병에 가담하여 대중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평민출신과 관료출신의 의병장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항일투쟁의식과 반봉건운동의 성격도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었다. 특히 후기 의병에 있어서는 새로운 유격전술로 항일투쟁을 선도하였으며, 서양식 양총과 개량된 화승총의 확충으로 전투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양상을 띄게 되었다.

## Ⅳ. 황성지역의 3·1운동

### 1. 3·1독립운동의 배경

황성지역의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근본원인은 일제에 의한 주권상실과 식민통치이였다. 1910년 일제는 헌병경찰과 한국주둔군의 무력에 의해 무단정치를 실시했다. 1910년대 후반 이후 일본자본의 진출로 한인 노동자가 급증하여 노동력을 착취당하였다.

1910년대 한국사회에서는 농민층의 몰락, 노동계층의 중대 자본가층의 성장억제 등으로 각계 각층에서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1910년대 말에는 한인들의 반일운동의 기운이 성숙되어 있었다. 그런 가운데 高宗이 갑자기 승하하자, 거족적인 반일운동이 팽배하게 되고 여기에 국제정세의 변화가 가세하여 3·1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sup>66)</sup>

국제정세의 변화는 1917년 러시아혁명이 일어나 역사상 최초로 사회주의 길을 건넜고 1918년 11월 독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 帝政이 무너졌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다가오자, 독일지배하에 있던 체코 등 유럽 소수민족과 이집트 등 약소민족들은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1918년 1월에 미국대통령 윌슨은 '民族自治主義'의 전후처리원칙을 연합국가들에 제안하여 동의를 얻었다. 그러므로 독일의 지배하에 있던 소수민족들이 종전과 함께 독립하게 되었다.

황성지역에 있어서 3·1 항일독립운동의 민족적 역량을 사상적, 종교적인 면에서 독립운동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천도교와 감리교, 그리고 유교에 관련있는 인물들이 종교적 조

66) 최창희, 「3·1독립운동」 『춘천항일독립운동사』, 춘천문화원, 1999. 211~212쪽.



직을 통해 가담하여 비교적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천도교의 활동은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났다. 그러나 천주교와 불교의 활동이 미약하였다.<sup>67)</sup>

당시 황성은 천도교에 의해서 3·1만세시위운동 등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대교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원주·평창지역도 황성 관할하에 있었다. 특히 황성읍과 우천면·갑천면·안흥면과 원주의 소초면과 평창의 대화면·방림면 등에 보다 많은 천도교인들이 확보되어 있었다.<sup>68)</sup> 이렇게 천도교가 대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있었던 것은 3·1운동을 일으키는 훌륭한 배경이 되었으며, 서울에서도 천도교가 주동하여 3·1독립운동을 일으켰으니 그 영향으로 황성지역의 3·1운동이 천도교 조직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 2. 3·1독립운동의 전개

### 1) 독립선언서의 전달과 배포

1919년 3월 1일 서울의 시위를 계기로 국내는 물론 한민족이 거주하는 해외 각처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각처의 독립운동은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기와 양상이 각각 달랐다.<sup>69)</sup>

황성에서는 3월 12일부터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여 3월 27일에 첫 번째 만세시위운동이 전개되었고, 뒤이어서 4월 1일, 2일, 3차에 걸쳐서 황성읍내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7일까지의 시장 철폐운동이 있었고 4월 12일에는 서원면 분일리 매호리에서 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나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에 정면으로 抗日鬪爭하였다.<sup>70)</sup>

그 결과 5명이 피살되고 수 십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많은 인원이 일제 헌병에게 잡혀서 모진 고문과 태형을 받았다. 혹은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죄 없는 죄수로 고문을 겪은 이들도 있다. 그 중에는 황성의병장 姜道永의 아들 姜萬馨은 체포되어 감옥에서 끝까지 일제에 항거하다 모진 고문 등으로 1920년 2월 28일 29세의 젊은 나이로 옥사하였다.<sup>71)</sup>

이렇게 황성지역의 3.1운동은 3월 12일 독립선언서가 전달 배포되면서 시작되었다. 독립

67) 황성군 서원면에는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역사적으로 유명한 풍수원 성당이 있었으나 3·1독립운동 당시에는 프랑스 선교단의 지시를 받고 있어서 종교적인 조직을 통해서만 가담하지 않았다.

68) 조동걸, 『橫城과 三·一운동』, 황성군 三·一운동기념비건립협찬회, 1972. 68쪽.

69) 趙東杰, 「三·一運動과 地方史的 性格 -江原道를 中心으로-」, 『歷史學報』 47, 歷史學會, 1970, 104쪽.

70) 조동걸, 앞의 저서, 75쪽.

71) 정부에서는 그의 공을 기리어 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선언서를 가져오고 3.1운동을 추진하던 곳은 횡성읍에 있던 天道教會 敎區室과 永永浦里 申在根의 집이었다. 처음 독립선언서를 가져오기 위해 횡성 천도교 대교구장 崔宗河을 비롯하여 신재근·張道勳·金麟卿이 협의하여 3월 초 장도훈<sup>72)</sup>을 당시 3원을 주어 서울로 보내 의사원으로 활약하던 이동구를 비밀리에 만나 독립선언서 40매와 태극기 20개를 전달받아 가지고 3월 11일 횡성에 돌아왔다.

장도훈이 돌아오자 만세운동계획은 급진전하여 신재근 집에서 참모들과 협의하여 독립선언서를 3월 12일과 13일 배부하였다. 3월 12일(음 2.11.)은 횡성읍 장날이어서 조직책에게 연락하기가 좋았다. 만세운동추진은 약 10여 일간 계속되어 3월 27일 첫 번째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sup>73)</sup>

## 2) 독립운동의 주도층과 시위운동

3월 12일부터 독립만세 시위운동이 계획, 추진될 때 운동초기의 취약성을 극복하면서 각 마을에서 참여하고 민중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데 기여하였던 대표적 주도층 인물은 처음에는 천도교나 기독교의 교단조직을 통해 일어났으나 점차 高宗 國葬에 참례하고 서울 시위운동을 목격한 유림층 또는 청년·학생들이 귀향하여 일으킴으로서 거족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3월 27일부터 독립만세운동을 추진하고 발전시켰던 지도인물은 아래와 같다.

횡성면 읍하리	崔宗河(43세)	천도교구장
" "	尹泰煥(22세)	청년회원
" "	卓英在(53세)	감리교인
" 읍상리	全聖洙(34세)	천도교인
" "	崔東洙( ? )	청년회원
" 영영포리	申在根(64세)	천도교인
" 내지리	鄭海環(43세)	감리교인

72) 원래 평안남도 성천군 성천면 안리출신으로서 1907년 안흥에 이사왔다. 평안도에서 1905년 을사조약에 반대한 의병으로 활약하다가 당시 평안도 지역에서 의병대장으로 명성이 높았던 유인석의 고향인 강원도에 찾아와 살았던 것이다.(조동걸, 앞의 저서, 89쪽.)

73) 원래 만세운동은 일제 관헌의 눈을 피해 순조롭게 추진되는 중 3월 16일 횡성보통학교 학생일부가 高宗의 國葬에 弔意를 표시하는 뜻으로 喪章(삼베 천)을 가슴에 달고 다니며 무언의 시위운동을 하자 일본군의 삼엄한 분위기가 감돌게 되자 만세운동의 추진계획이 조금 늦어진 것이다.(조동걸, 앞의 저서, 77~78쪽.)

우천면 두곡리	金明起( ? )	유학자
" "	金振大( ? )	유학자
" 법주리	姜勝文( ? )	천도교인
갑천면 매일리	金允培(56세)	천도교인
안흥면 안흥리	千善在(78세)	"
" 상안흥리	張道勳(49세)	"
" "	金麟卿(38세)	"
" "	安敬春(20세)	"
" 가자곡리	金演儀(21세)	"
" 하산전리	趙常烈(49세)	"
소초면 둔둔리	姜達會(51세)	"
" "	姜萬馨(28세)	"
" "	河永賢( ? )	"
" 교항리	秋秉學(47세)	"
" "	秋秉倫(45세)	"

이상에서 강달희·하영현·강승문은 4월 1일 만세운동 때 피살되었고, 최종하·신재근·장도훈은 2년 징역형을, 정해경은 1년6월형을, 천신재는 1년형을, 김인경·조상열·전성수·김윤배·김연의·안경춘·강만형은 8월형을, 윤태환·추병륜은 6월형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횡성지역에서 3월 27일 4월 1일 2일 12일 13일 등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통일적으로 행동화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나마 조직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천도교를 중심으로 유학자와 감리교 등의 종교적 조직력과 청년회의 조직력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지역적으로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주동인물이나 참여군중은 독립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시위로 파리강화회의에 호소하여 독립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다.<sup>74)</sup>

횡성지역의 3.1독립운동은 주동인물들이 협력 또는 합세해서 추진한 대중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농민·학생·노동자·상인·종교인·서당훈장 및 생도 등이 군중의 대부분으로 계층·연령·학력·종교·직업·신분·남녀를 초월하여 자발적으로 운동을 계획 조직하

74) 이미 독립되었다고 믿고 축하하는 뜻에서 만세 부른 곳도 있었다.(최창희, 앞의 글, 241쪽.)

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동적으로 참여하였던 항일 민족독립운동이었다.

### 3. 3·1독립운동의 양상

시위형태도 주도층 또는 참여 계층에 따라 다양하였다. 태극기 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평화적 시위, 밤에 산에서 횃불·봉화를 울리며 만세 부르는 횃불시위, 돌과 몽둥이로 관공서 등을 공격 파괴하는 무력시위 등으로 전개되었다.<sup>75)</sup>

3.1독립운동의 전국적 양상과 마찬가지로 강원도나 황성지역도 처음에는 평화적 시위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무력적 시위와 횃불시위로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대개 읍내 5일장을 이용하여 장사꾼 등에게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선언서를 낭독한 다음 시장을 누비고 군청·면사무소·경찰관주재소·헌병파견소·우편취급소·학교 등에 몰려가 만세시위를 하였다. 장날을 시위할 날로 잡은 것은 인원 집결을 장꾼으로 가장하여 적발을 마고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려는 의도였다.

횃불시위는 4월 8·9일과 12·13일 밤에 마을 언덕이나 뒷산에 올라가 횃불을 올리고 “대한 독립 만세!”·“조선 독립 만세!” 등 독립만세 소리를 외치며 한곳에서 횃불을 올리면 그를 신호로 주변 마을에서도 모두 호응하면서 시위운동을 밤새도록 전개하였다.

무력시위는 4월 1일부터 2일 12일 13일 등 황성읍내와 각 면소재지에서 1천여 명에서 수백 여명이 봉기하여 손에는 곤봉과 장작·석가래·괘이·삼 등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면서 시장에서 군중에 참여하지 않는 상점과 친일분자의 가옥을 공격하고 군중들이 관공서를 습격하는 등 지휘자 명령에 따르면서 무력적 행동을 말한다. 결국 독립운동의 궁극적 목적은 일본을 축출하고 독립을 쟁취하는데 있었으므로 무력적 시위운동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횃불시위와 무력시위운동은 폭력적 저항운동으로서 반일의병투쟁의 실패를 반성하고, 반일적 저항세력의 온존을 피하면서 최후까지 독립을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양상으로 이해된다.

### 4. 3·1독립운동의 의의

3.1독립운동은 어떠한 특정의 지도사상이나 정치결사에 의해 체계적 조직적으로 지도되어 일어난 운동은 아니고 전국에서 각 계층의 민중이 스스로의 사상과 투쟁방법을 통하여

75) 최창희, 앞의 글, 242쪽.

일으킨 항일 민족독립운동이었다. 민족독립·국권회복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졌으나, 비조직적이고 행동이 통일되지 못하였다.<sup>76)</sup>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일제의 잔인한 학살과 무력적 탄압으로 赤手空拳의 독립운동은 많은 희생자를 내고 독립을 성취하지 못한 채, 점차 표면상 시위는 자취를 감추었다.

그렇지만 3.1독립운동은 모든 면에서 한국민족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며 한민족 독립에 대한 열망과 역량을 세계에 인식시키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더욱이 이를 통하여 한민족 스스로 독립에 대한 결심과 인식을 굳게 하였다.

황성지역을 포함한 강원도의 3.1독립운동 이후 한민족운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3.1독립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첫째, 독립 쟁취를 위한 항일 민족운동으로 지속화되었다. 둘째, 민족의식을 근대적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지식인의 민족의식이 민중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대중성을 띠게 되었다. 셋째, 각 지역마다 독자적인 민족운동이 대두되었다. 넷째, 식민정책에 대한 저항이 다방면에서 일어났다. 다섯째, 근대문화와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이 커졌고 정치사상이 앙양되었다. 일부 지식계층에서 사회주의사상이 급속히 퍼졌다. 여섯째, 지금까지의 전개된 항일운동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독립운동을 보다 진전시키고 다음의 민족운동 방향을 제시하였다.

## V. 結 語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황성지역에서 1895년부터 봉기한 항일의병운동과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은 일본침략군을 조국강토에서 몰아내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개한 항일민족운동이었다.

일본에서는 1894년 동학농민군 진압을 구실로 대규모의 일본군을 한국에 불법 상륙 침입시킨 무렵부터 조야에서 이 기회에 한국에 파견된 군사력을 활용하여 '韓國을 日本의 保護國'으로 만들어 예속시키자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하였다. 일본은 1905년 11월 '乙巳五條約'의 체결 강요 때 자행한 바와 같이 국권박탈과 保護國으로 예속을 10여 년 앞서 1894년에 달성하려고 한 것이다.

한국민족은 일본의 침략정책에 저항하는 全民族的 抗日鬭爭을 하지 않으면 외교권·군

76) 安秉直, 『三·一運動』, 한국일보사, 1975, 94~97쪽.

사권·재정권을 비롯한 국권을 주요부분을 일본에게 박탈당하고 소위 '保護國'이라는 半植民地상태에 떨어질 절박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민족적 위기에 나라의 完全獨立을 지키고 일본침략을 몰아내기 위하여 봉기한 것이 동학농민군의 전쟁이었고 전기 을미의병항쟁이었다. 황성지역의 전기의병항쟁은 忠君愛國의 마음으로 항일민족의식을 크게 각성시켜 세고시키고, 한국민족의 抗日力量을 크게 강화하여 축적시켜 중기이후의 항일의병투쟁을 튼튼한 토대와 원동력을 형성하여 공급하였다.

황성지역에서 전개된 3.1운동은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게 되어 그 후 강력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였는데 1919년 4월 17일 상해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참여하고 그 후 1945년까지 국내외에서 꾸준히 끊임없이 일제의 지배를 공격하였다. 황성에서도 탁영재 등 감리교인이 중심이 되어 철원애국단에 참여하여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쳤고, 신간회, 농민조합, 청년회 등의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이는 민족의 독립을 달성하려는 항일민족운동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어사매** (제16호)

V. 어사매 문화마당

**향토문학 동호인 작품**

■ 산문

■ 시

■ 한시

■ 유적답사 기행문

■ 전통문화체험 답사기

## 추억(追憶)이야기 <2>



조 규 영

어린시절의 가을은 더욱 애뜻한 향수를 불러 모은다. 지금처럼 횡성앞들의 곳곳이 아파트와 건물등으로 잠식되어있지 않았던 시절, 횡성앞들의 가을은 누가 보아도 흡족스러울 만큼 넓어 보였다.

한낮의 높푸른 가을 하늘에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수많은 고추잠자리떼가 പറ랑하늘을 수놓았고 누렇게 물드는 들판에 두팔을 벌리고 서있는 허수아비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함께 아직 고개를 숙이기에는 조금 이른듯한 벼이삭에 극성스럽게 물려드는 참새떼를 향해 “휘어이, 휘어이” 힘에 겨운 듯 새쫓는 소리가 들판의 여기 저기에서 들릴 때 쬐이면 여름은 어느새 우리곁을 떠나버리고 가을이 소리없이 시작된 것이다.

어린시절, 이맘때의 일요일이되면 나는 어김없이 동네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밤을 떠러가는 것이 거의 일상화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궁핍하기만 하였던 그시절, 분명 아침저녁으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 지금같으면 행여 감기라도 걸릴새라 서둘러 가을옷으로 바꿔 입어야 할 철이었지만 우리들의 옷차림은 온여름내 입어 낡을대로 낡어버린 메리야스상의(그때당시 “난닝구”라 불렀음)에 흰색 옆줄무늬가 있는 검정색 고무줄 반바지였던 그 당시 학교 운동복 하위가 전부였다.

물론, 신발은 맨발에 고무신이었다.

이러한 모습으로 대여섯명이 한패가 되어 밤을 떠담시고 주로 많이 갔던곳은 공근면의 “오미”(오산리)라는 동네였다.(물론, 이 곳외에도 여러곳을 많이 다녔다.)

그 “오미”동네를 가는길은 우리들 나름대로 대략 두 개의 코스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구리고개를 넘어 뒷내다리 건너 큰 골에서 우측골짜기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따라가는 한적하기만한 길이었다.

논둑길 보다 조금더 넓은 길 양편으로는 이름모를 풀들이 무성하여 풀숲을 이루었고



그 풀숲과 맞닿은 산쪽으로는 이따금 소담스러운 산딸기가 눈에 띄어 우리들을 산쪽 수풀속으로 유인 하기도 하였는데 우리는 서로 먼저 딸기를 차지하기 위해 가시덤불에 찢러가며 정신없이 풀숲을 뒤흔다 뱀을보고 무척 놀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단 발견된 뱀은 어떻게해서든 잡아 죽여야 한다는 그당시 우리들 사이에서 지켜지던 일종의 불문율에 따라 우리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 무슨 큰싸움이라도 벌인 듯 돌로치고 나무뭉둥이로 때려 기어이 뱀을 잡아 작살을 내놓고야 말았던 기억이 새롭다.

또, 숲옆으로는 맑은 물이 길을 따라 길다랗게 흘렀는데 물이 조금 고여있는 웅덩이 같은곳에는 그때 당시 “중타리”라고 불렀던 세법큰 물고기떼가 많이 있어 우리는 이것을 잡겠다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텀벙대며 범석을 떨기도 하였다.

이렇게 오솔길을 따라 떠돌며 걸으며 가다보면 가파른 고개를 지나 다다르게 되는 “뒤룬” 고개 마루의 서낭당(성황당)소나무 앞에는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던져놓은 돌무더기가 마치 무덤처럼 쌓여 있었다.

웬지 이곳을 지날때에는 머리끝이 쭈뼛해지며 무서운 생각이들어 우리는 공연히 큰소리로 떠들어 대면서 서로 대열맨끝으로 처지지 않으려고 경쟁하듯 앞다투어 줄행랑을 치기도 하였다.이곳, 산마루에서 왼편쪽으로 급경사진 산중턱에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큰 바위위에 마치 무슨 조형물같이 다듬어진듯한 바위덩어리가 올라 앉아있어 우리들은 물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기도 하였는데 그당시 그곳 어른들로 부터 옛날 삼신할머니가 그바위와 맞은편 산봉우리에 빨래줄을 매어놓고 사 용하였다는 정말로 신기하기만한 말을 듣고 넘어 빠지기도 하였다.

“오미”동네로 가는 또다른길 하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뒷내개울 용바위앞의 개울물을 건너 사람이 다니지 않아 좀 험한 산길인 지금의 약수터 골짜기로 접어들어 잡목과 풀숲을 헤치고 쇠잠 뒷산을 넘어가는 방법이 있었다.

먼저길에 비해 거리상으로는 상당히 가까운편이었지만 워낙 길이 험해 우리들은 이 길을 자주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오미”에서 밤을 다 탄후 귀로시에 먼길로 가다보면 해가 저물어 밤길이 되는 것이 싫기도 하고 또, 집에 빨리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길을 주로 이용하였던 것 같다.

그때당시 “오미”(오산리)에는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저수지옆 산기슭 주변의 밭둑 등, 산에는 밤나무가 무척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무에 잘오르는 친구가 능숙한 동작으로 나무에 올라 준비한 장대로 밤송이를 처 땅에 떨어뜨리면 밑에 있는 우리는 잼싸게 밤송이를 주워모아 고무신발로 비벼가며 주머니 칼로 다듬어 뽕족하게 만든 나무가지로 밤송이 껍질을 벗긴다.

밤송이 까는 것이 아무래도 서툴기만 하였던 우리는 가시에 찢려 손에 피가 나오기도 하였고 점심을 먹지 못한 탓으로 배가 몹시 고팠지만 아픈것도, 배고픈것도 모두 잊은채 오로지 불긋불긋 여물어가는 풋밤을 런닝상의 안쪽으로 배가 불뚝튀어 나오도록 채워넣기에만 정신이 없었다.

몇시간동안을 이런식으로 이나무 저나무 옮겨가며 밤을 따다보면 하루해는 어느사이 서쪽산으로 기울어 버리고 허기에 지친 우리는 저마다 가지고 있던 밤을 풀밭 한곳에 쏟아 모은 후 다시 공평하게 서로 밤을 나눠가지고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 풀숲 오솔길가에 주저앉아 입으로 밤껍질을 “툭,툭” 빨어가며 까먹는 그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풋밤맛은 지금도 잊을수가 없다.

석양을 바라보며 집으로 향하는 산길 옆 비탈길밭에 어찌다 무나 고구마라도 눈에 띄면 우리는 누가 먼저랄것도 없이 서로 앞다투어 달려들어 무와 고구마를 캐 흙을 털어내고 알기로 껍질을 벗겨 배고픔을 달래기도 하였으며 산비탈 깨금(개암)나무에 도토리보다도 작지만 알차게 열린 “깨금”의 고소한 맛에 반해 풀숲을 뒤지다 풀썩기에 쓰여 장단지에 가래뚝이 생길정도로 지독하게 아픈 썩기의 독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아침에 집을 나가 진종일 산에서 헤매다 녹초가 되다시피한 꼴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대개 어둠이 깔리는 초저녁때였다고 생각된다.

그당시 늦게까지 밭일을 하시다 집에 들어오시는 부모님 역시 힘든 농사일에 지쳐 내가 하루종일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 아무런말씀도 없으셨고 나 역시 하루의생활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릴 아무런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아무탈없이 하루를 보낸것에 대해 은가죽이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것이 그시절의 보편적인 가정생활이 아니었나싶다.

전기가 가정에 공급되지 않았던 그시절, 해가 저물어 어두워진 초가을의 신선한 저녁공기와 함께 저녁밥을 짓기위해 마당가 화덕에 지핀 보리짚의 매캐 하면서도 구수한 연기냄새는 지금도 코 끝에 생생히 묻혀있는 듯 너무도 완연하게 머릿속에 떠오른다.

어머니가 해주신 저녁밥상은 지금 생각해보면 투박하고 불품없는 거친 음식이었지만 하루종일 굶다시피한 나에게서는 그야말로 꿀맛일 수 밖에 없었다.

배부르게 저녁밥을 먹은 후 굴속같은 토담방의(6·25직후, 횡성에는 진흙토담집이 많이 있었다.) 회미한 등잔불 밑에 엎드려 몽당연필에 침을 묻혀가며 겨우 숙제를 마치고 나면 이내 깊은잠에 폴아떨어지던 그때가 정말로 그림기만 한 것은 그당시를 함께 지내온 친구들 모두가 거의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느껴진다.

조규영(曹圭英)

한국자유총연맹횡성군지부장(현)

## 간판내린 알고파서점



이효자

며칠사이 가을이 종적을 감추고, 된서리 맞은 잎새들만 우우우 울부짖는다. 그래서 더 썰렁해진 걸음을 걸어 책집에 갔었다.

다 큰 딸 아이와 함께 조정래님의 한강5, 6권을 샀다. 생활이 궁핍하던 예전이나, 먹을 것이 남아도는 지금이나 난두권 이상은 사지 않는다. 딸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난 두권 이상이 무슨 불문율이라도 되는 것 처럼 고집을 꺾지 않는다. 도서상품권을 남겨 두고도 꼭 두권을 넘지 않는다. 거기엔 내 나름대로의 교육적인 비법이 숨어 있기도 했지만, 가난이 뼈에 배었기 때문일 것이다.

흔불 10권을 살때도 그랬고 아리랑 12권을 두권씩 구입하느라 책집 문간을 여섯 번씩 드나든 셈이다. 하여 단골은 단골인 셈이다. 온몸에서 책향기가 담뿍이 배어나는 책집 아주머니는 단골인 나에게 꼭 10%씩만 DC해 주신다. 그런데 갑자기 한강 두권값을 똑 깎아 주시는게 아닌가. 의아해하는 나에게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는 눈치로 “운영이 안 되어서 서점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어요.”하신다.

정말 섭섭했다. 하필이면 나무들도 다 잎새를 떨구는 이 계절에 문을 닫을게 뭐람. 유록색 짙은 봄이나 땀이 뻘뻘나는 여름이면 몰라도 쓸쓸한 이계절에……

난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일하다 급하면 뛰어내려가 참고서를 사고 두남매의 문제집을 번갈아 사던 곳, 돈이 없어도 책을 가져올 수 있고, 문을 닫아도 전화 한 통화로 문을 열어 내집같이 드나들 수 있던 곳이기도 하다.

꽤 서운한 내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아저씨는 출판사가 부도났거나 반품이 안되는 책들을 한 박스 가득히 챙겨 주셨다. 평상시에 책 한권의 선물은 고맙고 고마운 일이지만 문을 닫는 마당에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니 고마움보다는 서운함이 앞선다.

알고파 서점은 다른 지역에서 중복되지 않는 특이한 서점이름이다. 알고파서점이란 글씨가 또박또박 박힌 책갈피들이 방비에 쓸려 나가지 않도록 서랍속에 꼭꼭 가둬 두

었다.

지난 IMF때도 그랬다. 몇몇군데 잡지사들이 회사 재정난으로 책을 중간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운해 하다가, 불시에 미아가 된 그잡지들을 꼭꼭 챙기는 것으로 서운함을 대신 했었다.세상에서 잊혀져갈 그 이름들을 죽은 아버지 자식처럼 애지중지하곤 했었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같이 공존할때는 그 고마움을 잘 모르는 법이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있는 것인지를 미쳐 깨닫지 못한다. 떠나거나 없어지고 나서야 절실함을 알고 그리워하게 된다.

언제나 떠남 앞에 남는건 후회뿐이다. 서점에 주문하면 기다리는데 시간많이 걸린다고 원주가서 사고, 대형서점 책 다 살것도 아니면서 서울 갈때마다 교보문고, 영풍문고 기웃거리고,

싸다고 인터넷에서 한권 한권 사들인게 부끄럽다. 숨겨둔 애인 만나러 횡성 지내 놓고 다니던 그 누구처럼 정말 부끄럽다. 알고파 서점자리 그앞은 지날때마다 두고두고 내 양심에 찢려 내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러나 자책만 하고 있을때도 아니다. 더 늦기전에 횡성○○, 횡성○○○, 횡성○○○○, 횡성의 모든 이름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더 큰 사랑과 깊은 관심으로 내 주변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횡성이 살고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이기에……

# 민 들 레



박 현 숙

이방인에 의해 밝힌  
굳은 가슴 점힌 세월을 열고서  
새롭게 피울 꿈을 만들기 위해  
꽃잎 가득 서리서리 그리움을 매달고  
어슴프레 휘청거리는 방랑자 가슴에  
들릴 듯 말 듯 통증을 이겨내게 한다

그리움이 길어진 꽃술  
애뜻한 사랑으로  
눈 부신 봄을 열어놓은 하늘아래  
가만히 있어도 너무 행복해서  
인적이 많은 발길에 채여도  
움추린 그대를 향해  
노란 봄을 키우는 노래

집착한 언어로 입술을 깨물고  
겸손한 채 작게만 앉아있을 뿐인데  
사는 인생은  
이렇게 삶을 키우고  
아름답다고 말 할 수 있는 입술로  
산책하는 이야기

## 어떤영혼의 동행 취재기



정금자

그가 모처럼 시간을 내었다  
겹겹의 세월을 훌훌 벗어 낡은 뺨대에 걸어두고  
가벼운 차림으로 길을 나선다  
평생 삶의 관절의 꺾던 높은 뜰을 내려서자  
잔등이 다 터진 대추나무 한 그루가  
앞사귀마다 숨겨두었던 햇살을 쏟으며  
눈을 간지럽힌다  
그가 오르내리던 이 길들은 닳아버린  
그의 발자국을 기억하고 있을까

오래 전, 언 윗목 위에 가로놓인 시렁처럼  
도랑을 가로지른 다리를 건너서자 길옆에  
쭉부쟁이가 어지럽게 피고있었다  
자박자박 앞서 건던 그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무덤히 눈길을 내어주다 다시 건는다  
고살길을 막 돌아섰다  
낮익은 얼굴 몇이 손을 흔들고 더러는  
낮은 소리로 그를 부른다  
그가 멧쩍은 듯 헛기침을 몇 번하더니  
빈손을 휘저으며 가볍게 웃는다  
그 웃음이 섬처럼 쓸쓸하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 그의 집이 보이지 않는다  
야트막한 산을 끼고 돌아서는데 눈앞이 환해진다  
그가 야윈 손을 들어 이마를 가린다  
실눈을 뜨고 바라본 곳에 햇살이 한 응큼 꽃혀  
서성거리고 거기서 뿔겨나온 햇발 사이로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오랜 기다림이 배어있는 아름다운 실루엣이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 곁에 내려서 살며시  
그의 손을 잡는다  
마주보던 두 눈길이 가만 풀썩에 눕는다  
그가 보이지 않는다

눈물처럼 땅 위에 떨어진 젖은 봉분 하나  
뒤에 두고 내려오는 길  
여막에서 환하게 웃는 다시 그를 만난다.



## 蟾江秋景



정병류

玩賞秋光到此年	완상추광도차년
蟾江曲水美風煙	섬강곡수미풍연
恐音報候平床下	공음보후평상하
雁陣驚寒洛岸前	안진경한낙안전
邑露黃花粧院畔	읍로황화장원반
鑑霜赤葉映山邊	감상적엽영산변
騷人探景詩筵設	소인탐경시연설
歌酒娛遊忘醉眠	가주오유망취면

금년에도 이르리 추광을 완상하니  
 섬강물 구비에는 풍년이 아름답구나  
 귀뚜라미 때를알아 침상밑에서 울고  
 기러기때 추위에 놀라 물가에 내리네  
 국화는 이슬맞아 원반을 단장했고  
 단풍잎은 서리에 붉어서 산언저리를 비추도다  
 소인 승경찾아 시자리 베풀고  
 술과 노래로 즐겁게 노니니 취함도 잊은채 조는구나

# 初 雪



송 인 석

白雪紛分歲暮初	백설분분세모초
山川一帶玉光舒	산천일대옥광서
扮裝萬樹鳥飛絶	분장만수조비절
銀屑千村人隱居	은설천촌인은거
確信新年豊稔兆	확신신년풍염조
亦宜案榻看詩書	역의안탐간시서
化翁造化誰能識	화옹조화수능식
賞來勝景興楸餘	상내승경흥유여

백설이 세모초에 분분하니  
 산천일대에 옥빛을 폈더라  
 분장한 만수에는 새 날음이 끊어지고  
 은설천촌에는 사람이 은거하도다  
 새해에 풍년에 정조를 확신하고  
 또한 안탐에 시씨보는 것이 마땅하도다  
 화옹에 조화를 누가 능히 알니요  
 승령을 구경하여 오니 흥이 유여하도다.

##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 기행문

안석훈(둔내중학교 1학년)

2002년 4월 17일은 1학년 전체가 우리고장 횡성군의 문화유적을 답사하는 날이다. 이번 문화 유적 답사는 우리고장에는 어떤 문화 유산이 있고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학교에서 08시 30분에 출발하였다. 버스로 가면서 우리고장의 문화유적을 빨리 보고 싶어 졌다. 안흥면의 전빵마을을 지나 강림면의 태종대를 답사하러 갔다. 태종대는 지방문화재자료 제16호로 강림면 강림2리에 위치하였다. 고려 말 4처사의 한 분인 운곡 원천석은 조선 태종(이방원) 즉위 전 스승이었다. 운곡은 태조가 고려를 전복하고 이조를 세우고 그의 아들들이 왕권 다툼에 분노를 느낀 나머지 모든 관직을 거부하고 개성을 떠나 이곳 강림리에 은거하게 되었다. 지금도 벽지인 이곳은 그가 은둔하고 있는 동안 방원이 3대 태종으로 등극하게 되어 왕위에 오르게 되자 1415년 옛 스승인 운곡을 찾아 다시 관직에 봉하고 정사를 의논하고자 이곳을 찾았으나 운곡은 태종과의 만남을 꺼려 피신하게 되었으며 태종은 스승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 후 이 곳을 주필대라 불리오다가 태종이 된 후 태종대라 부르고 비석과 비각을 세우고 보호하고 있다.

태종대 답사를 끝낸 후 횡성읍으로 향했다. 횡성읍을 가면서 강림의병총과 우천면의 한상열의사 추모비와 네덜란드 참전 기념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며 횡성읍으로 향했다.

횡성읍에 도착하여 31공원으로 걸어 올라갔다. 올라가던 중 읍하리 석불좌상과 읍하리 삼층석탑이 보였다. 읍하리 석불좌상은 유형문화재 제22호로 횡성읍 읍하리에 위치하였다.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화강암으로 만들어 졌으며 원래는 공근면 상동리에 있던 것을 일제 시대 때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부처님 특유의 미소와 가부좌를 틀고 앉은 안정된 자세에 몇 백년 역사를 혼자 알고 있는 듯 서있는 횡성읍의 명물인 느티나무 밑에 자리잡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다. 좌상은 525cm 높이의 기단

위에 놓여 있으며 광배는 보기 드문 연화무늬와 2구의 불상이 조각되어 있다. 고려중기의 작품으로 화강암으로 만들어 졌다. 원래 횡성읍 교항리에 있던 것을 일제 때 31공원 안으로 옮겨왔다고 하며 기단부는 없고 옥신과 옥개석이 각각 하나의 도로 되어 있다. 석탑과 석불좌상을 본 뒤 31공원으로 올라 가보니 층흔탑이 보였다. 순국선열께 묵념을 한 뒤 31 운동비와 횡성군민만세운동 기념비를 둘러 보았다. 둘러보면서 도내에서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횡성 군민의 단결심과 애국심은 다른 고장에서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태풍루도 답사하였다. 태풍루는 옛날 원님이 정사를 보던 곳으로 정래승 현감이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뜻에서 건립한 것이다. 이 밖의 향교, 세덕사 등은 버스로 내려오면서 설명을 들었다.

횡성읍의 문화유적지를 둘러 본 후 서원면의 풍수원천주교회로 향했다. 풍수원천주교의 건물이 멋있었다. 풍수원천주교는 유형문화재 제69호로 서원면 유현리에 위치하여 있다. 이 교회는 한국 신부가 지은 최초의 성당에 의미가 있다.

다음 답사지인 공근면의 장승모 도자연구원에 갔다. 점심을 먹은 뒤 둘러보았다. 난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맥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 생활 속에 조상의 숨결을 뿌리내리고 나아가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장승모씨를 존경하였다. 다음으로 공근면 상동리 석불좌상과 3층석탑을 보았다.

석불좌상은 지방유형문화재 제20호로 공근면 상동리에 위치하여 있다. 이 좌상은 광배만 파손되어 흩어져 있을 뿐 대좌와 불신이 완전한 불상이다. 뚜렷하게 솟은 육계, 촘촘한 나발의 머리칼, 둥글고 복스러운 얼굴은 신라 전성기의 이상적 사실미가 엿보였다. 또 당당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 항마촉지인을 짓고있는 팔과 손, 결가부좌한 다리, 통견한 불의의 유려한 옷 주름 등은 역시 이상적인 사실미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대좌는 8각연화좌인데 하대는 문혀있고, 상대는 양련을 새겼으며, 중대의 8각간석에는 안상을 새긴 전통적인 9세기 불상좌상 특징을 보여주는 좌상이다. 그 옆에 있는 상동리 삼층석탑은 지방 유형문화재 제21호로 공근면 상동리에 위치해 있다. 석탑은 기단부가 땅속에 묻혀 있으나 기단부는 1탱주가 새겨져 면석의 일부와 갑석만 보일 뿐이어서 불확실하지만 당시의 보편적인 예로 보아 이중기단으로 생각된다. 사분원과 각형받침 위에 있는 3층의 탑신과 옥개석은 장중한 편인데, 큼직하고 높은 1층의 탑신에 비해서 급격히 줄어든 2층탑신과 듬직하고 원만한 옥개석 등 각 부분의 양식이 잘 나타나 있다.

두 유물 모두 잘 보존하여야 하겠다.

다음으로 갑천면의 횡성댐에 갔다. 횡성댐은 높이 48.5m에 길이 205m의 중앙 차수벽형 석괴댐으로 횡성군 갑천면 대관대리에 위치해 있다. 횡성댐은 홍수방지와 물 부족을 줄이기 위해 만들었다. 댐은 연간 111.6백만㎡의 용수를 공급하고 9.0백만㎡의 홍수 조절능력을 가지고 있는 댐으로 연간 104G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중소도시에 공급한다. 우리들이 갔을 때에는 물이 조금 만 차 있었다. 가뭄이 심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었다. 다음으로 구방리 방향의 동상에 있는 증금리 3층석탑을 답사하였다. 많이 훼손되어 있던 것을 1974년 복원하였다. 삼층석탑은 지방 유형문화재 제19호로 갑천면 구방리 방향의 동상에 위치하였다. 이 탑의 정확한 연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추정연대는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되며 횡성댐건설로 수몰지역에 있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청일면의 신대리 삼층석탑과 봉복사를 답사하러 갔다. 신대리 삼층석탑은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청일면 신대리에 자리잡고 있었다. 발 한가운데에 있었다. 높이 4.66m의 석탑으로 자장율사와 얽힌 전설이 있다. 자장율사가 지금 탑이 있는 곳에 거처를 지으려고 하였으나 절을 지으려는 목재를 한밤중에 마귀들이 훔쳐가고 방해를 하여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의 절터에다 절을 세우고 그 기념으로 이곳에 탑을 세웠다고 하며 그 후에도 마귀들이 짓곳은 장난으로 인해 탑신이 없어졌다고 전해진다. 기단 갑석은 아무런 괴임이 없이 탑신부를 받들고 있다. 각 층의 탑신에는 양 우주가 모각되고 옥개석 받침은 각층이 5단씩이다. 상륜은 노반석 하나가 남아있다. 각부의 양식과 수법으로 보아 이 석탑은 고려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미있는 전설인데 마귀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봉복사는 전통사찰 제14호로 청일면 신대리에 있다. 횡성군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절이었다. 하지만 한국전쟁당시 다 불타버려 법당과 부속건물만이 남아 있다. 타버려 보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버스로 돌아 왔다.

답사를 끝낸 뒤 학교로 향했다. 오후 4시에 학교에 도착하였다. 학교하면서 생각하였다. 우리횡성군에도 역사적가치가 있는 유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밖의 유적을 답사해 보고 싶으나 시간이 아쉽다. 답사를 하면서 많은 유적들이 훼손되어 복원작업을 많이 실시한 관계로 세월의 색깔과 느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듯 같아 아쉬웠다. 지금부터라도 문화유적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우리 후세들도 조상들의 얼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겠다.

##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 기행문

송혜영 (둔내중학교 1학년)

나는 4월23일 둔내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횡성군 문화유적답사를 갔다.

들뜬 마음으로 제일 먼저 간 곳은 강림면에 위치하고 있는 태종대였다. 이 곳은 비각으로 운곡 원천석 선생과 태종의 시절과 관계되는 유적이라 한다. 태종대는 스승을 찾는 제자의 마음, 신하라 하더라도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충신의 마음이 남아있는 곳이라 생각된다.

태종대 답사를 하고 우천면을 지나 횡성읍 3·1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읍하리 석불좌상, 삼층석탑, 3·1운동기념비, 횡성군민만세운동기념비, 충혼탑, 오우덴중령현충비, 태풍루로 갔다. 읍하리 석불좌상은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원래는 공근면 상동리에 있던 것인데 일제시대 때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읍하리 석불좌상은 느티나무 아래서 자비로운 부처님의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읍하리 삼층석탑은 읍하리 석불좌상과 함께 3·1공원을 찾는 이들의 발길을 끌고 있었다.

3·1운동기념비는 도내에서 가장 활발했던 독립운동지 이었음을 상징하는데 1972년 8월 15일 횡성군 3·1운동 독립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가 주최가 되어 동아일보사의 후원으로 동상과 기념비가 건립되었다고 한다.

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비는 정부공인의 3·1운동 유적지를 상징하며 충혼탑은 6·25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또 오우덴중령 현충비는 횡성전투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1956년 10월 12일 당시 제1군사령관이 건립했다.

그 다음으로 전학한 곳은 서원면에 위치하고 있는 풍수원천주교회인데, 이 곳은 한국인 신부가 지은 한국최초의 성당이며, 1846년부터 한국최초의 천주교신자였던 이승훈의 조카인 목신부와 함께 선교활동을 했던 곳이다.

우리는 공근면에 있는 장송모 도자연구원에서 아침에 정성스레 싸운 도시락을 먹었

다. 일정이 조금 바뀌어 늦게 먹기는 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모여 나누어 먹은 도시락이어서 인지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점심을 다 먹고 장승모 도자연구원을 돌아보았는데 이곳은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의 맥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 생활 속에 숨결을 뿌리내리고 나아가 전통공예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상동리 석불좌상, 3층석탑을 답사하였다. 상동리 석불좌상은 신라 전성기의 이상적인 사실미를 듬뿍 풍겼고 중대의 8각간선에는 안상을 새긴 전형적인 9세기 불상 대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상동리 3층석탑의 특징은 듬직한 탑신이며 장중하고 원만한 옥개석이다.

그 다음으로 답사한 곳은 황성군 다목적댐인데 이 곳은 섬강 중·하류지역의 갈수기 때 용수부족과 홍수피해방지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남한강 지류인 이 곳 섬강에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건설했다.

그리고 갑천면에 위치하고 있는 구방리 망향의 동산과 중금리 3층석탑은 갑천면 중금리에서 탑둔지로 불리는 발 가운데 동서로 약 8m의 거리를 두고 3층석탑 2기가 서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이 곳은 신라시대의 사찰이었으나 도둑 떼가 들끓어 당시 관에서 불태워버려 탑만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대리 3층석탑과 봉복사를 다녀왔는데 봉복사는 황성군에 있는 사찰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신라 선덕여왕 16년인 647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이·택·상 삼위를 봉안한 절로서 건축물이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향하였다.

이 곳 저곳을 많이 다녀 다리가 너무 아프고 피곤했지만 우리 고장의 유적지를 몸소 답사함으로써 황성에 대하여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어 보람 있는 날이었던 것 같다. 이번 향토문화답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황성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커진 것 같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가게된다면 이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리 실태조사를 하여 더욱 보람차게 답사할 것이다.

## 독립기념관 전통문화체험을 마치고

오 광 섭(서원중학교 1학년)

첫 번째 날 우리 학교 학생들은 오전 8:30까지 등교를 하였다. 인원 점검을 하고, 버스도 오고 무척 가슴이 설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기대감보다는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을 두드렸다. 한껏 두려움에 찬 나는 길을 나서자마자 그것이 곧 사라지고 말았다. 오히려 난 기대감과 흥분으로 콧 차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마음이 오래 가질 않았다. 아니 하늘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았다. 목적지는 천안(유관순 열사가 때어난 곳, 아우네 장터가 있다.) 충청남도 천안이었다. 경기도를 지나고 충청북도를 지나서 더 가야만했다. 3시간 남짓. 독립기념관이란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길을 굽이 굽이 지나서 탑이 나타났다. 엄청난 높이의 탑이. 우리가 탄 버스는 겨레의 집 앞에서 멈추었다. 엄청난 규모, 위엄 있어 보이는 자태가 나를 하염없이 작게 그리고 볼품 없게 만들어 버렸다. 와서 보니 우리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북 지역의 3개 학교와 우리 학교가 같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래서 먼저 학교별로 대표가 나와서 학교 소개를 하였다. 그리고 나서 독립 기념관의 7개 전시실을 관람했다. 한국의 역사와 일본의 만행, 무기력했던 우리 정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활약했던 의병들, 광개토태왕비, 거북선, 모두다 나에게서는 정말 신기한 것이었다.

두 번째 날, 어제 밤에는 저녁 늦게까지 설레임과 친구들과의 대화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민속체험 마당을 하였다. 줄넘기, 떡치기, 엮치기, 투호도 해보았고, 말도 처음 보았다. 말은 집에 소하고 크기와 몸집이 비슷했는데 어쩐지 말이 훨씬더 멋있었다. "나도 말 한 필 만 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또 국궁이란 것도 해보았다. 활을 당겨보았는데 엄청 힘이 들었다. 아쉽게도 과녁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지만 생전 처음 활을 쏘아보았기 때문에 난 팔에 멍이 들기까지 하였다. 또 오후에는 오리엔티어링이란 것을 해보았다. 오리엔티어링, 처음 듣는 말이



다. 그런데 오리엔티어링 협회도 있다니... "언제 그런 것이 생겼지?"란 의문이 저절로 떠오른다. 이 게임은 지도와 나침반(오리엔티어링용 나침반이 있다.)으로 컨트롤 마크를 찾아 나누어준 종이에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다. 그러나 나의 신체구조(아실 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조금 나간다) 때문에 뒤로 뒤쳐졌다. 결국 뒤따라 가보았지만 5분 정도 걸은 뒤에야 친구들을 만났다. 하지만 첩첩산중이라 친구들 중 1명이 실종(?)되었다. 혼자 컨트롤 마크를 찾는다고 하고선 사라져 버린 것이다. 찾아 나선 지 10분쯤 지났을까? 결국 찾아내었다. 정말 잊지 못할 사건이었다. 저녁을 먹고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하였다. 거북선 모양의 받침대에 불이 피어오르고, 드디어 마지막 밤의 축제가 시작되었다. 폭죽과 함께 노래가 들려왔다. 우린 함성도 지르고, 춤도 추고, 모여서 얘기도 하고... 생애 잊지 못할 축제였다. 불이 꺼지고 캄캄한 밤하늘에 별을 올려보았다. 폐가수스자리, 카시오페아자리, 등등 별자리를 올려다보았다. 드넓은 하늘에서 별자리를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별을 보는 우리들 모두의 마음은 이미 별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들의 마지막 밤은 깊어만 갔다.

세 번째 날, 우리는 다시 독립기념관으로 갔다. 가는 도중 통일 염원의 동산에 올라가서 통일 염원의 종을 쳤다. 엄청난 크기의 종이었는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귀가 따가웠다. 독립기념관으로 내려와 인성 게임을 하였다. 쉬운 게임이었다. 하지만 재미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되는 게임이었다. 다음 기 체조를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기체조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되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잘 들어 보고 느껴 보아야지. 아쉽다. 그리고나서 우리는 아직 생존해 계시는 독립운동가와의 대화를 하였다. 일제점령기 당시 김구선생님의 비서이셨던 김우전님께서 오셨다. 그 선생님의 인생이야기를 통해 그 당신 비참했던 우리 나라의 실태를 알 수 있었다. 점심을 먹은 후 사물놀이 하였다. 정말 대단하였다. 우릴 가르친 선생님과 그의 패는 엄청난 실력을 가진 것 같았다. 난 쟁과리를 쳐보았다. 사물놀이는 전에도 해 봤지만 맨날 다른 것만 쳐본 나는 쟁과리를 처음 쳐봐서 그런지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2박 3일 동안의 우리의 전통문화 체험학습은 끝이 났다. 난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내 생전 처음으로 해 보았고, 또 전에는 모르고 지났던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그리고 스스로 많이 성장한 듯 하였다. 이런 경험과 기회를 우리 학교에 무료로 베풀어주신 독립기념관과 횡성문화원에 감사드린다.

VI. 문화원 소식

■ 2002 주요사업

- ▶ 지역사회교육사업
  - 전시회
  - 문화예술제
  - 문화 및 향토사강좌
- ▶ 향토문화교육사업 및 국제교류
  - 문화유적지 순례
  - 문화학교 및 문화사랑방운영
- ▶ 향토문화보존전승사업
  - 문화제
  - 전통민속예술경연출연
- ▶ 애향활동 전개사업
  - 애향지발간 및 기념행사
- ▶ 향토사료 발굴 조사 사업
  - 구비문학발간
  - 향토사료발굴 및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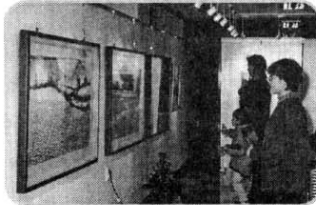
## 문화원 소식

### 지역사회 교육사업

#### 전시회

본 문화원에서는 각종 전시회의 지원과 협력등을 통해 문화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소양과 창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제19회 백합영상회사진전 후원 (11/15~9)
- 제18회 그림샘미술전 후원 (11/28-12/2)
- 제10회 연목회서예전 후원 (12/6~8)
- 제3기 문화학교수강생작품전시회 (12/26~30)



#### 문화예술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청소년 건전가요제”는 청소년들에게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고 있으며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을 통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순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뮤지컬” 및 “전통국악예술대공연”등의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욕구충족과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 제6회 청소년건전가요제 (5/25)
- 어린이 뮤지컬 “정글북”공연 (5/3~4)
- 창작뮤지컬 “아기돼지 6남매” (8/30)
- 전통국악예술대공연 (10/29)



#### 문화 및 향토사 강좌



내일의 황성을 잃어질 고장의 후학들(황성고, 여고3학년생 170명)에게 향토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고양시키기 위해 예비역 이병열 장군을 강사로 초빙, “황성 그 미래의 테마”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실시했다.

- 향토사 강연회 (12/9)
- 향토사 강연회 (12/27)

## 향토문화 교육사업 및 국제교류

### 문화유적지 순례

향토선인들의 고귀한 정신과 문화유산을 연구·관찰하기 위한 문화유적지 순례가 관내의에 걸쳐 매년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부터는 남북 및 국제문화교류로 순례의 폭을 확대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계층이 국내외 문화유적을 답사할 수 있는 기회확대로 문화유산·유적의 중요성을 제도해 나갈 계획이다.



-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
  - 둔내중학교 (4/17)
  - 공근중학교 (4/24)
  - 우천중학교 (4/25)
- 관외 문화유적지 답사 (7/24)
- 남북문화교류 유적지 답사  
(1차 3/8~10, 2차 5/3~6, 3차 5/13~15)
- 국제 문화교류  
(1차 5/5~11, 2차 7/16~21)



### 문화학교 및 문화사랑방 운영사업

군민의 취미생활은 물론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있는 문화학교 및 문화사랑방 운영이 해를 거듭할 수 록 군민의 정신문화를 신장시키고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수 있다.

본 문화원은 이에 만족치 않고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문화교육 공간으로 본 문화원이 자리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사물놀이기초·사물놀이기능·서예교실·국악교실(3월~12월)
- 전통문화 체험학습 운영 (7/30~8/8)  
(9/25~27)

## 향토문화보존전승사업

### 문화제

본 문화원에서는 우리만의 독창적 문화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문화제 행사를 주최하고 있으며 우리군민의 자긍심고취와 정서함양에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제16회태기문화제 (2/26~27)
- 향토문화기록촬영 (년중)



### 전통민속예술경연 출연

본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학교 수강생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국악 및 사물놀이패는 각종 전통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기량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통민속예술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잊혀져가는 우리 가락과 소리를 비롯한 풍물놀이 등이 우리들 생활속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종대회의 참가를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제7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 출연 (7/1)

- 제11회 강원국악경연대회 출연 (10/25)



## 애향활동 전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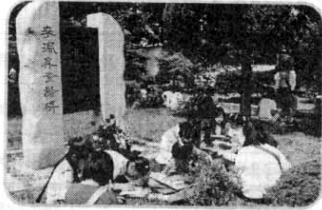
### 애향지 발간 및 기념행사

향토인물을 발굴하고 선양을 통해 고장의 정체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문화원은 10월의 강원문화인물로 선정된 "고형산 선생"의 현대적 재조명을 위해 독립기념관 교육개발부장 강대덕 박사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우리고장의 순수향토지로서 향토문화를 창달해 나가는 "어사매17호"를 발간, 전국문화원 및 사회단체, 교육기관, 출향인사, 회원 등에 배포했다.

17호에는 횡성역사와 문화의 재조명 학술세미나 발표논문과 "복술의 송경"에 관한 연구논문 등 다수의 연구문이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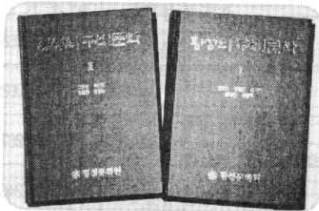


되어 질을 항상 시키고자 노력했으며 또한, 우리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학인들이 투고한 작품을 수록·발간하는 “횡성문학지 제8집”을 후원 발간하였다.

- 어사매 제17호발간
- 횡성문학지 제8집발간 후원
- 이연승 동시비건립5주년 어린이 글짓기대회 (5/22)
- “고형산 先生”선양 강연회개최 (10/16)
- 4·1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 (4/1)

## 향토사료 발굴 조사 사업

### 구비문학발간



9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횡성의 민속, 설화, 수수께끼, 농사개관, 농요개관, 민요 등 민중들의 삶과 관련된 내용을

채집·수록한 향토사료 제18집 “횡성의 구비문학”이 발간됐다.

- “횡성의 구비문학”발간 (6/20)
- (공저:정재영, 박관수, 이영식)

### 향토사료 발굴 및 연구

향토사료 발굴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하고 있는 향토사료 제19집에 수록하기 위한 “횡성의 민족사운동”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림대 사학과 최창희 교수, 춘천교대 김홍수 교수, 강대덕 박사를 사료조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용역을 발주했다.



횡성지역 애국선열들의 항일의병활동과 해외독립운동사료를 조사,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수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03년도에 발간될 예정이다.

- 향토사료 제19집 “횡성의 민족운동사”발간자료수집 용역
- 향토문화사 연구발표회 응모 (11/7) 이영식(향토사료조사위원) 최우수상 수상
- 제17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응모 (11/20) 이영식(향토사료조사위원) 장려상 수상

## 횡성문화원 임원명단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장	자 택
원장	이 일 영	횡성읍 읍하1리 69 (HLP 011-9919-2666)	343-2669	343-0808
부원장	전 인 환	횡성읍 조곡리 433 (HLP 017-375-2070)		343-7700
"	양 기 호	공근면 학담리 205 (HLP 011-374-8328)		762-8328
이사	권 용 환	횡성읍 조곡리 70		345-0555
"	김 광 수	횡성읍 읍상리 284 (HLP 011-371-2618)	343-2618	343-5100
"	김 윤 수	공근면 학담2리 성골 (HLP 011-377-2181)	344-7896	343-2181
"	김 상 경	횡성읍 마산리 451-3		343-3514
"	양 중 하	우천면 정금리 849-3		343-2602
"	오 세 민	둔내면 둔방내리 108-9(HLP 011-361-2633)	342-5888	
"	유 관 종	우천면 용둔리93(HLP 017-338-2706)		342-2706
"	윤 만 복	횡성읍 읍하3리 215-3(HLP 011-377-2572)		343-2575
"	윤 춘 식	횡성읍 읍상1리 333	343-1286~8	343-3349
"	이 석 원	횡성읍 읍상1리 346 (HLP 011-361-3488)	343-3518	343-3526
"	정 두 영	횡성읍 읍하리 299-6	343-2404	343-0694
"	정 재 영	횡성읍 북천리 영진아파트 A-201(HLP 011-367-3618)	343-7963	343-3336
"	조 원 섭	횡성읍 입석리 (HLP 016-9221-8545)		343-2685
"	조 원 용	횡성읍 읍하리 대동 아파트 101-1307	340-2206	344-0939
"	한 상 래	횡성읍 입석리 162-8	343-3553	343-2670
감사	전 상 국	횡성읍 입석리 65		343-2466
"	진 광 수	횡성읍 입석리 162-1		342-7777

## 횡성문화원 회원명부

2002년 12월 12일현재

NO	성명	주소	자택	직장
1	강대령	서원면 창촌1리 548-3	343-7647	
2	고명규	횡성읍 읍하리 511-16	343-3337	345-1013
3	고석용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3-1305	011-374-9088	344-9080
4	고한석	공근면 수백리 295	343-6336	
5	곽호근	횡성읍 읍하리 원흥아파트 102-1204	345-8298	
6	구본섭	횡성읍 읍상리 동화꽃화원	343-2752	343-2752
7	권용환	횡성읍 조곡리	345-0555	
8	권옥래	횡성읍 입석리 65-8	343-2686	
9	김관수	공근면 수백리	343-6821	
10	김광수	횡성읍 읍상리 284 백우사장	343-5100	343-2618
11	김남준	횡성읍 읍상2리	343-3603	
12	김동근	횡성읍 내지리 217	343-3959	
13	김두선	횡성읍 읍상4리 동원아파트 209호	343-2495	345-8504
14	김미영	횡성읍 읍하리 금광포란재 APT 104-1306	343-3315	
15	김병기	횡성읍 입석리 65-17	343-3172	
16	김병남	횡성읍 복천2리 115-57	340-2601	
17	김상결	횡성읍 마산리 451-3	343-3514	
18	김수암	우천면 우항1리	342-6459	
19	김순옥	서원면 옥계2리 466	342-8211	
20	김승진	횡성읍 읍하리 금광포란재 아파트 102-606	343-2711	340-2229
21	김용진	우천면 두곡리	342-6135	
22	김용화	횡성읍 읍하3리 267	343-5038	
23	김윤수	공근면 학담2리 성골	342-2181	
24	김재율	둔내면 둔방1리 179-2	342-1480	
25	김정용	횡성읍 읍상리 315-8 김약국	343-2707	
26	김진혁	우천면 문암리 55	342-6019	
27	김찬흠	횡성읍 읍상4리 306-2	343-2533	
28	김창식	횡성읍 읍하리 73-6 국도광고	343-4900	343-2100
29	김천수	횡성읍 마산리 493	343-3434	



## 횡성문화원 회원명부

2002년 12월 12일현재

NO	성명	주소	자택	직장
30	김철호	횡성읍 복천리 영진아파트 B-101	343-2689	
31	김현주	우천면 상하거리	342-6518	
32	남기영	횡성읍 마산리 2반 66	342-8444	
33	도광태	원주시 단계동 롯데아파트 3-504	742-8229	343-0207
34	도창혁	횡성읍 읍하리 금광포란재아파트 106-907	343-5946	343-3229
35	민영진	횡성읍 복천리 영진아파트 B-401	343-4073	
36	박관수	안흥면 소사리 1334	343-1115	343-6255
37	박덕식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607	343-8384	344-8384
38	박동근	홍천군 남면 시동리	432-4529	
39	박명선	서원면 창촌1리 397	342-8339	
40	박순성	횡성읍 입석리 192	344-0758	343-9362
41	박태식	횡성읍 가담1리 468	342-2609	
42	방규진	횡성읍 복천리 148 횡성읍사무소	343-9661	343-2482
43	서강민	서원면 창촌1리 546	342-8680	
44	서제원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3-907	343-5812	
45	석원수	횡성읍 복천리 137-5 영진아파트 102호	343-6900	343-3370
46	송인석	둔내면 영랑리 539	343-1774	
47	신구선	횡성읍 복천리 115-37	343-1350	
48	신동환	횡성읍 마산리 333	343-3765	
49	신상선	횡성읍 읍하리 422-2	343-8910	342-4063
50	심진황	횡성읍 읍하리 섬강아파트 1-203	343-7841	343-2271
51	안병성	둔내면 자포리 409	342-1155	
52	안병화	횡성읍 읍상리 원홍아파트 102-505	343-0641	343-6975
53	양기호	공근면 학담리 205번지	762-8328	
54	양우환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707	343-9526	343-7364
55	양중하	우천면 정금리 849-3	342-2602	
56	오세민	둔내면 둔방내리 108-9	342-5888	342-5888
57	우광수	태백시 철암동 철암중.고관사 A-102		
58	원종준	횡성읍 읍하리 110 한림서당	343-3162	
59	원종택	횡성읍 읍하리 75-5 명문사	343-2653	343-2653
60	원종훈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304	343-7920	

## 횡성문화원 회원명부

2002년 12월 12일현재

NO	성명	주소	자택	직장
61	유관종	우천면 용둔리	342-2706	
62	유병규	홍천군 남면 명동리	432-4252	
63	유인상	횡성읍 읍하1리 115-11 횡성치과	343-8890	
64	유장근	둔내면 현천1리 139	342-2130	
65	유태선	횡성읍 읍하리 90-2	343-6717	
66	윤만복	횡성읍 읍하3리 215-3	343-2575	
67	윤병덕	서원면 창촌1리 546	342-8680	
68	윤춘식	횡성읍 읍상1리 333	343-3349	
69	이계범	우천면 정금리 256	342-2761	
70	이돈영	횡성읍 복천리 영진아파트 가-503	343-2755	343-2755
71	이미자	서원면 창촌1리 397	342-8339	345-9905
72	이방우	공근면 학답1리 209-8	342-3412	
73	이병설	횡성읍 개천리 241-1	018-374-3066	343-2982
74	이병오	횡성읍 복천리 영진아파트 A-302	343-6789	011-305-6055
75	이석원	횡성읍 읍상1리 346 횡성새마을금고	343-3526	343-3518
76	이송윤	횡성읍 정암1리 206	345-9905	345-9905
77	이승호	원주시 흥업면 흥업2리 748-2	763-7386	
78	이영식	안흥면 안흥4리 2반 214	342-2094	
79	이일영	횡성읍 읍하1리 69	343-0808	343-2669
80	이장우	횡성읍 가담1리	343-2723	
81	이계구	횡성읍 읍하1리 305	343-2434	343-1202
82	이종근	횡성읍 마산리 13-2	343-2722	343-0207
83	이철우	우천면 정금리 507	342-2665	
84	임종훈	둔내면 자포2리 643	342-1555	
85	임종홍	횡성읍 읍하4리 6	343-2056	
86	전상국	횡성읍 입석리 65	343-2466	
87	전상규	횡성읍 읍상4리 541-5	345-2356	
88	전원표	둔내면 둔방1리	342-2459	
89	전인환	횡성읍 조곡리 433	343-7700	345-5005
90	정건환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206	345-0056	
91	정계철	원주시 개운동 444-15	761-1063	

## 횡성문화원 회원명부

2002년 12월 12일현재

NO	성명	주소	자택	직장
92	정남진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206	345-0056	343-2404
93	정두영	횡성읍 읍하리 299-6	343-0694	343-2404
94	정병유	공근면 공근리	342-3217	
95	정병익	횡성읍 입석리 132	343-2390	
96	정삼영	횡성읍 읍하3리 214-6	343-3130	
97	정영식	횡성읍 읍하리 421	343-1407	345-1111
98	정영철	횡성읍 읍하리 대립연립 303호	343-0310	
99	정왕택	공근면 덕촌리	343-6494	
100	정우철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3-306	343-2818	
101	정윤철	횡성읍 복천리 영진아파트 A-203	343-8292	
102	정인영	횡성읍 읍하택지 550-3	343-8698	
103	정재영	횡성읍 복천리 영진아파트 A-201	343-3326	345-5124
104	조경택	횡성읍 읍상2리 274	343-2742	
105	조규선	홍천군 남면 유치2리 575	432-4802	432-8400
106	조영현	횡성읍 읍상2리 278-10		343-2306
107	조원섭	횡성읍 입석리	343-2685	
108	조원영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1307		340-2206
109	지영수	원주시 우산동 88스포츠	762-7701	743-7737
110	진광수	횡성읍 입석리 162-1	342-7777	
111	진기범	횡성읍 읍상리 278-8	343-3334	343-2687
112	채금순	둔내면 자포1리 455-2	342-1245	
113	최기섭	우천면 상하가리 170	342-6294	342-8923
114	한상남	둔내면 자포곡리 동산아파트 A-203	342-4738	
115	한상동	횡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808	343-4019	
116	한상래	횡성읍 입석리 162-8	343-2670	343-3553
117	한상숙	횡성읍 교항리 22-1 일산기계	343-5527	343-5525
118	한상운	원주시 우산동 120-40	744-0527	
119	함기중	횡성읍 읍상3리 313-7	344-2543	
120	홍성익	우천면 정금2리	342-2671	
121	홍영표	횡성읍 읍하리 90	343-0423	
122	홍창기	횡성읍 가담1리 68-4	345-9301	

---

## 문화원 회원 입회안내

황성군 관내 성인 남·여 거주자로  
학력 및 직업등의 자격 제한없이 수시  
로 누구나 입회 가입할 수 있습니  
다.

(입회비 10,000원, 연회비 20,000원)

안 내 : 황성문화원 ☎ 343-2271

---

## 어사매 제17호

발 행 일 : 2002. 12  
발 행 처 : 황성문화원  
발 행 인 : 이일영  
편 집 : 홍성진  
기 획 / 제 작 : 누리기획

(비매품)

---



## 횡성문화원

TEL. 033-343-2271

FAX. 033-343-7652